



2015. 12



장 성 군

제 출 문

장성군수 귀하

본 보고서를 『장성 필암서원 종합정비 기본계획』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12월

재단법인 한국경제연구소

이사장 송 순 애

참여연구진

책임연구원	김 성 근	지역개발학 박사과정 수료
선임연구원	이 태 형	경 제 학 사
연 구 원	강 상 현	공 학 사 (토 목 기 사)
연 구 원	고 호 선	공 학 사 (건 축 기 사)
연 구 위 원	임 성 춘	역 사 학 석 사
자 문 위 원	이 상 해	성균관대 명예교수(건축학)
자 문 위 원	이 해 준	공 주 대 교 수 (역 사 학)

목 차

I . 계획의 개요	3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3
2. 계획의 범위 및 방법	4
3. 계획의 수행과정	7
II . 일반현황	11
1. 전라남도 및 장성군 일반현황	11
2. 관련계획 및 법규	15
III . 필암서원의 현황	47
1. 조선시대 서원과 서원건축	47
2. 한국 서원의 공간 및 건축적 특징	53
3. 서원현황	58
4. 관리현황	168
5. 활용현황	175
IV . 기본구상	179
1. 정비 기본방향	179
2. 정비 기본구상	186
V . 종합정비계획	193
1. 서원정비계획	193
2. 시설물정비계획	201

3. 경관정비계획	209
4.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테마 개발	224
VI. 서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245
1. 서원관리계획	245
2. 보존관리의 실행체계	246
3. 관리현황 종합	247
4. 활용계획	252
5. 홍보방안	258
VII. 사업추진계획	263
1. 사업추진방향	263
2. 사업투자계획	266
◆ 부 록	269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269
건축물 도면자료	275
문화재청 보고 및 자문 의견서	312

표 목차

<표Ⅱ-1> 전라남도의 경도와 위도의 극점	11
<표Ⅱ-2>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6~2020)과 수정계획(2011~2020)의 비교	16
<표Ⅱ-3>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의 호남권 발전방향 분석	18
<표Ⅱ-4> 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2012~2020) - 시·군별 발전방향	23
<표Ⅱ-5> 제3차 전라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 - 4권역별 비전	24
<표Ⅱ-6> 필암서원의 토지이용계획 검토	26
<표Ⅱ-7> 세계유산 등재절차	44
<표Ⅲ-1> 고종 때의 철폐령에서 제외된 서원 47개소	50
<표Ⅲ-2> 한국 고문서의 분류	70
<표Ⅲ-3> 고문서 4부 분류표	71
<표Ⅲ-4> 필암서원지 구성(1975년본) - 고도서>사부(史部)> 지리류(地理類)	73
<표Ⅲ-5> 소장목판 분류	76
<표Ⅲ-6> 필암서원 편액	80
<표Ⅲ-7> 필암서원 현판 - 확연루기	81
<표Ⅲ-5> 필암서원지 중 서원전도 및 설비기록 편집(1975년본 필암서원지)	74
<표Ⅲ-6> 장성 필암서원 입수통과 좌향	90
<표Ⅲ-7> 장성 필암서원 좌향 현황	90
<표Ⅲ-8> 전당후재형(前堂後齋形)인 필암서원의 주요 공간구성	92
<표Ⅲ-9> 필암서원 개별 건축물 개요	93
<표Ⅲ-10> 필암서원 구성 건축물 연대별 변천과정 정리	95
<표Ⅲ-11> 필암서원 연혁	161
<표Ⅲ-12>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추진 연혁	162
<표Ⅲ-13> 필암서원 경내지역 식재수목 현황	165
<표Ⅲ-14> 필암서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주요업무	171
<표Ⅲ-15> 필암서원 보수 연혁	171
<표Ⅲ-16> 필암서원 보수지원 세부 현황	173

<표Ⅲ-17> 필암서원 주요 고정 지출 내역	173
<표Ⅲ-18> 필암서원 내 소방시설 현황	174
<표Ⅳ-1>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준	181
<표Ⅳ-2> 사적지 조경 정비의 대상	187
<표Ⅴ-1> 건축물 규모 및 양식	194
<표Ⅴ-2> 필암서원 안전시설 현황	199
<표Ⅴ-3> 필암서원 안내시설	205
<표Ⅴ-4> 필암서원 편의시설 현황	207
<표Ⅴ-3> 필암서원 안내시설	205
<표Ⅴ-4> 필암서원 방문객 통계수치	224
<표Ⅴ-5> 서원의 운영 프로그램 및 활용현황	230
<표Ⅵ-1> 서원의 관리 및 활용의 목표	245
<표Ⅵ-2> 서원의 지속가능한 보존·활용계획 요소	249
<표Ⅵ-3> 보전협의체의 주요 활동 내용	250
<표Ⅵ-4> 관광운영조직의 주요 역할	251
<표Ⅵ-5>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주요역할	251
<표Ⅵ-6> 서원 문화의 활용 및 프로그램의 개발유형	252
<표Ⅵ-7> 서원의 프로그램 및 활용	253
<표Ⅶ-1> 필암서원의 보전상태에 따른 개선방향	263
<표Ⅶ-2> 단계별 추진계획	264
<표Ⅶ-3> 단계별 정비계획	265
<표Ⅶ-4> 단계별 추정사업비	266

그림 목차

<그림 I-1> 장성 필암서원 위치도	4
<그림 II-1> 현행 국토계획 및 지역발전계획 체계	16
<그림 II-2>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의 기본 틀	16
<그림 II-3> 제3차 전라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 전남 권역별 비전 및 특화방향	22
<그림 III-1> 서원개념 다이어그램 및 공간배치유형	54
<그림 III-2> 하서 김인후 고향 맥동마을 입구의 필암(筆巖)	60
<그림 III-3>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6권 전라도 장성현(長城縣) - 문필천(文筆川)	61
<그림 III-4> 연재 송선생직상(淵齋宋先生直像)	61
<그림 III-5> 장성읍 기산리 창건당시 서원추정지	62
<그림 III-6> 김정수(金景樹)의 남문창의비각(南門倡義碑閣)	62
<그림 III-7> 필암서원상량문	63
<그림 III-8> 증산마을 복설당시 서원추정지	62
<그림 III-9> 필암서원 액호 하사 기록(1659년)	64
<그림 III-10> 김인후 시호 하사 기록(1669년)	65
<그림 III-11> 양자징 추배 허락 기록(1786년)	68
<그림 III-12> 필암서원지 중 서원전도 및 설비기록 편집(1975년본 필암서원지)	74
<그림 III-13> 新八道紀(신팔도기) (196) 長城(장성) <5>	83
<그림 III-14> 장경각 내 목죽도 및 목죽도판	83
<그림 III-15> 우동사 벽면 그림	83
<그림 III-16> 장성 필암서원 위치도	85
<그림 III-17> 단봉함서형(丹鳳含書形)의 필암서원	86
<그림 III-18> 장영훈의 풍수서원	86
<그림 III-19> 장성 필암서원의 입지	87
<그림 III-20> 필암서원 전경 변천과정	96
<그림 III-21> 확연루에서 보는 전망 경관	102
<그림 V-1> 확연루 하부 전경	195

<그림 V-2> 청절당 상부 전경	196
<그림 V-3> 청절당 지붕 전경	196
<그림 V-4> 청절당 외부 벽면 전경	196
<그림 V-5> 경장각 외부 벽면 전경	197
<그림 V-6> 진덕재 기둥 및 마루 전경	198
<그림 V-7> 우동사 협문 전경	198
<그림 V-6> 진덕재 기둥 및 마루 전경	195
<그림 V-6> 진덕재 기둥 및 마루 전경	195
<그림 V-6> 진덕재 기둥 및 마루 전경	195

I.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가. 계획의 배경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사학(私學) 교육의 전형으로서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한국 특유의 공간유형과 건축양식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제향의례와 강학 및 사회교육 등 서원 본연의 기능을 오늘날까지 수행하고 있는 탁월한 문화유산이다.

사적 제242호인 필암서원은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에 소재하며 우리나라 18현인 가운데 한분으로 호남에서 유일하게 문묘에 배향된 하서 김인후(1510~1560)선생을 주향으로 모시고 사위인 고암 양자징(1523~1594) 선생을 종향하고 있는 서원이다.

선조 23년(1590) 장성읍 기산리에 세웠다가 병화로 소실된 후 인조 2년(1624)에 재건되었으며 효종 9년(1659)에 “필암”으로 사액되어 현종 13년(1672) 현 위치로 옮겨 세웠고, 1871년 대원군의 서원철폐 시 훼손되지 않고 존속한 47개 서원 중 하나이다.

2012년 1월 10일 조선 시대의 대표적 서원 9개소로 구성된 『한국의 서원』이 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 확정되었고, 이 중 필암서원도 포함되어 있어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 계획의 목적

필암서원에 관한 철저한 고증과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보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필암서원이 한국의 서원 중 하나로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세계유산 등재기준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제시하고, 진정성(Authenticity)과 완전성(Integrity)에 부합되는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2. 계획의 범위 및 방법

가. 계획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장성 필암서원 일원으로 전남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378 외 46필지 (지정구역 5,832㎡, 보호구역 42,471㎡, 문화재청 고시 제2008-160호) 및 그 외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역



<그림 I-1> 장성 필암서원 위치도

2) 시간적 범위

- 2015년 04월 8일 ~ 2015년 12월 03일

3) 내용적 범위

- ▶ 고문헌 및 기존자료 조사 정리
- ▶ 서원 및 주변 건물 현황조사
- ▶ 기본구상
- ▶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비계획 수립

나. 계획의 방법

1) 자료조사 및 분석

- 장성 필암서원 및 관련 선현의 역사적 배경 정리
- 장성 필암서원 관련 문헌조사(고문헌 해제 등)
- 기존 보고서 및 관련 연구 내용 조사 정리
- 장성 필암서원 정비공사에 관련된 자료 조사

2) 현황조사

가) 장성군 일반현황 조사

- 입지 및 자연환경, 인문사회환경, 역사문화환경 등

나) 장성 필암서원 현황조사

- 서원 내·외부 건축물에 대한 파악 및 배치, 건물 구조와 양식 조사
- 도면은 기존 보고서 및 정비공사 관련 자료를 활용
- 토지이용 및 시설물 현황 파악
- 주변의 교통이용 및 경관 현황 검토

다) 관련 계획 및 법규검토

- 관련 계획 : 국토종합계획 및 상위계획을 조사하고, 상위계획에서부터 부처별 관련계획을 검토
- 관련 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장성군 조례 등

라) 여건분석

- 현황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각종 문제점 및 잠재력 등을 분석
- 자료분석을 통한 보존, 활용, 개발 등 정비계획 여건분석
- 각종 의견 수렴 및 반영

3) 사례조사 및 분석

- 국내 서원 정비계획 사례조사 및 분석
- 기존 정비현황의 장단점 비교검토

4) 기본구상

- 기본방향 설정
- 기본구상

5)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 정비 기본도면 작성
- 토지이용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
-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계획
- 관리 및 활용계획

6) 사업추진계획

- 연차별,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제시
- 추정 소요사업비 산출 및 단계별 투자계획 제시

7) 기타 사항

-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유네스코 권고사항을 충실히 연구에 반영

3. 계획의 수행과정



II. 일반현황

1. 전라남도 및 장성군 일반현황

가. 전라남도 일반현황

1) 위치

전라남도는 동북아시아의 대한민국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다 건너 서쪽으로는 중국과 마주하고 있고, 동남쪽으로는 일본이 자리하고 있는 동북아의 중심이자 유라시아 대륙의 기점이며,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관문이다.

하천은 서남부 및 서북부의 광대한 평야를 유역에 형성시켜 비옥한 농토를 제공하고 목포만으로 유입하는 영산강과 전북에서 발원하여 전남북의 동부산악 지대를 흘러내리고 있는 섬진강 장흥군과 강진군 유역을 흐르는 탐진강으로 삼분되며, 평야는 영산강 유역의 나주평야가 전북의 호남평야와 더불어 우리나라 굴지의 곡창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표 II-1> 전라남도의 경도와 위도의 극점

지점	경도와 위도의 극점			연장 거리 (km)
	지명	극점		
		동경	북위	
동단	여수시 남면 연도리 작도	127° 54 ‘ 28.8 “	34° 24 ‘ 47.0 “	동서간 극점간 : 262.8 육지부 : 145.3
서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125° 05 ‘ 00 “	34° 06 ‘ 45 “	
남단	완도군 소안면 장수리	126° 38 ‘ 28.0 “	33° 54 ‘ 57.5 “	남북간 극점간 : 175.9 육지부 : 136.4
북단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126° 49 ‘ 12.5 “	35° 29 ‘ 00.0 “	

2) 기후

전남의 기후는 온난성 외에도 여름의 고온과 겨울의 저온의 기온차가 큰 대륙성 기후이고, 여름의 우기와 겨울의 건기가 나타나는 계절풍 기후이기도 하다.

또한 전남의 기후는 원칙적으로 한반도의 기후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나 그 지리적 위치로 보아 한반도의 남서쪽에 자리하고 있어 바다에 면한 지역이 넓고 해안선이 길어 해양성 기후의 특징이 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소백산맥, 노령산맥 등의 산악지대와 이들 산지로부터 발원한 하천들이 형성한 내륙의 분지 지역들은 해안 및 도서지방과는 기후적 차이를 나타내어 대륙성기후의 특성을 나타낸다.

연평균 기온을 보면 남해안 및 서해안 지방이 약 13~14℃이고 연간 강우량은 약 1,289mm정도다. 겨울에는 지형적 요인에 의하여 소백산맥의 서쪽 비탈진 경사면에 눈이 많이 내린다.

남서해안에는 난류인 제주해류가 들어오지만 그 세력이 미약하고 발해방면에서 남하하는 한냉한 연안류가 남쪽의 다도해까지 내려와 남서해안 일대에 과우 현상이나 짙은 안개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나. 장성군 일반현황

1) 위치

장성군은 전라남도의 최북단에 있는 곳으로 서울에서 내려올 때는 전남의 관문에 해당한다. 즉 호남선 철도와 고속도로가 전북과 경계가 되는 갈재(蘆嶺)를 거쳐 전남에 진입하고 있다. 예부터 노령의 우람한 입암산성과 방장산은 장성뿐만 아니라 전남의 울타리가 되었다.

이러한 지세는 땅이름에 그대로 반영되어 백제 때 고시이(古尸伊)를 비롯하여 통일신라 때 감성(岬城), 고려 때 오산(鰲山)과 장성(長城)이 모두 '산울타리의 골짜기 고을'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산이 둘러있고 물이 굽이쳐 스스로 하늘이 이루었네"라는 조종생의 시에 그 뜻이 그대로 담겨 전해지고 있다.

동남쪽 진원현과 남서쪽 삼계현의 터전도 불대산과 태청산 자락에 아늑하게 자리잡은 고을터이다. 즉 구사진혜(丘斯珍兮)와 진원(珍原)은 표기만 다를 뿐 '움푹지(盆地)'를 나타내고 있고, 소비혜(所非兮)와 삼계(森溪)는 '숲실(林谷)'이란 뜻으로 장성과 비슷한 지리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2) 지형 및 산악

백두대간 호남정맥의 서쪽 기맥인 노령과 병풍산 줄기가 병풍을 치고 있는 장성군은 영산강 유역에서 가장 유로가 긴 황룡강을 비롯하여 고막원천, 풍영정천, 진원천의 상류지역에 있다. 따라서 산기(山氣)와 수세가 최상인 산자수려한 고을이다.

고도별 면적을 살펴보면 100m 이하가 4할 정도이고 최저 고도는 30m로 삼서면 석마리 옥산 앞들이다. 100~300m 고도가 절반에 가깝고 300m 이상의 고지대는 1할쯤 되는데, 최고 고도는 822m인 병풍산이다

임야면적은 323.9km²로 총면적의 62.5%를 차지하고 있다. 산세는 북서부의 노령산맥 줄기와 동남부의 병풍산 줄기로 연결되어 남서부가 터져 수구가 된다.

노령산맥의 주 뗏발은 백암산을 정점으로 한 가닥은 남쪽으로 사자봉, 가인봉을 거쳐 6km쯤 뻗다가 약수리 학림에서 급하게 멈춘다. 본 줄기는 북서쪽으로 향하면서 600~700m의 연봉을 이루면서 입암산에서 고위 평탄면을 이룬다. 이어서 서편으로 내려서 노령에서 안부를 형성한 뒤 방장산으로 올라선다.

이 산으로부터 방향을 남남서쪽으로 향한 산줄기는 축령산, 고성산, 태청산, 장암산으로 고도를 낮추다가 영광 불갑산으로 이어진다. 축령산의 동편은 황룡강의 지류들에 의해 개석되어 100~300m의 구릉성 산지를 형성하다 평야지대와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이루면서 접한다.

병풍산지는 변성암이 편마암체로 우뚝선 산으로 남서쪽으로 불태산을 거쳐 황룡면 옥정리를 거쳐 남쪽으로 향하고 남면과 임곡의 양림산을 지나 송정리 어등산에 이른다. 병풍산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산줄기는 송대봉, 장군봉, 매봉으로 이어진다.

3) 하천

장성의 수계는 크게 4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수련산 능선을 기준으로 하여 동편 지역인 백암산, 입암산, 방장산, 축령산의 남쪽 계곡과 병풍산, 불태산의 북쪽 계곡의 물은 모두 황룡강으로 흐른다.

수련산 서편의 삼계물은 합동저수지를 거쳐 평림천으로 모여 광주 송정리와 본량의 송산교 염해평에서 황룡강에 합류된다. 삼서의 태청산 물은 고막원천으로 진원과 남면의 샛강은 극락강에 합류되어 결국 장성에서 나간 물은 영산강을 이룬다.

2. 관련계획 및 법규

가. 국가계획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국토교통부)

『국토종합계획』 국토기본법 제6조와 같이 국토를 이용·개발·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19조 국토부장관은 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정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개발과 보전에 관한 종합적·장기적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국가의 최상위 국토계획으로 헌법 제121조 제2항과 1963년에 제정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따라 수립, 여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국토정책과 지역·도시계획, 간접자본(SOC)투자에 대한 기본지침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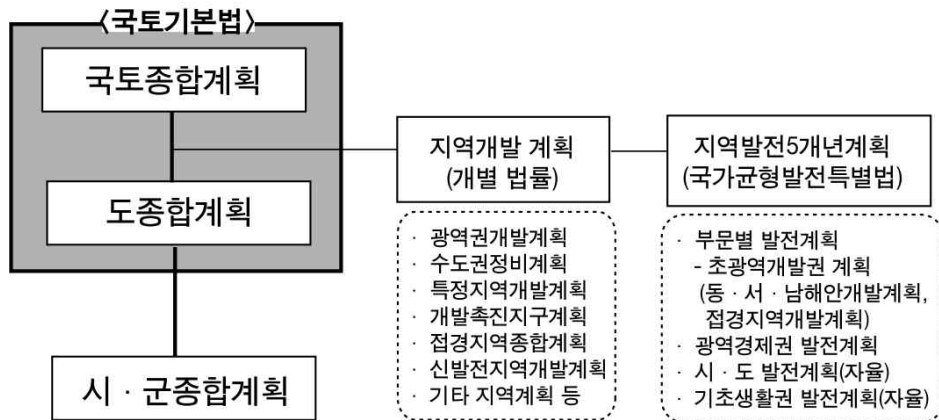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수립의 배경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¹⁾ 수립 이후 진행되고 있는 국내외 여건변화와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대두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장기 국토비전 및 정책방향을 재정립할 필요에 의한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새로운 국토발전전략 반영, 글로벌 경쟁체제의 심화에 대응한 개방적 국토기반 형성전략 반영, 인구구조의 변화, KTX 시대 본격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토전략을 반영하고 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의 범위로는 시간적 범위는 2006~2020년으로 설정, 공간적 범위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미치는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시 한반도 및 동아시아로 확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의 성격은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최상위 계획으로서 각 부문별 계획, 지역계획 및 광역경제권계획은 본 계획에서 제시하는 전략 및 정책방향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현행 국토종합계획(2006~2020)은 본 계획(2011~2020)에 의해 대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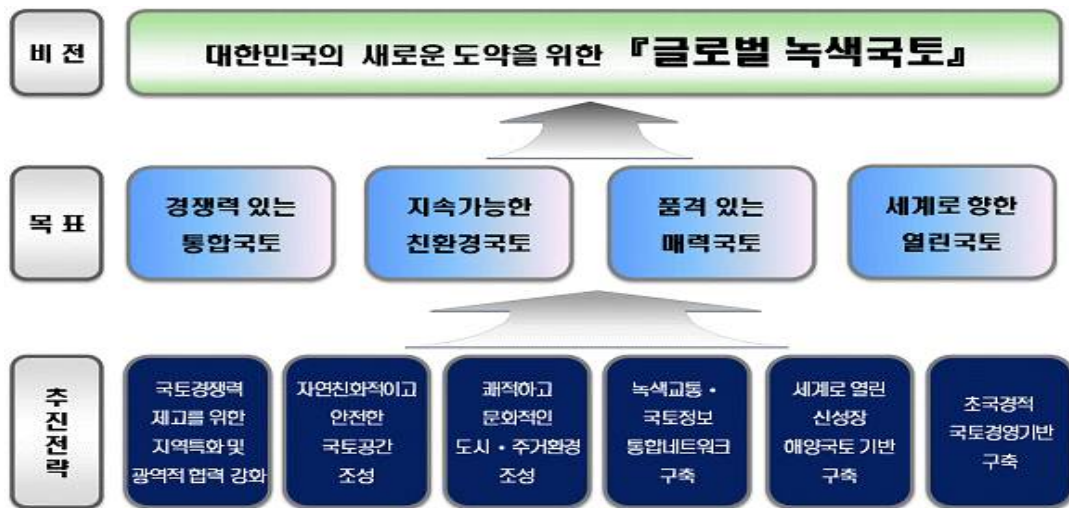
< 국토종합계획의 연혁 >

-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72-1981년)
-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82-1991년)
-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 (1987-1991년)
-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92-2001년)
- 제4차 국토종합계획 (2000-2020년)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06-2020년)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11-2020년)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으로 인한 국토공간구조 변화 반영, 남북 교류협력 확대 및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국토전략 제시를 위해 수립되었다.



<그림 II-1> 현행 국토계획 및 지역발전계획 체계



<그림 II-2>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의 기본 틀

<표 II-2>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6~2020)과 수정계획(2011~2020)의 비교

구 분	제4차 국토종합계획 (2006~2020)	수정계획(2011~2020)
기 간	2006~2020년	2011~2020년
기 조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글로벌 녹색국토」
인 구	· 인구증가와 고령화 사회	· 인구감소 및 초고령 사회 · 다문화사회 형성
지역균형 및 국가경쟁력	· 지역 간 균형발전에 중점	· 광역경제권 중심의 특성화발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중점
	· 수도권 과밀 억제	·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및 계획적 성장관리

II. 일반현황

구 분	제4차 국토종합계획 (2006-2020)	수정계획(2011-2020)
대외개방 및 국토골격	· 한반도 육지(경성국토)	· 한반도 육지와 해양, 재외기업 활동 공간을 포함 (연성국토)
	· 행정구역별 접근(7+1경제권역)	· 행정구역을 초월한 광역적 접근(5+2 광역경제권)
	· 점적 개방(3개축)에 중점	· 대외개방 벨트 및 점경벨트(4개축) · 글로벌 개방거점 육성 등 개방형 국토 형성 추진
기후변화 및 자원확보	· 기후변화를 환경 보호 및 재해대응 측면에서 접근	·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을 국토계획의 기초로 설정 (환경, 산업, 교통, 도시개발, 재해 등 종합적 차원에서 접근)
	· 국내 자원관리에 중점	· 해외자원 확보 및 공동개발 추진
지역개발 산업입지	·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 마련	· 광역경제권 형성을 통한 지역별 특화발전 및 글로벌경쟁력 강화
	· 지역분산형 개발 정책 (행정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 등)	· 지역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성장거점 육성 (대도시 및 KTX 정차도시를 중심으로 도시권 육성)
	· 혁신클러스터 형성	· 신성장동력 육성 및 녹색성장을 위한 新산업기반 조성

* 자료 : 국토교통부

이에 본 정비계획과 관련된 시도별 발전방향 중 광주·전남에 대한 관련 내용을 중점 정리해 보면, 호남권은 동북아의 신산업, 문화, 관광, 물류 거점, 광주는 첨단과학·광산업·문화 중심도시를 전남은 물류·관광·미래산업 중심지역으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으며, 권역발전 방향으로 광주대도시권을 호남권의 중추도시로 육성하고, 아시아문화 중심, 연구개발허브, 융·복합산업 도시로 육성 등 과제가 있다.

<표 II -3>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의 호남권 발전방향 분석

구 분	제4차 국토종합계획 (2006-2020)	수정계획(2011-2020)
도시·주택·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적 삶의 질 보장 · 네트워크형 도시체계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 및 품격있는 도시 조성 · 한국형 녹색컴팩트도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복지 향상 · 임대주택 공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수준의 선진화 · 인구감소·고령화에 대응한 수요맞춤형 주택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 토지이용 관리 강화 (선계획-후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 토지이용의 제고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도 운용 · 계획적 토지이용을 전제로, 수요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토지이용체계 구축
교통·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9 간선도로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 중심의 녹색교통체계 · 기존시설의 운영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각 지역의 연결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경제권 및 초광역개발권 연계 인프라 확충
수자원방재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자원의 안정적 공급 및 수질관리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의 다목적 이용 및 새로운 하천문화 창출 · 수변공간의 적극적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적·통합적 방재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에 대응한 선제적·예방적 방재 · 도시형 재난 대책 강화
유라시아-태평양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중심의 개방·협력 거점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변화된 글로벌 개방거점 육성(새만금, 경제자유구역, 국제자유도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 한국형 도시개발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경지역 협력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교류·접경벨트 종합관리계획 수립 · 북한자원 공동개발 및 인적·물적자원 지원
해 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자원 및 해양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해양국토 실현
계획의 관리 및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분권과 갈등조정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인 지역개발시스템 구축 (지역개발사업 남발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재원의 다양화와 운영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원 조달방식 다양화 및 재정분담 원칙 정립

II. 일반현황

권역의 비전	·동북아의 신산업, 문화, 관광, 물류 거점	
기본목표	·녹색기술과 융합된 미래 성장산업과 전통산업 육성 ·동북아 문화·관광 거점 육성 ·선진형 물류·교통·정보망 확충 ·인재 육성 및 지식 창출 기반 강화 ·거점도시 경쟁력 강화와 매력있는 정주환경 조성	
발전방향	목표	내용
1. 지역별 특성화를 통한 성장거점 육성 및 균형발전 촉진	성장거점 육성	광주대도시권을 호남권의 중추도시로 육성, 아시아문화중심, 연구개발허브, 융·복합산업도시로 육성
	벨트 특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해안벨트: 군산-목포를 신산업을 중심으로 관광이 보완된 신산업 벨트로 육성 - 남해안 벨트 : 목포-광양을 전통문화 중심의 해양관광·녹색벨트로 육성 - 내륙 청정휴양레저벨트: 동부의 산악·수변을 휴양·레저·장수 건강기능으로 특화한 관광벨트로 육성 - 수변생태관광벨트: 북부의 군산(금강)~덕유산을 연계하여 수변 및 산악자원이 결합된 생태관광벨트로 육성
	축을 형성하여 공간구조 연계	광주~목포 축 : 신재생에너지, 광융합, 전력산업(한전)을 연계한 녹색에너지 산업축으로 육성
	농·산·어촌의 특화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산·어촌의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기술과 문화와 관광이 융·복합된 고부가가치 특화 산업으로 육성 -특화산업을 국제적인 브랜드 산업으로 육성하고, 교육, 의료 등 정주여건을 향상시켜 삶의 질 제고
2. 미래 녹색성장 산업, 전통산업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녹색산업을 지역의 신성장 동력산업 및 융·복합산업 육성	산·재생에너지산업
	친환경생명복합 및 헬스케어산업육성	광주~전남화순·나주, 새만금~익산~전주·진안을 중심으로 건강, 미용, 친환경생활·음식이 집적화된 헬스케어 산업 육성
	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첨단산업거점 육성	광주R&D 특구를지정·개발
	농·산·어촌지역의향토산업육성과산업발전기반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토농식품산업과휴양서비스산업등을연계한복합산업화추진 -인력과연구개발체계화농어촌산업발전기반구축
	동북아문화·해양관광허브및산악휴양복합리조트단지육성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전통문화를 연계하여 문화관광·교류 중심지로 육성
	호남광역권의 녹색산업과 문화관광중심의 특성화 및 연계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성과 차별성을 갖춘 국제 문화관광상품(생활문화체험, 문화예술, 농촌생태체험등) 개발 - 광주문화중심도시 연계 개발 및 추진체계 구축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주체간 네트워크 구축, 지역정보 인프라 확충, 산·학·연 협력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발전방향	목표	내용
3. 선진형 교통, 정보, 물류망 확충	국내외 네트워크 중심지로의 인프라구축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건설 및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광주-순천간 경전선 복선전철화 검토
	세계와 지역을 통합·연계하는 물류·교통망 확충	-광주권 제3순환도로 및 주변도시와 광역철도건설, 서남해안일주도로(일반국도77호선) 건설 -무안국제공항을 거점 국제공항으로 육성
	접근성 증대를 위한 첨단정보인프라 구축	산업·기술·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역정보 인프라 구축 및 유비쿼터스 정보통신망 구축
4. 경쟁력 있는 거점도시 육성 및 매력적인 정주환경 조성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거점 육성	- 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을 위한 산·학·연 컨소시엄 및 기반 구축 - 광주대도시권을 과학기술 진흥 및 교육·인재양성 거점으로 육성
	광주를 정주거점으로 육성하여 주변 중소 도시와 연계한 광역도시권 형성	광주~목포(녹색에너지산업축), 이 축을 통해 주변 파급효과 극대화
	거점도시의 도시재생과 도시디자인, 중추서비스산업 육성	도시기능 및 매력도를 향상하고, 중소도시는 환경친화적 녹색도시 건설과 정주환경 조성을 추진
	잠재력에 기반	도·농연계형 녹색공동체 형성과 청정자연환경 보전·관리
	기초생활권으로서 농·산·어촌개발	농·산·어촌 지역의 정주여건과 생산적 복지 기반 구축 및 공동체 기반 구축
5. 광역적 협력과 거버넌스 구축	광역적 연계와 협력을 위한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호남광역권 관광진흥추진기구를 구성하여 도시·해양·산악·농어촌 관광 연계사업 추진

나. 지역 내 개발계획

1) 제3차 전라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2012~2020년, 전라남도)

가) 계획의 수립 목적

지역 간·권역 간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전남도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동북아 신산업, 문화, 관광, 물류 거점'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지역발전정책의 수립의 목적이 있다. 또한, 지방화, 고속화, 정보화 등의 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비전 및 발전전략의 수립 목적이 있다.

나) 계획의 수립의 배경

2011년 수정·확정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2011~2020)」의 하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으며, 중국의 급성장으로 인한 동북아·환황해경제권 형성의 가속화, 국가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대외적 여건변화와 F1코리아 그랑프리, 2012여수세계박람회 등 대규모 국제이벤트 개최 및 공동혁신도시,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건설 등 대내적 발전요인에 대응한 전남도의 비전과 발전방향 검토 및 재설정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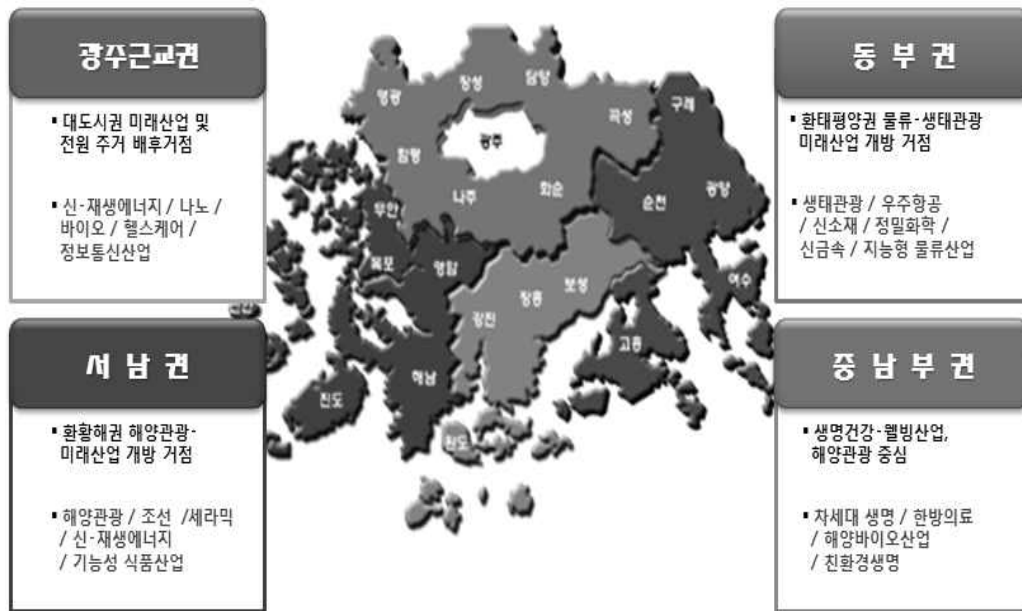
다) 계획의 성격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등 상위계획과, 「호남권 광역발전계획(2009~2013)」,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녹색성장5개년계획」, 「제5차 전남권 관광개발계획(2012~2016)」 등 관련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의 골격을 기반으로 지역 차원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계획이다. 또한, 도차원의 발전전략을 부문별 계획으로 담는 전략계획으로서 시·군 계획의 개발방향과 지침이 되며, 민간부문의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유도하는 계획이라 할 수 있다.

라) 계획의 범위

시간적 범위는 2012~2020년까지(9년간), 공간적 범위는 2010년 12월말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 22개 시·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연접한 타 시·도 지역은 본 계획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거나 협력하여 개발해야 할 경우 해당지역에 포함한다. (12,232.67km², 전 국토의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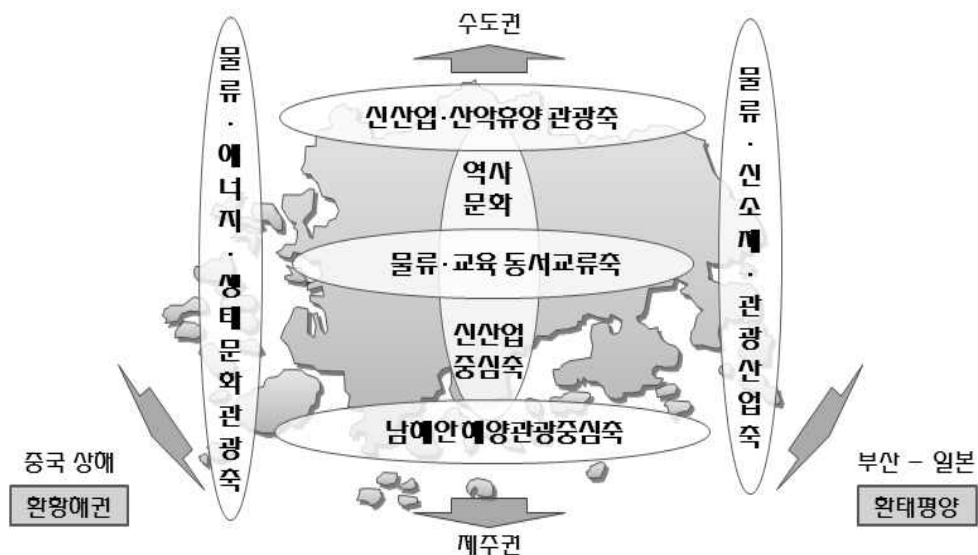
또한, 지역발전 공간구조 및 지역발전축 설정에 있어 전남2개 시·군을 경제권, 생활권과 지리적 인접성을 기준으로 권역으로 분류, 권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지역 내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는 지역발전 공간구조 설정에 있다.



<그림 II-3> 제3차 전라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 전남 권역별 비전 및 특화방향

* 주) 필암서원이 위치하고 있는 장성군의 경우 제3차 전라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의하면 광주근교권(나주, 담양, 곡성, 화순, 함평, 영광, 장성)에 포함되고 있다.

지역발전축은 권역별 발전전략을 연계한 격자형 6대 발전축 설정으로 도시간 기능 보완 및 연계체계 구축, 농산어촌 및 낙후지역의 특화 개발 추진 등 전남 전역의 종합적 동반 발전전략 추진에 있다.



<그림 II-4> 제3차 전라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 - 6대 지역발전축 모형

마) 장성군 발전방향

제3차 전라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2012~2020)에 의한 장성군의 발전방향은 중숲과 물, 인간이 함께하는 Greentopia 장성에 있다.

(1) 지역현황 분석

- ① 지역발전 잠재력
 - 광주광역시 인접 개발효과가 큰 지역
 - 자연환경과 문화자원 활용가치 제고
 - 신선한 고품질의 농산물과 특산품 공급 및 미개발 자원 보유
 - 간선도로망 등 교통시설 확충
 - 지역자원의 가치를 제고하는 소프트웨어 의식으로 전환
- ② 한계점
 - 소득기반 취약, 인구감소, 정주기반 쇠퇴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
 -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따른 정주기반 환경 악화
 - 인구고령화로 사회복지 지출증대 및 농촌 혁신역량 저하
 -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1차 산업에 특화되어 소득기반 미흡

<표 II-4> 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2012~2020) - 시·군별 발전방향

시·군	발 전 방 향	시·군	발 전 방 향
목포시	대중국 해양물류·관광·거점도시	장흥군	중남부권 녹색생명산업의 중심
여수시	남해안 해양관광·산업 거점도시	강진군	문화·녹색도시, 청자골 강진
순천시	동부권 생태·문화·교육 거점도시	해남군	서남권 해양레저·문화관광 중심 땅끝 해남
나주시	중부권 생물·문화·혁신 거점도시	영암군	‘4氣’ 총만한 서남권 산업·문화관광 중심
광양시	동북아 항만물류·산업 거점도시	무안군	서남권 항공물류·산업 중심
담양군	대도시권 전원주거·문화·레저·관광 중심	함평군	서남권 생태전원 창조도시 함평
곡성군	동북부 청정농업·녹색관광 중심	영광군	아름다운 지역, 매력적인 도시, 웰빙산업 중심 영광
구례군	친환경 녹색성장, 지리산권 산악 관광·휴양중심	장성군	숲과 물, 인간이 함께하는 Greentopia 장성
고흥군	‘첨단’ 과 ‘자연’ , space eco city!	완도군	살아 숨쉬는 청정바다, 건강의 섬 완도
보성군	남해안 녹차산업·웰빙관광 중심	진도군	서남해안 해양·문화·생태관광 중심
화순군	대도시권 생명과학·생태관광 중심	신안군	문화와 여유로 창조하는 천사의 섬 신안

(2) 기본목표

- 광주시 중추기능, 과학기술, 서비스와 연계한 첨단산업 육성
- 환경, 교육, 복지여건을 개선하여 고품격 전원주거지역 개발
- 친환경 농산물, 기능성 건강식품 등 웰빙 복합농업 육성
- 관광, 휴양, 여가, 스포츠 등 웰빙 레저/관광산업 육성
- 지역경관 형성, 인적 자원 개발 등 지역자원의 고부가가치화 관리

(3) 발전방향

- ① 녹색 문화관광 창출
 - 자연환경의 관광자원화
 - 장성호~축령산 종합개발
 - 전략적 관광 홍보
- ② 강한 농촌 건설
 - 지역향토작목 개발 소득화
 - 복합농업과 유통구조 현대화
 - 선도 영농인 육성
- ③ 지역경제 활성화
 - 첨단산업 육성과 물류체계 구축
 - 재래시장·상가 활력화
 - 생산적인 교통망 확충
- ④ 청정 녹색도시 조성
 -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
 - 맑은물 공급과 수질환경 개선
 - 녹색 생활환경 조성
- ⑤ 품격 높은 정주기반 조성
 - 살기좋은 주거 환경 조성
 - 마을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 전원주거타운 조성

<표Ⅱ-5> 제3차 전라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 - 4권역별 비전

권역	해당 시·군	비전
광주근교권	나주, 담양, 곡성, 화순, 함평, 영광, 장성	•대도시권 미래산업 및 전원주거 배후거점
동부권	여수, 순천, 광양, 구례, 고흥	•한태평양권 물류·관광·미래산업 거점
서남권	목포, 해남, 영암, 무안, 진도, 신안	•한황해권 해양관광·미래산업 개방 거점
중남부권	보성, 장흥, 강진, 완도	•생명건강·웰빙산업, 해양관광 중심

2) 제5차 전남권 관광개발계획(2012~2016년, 전라남도)

- 비전 : 동북아 생태·해양관광 중심지 전남
- 개발목표
 - 해양·섬·갯벌이 어우러진 해양휴양관광지대 조성 ⇒ 해양전남
 - 청정자연으로 녹색의 힘이 느껴지는 생태관광 추구 ⇒ 녹색전남
 - 남도의 맛, 온화한 기후와 융·복합화를 통한 관광 테마화 ⇒ 건강전남
 - 고향의 정, 삶이 풍요로운 한국인의 고향 같은 생활관광지대 ⇒ 생활전남
- 추진전략
 - 해양섬자원의 휴양·여가지대 기반조성
 - 저탄소형 녹색관광 특화 및 콘텐츠강화
 - 지역간 연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향토자원의 복·융합화를 통한 지역활성화
 - 역사문화자원의 관광매력 증진
- 광주근교권의 관광개발구상
 - 개발방향 : 대도시권의 건강·체험·휴양형 관광지 조성
 - 개발목표
 - 대도시 주변의 도시민 휴식 및 휴양기능 강화
 - 도시근교의 전원형 주거와 친환경농업의 관광자원화 개발
 - 추진전략
 - 대도시 배후 문화, 휴양, 체험형 관광지대 조성
 - 영산강, 섬진강의 강변문화를 활용한 도시근교 관광 및 체험형 역사문화관광자원 개발
 - 광주의 무등산권과 지리산권의 연계 강화와 산림 휴양자원의 웰빙형관광자원 개발
 - 도시근교형 농업자원 활용과 고품격 건강 휴양지 관광자원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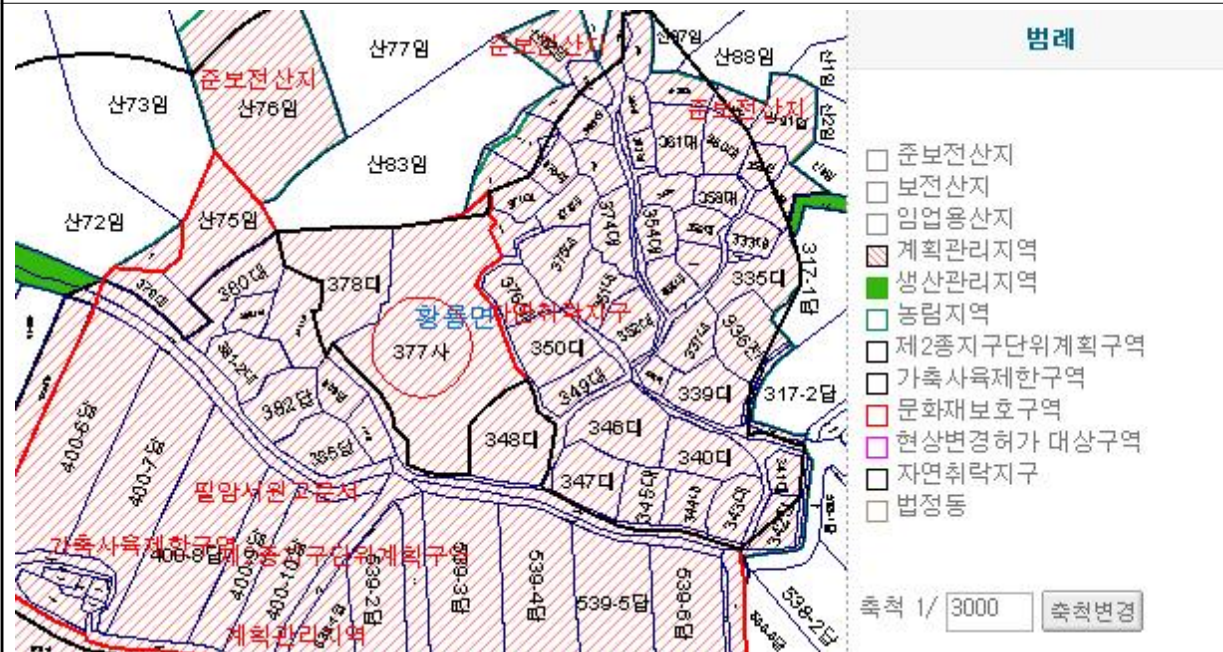
다. 관련법규

서원의 보존·관리에 대한 문제 해결은 해당 법 제도를 근거로 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관계법령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며 참조하도록 한다.

<표Ⅱ-6> 필암서원의 토지이용계획 검토

토 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377	사적지	4,430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		-		

도 면



범례

☐ 준보전산지

☐ 보전산지

☐ 임업용산지

☐ 계획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농림지역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 가축사육제한구역

☐ 문화재보호구역

☐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

☐ 자연취락지구

☐ 법정동

축척 1/3000

확대 축소

1) 토지이용 관련법규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다.

관련법	조항	내 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71조 (용도 지역 안에 서의 건축 제한)	<p>①법 제76조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20에 규정된 건축물</p> <p>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p> <p>[별표 20] <개정 2015. 7. 6></p> <p>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1항제19호관련)</p> <p>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p> <p>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p> <p>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p> <p>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p> <p>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단란주점</p> <p>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p> <p>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p> <p>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p> <p>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p> <p>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과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p> <p>(1) 별표 19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2) 화학제품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가) 물, 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는 공정이 없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p> <p>(나) 「화장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p>

관련법	조항	내 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71조 (용도 지역 안에 서의 건축 제한)	<p>(다) 「농약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p> <p>(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p> <p>(마) 동·식물 등 생물을 기원으로 하는 산물(이하 "천연물"이라 한다)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는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반응시설,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 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농축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제조시설로 한정한다]</p> <p>(3) 제1차금속, 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 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p> <p>(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p> <p>(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 시설. 다만,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염색시설은 제외한다.</p> <p>(가) 천연물에서 추출되는 염료만을 사용할 것</p> <p>(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표백시설, 정련시설이 없는 경우로서 금속성 매염제를 사용하지 않을 것</p> <p>(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일 것</p> <p>(라)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할 것</p> <p>(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나 자연보전권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준공되어 운영 중인 공장 또는 제조업소는 제외한다.</p> <p>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p> <p>가.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한 층수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p> <p>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p> <p>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 자목, 너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p> <p>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안마시술소 및 같은 호 너목에 해당하는 것</p>

관련법	조항	내 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71조 (용도 지역 안에 서의 건축 제한)	<p>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p> <p>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p> <p>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p> <p>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p> <p>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것</p> <p>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은 제외한다)</p> <p>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p> <p>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p> <p>(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p> <p>(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제1호자목(7)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p> <p>(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p> <p>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창고 중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p> <p>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p> <p>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p> <p>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p>

나)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관련법	조항	내 용
장성군 도시 계획 조례	제31조 (용도 지역 안에 서의 건축 제한)	<p>영 제71조, 영 제78조 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 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개정 2014. 6. 27)</p> <p>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19호 관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별표 20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별표 24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별표 24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안마시술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별표24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2) 문화재 관련법규

문화재²⁾의 일반적인 개념은 문화재(cultural properties) 또는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s)은 “문화적 가치를 지닌 산물이나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현재 통용되는 문화재 개념은 국내법상의 법률적 정의와 국제협약 및 권고에 의한 포괄적 정의가 있다.

포괄적 정의로 유네스코(UNESCO)에서 1970년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국제 협약’을 통해 ‘문화재’라 함은 고고학, 선사학, 역사학, 문학, 예술 또는 과학적으로 중요하여 종교적 또는 세속적 근거에서 각 국가가 특별히 지정한 재산이라고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① 진귀한 수집품·동물군·식물군·해부체 및 고고학적인 관심 물체
- ② 과학 및 공업의 역사와 군사 및 사회의 역사를 포함하는 역사와 관련되는 재산 또는 민족적 지도자·사상가·과학자·예술가들의 생애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과 관련된 재산.
- ③ 정규적 또는 비밀리에 행하여진 고고학적 발굴 및 발견의 산물
- ④ 해체된 예술적 또는 역사적 기념물의 일부분 및 고고학적 유적
- ⑤ 비문·화폐·인장 같은 것으로 100년 이상 된 골동품
- ⑥ 인종학적 관심의 물체
- ⑦ 미술 관계의 재산으로 다음 네 가지에 관한 것, 즉 그 바탕이나 재료를 불문하고 전적으로 손으로 제작된 회화·유화·도화(단, 공업 의장과 손으로 장식한 공산품은 제외), 재료 여하를 불문한 조각 및 조각 기술의 원작품들, 목판화·동판화·석판화의 원작들, 재료 여하를 불문한 미술적인 조립품 및 몽타주(합성화) 등
- ⑧ 단일 물체 또는 집합체의 여부에 관계없이 역사·예술·과학 및 문화의 측면에서 특별한 관심사가 되는 귀중한 필사본·고서·인쇄물로서 다음 세 가지에 관한 것, 즉 단일 물체 또는 집합체의 여부에 관계없이 우표나 수입인지 같은 형태의 인지물, 녹음·사진·영화로 된 기록물, 100년 이상 된 가구와 오래된 악기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협약에서 특기할 점은 문화재를 크게 인류의 문화유산과 자연 유산으로 나누고, 동물군과 식물군을 문화재에 포함시킨 점이다. 그리하여 지구의 표피와 자원, 생물학적인 환경, 수자원과 해양, 인간과 도시 등의 문제에까지 고루 취급하고 있다.

2) 국가문화유산 토론회 “문화재보다 문화유산이 더 맞는 개념” (2003.2)으로 “일본에서 전래된 그대로 ‘문화재’라고 명명하는 바람에 재화적 가치가 증시되었는데, 문화유산(文化遺産)은 장래의 문화적 발전을 위하여 다음 세대 또는 젊은 세대에게 계승·상속할 만한 가치를 지닌 사회의 문화적 소산이다. 과학, 기술, 관습, 규범 및 정신적·물질적 각종문화재, 문화 양식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

가)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보존 관리

장성 필암서원은 사적 제242호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은 원형 유지를 중심으로 문화재를 보호 관리하는 주체의 설정, 역할과 권한, 각종 규제 등을 포함하여 문화재 관리 방법과 수단을 기술하고 있다.

관련법	조항	내용
문화재 보호법	제6조 (문화재 기본 계획의 수립)	1. 문화재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이전의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평가 3.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5. 문화재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문화재 기록정보화에 관한 사항 7. 문화재 보존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①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문화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官報)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문화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문화재 보존 시행 계획 수립)	①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과 그 시행 결과의 제출대상, 시기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에 의한 보존 관리

장성 필암서원은 사적 제242호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법	조항	내용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4조 (문화재 보존 시행 계획의 수립 절차 등)	<p>① 법 제7조1항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4.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년 말일까지 문화재청 및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p>
	제20조 (문화재 별 종합 정비 계획의 수립)	<p>① 법 제34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도록 지정된 관리단체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이하 이 조에서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p> <p>② 제 1항에 따라 수립하는 정비계획은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비계획의 목적과 범위에 관한 사항 2.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사항 3. 문화재에 관한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4. 문화재의 보수·복원 등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문화재의 관리·운영 및 투자 자원(財源)의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재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 <p>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방법 및 내용과 그 시행 등에 관하여 문화재의 종류별 또는 유형별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p>
	제42조 (권한의 위임)	문화재청장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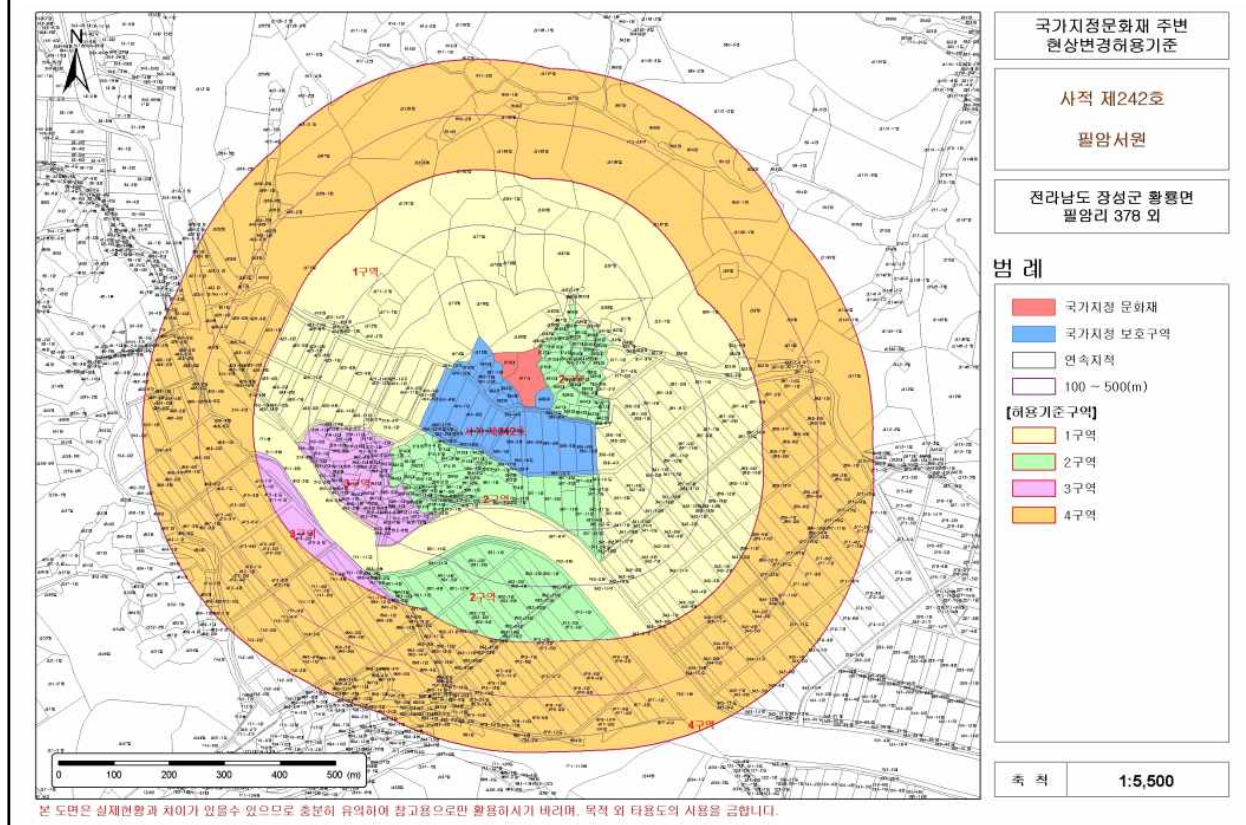
장성 필암서원은 사적 제242호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이 법은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실측설계·감리와 문화재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관련법	조항	내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문화재수리 등의 기본원칙)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문화재수리등”이라 한다)는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여야 하며, 문화재수리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와 그 주변 경관이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 (문화재수리 등의 계획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기본계획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① 문화재의 소유자(「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를 포함한다)가 문화재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직접 문화재수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없는 분야의 문화재수리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문화재수리업자·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가 없는 분야의 문화재수리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수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⑤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보호 또는 동산문화재 분야의 실측설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경계획과 시공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은 개별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계획적으로 보존·관리·회복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국가지정문화재인 필암서원은 반경 500m 범위까지 영향범위를 가진다.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보존구역		
2 구 역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 구 역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 구 역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라. 세계문화유산 관련 국내외 규정 및 지침

1)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은 1972년 11월 16일 프랑스 파리 제 17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유네스코가 파리에서 1972년 11월 21일 폐회한 제 17차 정기총회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채택한 협약의 정본이다. 1975년 12월 17일 발효되었다. 한국은 1988년 09월 14일 101번째로 본 협약에 가입했다. 그 내용으로는,

1.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정의(DEFINITION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2.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국내 및 국제적 보호(NATIONAL PROTECTION AND INTERNATIONAL PROTECTION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3.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 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HERITAGE)
4.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한 기금(FUND FOR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5. 국제 원조를 위한 조건(CONDITIONS AND ARRANGEMENTS FOR INTERNATIONAL ASSISTANCE)
6. 교육 사업(EDUCATIONAL PROGRAMMES)
7. 보고(REPORTS)
8. 최종사항(FINAL CLAUSES)

2)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세계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갖고 있는 부동산 유산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세계유산 지역내 소재한 박물관에 보관한 조각상, 공예품, 회화 등 동산 문화재나 식물, 동물 등은 세계유산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어떤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머물지 않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세계유산 운영지침은 유산의 탁월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다음 10가지 가치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기준 I 부터 VI까지는 문화유산에 해당되며, VII부터 X까지는 자연유산에 해당된다.

이러한 가치평가기준 이외에도 문화유산은 기본적으로 재질이나 기법 등에서 유산이 진정성(authenticity)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모두 유산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제반 요소를 포함해야 하며, 법적, 제도적 관리 정책이 수립되어있어야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다. 세계유산 등재기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가) 세계유산 등재 기본 원칙

- 세계유산 등재 기본 원칙 : OUV(OUV ; Outstanding Universal Value 뛰어난 보편적 가치), 완전성, 진정성, 보존관리 체계(법적, 행정적 보호 제도, 완충지역(buffer zone) 설정 등) 확립
- 진정성 및 완전성
 - 진정성
 - 모든 문화유산은 진정성(authenticity; 재질, 기법 등에서 원래 가치 보유) 필요
 - 당해 문화재의 문화적 가치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속성을 통해 진실되고 신뢰성 있게 표현되어야 함
 - 형식과 디자인, 소재와 내용, 용도와 기능, 전통·기법·관리 체계, 위치와 환경, 언어와 여타 형태의 무형유산, 정신과 감성 및 기타 내부 및 외부 요인
 - 완전성
 - 완전성(integrity) : 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제반 요소 보유
 - 뛰어난 보편적 가치의 표현에 필요한 요소 일체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지, 본연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특징 및 과정을 완벽하게 구현할 만큼의 충분한 규모인지, 개발 및/또는 방치로 인한 부작용의 정도 등이 표현되어야 함

나) 세계유산 등재 세부기준

- 세계유산 등재 세부기준(아래 세부기준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문화유산]

- (I) 인간의 창조적 천재성이 만들어낸 걸작을 대표해야 한다.
- (II) 오랜 시간 동안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지역 내에서 일어난 건축, 기술, 기념비적 예술, 도시 계획 또는 조경 디자인의 발전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류를 보여주어야 한다.
- (III) 문화적 전통 또는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명의 독보적이거나 적어도 특출한 증거가 되어야 한다.
- (IV)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들)를 예증하는 건조물의 유형, 건축적 또는 기술적 총체, 경관의 탁월한 사례여야 한다.
- (V) 문화(복수의 문화)를 대표하는 전통적 정주지(定住地)나 토지 이용, 해양 이용을 예증하거나,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특히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환경이 취약해졌을 때의 상호작용의 대표적 사례여야 한다.
- (VI) 사건이나 살아있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뛰어난 보편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 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이 기준은 여타 기준과 연계해 사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자연유산]

- (VII) 최상의 자연 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해야 한다.
- (VIII)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 발전에 있어 중요한 지질학적 진행 과정, 또는 지형학이나 자연지리학적 측면의 중요 특징을 포함해 지구 역사상의 주요 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여야 한다.
- (IX) 육상, 담수,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의 진화 및 발전에 있어 생태학적, 생물학적 주요 진행 과정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여야 한다.
- (X)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하여야 하며 과학이나 보존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지만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다.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른 등재신청³⁾ 개요

<한국의 서원> - 유산개요

- 유산명 : 한국의 서원
- 대상서원(9개소) : 도동, 돈암, 무성, 필암, 옥산, 병산, 소수, 남계, 도산서원
 - * 현재 남한에 있는 서원 637개중 사적으로 지정된 9개소
- 관련 지자체 : 대구광역시(달성), 충청남도(논산), 전라북도(정읍), 전라남도(장성), 경상북도(경주, 안동, 영주), 경상남도(함양)
- 등재기준 : (iii), (iv), (v), (vi)
- II.D Criteria for the assessment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평가 기준)

ii. 오랜 시간 동안 또는 세계의 어떤 문화지역 안에서 일어난 건축, 기술, 기념비적 예술, 도시계획 또는 조경설계의 발전에 관한 인간적 가치의 중요한 교류를 보여주는 것.

exhibit an important interchange of human values, over a span of time or within a cultural area of the world, on developments in architecture or technology, monumental arts, town-planning or landscape design;

- 조선시대의 서원은 사립 교육기관을 대표하는 시설로서, 중세 동아시아의 중요한 사상 중의 하나인 성리학이 조선에 전래되어 조선 사회에 정착·형성한 산실이었음. 중국의 주희가 집대성한 성리학이 서원에서 중국, 일본과 다른 모습으로 발전하게 됨.

iii.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bear a unique or at least exceptional testimony to a cultural tradition or to a civilization which is living or which has disappeared;

- 조선시대의 서원은 성리학인 지향하는 자연관과 한국의 문화적 전통이 반영된 교육 유산의 특출한 전형임. 특히 서원의 건축 공간은 성리학적 가치관, 세계관, 자연관이 반영된 물리적 표상임.

iv.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또는 경관의 탁월한 사례일 것.

be an outstanding example of a type of building, architectural or technological ensemble or landscape which illustrates (a) significant stage(s) in human history;

- 서원의 공간은 유식공간, 강학공간, 제향공간으로 구성되는 독특한 구조임. 또한 이 공간의 입지는 건축과 자연이 하나로 어우러지도록 택해져 자연경관과 서원의 건축이 하나를 이룸.

vi.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

be directly or tangibly associated with events or living traditions, with ideas, or with beliefs, with artistic and literary works of outstanding universal significance. (The Committee considers that this criterion should preferably be used in conjunction with other criteria) ;

- 서원은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의 사상과 활동의 보고로써 유교의 예(禮)가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존속된 곳임. 또한 지역사회의 지성사적정신문화적 유서가 서려있는 현장임.

3) 2013년도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제2차 회의('13.8.27.개최)시의 검토 안건 「세계유산 등재추진 현황 보고(안건번호: 세계2013-02-004)」에 의거 (참고자료1).

3)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⁴⁾

가) 목적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및 「문화재보호법」 제19조에서 정한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단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계유산 등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용어의 정의

- "세계유산"이라 함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원회가 인류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UNESCO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한 유산을 말하며,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을 포함한다.
- "문화유산"이라 함은 세계유산협약 제1조에서 규정한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를 말한다.
- "자연유산"이라 함은 세계유산협약 제2조에서 규정한 자연기념물, 지질학적·지문학적 생성물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서식지, 자연지역이나 자연유적지를 말한다.
- "복합유산"이라 함은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에 관한 정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시키는 유산을 말한다.
- "잠정목록"이라 함은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서 향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예비목록을 말한다.
- "등재 신청 1차년도"라 함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공식적인 서류를 구비하여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는 연도를 말한다.

다) 세계유산등재기준

○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200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을 위한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평가기준으로 정한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을 충족하고, 별표 1에서 정한 진정성 및 완전성 요건을 충족시키되, 당해 유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보존 및 관리체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할 것
2.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할 것
3.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4.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
5. 특히 번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 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의 사용, 바다의 사용을 예증하는 대표적 사례일 것

4)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시행 2015.8.12.] [문화재청예규 제148호, 2015.8.12., 전부개정].

6.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
7. 최상의 자연 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할 것
8.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 발전상의 지질학적 주요 진행과정, 지형학이나 자연 지리학적 측면의 중요 특징을 포함해 지구 역사상의 주요 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일 것
9. 육상, 민물,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의 진화 및 발전에 있어 생태학적, 생물학적 주요 진행 과정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일 것
10. 과학이나 보존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지만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할 것

라) 잠정목록 등재 및 세계유산 등재 신청 절차

○ 잠정목록 대상 유산 신청→잠정목록 대상 유산 선정→잠정목록 대상 유산 조사→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및 잠정목록 등재 신청 대상 확정→유네스코에 잠정목록 등재신청서 제출→잠정목록 조정

○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 선정→자연유산 또는 복합유산의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 선정→세계유산등재신청서 초안 제출→세계유산등재신청서 최종본 제출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청서 양식 (국문)	세계유산 신청서 양식 (국문)																		
<p>[별지 제1호서식]</p> <p>세계유산 잠정목록 신청서 양식 (국문)</p> <p>잠정목록 제출서식</p> <p>신청 제약국: _____ 제출 일자: _____</p> <p>제출을 준비 담당자: _____</p> <p>성명: _____ E-mail: _____</p> <p>주소: _____ 팩 스: _____</p> <p>소속기관: _____ 전 화: _____</p> <p>신청 대상물의 명칭: _____</p> <p>소재 주, 도, 지역: _____</p> <p>위도, 경도나 UTM 좌표: _____</p> <p>설 명:</p> <p>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근거 설명</p> <p>부합되는 근거 기준[세계유산운영지침 제77항 참조]:</p> <p>(당해 근거기준에 해당되는 상자에 표시하고, 각 적용에 대한 근거를 아래에 기술하시오)</p> <p>i) <input type="checkbox"/> ii) <input type="checkbox"/> iii) <input type="checkbox"/> iv) <input type="checkbox"/> v) <input type="checkbox"/> vi) <input type="checkbox"/> vii) <input type="checkbox"/> viii) <input type="checkbox"/> ix) <input type="checkbox"/> x) <input type="checkbox"/></p> <p>진정성 및/또는 완전성의 기준[세계유산운영지침 제 78~95항 참조]:</p> <p>다른 유사 대상물과의 비교:</p> <p>잠정목록 제출 서식은 UNESCO 세계유산센터나 다음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p> <p>http://whc.unesco.org/en/tentativelists</p> <p>잠정목록 준비에 관한 세부 지침내용은 세계유산운영지침 제62-67항에 명시되어 있다.</p> <p>잠정목록 제출 서식의 완성된 예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p> <p>http://whc.unesco.org/en/tentativelists</p> <p>신청 제약국이 제출하는 모든 잠정목록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p> <p>http://whc.unesco.org/en/tentativelists</p> <p>서명이 된 잠정목록 제출 서식의 완성 원본은 영어나 불어 판으로 다음 주소로 송부하도록 한다:</p> <p>UNESCO World Heritage Centre, 7 place de Fontenay, 75282 Paris 07 SE, France</p> <p>또한 신청 제약국은 본 자료 제출 시 전자 형식(디스켓이나 CD-Rom)이나 e-mail로 다음 주소로 보내도록 권장하는 바이다: wh-tentativelists@unesco.org</p>	<p>[별지 제2호서식]</p> <p>세계유산 신청서 양식 (국문)</p> <p>개 요</p> <p>신청 제약국이 제출하는 이 정보는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무국에 의해 최신 내용으로 증보된다. 추후 이 정보는 해당 제약국에 환부되어 신청 대상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근거를 확인시켜 준다.</p> <table border="1"> <tr> <td>신청국</td> <td></td> </tr> <tr> <td>소재 주, 도 또는 지역</td> <td></td> </tr> <tr> <td>신청 대상물의 명칭</td> <td></td> </tr> <tr> <td>확인될 초 단위까지 표기한 지리 좌표</td> <td></td> </tr> <tr> <td>신청 대상물의 경계에 관한 기술문</td> <td></td> </tr> <tr> <td>신청 대상물을 표시한 A4(또는 '역타') 규격의 지도. 단, 경계 및 완충지대 (있을 경우)를 포함</td> <td>A4(또는 '역타') 규격의 지도</td> </tr> <tr> <td>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근거 설명 (신청 대상물이 구원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td> <td></td> </tr> <tr> <td>해당 대상물을 세계유산으로 신청한 근거 (준거 조항을 항목별로 기재하라) (세계유산운영지침 제77항 참조)</td> <td></td> </tr> <tr> <td>해당 지역의 공식 기관/기구의 명칭 및 연락처 정보</td> <td>기관명: 주소: Tel: 팩스: E-mail: 웹 주소:</td> </tr> </table>	신청국		소재 주, 도 또는 지역		신청 대상물의 명칭		확인될 초 단위까지 표기한 지리 좌표		신청 대상물의 경계에 관한 기술문		신청 대상물을 표시한 A4(또는 '역타') 규격의 지도. 단, 경계 및 완충지대 (있을 경우)를 포함	A4(또는 '역타') 규격의 지도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근거 설명 (신청 대상물이 구원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해당 대상물을 세계유산으로 신청한 근거 (준거 조항을 항목별로 기재하라) (세계유산운영지침 제77항 참조)		해당 지역의 공식 기관/기구의 명칭 및 연락처 정보	기관명: 주소: Tel: 팩스: E-mail: 웹 주소:
신청국																			
소재 주, 도 또는 지역																			
신청 대상물의 명칭																			
확인될 초 단위까지 표기한 지리 좌표																			
신청 대상물의 경계에 관한 기술문																			
신청 대상물을 표시한 A4(또는 '역타') 규격의 지도. 단, 경계 및 완충지대 (있을 경우)를 포함	A4(또는 '역타') 규격의 지도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근거 설명 (신청 대상물이 구원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해당 대상물을 세계유산으로 신청한 근거 (준거 조항을 항목별로 기재하라) (세계유산운영지침 제77항 참조)																			
해당 지역의 공식 기관/기구의 명칭 및 연락처 정보	기관명: 주소: Tel: 팩스: E-mail: 웹 주소:																		

※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청/확정 관련

한국의 서원 잠재목록 등재신청서 제출-국가브랜드위원회, 문화재청('11.9)
한국의 서원 :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확정(11.12월)

【 2015년 9월 20일 현재 대한민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 5)

1. 강진 도요지
2. 중부내륙산성군(삼년산성, 상당산성, 미륵산성, 충주산성, 장미산성, 덕주산성, 온달산성)
3. 영전(전남 신안군, 영광군)
4. 대곡천 암각화군(울산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천전리 각석)
5. 낙안읍성
6. 외암마을
7. 서원(소수서원, 남계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필암서원, 도동서원, 병산서원, 돈암서원, 무성서원)
8. 서울 한양도성
9. 김해, 함안, 가야고분군
10. 고령 지산동 대가야고분군
11. 한국의 전통산사 (선암사, 대흥사, 법주사, 마곡사, 통도사, 봉정사, 부석사)

Tentative Lists

Results
Exports

15
Sites

1
States Parties

12/12/2013
Last Revision

State Party: Republic of Korea ✕

- Ancient Mountain Fortresses in Central Korea (11/01/2010)
- Daegokcheon Stream Petroglyphs (11/01/2010)
- Gaya Tumuli of Gimhae - Haman (11/12/2013)
- Kangju Kiln Sites (01/09/1994)
- Mt. Soraksan Nature Reserve (01/09/1994)
- Naganeupseong, Town Fortress and Village (11/03/2011)
- Oeom Village (11/03/2011)
- Salterns (11/01/2010)
- Seoul City Wall (23/11/2012)
- **Seowon, Confucian Academies of Korea (09/12/2011)**
- Sites of fossilized dinosaurs throughout the Southern seacoast (25/01/2002)
- Southwestern Coast Tidal Flats (11/01/2010)
- The Goryeong Jisandong Daegaya Tumuli (12/12/2013)
- Traditional Buddhist Mountain Temples of Korea (12/12/2013)
- Upo Wetland (11/01/2011)

Seowon, Confucian Academies of Korea (09/12/2011)

Date of Submission: 09/12/2011

Criteria: (ii)(iii)(iv)(vi)

Category: Cultural

Submitted by:

Permanent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UNESCO

Ref.: 5648

Pilam Academy	378 Pilam-ri, Hwangnyong-myeon, Jangseong-gun County, Jeollan-am-do Province	N35 18 38 E126 45 10
----------------------	--	----------------------

- 5) Tentative Lists - Korea, Republic of (<http://whc.unesco.org/en/tentativelists/state=kr>). 잠정목록은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희망하는 회원국들이 작성한 자국의 유산 목록이다. 회원국들은 잠정 목록에,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자연 및 문화유산으로서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유산들을 포함시킨다. 회원국들은 지역 담당자, 지역 정부, 지역 단체, 무정부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잠정목록을 작성해야 하며,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 최소 1년 전에 대략적인 잠정목록을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잠정목록제출양식은 영문 또는 불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목록에는 유산의 명칭, 지리적 위치, 간략한 설명 및 보편적 가치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회원국의 잠정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유산은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될 수 없다. 모든 잠정목록은 운영 지침(Operational Guidelines)에 맞게 작성된다. 191개 협약 당사국 중 171개국이 1,589개의 잠정목록(2014년 6월 현재)을 제출하였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http://www.unesco.or.kr/heritage/wh/list_provisional.asp).

【 관련자료 - 2015년도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으로 「한국의 서원」 선정, 2013.11.29 】

2015년도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

□ 「한국의 서원」 유산개요

○ 유산명 : 한국의 서원

○ 대상서원(9개소) : 도동서원(대구 달성), 돈암서원(충남 논산), 무성서원(전북 정읍), 필암서원(전남 장성), 옥산서원(경북 경주), 병산서원(경북 안동), 도산서원(경북 안동), 소수서원(경북 영주), 남계서원(경남 함양)

* 현재 남한에 있는 서원 637개 중 사적으로 지정된 9개소

○ 세계유산적 가치

- 조선시대의 서원은 사립 교육기관을 대표하는 시설로서, 중세 동아시아의 중요한 사상 중의 하나인 성리학이 조선사회에 정착하게 한 산실이었음. 중국의 주희가 집대성한 성리학이 서원에서 중국, 일본과 다른 모습으로 발전하게 됨
- 조선시대의 서원은 성리학이 지향하는 자연관과 한국의 문화적 전통이 반영된 교육 유산의 특출한 전형임. 특히 서원의 건축 공간은 성리학적 가치관, 세계관, 자연관이 반영된 물리적 표상임
- 서원의 공간은 유식 공간, 강학 공간, 제향 공간으로 구성되는 독특한 구조임. 또 이 공간의 입지는 건축과 자연이 하나로 어우러지도록 택해져 자연경관과 서원의 건축이 하나를 이룸
- 서원은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의 사상과 활동의 보고로써 유교의 예가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존속된 곳임. 또 지역사회의 지성사적, 정신문화적 유서가 서려 있는 현장임

※ 세계유산 등재 신청/실사 관련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및 부속자료 제출 ('15.1월)
	9개서원 세계유산 실사 : 이코모스(ICOMOS) 실사자 방문 ('15.9)6)

- 6) 이번 실사 결과와 이미 제출된 세계유산등재신청서에 대한 서면심사 결과를 근거로 내년 5월경 등재권고(Inscribe), 보류(Refer), 반려(Defer), 등재불가(Not to inscribe) 등 4가지 권고안 중 하나가 결정된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현지실사는 유네스코의 의뢰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수행하였다. 이번 '한국의 서원' 현지실사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캐나다 회원이며 홍콩대 건축학부 부교수인 린 디스테파노(Dr. Lynne D. DiStefano) 씨가 담당했다. 5일에 걸쳐 진행된 실사 동안 디스테파노 교수는 등재 대상 서원인 ▲소수서원(경북 영주) ▲도산서원(경북 안동) ▲병산서원(경북 안동) ▲옥산서원(경북 경주) ▲도동서원(대구 달성) ▲남계서원(경남 함양) ▲필암서원(전남 장성) ▲무성서원(전북 정읍) ▲돈암서원(충남 논산) 등 9개 서원을 방문해 세계유산으로서의 완전성과 진정성, 보존·관리·활용 현황 등을 점검했다. 최종 등재 여부는 내년 5월경 등재권고가 결정된다는 전제 하에 7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될 '제40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된다.

< 참고 - 세계유산 등재절차 >

-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
 - 회의개최시기 : 매년 6월말에서 7월 사이
 - 세계유산위원회 심의 및 신규 세계유산 최종 결정

결정사항	내용	비고
등재	세계유산 등재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스라엘-아랍간 유산 등)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등재
보류 (Referral)	일부 미비한 자료가 있어 다음해 2.1일까지 추가 자료 제출 필요. 자료 보완시 차기 위원회 회의에서 재심의.	자료 보완시 당해 또는 차기년도 회의에서 등재 가능성 높음.
반려 (Deferral)	등재신청서상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심화연구 또는 신청서 수정 필요.	원칙적으로 현지 재조사
등재 불가	등재 불가	같은 유산 재신청 불가

<표>로 보는 세계유산 등재절차

```

graph TD
    A[각국정부] -- "세계유산 등재신청" --> B[세계유산센터]
    B -- "신청유산 평가의뢰" --> C[ICOMOS/IUCN]
    C -- "평가결과 송부" --> D[세계유산위원회/등재결정]
    
```

1) 세계유산 잠정목록 제출
- 가급적 정식신청서 제출 1년전까지

2) 세계유산 등재 정식신청서 제출
- 매년 2월 1일 마감/연간 2점 이내
- 사진/비디오 등 관련 자료 제출

1) 신청서 접수 및 검토
2) 자문기구에 평가 의뢰
- 문화유산: ICOMOS
- 자연유산: IUCN
- 복합유산: ICOMOS/IUCN

1) 당해년도 - 신청국에 전문가 파견, 현지 조사, 보고서 작성
2) 다음해 1월
- 신청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권고사항을 결정하는 내부회의 개최

자문기구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세계유산 등재, 보류, 반려, 등재 불가 결정
- 통상 매년 7월 개최

ICOMOS 심사절차

```

graph TD
    A[각국의 세계유산신청서 제출] --> B[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B --> C[ICOMOS 세계유산사무국]
    C --> D[서면 검토]
    C --> E[전문가현지조사보고서]
    D --> F[ICOMOS 국제전문위원회]
    E --> G[ICOMOS 국내위원회]
    F --> H[ICOMOS 세계유산사무국]
    G --> H
    H --> I[ICOMOS 세계유산 패널 회의]
    I --> J[세계유산위원회에 ICOMOS 보고서 제출]
    
```

ICOMOS 심사절차

세계유산위원회에 ICOMOS 보고서 제출

ICOMOS 세계유산 패널 회의

ICOMOS 전문가 그룹

ICOMOS 세계유산 사무국

서면 검토

전문가현지조사보고서

ICOMOS 국제전문위원회

관련전문기관들

ICOMOS 국내위원회

관련전문가

ICOMOS 세계유산사무국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각국의 세계유산신청서 제출

○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한국의 서원은 아래 표에 의하면 현재 11단계가 마친 상태임

<표 II-7> 세계유산 등재절차

단계	시기	주체	내용
1단계	-	시도지사	잠정목록 대상 유산을 문화재청에 신청
2단계	-	문화재청	잠정목록 대상 유산 조사
3단계	-	문화재청	잠정목록 등재 신청 대상 확정
4단계	-	문화재청	잠정목록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
5단계	-	문화재청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매년 2~4개 유지)
6단계	등재신청연도 전전년12월말까지	문화재청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 선정(2개)
7단계	등재신청연도 전년7월말까지	문화재청	세계유산 최종 등재신청 대상 선정
8단계	등재신청연도 전년8월말까지	시도지사	세계유산등재신청서 초안을 문화재청에 제출
9단계	등재신청연도 전년9월30일까지	문화재청	세계유산등재신청서 초안을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
10단계	등재신청연도 2월1일까지	문화재청	세계유산등재신청서 최종본을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
11단계	등재신청연도 8~9월	유네스코 자문기구	유네스코 자문기구 현지실사
12단계	등재신청연도 9~12월	유네스코 자문기구	유네스코 자문기구 보충자료 요구
13단계	등재신청연도 익년4월경	유네스코자문기구	유네스코 자문기구 심사결과를 유네스코에 통보
14단계	등재신청연도 익년6~7월경	세계유산위원회	세계유산위원회 결정

주1)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의 이점은 해당유산의 보호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과 지원을 높일 수 있는데 있다. 한 국가의 문화수준을 가능하는 척도로서도 작용하기 때문에 유산 소재 지역 및 국가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고취 시키며 유산 보호를 위한 책임감을 형성한다.

주2) 또한 세계유산목록에 오른 유산들은 국제적 협력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산 보호에 대한 사업들에 국제기구 및 단체들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정부의 추가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보존계획 및 관리의 수준이 향상되며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방문객이 증가되어 이에 따른 고용기회 및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

Ⅲ. 필암서원의 현황

1. 조선시대 서원과 서원건축

가. 조선시대 서원(書院)

1) 서원(書院)의 정의 및 명칭유래

조선 중기 이후 학문연구와 선현제향(先賢祭享)을 위하여 세운 사설교육기관을 의미한다. 서원의 명칭은 당나라 현종 때 여정전서원(麗正殿書院)·집현전서원(集賢殿書院) 등의 설치에서 유래하였다. 원래 내외의 명현(名賢)을 제사하고 청소년을 모아 인재를 기르는 사설기관이었는데, 선현을 제사하는 사(祠)와 자제를 교육하는 재(齋)를 합하여 설립되었다고 한다.

2) 서원(書院)의 연혁

서원의 기원은 중국 당나라 말기부터 찾을 수 있지만 제도화된 것은 송나라 때로서, 특히 주자가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을 열고 이를 보급한 이래 남송·원·명을 거치면서 성행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543년(중종 38) 풍기군수 주세붕(周世鵬)이 고려 말 학자 안향(安珦)을 배향하고 유생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경상북도 순흥에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¹⁾을 창건한 것이 그 효시이다.

그러나 백운동서원은 사묘(祠廟)가 위주이었고, 서원은 다만 유생이 공부하는 건물만을 지칭하여 사묘에 부속된 존재에 그쳤다. 서원이 독자성을 가지고 정착, 보급된 것은 이황(李滉)에 의해서인데, 그는 풍기군수에 임명된 후 서원을 공인화하고 그 존재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백운동서원에 대한 사액과 국가의 지원을 요구하였다.

또한 고향인 예안에서 역동서원(易東書院) 설립을 주도하는가 하면, 10여 곳의 서원에 대해서는 건립에 참여하거나 서원기(書院記)를 지어 보내는 등 그 보급에 주력하였다.

마침내 1550년(명종 5) 이황의 요청대로 명종이 백운동서원에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는 어필(御筆) 현판과 서적을 하사함으로써, 사액서원(賜額書院)의 효시가 되었다.

1)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에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으로 사적 제55호로 지정, 현재의 소수서원(紹修書院)을 지칭한다.

3) 서원(書院)의 설립배경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유교 중심 정책을 써서 고려의 사원(寺院)을 대신하여 서재(書齋)·서당(書堂)·정사(精舍)·선현사(先賢祠)·향현사(鄉賢祠) 등을 장려하였다. 세종은 특히 이를 장려하여 상을 준 일이 있었다.

그러나 이때의 서원은 재와 사의 두 기능을 겸한 것이 못 되었으니 1542년(중종 37년) 풍기군수 주세붕이 순흥에서 고려의 학자 안향을 모시는 사당을 짓고 이듬해 백운동서원이라 한 것이 조선 최초의 서원이었다.

그 후 전국 각지에서 많은 서원이 생겼으며, 1550년(명종 5년)에는 이퇴계의 건의로 임금이 백운동서원에 소수서원이라는 액(額 : 간판)을 하사하고 책·노비·전결(田結) 등을 주어 장려하였다. 이것이 사액서원(賜額書院)의 시초가 되었으며 마침 황폐해 가는 향교에 대신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서원이 각처에 설치되었다.

그리하여 명종 이전에 설립된 것이 29개, 선조 때는 1백 24개, 숙종 때에는 1도에 80 ~ 90개를 헤아리게 되었다.

4) 서원(書院)의 변천

조선초에 건립된 서원의 숫자는 19개소였는데, 이는 당시의 정계가 전반적으로 척신계(戚臣系)에 의하여 주도된 사정을 감안할 때 상당한 진척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초창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액된 곳이 4개처나 되는 것은 서원이 이 시기에 이미 관설에 준하는 교학기구로서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원은 선조대에 들어와 사림계가 정치의 주도권을 쥐게 된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 우선 양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선조 당대에 세워진 것만 사액서원 22개소를 포함하여 60여 개소가 넘었으며, 현종 때까지 193개소가 더 설립되었다.

지역별로는 초창기의 경상도 일변도에서 점차 벗어나 전라·충청·경기도 지역에서의 건립이 활발해졌으며, 한강 이북지역에서도 차차 보급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후 숙종대에 들어와 166개소(사액 105개소)가 건립되는 급격한 증설현상을 보였는데, 연평균 건립수가 3.6개소로서 종전의 두배를 넘어섰으며 사액도 2.5배(연평균 2~3개소)가 증가되어 남설의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서원문제는 1644년(인조 22) 영남감사 임담의 서원 남설에 대한 상소에서 처음 제기되었으며, 그 뒤에도 효종·현종 연간을 거치면서 그 폐단을 논하는 상소로 인한 논의가 조정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숙종초까지만 하여도 서원의 문란상은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아서 서원대책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였다. 서원에 대한 통제가 적극성을 띠기 시작한 것은 1703년(숙종 29)에 이르러서이다.

이때 전라감사 민진원(閔鎭遠)은 조정에 알리지 않고 사사로이 서원을 세우는 경우 지방관을 논죄할 것을 상소하였는데, 왕이 이에 적극 찬동함으로써 서원금령이 강제성을 지니게 되었고, 1713년 말에는 예조판서 민진후(閔鎭厚)의 요청으로 첩설을 엄금하고 사액을 내리지 않을 것을 결정하였다. 이어 1717년에는 8도의 관찰사에게 숙종 29년 금령 후 창건된 서원에 대한 조사를 명령하고 1719년(숙종 45)부터 왕이 하나하나 존폐를 결정하기까지 하였다.

이후 서원폐단에 대한 조야의 인식이 깊어지고 서원통제론이 자리를 굳히게 되었으며, 영조 때인 1741년경에 대대적인 서원철폐가 이루어졌다. 영조는 서원이 노론·소론·남인 사이의 분쟁을 유발하여 정국을 혼란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판단하였으며, 그 건립에 따른 시비를 근원적으로 봉쇄할 목적으로 1714년 이후 건립된 서원은 물론 사우·영당 등의 모든 제향기구를 없애도록 하였다. 영조의 이 조처는 철저히 시행되어 지방관의 철저한 책임하에 진행되었는데, 이때 19개의 서원을 포함하여 총 173개소의 사우가 훼철되었다.

한편 서원 자체도 점차 교화의 방향을 상실한 채 사림층의 대민착취에 따른 서원의 부패로 민폐가 심화되고 있었다. 세도정치의 외형적인 지주로서 노론측 당론의 소굴이었고, 충청도 유림의 여론을 좌우하는 거점으로서 전국에 걸쳐 광대한 수세지를 가지고 있었던 화양동서원(華陽洞書院)²⁾의 작폐는 19세기 이후의 서원이 사회에 끼친 역기능적인 폐단을 극적으로 말해주는 예이다. 고종이 왕위에 오르자, 때마침 실추된 왕권의 권위를 높이며 강력한 중앙집권하에 국가체제의 정비를 꾀하던 흥선대원군은 서원의 일대 정리에 착수하였다.

흥선대원군은 1864년(고종 1)에 이미 민폐문제를 구실로 사원에 대한 조사와 그 존폐여부의 처리를 조정에 맡겼으며, 1871년에는 학문과 충절이 뛰어난 인물에 대하여 1인당 1개 이외의 서원을 일시에 훼철하게 함으로써 전국에 47개소의 서원만 남겨놓게 된 것이다³⁾.

2) 화양동서원(華陽洞書院)은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에 있었던 서원으로 1695년(숙종 21)에 노론의 영수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을 제향하기 위하여 그의 문인인 권상하(權尙夏)·정호(鄭濤) 등 노론계 관료와 유생들이 힘을 합쳐 세웠다.

3) 서원철폐령(書院撤廢令)은 1871년(고종 8년) 음력 3월 20일 지방에 있어서 양반의 근거지로 남설(濫設)된 서원의 오랜 적폐(積弊)를 제거하기 위해 흥선대원군이 서원에 대해 내린 일대 정리 명령이다. 전국에 서원을 47개소만 남기고 통폐합한 조치이다. 비사액서원을 우선적으로 정리를 하였고, 사액서원이라도 첩설된 것과 불법을 횡행하는 서원은 모두 철폐되었다.

<표Ⅲ-1> 고종 때의 철폐령에서 제외된 서원 47개소

도	서원명	문화재지정별	주향(主享)	건립	사액 (賜額)	비고
경기도 (12)	개성 송양서원(崇陽書院)	-	문충공 정몽주(文忠公 鄭夢周)	1573	1575	
	김포 우저서원(牛渚書院)	경기도 유형 10호	문렬공 조 헌(文烈公 趙 憲)	1648	1675	
	용인 심곡서원(深谷書院)	사적 530호	문정공 조광조(文正公 趙光祖)	1605	1650	
	양성 덕봉서원(德峰書院)	경기도 유형 8호	충정공 오두인(忠貞公 吳斗寅)	1695	1695	
	피주 파산서원(坡山書院)	경기도문화재자료 10호	문간공 성 혼(文簡公 成 渾)	1568	1650	
	고양 기공사(紀功祠)		충장공 권 율(忠莊公 權 慄)	1841	1841	충장사
	여주 강한사(江漢祠)	경기도유형 20호	문정공 송시열(文正公 宋時烈)	1785	1785	대老祠
	과천 사충서원(四忠書院)	하남시향도유적 제3호	충헌공 김창집(忠獻公 金昌集) 이이명(李爾命) 조덕재(趙德宰) 이건명(李健命)	1725	1725	
	과천 노강서원(鷺江書院)	경기도기념물 41호	문렬공 박태보(文烈公 朴泰輔)	1695	1697	충렬사
					1791	노강서원
	강화 충렬사(忠烈祠)	인천광역시 유형 21호	문충공 김상용(文忠公 金尙容)	1642	1658	
	광주 현절사(廣州 顯節祠)	경기도 유형 4호	문정공 김상헌(文正公 金尙憲)	1688	1693	
충청도 (5)	포천 용연서원(龍淵書院)	경기도 유형 70호	문익공 이덕형(文翼公 李德馨)	1691	1692	
	연산 돈암서원(遯巖書院)	사적 383호	문원공 김장생(文元公 金長生)	1634	1659	
	홍산 창렬사(扶餘 彰烈祠)		문정공 윤 집(文正公 尹 集)	1717	1721	창렬서원
	노성 노강서원(魯岡書院)	충남 유형 30호	문정공 윤 황(文貞公 尹 煌)	1675	1682	논산
	창주 표충사(表忠祠)	충남지방기념물 제17호	충민공 이봉상(忠愍公 李鳳祥)	1731	1736	
전라도 (3)	충주 충렬사(忠烈祠)	사적 189호	충민공 임경업(忠愍公 林慶業)	1679	1727	
	태인 무성서원(武城書院)	사적 166호	문창후 최치원(文昌侯 崔致遠)	1615	1696	정읍
	장성 필암서원(筆巖書院)	사적 242호	문정공 김인후(文正公 金麟厚)	1590	1662	
경상도 (14)	광주 포충사(褒忠祠)	광주광역시 기념물 7호	충렬공 고경명(忠烈公 高敬命)	1601	1603	
	순흥 소수서원(紹修書院)	사적 55호	문성공 안 향(文成公 安 珦)	1543	1550	최초사액
	선산 금오서원(金烏書院)	경북기념물 60호	충절공 길 재(忠節公 吉 再)	1570	1575	
	현풍 도동서원(道東書院)	사적 488호	문경공 김광필(文敬公 金宏弼)	1605	1607	달성
	상주 옥동서원(玉洞書院)	경북기념물 52호	익성공 황 희(翼成公 黃 喜)	1518	1780	
	함양 남계서원(藍溪書院)	경남문화재자료 229호	문헌공 정여창(文獻公 鄭汝昌)	1552	1566	
	안동 병산서원(屏山書院)	사적 260호	문충공 류성룡(文忠公 柳成龍)	1613	1863	존덕사
	예안 도산서원(陶山書院)	사적 170호	문순공 이 황(文純公 李 滉)	1574	1575	
	동래 충렬사(忠烈祠)	부산광역시 유형 7호	충렬공 송상현(忠烈公 宋象賢)	1605	1624	
	상주 흥암서원(興巖書院)	경북기념물 61호	문정공 송준길(文正公 宋浚吉)	1702	1705	
	진주 창렬사(彰烈祠)	경남문화재자료 5호	진주성 산화 순국 선인	1593	1607	
	경주 서악서원(西嶽書院)	경북기념물 19호	홍유후 설 총(弘儒候 薛 聰)	1561	1623	
	경주 옥산서원(玉山書院)	사적 154호	문원공 이언적(文元公 李彦迪)	1573	1574	
	고성 충렬사(忠烈祠)	사적 236호	충무공 이순신(忠武公 李舜臣)	1606	1663	통영
	거창 포충사(褒忠祠)	경남문화재자료 57호	충강공 이술원(忠剛公 李述原)	1737	1768	
강원도 (3)	김화 충렬서원(忠烈書院)	강원도기념물 72호	충렬공 홍명구(忠烈公 洪命耆)	1650	1652	철원
	영월 창절서원(彰節書院)	강원도유형 27호	충정공 박팽년(忠正公 朴彭年)	1685	1699	
	철원 포충사(褒忠祠)		충무공 김응하(忠武公 金應河)	1665	1668	
황해도 (4)	배천 문회서원(文會書院)		문성공 이 이9文成公 李 珥	미상	1568	
	장연 봉양서원(鳳陽書院)		문순공 박세채(文純公 朴世采)	1695	1696	
	평산 태사사(太師祠)		장절공 신숭겸(壯節公 申崇謙)	고려	1796	
	해주 청성묘(淸聖廟)		청혜후 백 이(淸惠候 伯 夷)	1691	1701	
함경도 (1)	북청 노덕서원(老德書院)		문충공 이항복(文忠公 李恒福)	1627	1687	
평안도 (5)	영유 삼충사(永柔三忠祠)		무향후 제갈량(武鄉候 諸葛亮)	1603	1668	
	안주 충민사(忠愍祠)		충장공 남이흥(忠莊公 南以興)	1681	1682	
	영변 수충사(酬忠祠)		서산대사 휴정(西山大師 休靜)	미상	1784	
	평양 무열사(武烈祠)		상서석성(尙書石星)	1593	동년	
	정주 표절사(表節祠)		충렬공 정 시(忠烈公 鄭 誓)		1824	

5) 서원(書院)의 운영

서원의 교육은 자체적으로 제정한 원규에 의하여 수행되었는데, 이에는 서원의 입학자격과 원임(院任)의 선출절차, 교육목표 및 벌칙조항이 수록되어 있다.

서원교육은 원장(院長)·강장(講長)·훈장(訓長) 등의 원임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원장은 서원의 정신적인 지주이면서 유림의 사표로서의 구실을 담당하였으며, 퇴관한 관료이거나 당대의 명유석학이 맡는 것이 관례이었다. 강장은 경학과 예절에 대한 강문을 담당하고, 훈장은 학문근면과 훈도를 책임졌다. 그밖에 서원관리를 위하여 재장(齋長)·집강(執綱)·도유사(都有司)·부유사(副有司)·직월(直月)·직일(直日)·장의(掌議)·색장(色掌) 등의 직책을 두었다. 서원의 입학자격은 시대별·지역별 혹은 서원별로 달랐으나 대체로 생원·진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일반적이다.

학생의 정원은 처음에는 별다른 규제가 없었으나, 서원남설이 사회문제화된 1710년(숙종 36)에 사액서원에 20명, 문묘종사유현서원(文廟從祀儒賢書院)에 30명, 미사액서원에 15명으로 정하여졌다.

6) 서원(書院)의 교육내용

서원의 교육내용은 성리학적이고 도학적인 것이 중심을 이루었고, 사학 특유의 자율성과 특수성이 존중되었다. 대체로 이황이 이산원규(伊山院規)에서 제시한 교재의 범위와 학습의 순서가 정형이 되었는데, 사서오경으로 본원(本原)을 삼고, 「소학」·「가례」를 추가한 것이 상례로 되었다. 청계서원(淸溪書院)의 원규에는 독서의 순서를, 「소학」·「대학」·「논어」·「맹자」·「중용」·「시경」·「서경」·「주역」·「춘추」의 차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서원의 일반적인 교육과정이라고 하겠다. 위의 사서오경 외에도, 여러 가지 경사자집(經史子集) 속에서 서원의 성격에 따라 선별하여 교육하였다.

7) 서원(書院)의 현황

홍선대원군의 서원철폐 때 남은 47개의 서원은, 현재 북한에 소재하여 근황을 알 수 없는 11개소와 한국전쟁으로 소실된 채 방치되어 있는 강원도 김화의 충렬서원(忠烈書院)과 철원의 포충사(褒忠祠) 2개 소를 제외한 34개 소가 존속하고 있다.

이들도 물론 광복 뒤의 토지개혁으로 토지를 상실하여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전쟁의 피해로 건물이 일부 소실되는 수난을 겪기도 하였지만 제향인물의 후손이나 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물을 중건, 신축하여 옛날의 면모를 되찾아가고 있다. 이들 서원은 전래의 서원문고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향교와 함께 아직도 지방유림들의 시회(詩會)나 강회(講會)가 열리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기는 하나 경제적인 뒷받침이 적어 평소에는 빈 건물로 남아 있다.

서원의 운영은 지방유림들로 구성된 유사와 장의에게 맡겨져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후손의 재정적 보조에 의존하고 있다. 이들 서원은 현재 지방사회에 있어서 전통문화보존과 연마의 중심체로서의 기

대를 모으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아쉬움을 주고 있다.

8) 서원(書院)의 건축물

성리학적 이상을 실현할 인물을 배출하는 곳인 동시에 선현을 봉안하고 있는 서원은 사림과 성리학적 정신세계를 가장 잘 반영한 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 순수하고 청정한 학문적 분위기가 흐르는 강학 공간과 경건하고 엄숙한 제향 공간이 건축물의 배치와 구성에 따라 어떻게 분리되고 어우러지는지 서원건축물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서원의 건축물은 크게 선현의 제사를 지내는 사당, 선현의 뜻을 받들어 교육을 실시하는 강당, 원생·진사 등이 숙식하는 동재(東齋)·서재(西齋)의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

이외에 문집이나 서적을 펴내는 장판고(藏版庫), 책을 보관하는 서고, 제사에 필요한 제기고(祭器庫), 서원의 관리와 식사준비 등을 담당하는 고사(庫舍), 시문을 짓고 대담을 하는 누각 등이 있다.

건물의 배치방법은 문묘나 향교와 유사하여 남북의 축을 따라 동·서에 대칭으로 건물을 배치하고 있으며, 남쪽에서부터 정문과 강당·사당 등을 이 축선에 맞추어 세우고 사당은 별도로 담장을 두른 다음 그 앞에 삼문(三門)을 두어 출입을 제한하였다. 이 부근에 제사를 위한 제기고가 놓이고, 강당의 앞쪽 좌우에 동·서재를 두었으며 강당 근처에는 서고와 장판각 등을 배치하였다.

9) 서원(書院)의 세계문화유산적 가치

조선시대의 서원은 사림 교육기관을 대표하는 시설로서, 중세 동아시아의 중요한 사상 중의 하나인 성리학이 조선에 전래되어 조선 사회에 정착·형성한 산실로써, 중국의 주희가 집대성한 성리학이 서원에서 중국, 일본과 다른 모습으로 발전하였다.

조선시대의 서원은 성리학인 지향하는 자연관과 한국의 문화적 전통이 반영된 교육 유산의 특출한 전형으로, 특히 서원의 건축 공간은 성리학적 가치관, 세계관, 자연관이 반영된 물리적 표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단법인 한국서원연합회에서는 전국의 648개⁴⁾ 서원의 목록을 정리하고 있으며, 한국의 9대 서원으로 소수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병산서원, 필암서원, 돈암서원, 도동서원, 남계서원, 무성서원을 들고 있다.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명현을 제사하고, 인재를 교육하기 위해 전국에 세운 사설 기관으로, 유교 문화의 핵심이 되는 양반사회와 그 정신문화가 담겨 있다. 조선 시대의 지배 계층인 유가의 사림의 활동 기반으로서 국가 경영과 사회운명을 논하는 경륜을 펼친 곳이다.

한국의 서원은 인격의 완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도학적 학문 전통을 내재화하는 한편, 인의 실현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확립하여 안으로는 덕성의 실현, 밖으로는 국가의 공동선을 실현하였다.

4) 문화재청 자료에 의하면, 현재 637개 서원이 남아있으며, 그 중 지금도 잘 보존 관리된 9개의 서원은 매우 높은 문화유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예를 중요시 하는 유교의 정신과 문화를 널리 확산, 정착시키는 사회교육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서원에서 이루어지는 제향의례나 강학의례 등의 여러 형태의 생활의례들은 서원이 사회교육의 실현 처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서원은 조선시대 선비의 학문성과 도덕적 실천성, 그리고 지역 문화의 역사성이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다양한 무형 문화유산(역사, 교육, 제향의례, 기록문화 등)을 갖추고 있어 보편적 가치, 진정성, 완전성 측면에서 빼어난 대표적인 유산이다.

2. 한국 서원의 공간 및 건축적 특징

조선시대 지방의 사립교육기관인 서원은 조선 중기 이후 향교의 쇠퇴로 인해 서원의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이 내려질 때까지 사학교육기관으로서 중심 역할을 다하였다. 조선시대 서원은 유교를 숭상하던 사림 세력의 향권주도와 향촌 교화를 위한 집결체로서 유향소(留鄕所), 관학교육기관인 향교와 더불어 향촌 운영기구의 하나로 인식되어졌다.

서원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강력한 중앙집권제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상적 기반으로 유교를 육성하고자 한 왕조의 정책에 의해서 탄생하게 된다.

가. 서원건축의 입지 특성

성균관이나 향교가 조정의 직접적인 관여를 받게 되는 관학인 반면 서원은 사학으로서 과거에 대한 준비기관이란 면에서는 향교와 같으나 조정과는 행정상으로 상당히 분리되어 있다. 또한 서원제도 자체에 함유된 은둔사상 등이 내포되어 서원 건축의 위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상도와 전라도 지방의 읍지들에 나타난 서원 및 향교의 위치를 살펴보면 성곽이나 현치, 읍치 부근의 서원이 소수인데 비해 이들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서원은 큰 숫자를 차지한다. 이는 관아를 비롯한 행정의 중심지로부터 대부분 서원이 격리되어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있어 지배적인 택지사상으로서 풍수지리설은 서원건축의 입지선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지세에 있어서 서원건축은 주로 산의 아래에 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강학 공간보다 제향 공간을 후면의 고지에 두려는 서원건축 특유의 위계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성균관의 경우는 평지에 건립하되 전면에 제향 공간을 두고 후면에 강학 공간을 두었고, 향교건축에 있어서도 경사지에 입지할 경우는 전학후묘 배치를, 평지일 경우는 전묘후학의 배치로써 지세에 따라 융통성 있는 배치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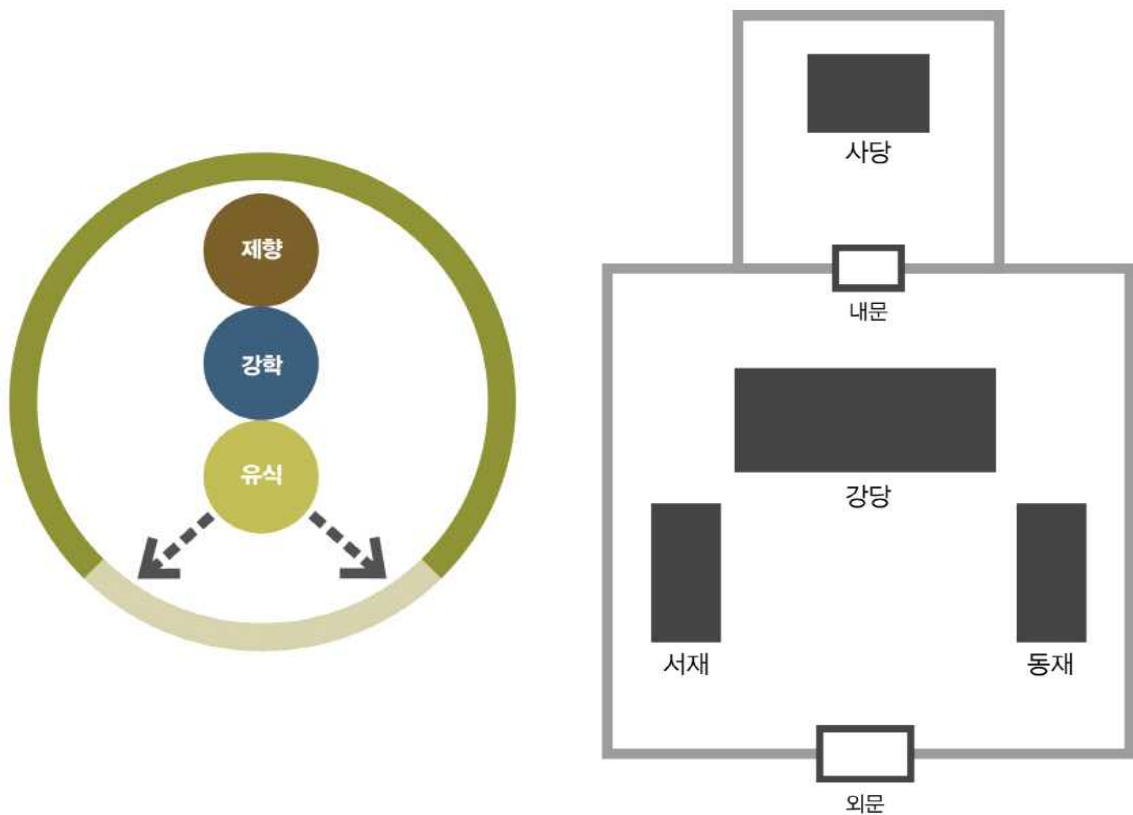
그러나 서원의 경우는 평지이든 경사지이든 전학후묘의 배치로 일관하였는데 이는 제향 공간을 강학 공간보다 고지에 두려는 의도로서 자연히 경사지를 얻기 쉬운 산 아래에 주로 건립하였던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경주시의 서악서원은 평지에 건립되어 강학, 제향 공간의 고저차를 두지 않았으나 배산지형을 취한 것은 다른 서원과 다름이 없다.

나. 서원의 공간구성 및 특성

서원의 공간구성은 향교와 마찬가지로 기능에 의하여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서원의 경우는 향교건축의 배치와는 달리 전학후묘형이 전부이며 전묘후학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공간의 구성과 공간의 위계는 향교보다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서원의 입지가 읍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구릉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간의 구성도 노강서원 배치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구성된다. 평지에 위치한 서원과 구릉에 위치한 서원이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외삼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솔길 등의 진입공간을 거치게 되며 외삼문을 들어 서면 강당 공간이 위치한 본 공간이 나타나게 된다.

누각이 있는 경우 강학 공간을 둘로 구분하여 1차적인 공간과 2차적인 공간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강당을 지나면 내삼문이 위치하게 되며 이 문안에는 사당을 중심으로 한 제향공간이 위치한다. 이와 같은 공간구성은 모든 서원건축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원칙은 지켜지고 있다.



<그림Ⅲ-1> 서원개념 다이어그램 및 공간배치유형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자료

1) 유식((遊息)ᄃᆞᆫ간 - 재(齋)

원생들이 숙식과 독서를 하던 곳으로서 정면 2~5칸, 측면 1~3칸 정도로 그 규모가 다양하다. 재는 일반적으로 동재와 서재로 나누어지는데 동재에 기거하는 원생이 서재의 원생보다 선임된다. 동재와 서재의 명칭은 서원마다 각 서원마다 고유의 명칭을 부여하였다.

도동서원의 경우 거인재(居仁齋:동재)와 거의재(居義齋:서재), 도산서원의 경우 박약재(博約齋:동재)와 홍의재(弘毅齋:서재), 필암서원은 진덕재(進德齋)와 숭의재(崇義齋)라는 현판을 걸었다. 건축형식은 유생들이 기거하는 방이었으므로 살림집의 형태에 가깝게 건축되었다.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1칸 정도이며 전면은 빗마루를 설치하는 경우 반칸이 더 나간다. 평면의 구성은 안쪽으로 모두 온돌방을 설치한 경우도 있고 한쪽 끝으로 부엌, 또는 중앙으로 1칸 대청을 배치하는 등 다양한 모형으로 되어 있다.

2) 강학공간 - 강당(講堂)

강당강학공간의 중심으로 유생들이 강학하던 곳이며, 또한 원장이 거처하는 곳이기도 하다. 향교의 명륜당에 해당하는 건물이다. 서원 내에서는 제일 규모가 크며 기능적으로 넓은 대청, 그리고 온돌방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다. 정면 3~6칸, 측면 2~3칸 정도로 대청과 온돌방으로 구성된다. 서원 강당으로 규모가 큰 것은 예림서원의 강당으로 정면 6칸, 측면 2칸의 규모로 되어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서원은 강당 규모가 5칸×3칸, 5칸×2칸의 규모가 일반적이다. 평면은 대부분 중앙에 대청을 두고 양측에 정면 1칸씩 온돌방을 두는 것으로 이러한 형식이 가장 많다. 그러나 양측의 온돌방이 좌우균형이 많지 않는 예도 있다.(도연, 수림, 예림서원 등) 그리고 양측 중 한편에만 온돌방을 두는 형식이 있다.(소수, 도산, 서계서원 등)마지막으로 전체를 온돌방으로 하고 전면에 1칸 폭의 대청을 둔 형식이 있는데 이는 강당의 기능상 불합리한 평면형식으로 보인다.(덕양, 오봉서원 등) 강당의 명칭은 [-堂], [-書院], [-講堂], [-軒] 등의 어미를 붙여 부르는데 이 중 [-堂], [-書院]이 주로 쓰인다.

3) 제향공간 - 사당(祠堂)

사당제향 공간의 중심으로서 선현, 선조 등의 위패를 모시거나 영정을 함께 모시고 춘추로 제향을 베푸는 건물이며, 신실(神室)이라고도 한다. 제향인은 보통 1인을 원칙으로 하나, 후에 더 모실 분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 명을 봉안하게 되어 서원에 따라 1~5인을 두고 있다.

평면 구성은 정면 3칸이 대부분이며 측면은 1.5~3칸 정도인데 전면에 퇴칸을 많이 두는 것이 다른

5) 서원은 초창기에는 이황(李滉)의 서원관을 바탕으로 보급되었으며 격조 높은 강의와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수준 높은 성리학 교육이 이루어졌다. 학문의 방법은 모든 선이 본래 갖추어져 있음을 알아 선현의 교훈을 잘 지키며 성인의 고도(古道)를 마음대로 터득하고 몸소 행하여 근본을 밝혀가는 것이었다. 이는 곧 유생들의 장수와 유식이라는 이념으로 발전되었으며 서원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건축물에게까지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유식(遊息)이 사림의 예학자들에게 인식되고 서원건축에 표출된 것이다. (김상협, 조선시대 서원건축에 나타난 유식공간에 관한 연구, 명지대, 2001)

건물과 다르다. 사당은 제향의식만을 위한 것이므로 온돌방은 없고 우물마루나 회반죽바닥으로 하였다.

사당에 있어서 퇴칸의 구성은 제례의식과 관련이 있는데 <가례>에 의하면 사당 섬돌 아래에 토봉이 넓고 좁으냐에 따라 사당 처마와 마주 연결하여 지붕을 덮고 제향 시에 여러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는 주택의 사당, 향교의 대성전, 서원의 사당 등에는 퇴칸의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중간공간 역할 뿐 아니라 죽은 자와 산 자의 매개공간의 역할까지도 하고 있는 것이다. 사당의 명칭은 [-祠], [-廟], [祠宇], [-書院] 등의 어미를 붙이는데 이 중 [-祠]가 대부분이다.

4) 지원 공간 및 기타시설물 - 경각(經閣)

경장각(經藏閣), 어서각(御書閣), 묵판고(墨版庫)등으로 불리워 지는데 필암서원과 옥산서원에서만 찾아볼 수 있고 이는 전술한 장판각과 함께 건축되어 있으나 그 기능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 이런 류의 것으로 도산서원 내진도문 양측의 동 서광명실(西光明室)을 들 수 있다.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바닥은 마루로 되어있다.

그밖에 향교에 구성된 건축물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누각과 동 서재, 전사청(제기고), 고직사(교직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향교보다는 규모와 기능면에서는 축소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기타시설물로는 생단(牲壇), 관세위9盥洗位), 망례위(望禮位), 석등(石燈), 정료대(庭燎臺) 등이 있다.

다. 서원건축의 특성과 미학

한국의 서원건축은 절제되고 단아한 모습으로 성리학적 세계관을 건축배치와 공간의 차원으로 응축하여 내부 공간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들이 크거나 화려하지는 않지만 외부공간은 주변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배치형식을 통하여 자연합일의 이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서원건축의 위계의 표현 방법은 향교와 마찬가지로 지형을 이용한 것과 배치를 이용한 방법이 있다. 지형을 이용한 위계는 경사지에 서원을 배치, 진입공간에서 승화공간에 이르는 공간을 점차적으로 높게 배치하여 위계를 표현하는 경우이다. 배치에 의한 위계의 경우 강당과 사당에 이르는 구획을 내삼문과 담장으로 구획하여 표현하고 있으나, 지형에 의한 높이의 단차를 이용하여 위계를 표현하기도 한다.

배치에 의한 방법은 남북을 중심으로 일직선의 축을 형성하고 이 선에 따라 건물들을 배치하였다. 중심축의 경우 맨위에는 사당을 배치하여 가장 높은 위계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는 강당, 그 하부에는 문을 위치시켰으며 기타 부속건물은 좌우나 주변에 배치시켰다.

서원건축은 위계를 표현하기 위해 축을 사용하였다. 축은 유교건축 등에 권위를 상징하기 위하여 흔히 사용되는데, 서원건축의 경우에는 권위를 상징하면서도 자연과의 조화를 꾀한 점을 볼 수 있다. 직선형의 경우, 주요 건물을 완전히 직선상에 일치시키고 대청구조를 이루도록 하였다. 그 예로 필암서원, 옥산서원, 무성서원, 도동서원, 금오서원, 고천서원, 심곡서원 등이 있다. 꺾은축선형은 지형의 변화나 시지각적 측면에서 변화를 주기 위하여 사용된다. 충렬서원, 신안서원 등이 있다.

주부축형은 주축과 나란히 부축이 되는 형성되는 형으로 주축선이 있고 그 주변에 부축이 형성되어 좌우이동이나 진입동선과의 연계를 중시한 형이다. 예로는 병산서원, 도산서원, 인홍서원, 삼계서원, 덕천서원, 덕양서원, 강성서원 등이 있다. 직교축형은 축이 직교하는 형으로 주요 건물의 중심축선이 직교하여 개별적인 성격을 유지하여 문묘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고양하는 기법이다. 소수서원, 임천서원, 수암서원 등이 있다. 병렬축형은 주요 축선이 평행하여 개체성을 동등하면서도 강하게 표현하는 형으로 오봉서원이 있다.

라. 서원의 전통조경

한국의 서원이나 별서(別墅)의 유적은 15세기 이후의 것들이다. 조선 유학자들은 중국의 주자가 1183년 중국 숭안현 무이산계곡 승경인 무이구곡에 건립한 무이정사가 최고의 이상향이였다. 그들은 주자처럼 은둔하는 행동을 미덕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서원을 조영하거나 은둔의 별서를 건립할 때 주자의 무이구곡을 모방하려 하였고, 그를 흠모하여 조영 속에 상징화하였다. 서원이나 별서의 조원은 자연주의 바탕 위에 이루어졌으며, 현실의 명리를 떠나 선현의 학문을 수학하고 사색하는 공간을 조성한 것이다.

우리나라 전통조경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의 순리를 거역하지 않고 동화되도록 하는데 있다. 즉 인공구조물인 건축물이 한국인의 자연관에 일치되도록 노력해 왔는데 이러한 사상에 따라 정원을 조성할 때는 지형을 함부로 변형시키지 않았으며, 물의 이용에 있어서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자연의 법칙을 이용할 뿐, 인공적인 힘을 가하여 하늘에 쏘는 분수를 만들지 않았다. 꽃이나 나무는 생성하는 생물이므로 관상수 따위를 심어 인공의 수형을 만드는 가지치기 작업을 피하였다.

소나무, 대나무, 매화, 난, 국화, 연은 선비들이 좋아 하였고 느티나무, 회화나무, 벽오동나무, 단풍나무, 참나무, 복숭아나무, 주목, 배롱나무, 동백나무, 버드나무등으로 원림을 조성하고 감, 대추, 모과, 앵두, 살구, 밤, 배, 산수유, 호두, 포도등은 민가에서 많이 심었다. 또 직간(直幹)으로 자라는 나무보다 사간(斜幹)으로 자라는 나무를 좋아하였고, 인공 열식의 배식보다는 자연스러운 배식을 했다. 조형물은 자연과의 조화로 구성되어야 했으므로 건물을 세울때 터를 잡는 일이 제일 중요했다. 그러기에 자연의 순리가 조원의 기본 질서로 존중되어 조원의 원리가 되었다. 정자나 누각을 배치할 때도 자연의 조화를 먼저 생각하여 연못이나 강가, 산자락에 세워 원을 감상하는 장소로 삼았고 본다.

3. 서원현황

가. 필암서원의 역사

1) 김인후의 생애와 사상⁶⁾

김인후(金麟厚)는 1510(중종 5)~1560(명종 15).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로, 전라남도 장성 출신이며, 본관은 울산(蔚山)이다. 자는 후지(厚之), 호는 하서(河西)·담재(湛齋). 아버지는 참봉 영(齡)이며, 어머니는 옥천 조씨(玉川趙氏)이다.

1519년(중종 14) 김안국(金安國)에게서 『소학』을 배웠으며, 1531년 사마시에 합격하고 성균관에 입학하였으며, 이때 이황(李滉)과 교우 관계를 맺고 함께 학문을 닦았다. 1540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권지(權知)승문원(承文院)부정자(副正字)에 임용되었으며, 이듬해 호당(湖堂)¹⁰⁾에 들어가 사가독서(賜暇讀書: 휴가를 얻어 독서에 전념)하고, 홍문관저작(弘文館著作)¹¹⁾이 되었다.

1543년 홍문관박사 겸 세자시강원설서·홍문관부수찬이 되어 세자를 보필하고 가르치는 직임을 맡았다. 또한 기묘사화 때 죽임을 당한 제현(諸賢)의 원한을 개진하여 문신으로서 본분을 수행하였는데, 그 해 부모의 봉양을 위해 옥과현감(玉果縣監)으로 나갔다.

1544년(중종 39)중종이 죽자 제술관(製述官)¹²⁾으로 서울에 올라왔으나, 1545년(인종 1)인종이 죽고 곧 이어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병을 이유로 고향인 장성에 돌아가 성리학 연구에 전념하였으며, 그 뒤

-
- 6) 김인후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자료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중종실록(中宗實錄)』, 『명종실록(明宗實錄)』, 『하서집(河西集)』을 통하여 자세하게 살펴 볼 수 있다.
- 7) 권지(權知⁰⁾는 조선 시대 과거합격자로서 성균관·승문원·교서관·훈원·별시위 등에 분관되어 임용 대기중인 견습 관원. 일종의 관인시보(官人試補)에 해당한다. 권지는 임시로 어떤 일을 관장함을 뜻하는데, 조선 초기에는 과거와 상관없이 여러 관서에서 두고 있던 비정규직이었다. 후에는 과거 합격자를 우선 임명하게 되었고, 합격자들이 적체되면서 비합격자를 권지로 임명하는 일이 없어졌다. 여기서의 권지는 관직 이름 앞에 붙여서, 그것이 임시직임을 나타내는 말로 정리할 수 있다.
- 8) 승문원(承文院)은 사대교린(事大交隣)에 관한 문서를 맡아보던 기관으로 조선 시대, 외교에 관한 문서를 맡은 관청이다. 괴원(槐院)이라고도 불린다. 자천제라는 승문원 참서관원의 인사관행이 확고히 자리를 잡았음을 알 수 있다. 승문원의 관원도 모두 문관으로만 임명하였다. 승문원 교리는 승문원에서 외교문서 작성과 검토에 관한 일을 맡아 보았다. 지금의 외교부에 해당한다.
- 9) 부정자(副正字)는 고려·조선 시대에, 교서관·승문원에 속하여 경서 및 기타 문서의 교정을 맡아보던 중구품 벼슬을 말한다.
- 10) 호당(湖堂)은 조선시대에 국가의 중요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하여 건립한 전문 독서연구기구로 독서당(讀書堂)이라고도 한다. 세종은 1426년 12월 젊은 문신들에게 휴가를 주어 독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사가독서제(賜暇讀書制)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독서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자택(自宅)으로 한정되었으므로 독서에만 전념하기에는 미흡하였다. 한편 사림(士林)으로 공부하는 제야 지식인이나 관직자가 은퇴한 뒤 자연의 경관이 뛰어나고 독서하기에 알맞은 곳에 정자나 건물을 마련하여 독서당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연려실기술』, 『택당집(澤堂集)』(이식), 「독서당의 유래와 변천」(김상기, 『향토서울』 4, 1957), 「조선왕조양반관료시대의 독서당고」(이현희, 『성신여사대론문집』 4·5, 1972) >
- 11) 저작(著作)은 조선시대 교서관(校書館)·홍문관(弘文館)·승문원(承文院)에 두었던 정팔품(正八品) 관직이다. 국사의 수찬(修撰)을 담당했으며, 홍문관저작은 경연에 참석할 수 있었다.
- 12) 제술관(製述官)은 조선 시대에, 승문원에 속한 벼슬로 전례문(典禮文)을 지어 바치던 임시 벼슬을 지칭한다.

1554년까지 성균관전적·공조정랑·홍문관교리·성균관직장 등에 제수되었으나 사직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김인후의 성리학 이론은 유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는 당시 이항(李恒)과 기대승(奇大升) 사이에 논란이 되었던 태극음양설(太極陰陽說)에 대하여, 이기(理氣)는 혼합되어 있으므로 태극이 음양을 떠나서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도(道)와 기(器)의 구분은 분명하므로 태극과 음양은 일물(一物)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이항의 태극음양일물설(太極陰陽一物說)을 반대한 기대승에 동조하였다. 또한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은 모두 그 동처(動處)를 두고 이른 말임을 주장함으로써, 후일 기대승의 주정설(主情說)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더불어 수양론에 있어서는 성경(誠敬)을 주된 목표로 삼았다. 노수신(盧守愼)과 함께 숙흥야매잠해(夙興夜寐箴解)¹³⁾를 논한 내용을 보면, 마음이 일신을 주재한다는 노수신의 설을 비판하고, 마음이 일신을 주재하지만 기(氣)가 섞여서 마음을 밖으로 잃게 되면 주재자를 잃게 되므로, 경(敬)으로써 이를 바르게 해야 다시금 마음이 일신을 주재할 수 있게 된다는 주경설(主敬說)을 주장하였다.

또한, 천문·지리·의약·산수·율력(律曆)에도 정통하였다. 제자로는 정철(鄭澈)·변성온(卞成溫)·기효간(奇孝諫)·조희문(趙希文)·오건(吳健) 등이 있으며, 시문에 능해 10여 권의 시문집을 남겼으나 도학에 관한 저술은 많지 않다. 저서로는 『하서집』·『주역관상편(周易觀象篇)』·『서명사천도(西銘事天圖)』·『백련초해(百聯抄解)』 등이 있다.

1796년(정조 20) 문묘에 배향되었고, 장성의 필암서원(筆巖書院)과 옥과의 영귀서원(詠歸書院)에 제향되었으며, 대광보국승록대부 영의정 겸 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2) 필암서원의 역사

가) 필암서원의 입지와 자연경관

필암서원은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에 있다. 1590년(선조 23)에 호남 유림 변성온(卞成溫) 등이 해서 김인후의 도학을 기리기 위해 장성읍 서쪽 10리 기산리(岐山里)에 사우를 지었다.

1597년(선조 30) 정유재란으로 소실되었다가 1624년(인조 2)에 증산(甌山)마을로 이건하였다. 1662년(현종 3) '필암서원(筆巖書院)'으로 사액을 받아 서원으로 승격되었다. 1672년(현종 13) 수해로 인하여 해타리(海打里;현재의 필암리)로 이건하였다.¹⁴⁾

필암서원의 '필암(筆巖)'은 송병선(1836~1905)¹⁵⁾이 쓴 「필암서원묘정비(筆巖書院廟庭碑)」에 의하

13) 숙흥야매잠(夙興夜寐箴)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45호로 지정, 조선 중기의 학자 노수신이 송나라의 진백(陳柏)이 지은 『夙興夜寐箴』을 8장으로 나누고 주해한 것으로 1575년(선조8)에 성주 천곡서원에서 간행한 책이다.

14) 十三年壬子患水圯取形勝移建于海打里(筆巖書院誌 권1, 沿革).

15) 연재 송병선(宋秉璿, 1836~1905)은 대전 회덕 출신의 근대애국지사로서 1905년 을사조약 파기, 을사오적 처형 등의 운

면 “先生故里。有巖削立。形似筆銳” 즉, 김인후의 묘소가 있는 맥동마을 입구에 붓처럼 예리한 형상의 바위가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라고 한다. 16) 아울러 이 바위의 기운을 받아 하서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조선 영조 때 병계 윤봉구(屏溪 尹鳳九)의 글씨로 「필암(筆巖)」이란 두 자가 음각되어 있다.



맥동마을 입구 붓바위교



붓바위 모양의
맥동마을 표지석



붓바위(筆巖)



붓바위 음각
“필암”¹⁷⁾



필암에서 본 난산



필암 현지 답사

<그림Ⅲ-2> 하서 김인후 고향 맥동마을 입구의 필암(筆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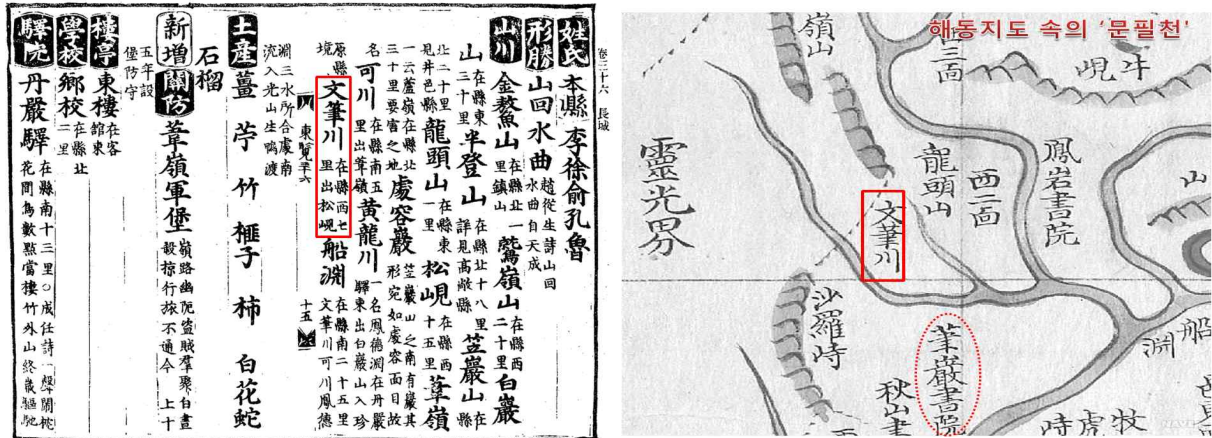
필암서원은 입암산(笠巖山)에서 축령산(鷲靈山), 향로봉(香爐峯)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끝에 있다. 내장산과 입암산에서 발원한 황룡강(黃龍江)이 북동쪽에서 흘러와 장성읍치를 돌아 광주 방면으로 흘러나가며, 향로봉에서 발원한 문필천(文筆川; 일명 文章川)¹⁸⁾이 북서쪽에서 흘러와 필암서원 앞 들판을 곡류하면서 동쪽으로 흘러 황룡강에 합류하고 있다.

동을 전개하다가 순국 자결한 인물이다. 초상화는 역사적, 미술사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2014년 대전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호서명현초상화 특별전에서 최초로 학계에 공개되면서 대전지역 호서학파의 초상화 도상을 고스란히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뉴시스 2015.4.3 기사)

16) 「필암서원지」 권 2 승무소조(陸撫疏條) (필암서원, 1975) pp23-24.

17) 문화재연구소, 『문화유적총람』 (문화재관리국, 1977), p406.

18) 필암서원 건립 이전인 조선 초기에 간행한 『신증동국여지승람』 (1486년 간, 1530년 신증) 제36권 장성현(長城縣) 산천조에 ‘문필천(文筆川)은 ’현 서쪽 7리에 있는데, 송현에서 나온다.’는 기록도 있다.



<그림Ⅲ-3>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6권 전라도 장성현(長城縣) '토산조-문필천(文筆川)'



<그림Ⅲ-4> 연재 송선생직상(淵齋宋先生直像)¹⁹⁾

나) 필암서원의 연혁

(1) 창건(創建) - 1590년(선조 23)

필암서원은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70)를 배향한 서원으로 1590년(선조 23)에 하서의 문인인 기효간(奇孝諫, 1530~1593), 변성온(卞成溫, 1540~1614), 변이중(邊以中, 1546~1611) 등의 발의로 장성읍 기산리(長城府 邑西面 外岐山 鰲山南)에 창건되었다.

19) 대전시립박물관은 2015.4월 구한말 항일애국지사인 연재 송병선 선생의 종손 송영문(73·동구 용문동)씨로부터 송병선, 송병순 형제의 초상화 2점을 기증받았다고 3일 밝혔다.



<그림Ⅲ-5> 장성읍 기산리 창건당시 서원추정지

「하서 김인후와 필암서원, 광주—국립광주박물관 2007 특별전Ⅳ」, P.110, 국립광주박물관, 2007.

(2) 병화(兵禍) - 1597년(선조 30)

건립이후 임진왜란이 발생하자, 이에 전라도 광주를 중심으로 한 많은 지역이 선비 들이 의병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다가 순절·희생되었다. 특히 장성 남문창의(南門倡義)²⁰⁾의 수창자가 하서의 삼종형인 김경수(金景壽)²¹⁾이며, 하서의 문인인 기효간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당시 서원 건립의 주역들이었을 하서의 문인 대부분도 의병에 참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1597년(선조 30) 정유재란이 또 발생되고 이때 필암서원이 병화로 불에 타버림으로서 초창기 서원은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겨우 명맥만 유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Ⅲ-6> 김경수(金景壽)의 남문창의비각(南門倡義碑閣)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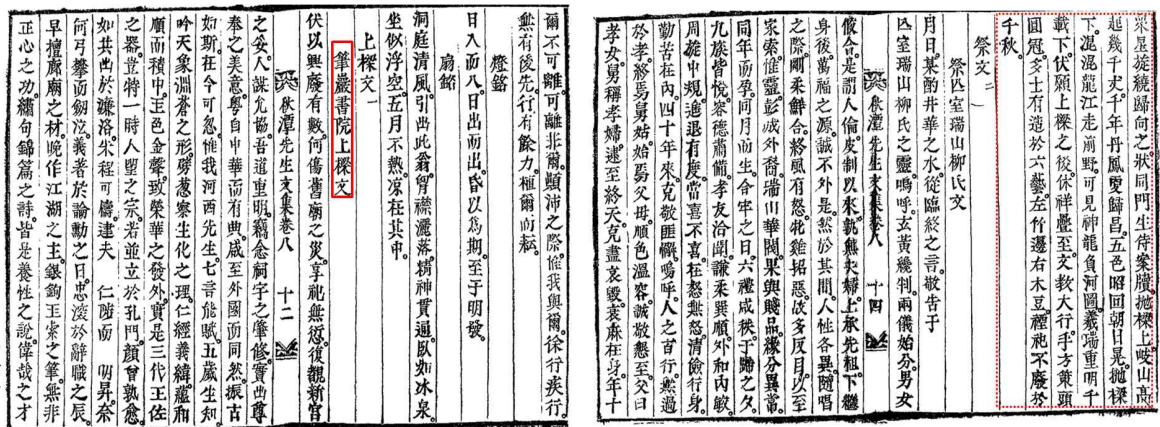
20) 1592~1593년에 고창 유림이 참여한 임진왜란기의 의병 항쟁.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고창과 장성 지역의 유림이 구국의 기치를 내걸고 왜군을 막기 위한 의병을 일으키면서 일어났다.

21) 오천(鰲川) 김경수는 1543(중종 38)~1621(광해군 13). 조선 중기의 의병. 본관은 울산(蔚山). 자는 백형(伯亨), 호는 오천(鰲川). 아버지는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 응정(應井)이며, 어머니는 옥천조씨(玉川趙氏)로 주부(主簿) 숙건(淑堅)의 딸이다. (『오천집(鰲川集)』,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 『호남삼강록(湖南三綱錄)』)

22) 장성현 남문에서 의병을 일으켜 왜적과 싸운 장성현감 이귀, 전 좌랑 김경수·기효간, 좌랑 김홍우 등의 공적을 추모하기 위해 1802년(순조 2) 호남의 유림이 지금의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에 장성 남문 창의를비를 건립하였다. 남문 창의를비는 정면 1칸, 측면 1칸이며,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20호로 지정되어 있다. 장성 남문 창의를비각에 새겨진 7장성 7명 가운데는 승려 9명과 노복 1명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3) 복설(復設)추진 및 이설(移設)- 1624년(인조2)

임진왜란의 피해와 혼돈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 1624년(인조 2) 문인들은 하서의 학문적인 전통을 계승하고 선사(先師)와 후학과의 학문적 연계성을 맺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서원의 복설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때 복설은 옛터(장성읍 기산리)에서 황룡면 필암리 증산동(甞山洞)으로 자리를 옮겨 이설하는데, 추담(秋潭) 김우급²³⁾(金友伋, 1574~1643)이 필암서원상량문을 짓는다.(『秋潭先生文集』 권8)



伏以興廢有數。何傷舊廟之災。享祀無愆。復觀新宮之妥。人謀允協。吾道重明。竊念祠宇之肇修。實出尊奉之美意。粵自中華而有典。咸至外國而同然。振古如斯。在今可忽。惟我河西先生。七言能賦。五歲生知。吟天象淵蒼之形。劈葱寮生化之理。仁經義緯。蘊而順而積中。玉色金聲。致榮華之發外。實是三代王佐之器。豈特一時人望之宗。若並立於孔門。顏曾孰愈。如共出於濂洛。朱程可儔。逮夫仁陟而明昇。奈何弓攀而劍泣。義著於論勳之日。忠深於辭職之辰。早擅廊廟之材。晚作江湖之主。銀鉤玉索之筆。無非正心之功。繡句錦篇之詩。皆是養性之說。偉哉之才之德。足以爲表爲師。茲致舊俗之存祠。果見尊賢之有所。議論則梧陰首建。謁見則松江踵來。誰知赤雞之兵塵。奄見白鹿之灰燼。煙寒泮水。久廢秋禮冬詩。草沒杏壇。何處緇帷絳帳。行路指而歎惜。樵牧爲之悲哀。幸於鳳鳴之山。願新公廟者聽。修廢舉墜。幸見化蜀之文翁。好義輕財。又得巡南之召伯。故事完功訖於不日。而釋菜奠帛之有年。不料終古未有之災。乃在今春多亂之際。未救宋樹之拔。但看魯廟之災。顧惟今日之重營。莫如古基之還復。捨新從舊。不但作役之便。去危就安。實多應變之智。爰告列邑之外。詳議一洞之中。聞聲助功。豈無向道之士。釋經敦事。固多同志之人。版築陶瓦之匠。咸得其宜。王繭公輸之工。無不畢至。依稀東魯之父老。彷彿武夷之山川。弟從兄言。畫鐻林密。子趨父事。輦輿雲屯。馨香之禮。自此可見。講磨之說。由是得聞。無子貢安傲之嘆。有顏氏依歸之歡。爰瞻薦賀之辭。載贊虹梁之舉。拋樑東。朝日初昇瑞靄紅。輪到半天無不燭。悅如夫子五情通。拋樑西。白帝司方道德齊。無語自然成熟物。悅如夫子教提撕。拋樑南。聳出奇峯峩翠嵐。凝然不動如豪態。彷彿先生氣象嚴。拋樑北。神護飛樑齊斗極。衆星旋繞歸向之。狀同門生侍案牘。拋樑上。岐山高起幾千丈。千年丹鳳更歸昌。五色昭回朝日晃。拋樑下。混混龍江走前野。可見神龍負河圖。義瑞重明千載下。伏願上樑之後。休祥疊至。文教大行。手方策頭圓冠。多士有造於六藝。左竹籩右木豆。禮祀不廢於千秋。

<그림III-7> 필암서원상량문

자료 : 秋潭先生文集 卷之八 上樑文 - 筆巖書院上樑文

23) 김우급[金友伋 ; 1574년(선조 7)~1643년(인조 21)]의 자는 사익(士益), 호는 추담(秋潭), 추담거사(秋潭居士). 본관은 광산(光山). 조부는 김경우(金景遇)이고 부친은 통정대부(通政大夫) 김대성(金大成)이고 생부는 김대진(金大振)이다.



<그림Ⅲ-8> 증산마을 복설당시 서원주정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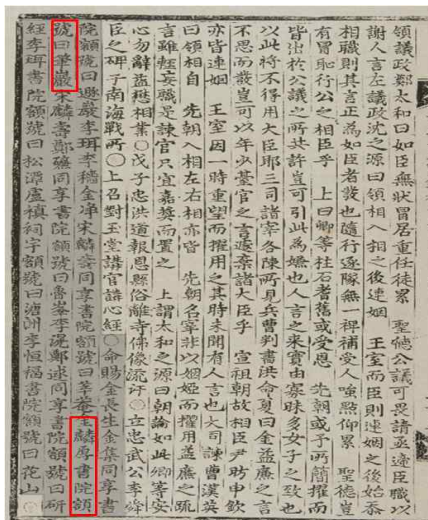
「하서 김인후와 필암서원, 광주—국립광주박물관2007 특별전Ⅳ」, P111. 국립광주박물관, 2007.

(4) 필암서원 청액소(筆巖書院 請額疏) - 1658년(효종 9)

필암서원 이건(移建) 복설 이후 장성의 인근 유생 오이익(吳以翼)²⁴ 등은 공론으로 1658년(효종 9) 전라도 유생들의 연명 상소로 김인후 서원의 사액(賜額)을 요청하게 된다.

(5) 필암서원 사액(筆巖書院 賜額) - 1659년(효종 10)

다음 해인 1659(효종 10)년에 조정으로부터 김인후서원에 ‘필암(筆巖)’²⁵이라는 액호가 내려 졌다.



孝宗 21卷, 10年(1659 己亥 / 청 순치(順治)

16年) 閏3月 28日(戊子) 4번째기사

김장생·김집·이이·이색 등을 제향하는 서원들에
액호를 내리라고 명하다

○命賜金長生、金集同享書院額號曰遯巖。
李珥、李穡、金淨、宋麟壽同享書院額號曰華菴。
金麟厚書院額號曰筆巖。
宋麟壽、鄭礪同享書院額號曰魯峯。
李滉、鄭述同享書院額號曰研經。
李珥書院額號曰松潭。 盧禎祠宇額號曰溇洲。
李恒福書院額號曰花山。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35장 B면

【영인본】 36책 187면

<그림Ⅲ-9> 필암서원 액호 하사 기록(1659년)

김장생(金長生)·김집(金集)을 함께 제향(祭享)하는 서원(書院)의 액호(額號)를 돈암(遯巖)이라고 내리고, 이이(李珥)·이색(李穡)·김정(金淨)·송인수(宋麟壽)를 함께 제향하는 서원의 액호를 신암(莘菴)이라고 내리고, **김인후(金麟厚)를 제향하는 서원의 액호를 필암(筆巖)이라고 내리고**, 송인수(宋麟壽)·정렴(鄭)을 함께 제향하는 서원의 액호를 노봉(魯峯)이라고 내리고, 이황(李滉)·정구(鄭述)를 함께 제향하는 서원의 액호를 연경(研經)이라고 내리고, 이이(李珥)를 제향하는 서원의 액호를 송담(松潭)이라고 내리고, 노신(盧禎)의 사우(祠宇)의 액호

24) 오이익(吳以翼)은 1618(광해군 10)~1666(현종 7).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나주(羅州). 자는 우서(于敍). 오원(吳源)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오언표(吳彦彪)이고, 아버지는 예문관검열 오희도(吳希道)이며, 어머니는 의금부도사 김복흥(金復興)의 딸이다. 오희유(吳希有)에게 입양되었다.

25) 조선왕조실록 효종 10년 기해(1659, 순치 16) > 윤 3월28일 (무자).

를 당주(滄洲)라고 내리고, 이항복(李恒福)을 제향하는 서원의 액호를 화산(花山)이라고 내리라고 명하였다.

(6) 필암서원 선액(筆巖書院 宣額) - 1662년(현종 3)

실제적인 선액(宣額)²⁶⁾은 3년 뒤인 1662년(현종 3)에 이루어졌다.

(7) 시호(諡號)²⁷⁾ 하사(下賜) - 1669년(현종 10)

사액(賜額) 이후 곧이어 1669년(현종 10)에는 김인후에게 ‘문정(文靖)’이란 시호가 내려 졌다²⁸⁾.

顯宗 17卷, 10年(1669 己酉 / 청 강희(康熙)

8年) 8月 24日(甲申) 2번째기사

김인후 · 능창 대군 · 금산군에게 시호를 내리다

○賜贈吏曹判書金麟厚諡文靖， 贈綾昌大君侄諡孝愍， 故錦山君誠胤諡忠貞。 麟厚， 仁宗朝名賢也， 立朝有大節， 侄， 仁祖大王弟也， 冤死光海時。 誠胤， 宗戚也， 光海廢母時， 上疏請斬奸臣， 立大節、扶倫紀， 而竟竄死。 譚者隨之， 至是皆賜易名之典。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21장 A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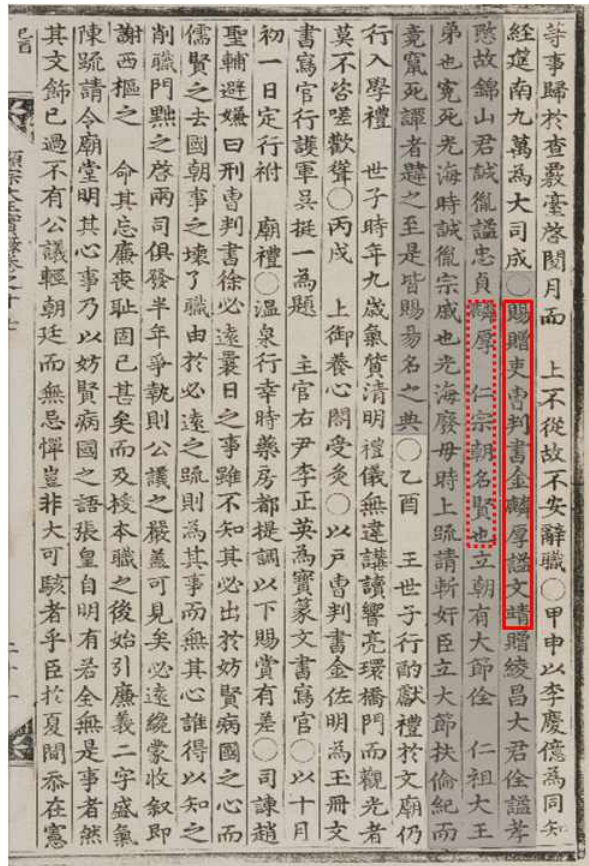
【영인본】 36책 642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

이조 판서 김인후(金麟厚)에게 문정(文靖)이란 시호

를, 능창대군(綾昌大君) 이전(李佺)에게 효민(孝愍)이란 시호를, 고 금산군(錦山君) 이성윤(李誠胤)에게 충정(忠貞)이란 시호를 내렸다. 김인후는 인종조의 명현(名賢)이었는데 조정에 있을 때 절의를 지켰고, 이전은 인조 대왕의 아우였는데 광해 때 억울하게 죽었다. 그리고 이성윤은 종척(宗戚)으로서 광해가 모후를 폐위시킬 때 상소하여 간신들을 벨 것을 청하여 절의를 세우고 윤기(倫紀)를 부식하였는데 끝내 유배되어 죽었다. 논자들이 이들을 훌륭하게 여겼는데, 이때 이들 모두에게 시호를 내렸다.

<그림Ⅲ-10> 김인후 시호 하사 기록(1669년)



26) 선액(宣額)은 임금이 사우(祠宇)나 서원(書院) 등에 이름을 지어 편액(扁額)을 하사함.

27) 시호(諡號)는 왕이나 사대부들이 죽은 뒤에 그들의 공덕을 찬양하여 추증한 호를 가리킨다. 이에 비하여 묘호(廟號)는 왕이 죽은 뒤 종묘(宗廟)에 신위(神位)를 모실 때 붙이는 용도로 추증된 것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시호의 기원은 중국에 두고 있는데, 그 시기는 확실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주나라 주공(周公) 때부터 시법(諡法; 시호를 의논하여 정하는 방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28) 조선왕조실록 정조 45권, 20년(1796 병진[청 순치(順治) 1년]) 10월 16일(무자) 3번째 기사에 “김인후의 시호를 문정(文正)으로 고쳐 내리다(改賜贈領議政金麟厚諡文正).”하고 기록되어 있다.

(8) 필암서원 이건(移建) - 1672년(현종 13)

이후 1672년(현종 13) 3월에 이르러 증산동에 복설하였던 서원을 다시 현 소재지인 황룡면 필암리로 다시 옮겨 짓게 되는데, 이유는 증산동(甌山洞)²⁹⁾이 지대가 낮아 물난리로 흠다리가 위험해지는 등 수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공론이 있어 새로이 서원자리를 모색하던 중 필암리로 이건이 결정되었다 한다. 기정익(奇挺翼, 1627~1690)이 필암서원해우상량문(筆巖書院垓宇上梁文)(『松岩先生文集』 권5)을 짓고, 송준길(宋浚吉, 1606~1672)이 이건고유문(移建告由文)(『同春堂先生文集』 권16),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 하서선생봉안제문(移建後奉安河西金先生文)(『宋子大全』 권151)을 짓는다.

(9) 유자징 배향(配享) 장소 - 1697년(숙종 23)

1697년(숙종 23) 호남 유림(창평 정유달, 나주 나천추 등)이 소를 올려 고암(鼓岩) 양자징(梁子澂, 1523~1594)을 필암서원에 배향하여 줄 것을 청하였으나 조정에서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17세기 초 반은 이미 전국적으로 서원건립이 급격히 증가한 때이고, 또한 고암은 주벽인 하서의 문인이면서 사위라는 점에서 마땅히 서원에 배향할만한 인물이라는 하지만 이와 유사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너무 많다는 점이 지적되어 허락을 받지 못하였다.

(10) 추배(追配) 장소 - 1703년(숙종 29)

그 뒤 1703년(숙종 29)에도 전라도 생원 나천형(羅天衡, 1658~?)등이 소를 올려 김하서의 문인인 현감 양자징, 처사 변성온, 처사 기효간 등 3인을 필암서원에 추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역시 허락되지 않았다.(『서원등록』 1703년 계미 10월 4일조) 1744년(영조 20)

(11) 확연루 중건(重建) - 1752년(영조 28)

확연루를 보수하는데 수년 뒤 화재로 불에 타자 1752년(영조 28) 중건한다. 송명흠(宋明欽, 1705~1768)이 중수상량문(長城筆巖書院廓然樓重修上梁文)(『櫟泉先生文集』 권14)을 짓는다.

(12) 동재와 서재 중건(重建) - 1759년(영조 35)

1759년(영조 35)에 동재(東齋)³⁰⁾와 서재(西齋)³¹⁾를 중수하였다.

(13) 확연루 단청(丹青) - 1764년(영조 40)

29) 시리봉 또는 증산(甌山)으로도 불리는데, 산의 모양이 시루를 얹어놓은 모양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지명으로 보인다. (한국지명유래집 전라·제주편 지명, 2010. 12., 국토지리정보원)

30) 동재(東齋)는 성균관이나 향교, 서원에서 유생(儒生)들이 거처하며 공부하던 명륜당이나 강당 앞 동쪽에 있는 건물. 서쪽에 세운 건물은 서재(西齋)라고 한다.(한국 미의 재발견 - 용어 모음, 솔출판사)

31) 서재(西齋)는 조선 시대 전통적인 교육 기관인 성균관이나 향교·사학·서원에 딸린 학생들의 숙소 또는 학습장소. 성균관에는 강당인 명륜당(明倫堂)을 중심으로 앞쪽, 좌우에 동재와 서재를 설치함.(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3.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764년(영조 40)에는 문루에 단확(丹膜)³²⁾을 하였다.

(14) 김인후 문묘(文廟) 배향 장소 - 1771년(영조 47)

한편 1771년(영조 47) 전라도 유생 양학연(梁學淵, 1708~?) 등은 김인후를 문묘에 배향할 것을 소청 하였지만 허락되지 않았다. 이를 계기로 하여 팔도유생 박맹원(朴孟源) 등이 김인후 문묘배향을 소청 하고, 이어서 외방유생과 관학 유생들의 계속적인 요청이 계속되었다.

(15) 양자징 추배 허락 - 1786년(정조 10)

그 뒤 1786년(정조 10)에는 전라도 진사 이경집(李敬緝, 1775~?) 등의 상언에 따라 앞서 장성 유림 들에 의하여 소청된 바 있던 양자징의 필암서원 추배도 허락되었다.

正祖 21卷, 10年(1786 丙午 / 청 건륭(乾隆)

51年) 2月 26日(庚子) 5번째기사

고로 현감 양자징을 배향하고 정희등, 김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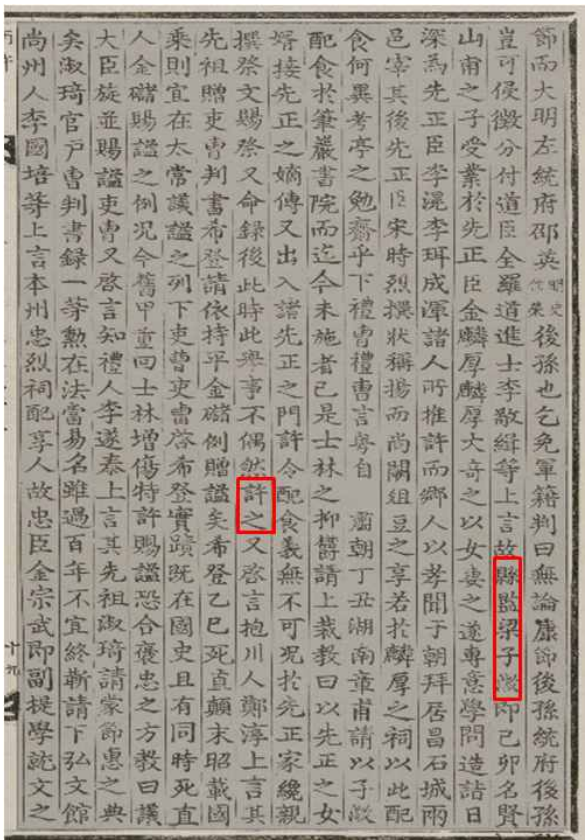
등에게 시호를 내리다

全羅道進士李敬緝等上言: “故縣監梁子激, 卽己卯名賢山甫之子。受業於先正臣金麟厚, 麟厚大奇之, 以女妻之。遂專意學問, 造詣日深, 爲先正臣李滉、李珥、成渾諸人所推許, 而鄉人以孝聞于朝, 拜居昌、石城兩邑宰。其後先正臣宋時烈, 撰狀稱揚, 而尙闕俎豆之享。若於麟厚之祠, 以此配食, 何異考亭之勉齋乎?” 下禮曹, 禮曹言: “粵自肅朝丁丑, 湖南章甫, 請以子激, 配食於筆巖書院, 而迄今未施者, 已是士林之抑鬱。請上裁。” 教曰: “以先正之女壻, 接先正之嫡傳, 又出入諸先正之門, 許令配食, 義無不可。況於先正家, 纔親撰祭文賜祭, 又命錄後。此時此舉, 事不偶然。許之。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18장 B면

【영인본】 45책 555면

전라도 진사 이경집(李敬緝) 등이 상언하기를, “**고로 현감 양자징(梁子激)**은 기묘 명현(己卯名賢) 양산보(梁山甫)의 아들입니다. 그가 선정신 김인후에게 글을 배웠는데, 김인후가 매우 기특히 여겨 자기의 사위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학문에 뜻을 기울여 조예가 날로 깊어져 선정신 이황(李滉)·이이(李珥)·성혼(成渾)의 존중을 받았고 그 고장 사람들이 효자라고 조정에 아뢰어 거창(居昌)·석성(石城) 두 고을 원으로 제수되었습니다. 그뒤 선정신 송시열(宋時烈)이 그의 행장



32) 단확(丹膜)은 곱고 선명하게 붉은 빛깔의 흙. ‘단사(丹砂)’와 ‘청확(靑膜)’의 합성어. 즉, 적색과 청색의 그림 재료로 된 돌을 가리키는 것으로, 전하여 건물에 칠하는 단청(丹青)의 의미가 되었음.(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3.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行狀)을 엮으면서 칭찬하였으나, 아직도 사당에 제사는 지내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김인후의 사당에 이 사람을 배향한다면 고정(考亭)의 사당에 면재(勉齋)를 배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였는데, 예조에 하달하였다. 예조에서 말하기를, “지난 숙종 정축년에 호남의 선비들이 양자정을 필암서원(筆巖書院)에 배향할 것을 청하였으나,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았으니, 이것만도 선비들의 억울한 일입니다. 성상께서 재량해 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그가 선정의 사위로 선정의 학문의 정통을 이어받았고 또 여러 선정들의 문하에 출입하였으니, 배향하더라도 의리상 안될 것이 없다. 더구나 선정의 집안에 이제 막 직접 제문(祭文)을 지어 제사를 지내게 하였고 또 그의 후손을 채용하라고 명하였으니, 이때에 이 일은 우연한 것이 아니므로 허락한다.”

하였다.

<그림Ⅲ-11> 양자정 추배 허락 기록(1786년)

(16) 김인후 문묘(文廟) 배향 결정 - 1796년(정조 20)

조정에서는 1796년(정조 20) 김인후를 문묘에 배향³³⁾할 것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필암서원지』 권2, 陞廡疏條)

(17) 서원훼철령과 필암서원 -1868년(고종 5)

1868년(고종 5) 대원군의 서원훼철령에 따라 전국적으로 47개소의 서원만을 남겨 놓고 대대적인 서원 훼철이 단행 될 때 필암서원은 무성서원, 포충사와 함께 전라도 지역 존치 원사 3개소에 든다.

(18) 서원중수 -1887년(고종 24)

1887년(고종 24) 장성부사 김승집(金升集, 1826~?)에 의하여 서원이 중수되는 한편 서원 운영을 위한 토지 매득을 실시한다. 이때 하서의 후손들이 협력하여 동재와 서재를 중수하고 또한 강당과 문루도 함께 보수하였다.

33) 정조 22권, 10년(1786 병오 / 청 건륭(乾隆) 51년) 10월 15일(을묘) 5번째 기사에 “팔도 유생 정현(鄭璉) 등이 상소하여 문정공(文靖公)김인후(金麟厚)를 문묘(文廟)에 배향할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배향하는 일은 그 일이 매우 엄하고 그 예절이 매우 중하므로 크게 우러러볼 분이 아니며 가볍게 의논할 수 없다.” 하여 김인후의 문묘 배향을 허락하지 않다.(八道儒生鄭璉等, 上疏請文靖公金麟厚從享文廟。 批曰: “從享之舉, 其事則至嚴。 其禮則至重, 非忽景仰, 有難輕議。”) ”

나. 필암서원 관련 기록

필암서원에 대한 기록자료의 연구와 홍보·활용에 있어 학계의 관심은 1972년에 제기(祭器)에 관한 내용으로 학위논문³⁴⁾이 나오면서 부터 1975년에는 필암서원 문서가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 제 587호로 지정된다. 1949년 『필암서원지』 구서적편에 기록된 서원 관련 정책문서 14책과 고문서 64매이다. 그리고 1976년에는 향토사분야³⁵⁾에서, 1981년에는 역사학 분야에서 필암서원 연구 논문 등이 발표된다. 1983년에는 소장 고문서에 대하여 전남대박물관에서 학술조사가 실시되어 고문서자료집이 간행된다. 1988년에는 목포대박물관에서 전남의 서원 사우³⁶⁾를 조사하면서 사액 서원사우편에서 연혁, 인물, 건축, 자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다음으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건축과 역사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 지는데, 먼저 건축과 조경 분야에서는 건축적 특성³⁷⁾과 공간배치³⁸⁾, 식재현황과 정비방안³⁹⁾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 이어 역사분야에서는 소장 고문서의 분석, 배향인물과 서원 운영 자료의 분석, 지역 유림의 동향과 추배 활동 등을 통한 연구가 이루어진다.⁴⁰⁾

1) 관련기록에 대한 이해

가) 고문서(古文書)의 분류

대체로 인간 생활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될 일 및 인간의 사고와 의식 등이 문자로 정리되어 전해지는 오래된 문헌 자료의 하나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 고문서는 크게 국내문서(國內文書)와 국외문서(國外文書 : 外交文書)로 나눌 수 있다. 국내문서를 발급자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국왕문서(國王文書), 왕실문서(王室文書), 관부문서(官府文書), 사인문서(私人文書), 사사문서(寺社文書), 서원문서(書院文書), 도관문서(道觀文書), 결사문서(結社文書), 봉신불문서(奉神佛文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고문서의 형태(외형)는 다양하다. 고문서 작성의 재료는 종이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때로는 돌·금속·목편(木片)·죽편(竹片)·직물·가죽 등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재료와 관계없이 문서로서의 요건만 갖추면 문서가 된다.

무엇보다도 고문서의 중요성은 그 사료적 가치에 있다. 사료의 중심이 되는 것은 문헌사료이다. 문

34) 남기숙, 이조시대 祭器에 관한 연구 -서울 문묘와 전남 필암서원의 사례중심-,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1972.

35) 이종일, 필암서원과 하서선생의 사상, <장성향토문화> 제3집, 향토문화개발협의회·장성문화원, 1976.

36) 목포대학박물관·전라남도, <전남의 서원·사우> -사액서원·사우편-, 1988.

37) 조상순, 필암서원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1997.

38) 조상순·이상해, 필암서원의 건축 변화 과정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7-2, 1998.

39) 이원호, 장성 필암서원(筆巖書院)의 식재현황과 정비방안,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9-1, 2011.

40) 안승준, 1745·6년의 필암서원 노비보(奴婢譜), <고문서연구> 4-1, 1993.

전형택, 조선후기 필암서원의 경제기반과 재정, <역사학연구> 11, 1997.

헌사료에는 편찬·편집류, 저술류, 기록류, 장부류, 등록류, 고문서류 등 다양하다. 그런데 거의 모든 문헌자료는 그 것을 만든 사람들의 이해관계, 주관과 편견, 착오와 오기(誤記)등으로 인하여 왜곡되고 취사선택된 것이 있다. 그러나 고문서는 당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고받은 내용 그대로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료로서 가장 신빙성이 높은 자료이다.

고문서를 이용한 연구는 1960년대부터 법제사·사회사·국어학·사회경제사·한국사 등에 계속 확대되고 있다. 고문서를 이용한 연구도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단행본도 다수 간행되었다. 일본소재 한국고문서도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총서로 간행된 것이 있고, 개인소장 고문서도 자료집으로 간행된 것이 있다.

<표Ⅲ-2> 한국 고문서의 분류

구분	종류	내용
국내 문서	국왕문서(國王文書)	국왕이 발급한 것
	왕실문서(王室文書)	왕실·궁방(宮房)에서 발급한 것
	관부문서(官府文書)	관부 또는 관리가 발급한 것
	사인문서(私人文書)	사사로운 사람이 발급한 것 ⁴¹⁾
	사사문서(寺社文書)	사찰에서 발급한 것
	서원문서(書院文書)	서원에서 발급한 것
	도관문서(道觀文書)	도교의 사원에서 발급한 것
	결사문서(結社文書)	결사(보부상·광대·남사당 기타 사회단체)에서 발급한 것
	봉신불문서(奉神佛文書)	모든 신분의 사람들이 신과 부처에게 올리는 제문·축문·발원문 등
국외 문서	한국 대 중국문서	표(表)·전(箋)·주본(奏本)·자문(咨文)·신문(申文)·정문(呈文)·조회(照會)
	한국 대 일본문서	국서(國書)·서계(書契)·조회
	중국 대 한국문서	조(詔)·칙(勅)·자문·고명(誥命)·조회
	일본 대 한국문서	국서·서계·조회

* 자료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나) 고도서(古圖書) 분류

고도서는 옛 책[도서]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옛 책이라고 했을 때, 언제까지를 하한으로 정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것은 학자에 따라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국고서동우회에서는 1959년 이전에 출판된 책을 고서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서는 1945년, 즉 해방 이전에 간행된 책으로 규정하였다.

고서를 분류하는 기준은 매우 다양하다. 1982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자체 도서관의 고서 분류를 위한 ‘한적 분류표’를 만들었다. 이 분류표에서는 경부(經部)·사부(史部)·자부(子部)·집부(集部) 4부로 나누었다. 2009년 문화재청에서 간행한 『고서·고문서 조사 편람』에는 대분류로 경부·사부·자부·집

41) 영의정이 아들에게 노비를 벌급했을 경우에는 영의정으로서가 아니라 사사로운 아버지로서 문기를 발급하는 것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Ⅲ. 필암서원의 현황

부로 나누고, 사부는 다시 총사(總史)·정사(正史)·편년(編年)·기사본말(紀史本末)·별사(別史)·잡사(雜史)·사표(史表)·사평(史評)·전기(傳記)·계보(系譜)·조령주의(詔令奏議)·직관(職官)·정서(政書)·일반 존안(存案)·금석(金石)·지리(地理)·서지류(書誌類)로 분류하였다.

자료는 크게 古書, 古文書, 近代文書, 金石, 遺物·遺蹟, 書畫, 人物, 其他로 분류하였다. 고서는 고서 분류법(사부분류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 규장각의 방식을 채용하였다. 고문서는 崔承熙의 고문서분류법(韓國古文書研究, 知識産業社, 1989)을 원칙으로 하되, 분류 항목을 설정하기 어려운 것은 고문서상의 본래 이름을 사용하였다. 근대문서도 이에 준하였다.

<표Ⅲ-3> 고문서 4부 분류표

경부(經部)	사부(史部)	자부(子部)	집부(集部)
총경류(總經類) 역류(易類) 서류(書類) 시류(詩類) 예류(禮類) 악류(樂類) 춘추류(春秋類) 효경류(孝經類) 사서류(四書類) 소학류(小學類)	총사류(總史類) 정사류(正史類) 편년류(編年類) 기사본말류(紀史本末類) 별사류(別史類) 잡사류(雜史類) 사표류(史表類) 사평류(史評類) 전기류(傳記類) 계보류(系譜類) 조령·주의류(詔令·奏議類) 직관류(職官類) 정서류(政書類) 금석류(金石類) 지리류(地理類) 서지류(書誌類) 초사류(抄史類) 산업류(產業類) 일반존안류(一般存案類) 전례류(典禮類)	총자류(總子類(字彙)) 유가류(儒家類) 도가류(道家類) 석가류(釋家類) 병가류(兵家類) 농가류(農家類) 의가류(醫家類) 천문산법류(天文·算學類) 술수류(術數類) 예술류(藝術類) 보록류(譜錄類) 정음류(正音類) 역학류(譯學類) 잡가류(雜家類) 유사류(類書類) 단군교류(檀君敎類) 천도교류(天道敎類) 기독교류(基督教類) 기타종교류(其他宗教類) 서학류(西學類) 수록류(隨錄類) 잡편류(雜編類) 소설가류(小說家類)	초사류(楚辭類) 총집류(總集類) 별집류(別集類) 척독류(尺牘類) 시문평류(詩文評類) 사곡류(詞曲類) 소설류(小說類) 수필류(隨筆類) 잡저류(雜著類)

* 자료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 필암서원 소장자료 [관내]

가) 필암서원지(筆巖書院誌)

필암서원지는 조선시대에 간행되지 못하고 후대에 집성한 것으로 서원의 연혁, 강론활동, 운영실태 등 필암서원에 관련된 일체를 호남 유림들이 모아 정리한 기록이다. 현재 1949년본(정춘원 서문, 7권 1책)과 1975년에 석판본(12권 4책본, 12권 3책본)이 전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필암서원 자료는 서원지 형태로 집대성되지는 못하고 1949년(기축 정춘원서문, 7권1책)과 1975년에 석판본으로 2차례에 걸쳐 3회 간행된다. 1949년본은 1책으로, 1975년본(갑인 김윤동 서문, 을묘 안종선 서문)은 4책과 3책으로 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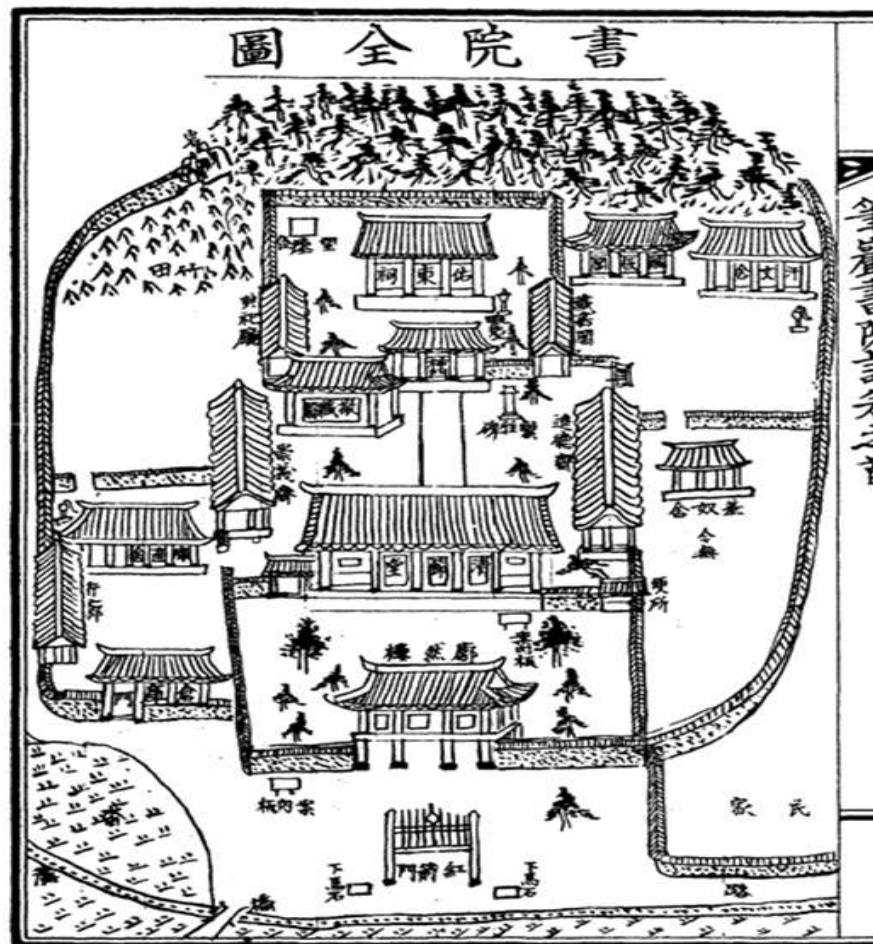
1949년본 『필암서원지』는 1941년(신사)에 경운 기우채, 용계 김원필이 원지를 7권 1책으로 편차하고 1949년에 소산 정춘원, 금현 나우순, 후손 김규직 등이 발간하여 널리 배포하고자 했으나 한국 전쟁으로 인해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 한다. 이 서원지는 서문(기축[1949] 烏川 鄭春源), 범례(25조), 목차, 권수, 권일~권칠, 발문(屠維赤奮若[기축, 1949] 후손 圭稷, 신사[1941] 光山 金元弼)으로 구성되어 있다.

1975년본 필암서원지는 모두 1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필암서원지 앞 부분에서는 필암서원지서(筆巖書院誌序)3개와 구서(舊序) 1개가 각각 2페이지씩 8페이지에 걸쳐 실려 있으며 범례(凡例)와 구범례(舊凡例), 목록(目錄)등도 포함되어 있다. 필암서원지는 이상과 같은 구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순서에 따라 각 부분을 해석하고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서는 원문과 함께 표기하였다.

Ⅲ. 필암서원의 현황

<표Ⅲ-4> 필암서원지 구성(1975년본) - 고도서>사부(史部)> 지리류(地理類)

구분	천(天)			지(地)				인(人)					
권명	卷之首	卷之一	卷之二	卷之三	卷之四	卷之五	卷之六	卷之七	卷之八	卷之九	卷之十	卷之十一	卷之十二
	1권	2권	3권	4권	5권	6권	7권	8권	9권	10권	11권	12권	13권
내 용	○ 致祭文二 ○ 文廟從祀敎書 ○ 文廟從祀張敎文 ○ 賜祭文二 ○ 文廟陞配告由文 ○ 書院全圖 ○ 淵源圖 ○ 陳設圖 ○ 祭器圖 ○ 禮服圖 ○ 土相見禮圖 ○ 鄉飲酒禮圖 ○ 瞻諫禮圖 ○ 相揖禮圖 ○ 鄉約儀 ○ 講座圖 ○ 院信圖	○ 沿革 ○ 位置 ○ 形勝 ○ 設備 ○ 任員 ○ 儒生 ○ 奴婢 ○ 院儀節 ○ 舊院規 ○ 現院規 ○ 祀典 ○ 祭官 ○ 祭服 ○ 祭器 ○ 祭需 ○ 祭官望帖 ○ 送祭官望帖書式 ○ 常享祝 ○ 享祀勿記 ○ 瞻諫禮笏 ○ 相揖禮笏 ○ 土相見禮儀節 ○ 鄉飲酒禮儀節 ○ 鄉約儀節 ○ 鄉射儀節	○ 河西先生神道碑銘 ○ 筆巖書請額疏 ○ 八道儒生朴盈源等請從享文廟疏 ○ 八道儒生鄭禮等請從享文廟疏 ○ 八道儒生沈翼賢等請從享文廟疏 ○ 館學儒生洪準源等請從享文廟疏 ○ 從享時禮曹修刊集時百有司錄 ○ 御書墨竹畫題詩 ○ 御書墨竹跋 ○ 御題仁宗大王碑後 ○ 鼓巖梁公行狀 ○ 梁鼓巖奇錦江卞 ○ 鼓巖二先生請配疏 ○ 鼓巖梁先生請配疏 ○ 禮曹覆啓 ○ 祠宇上梁文 ○ 廊然樓上梁文 ○ 廊然樓記 ○ 講需廳記 ○ 重修記 ○ 廊庭碑 ○ 祠宇重修上梁文 ○ 祠宇重修記 ○ 山仰契發文 ○ 山仰契案序 ○ 講案序 ○ 藏書閣上梁文 ○ 藏書閣記 ○ 藏板閣上梁文 ○ 藏板閣記 ○ 書院重修記 ○ 春秋釋菜祝文 ○ 書院移建奉安文 ○ 移建後春秋常享祝見一卷八板 ○ 鼓巖梁先生告先生文 ○ 鼓巖先生奉安文 ○ 鼓巖各洞告先生文 ○ 告鼓巖先生文 ○ 鼓巖先生禮成祭文 ○ 祠宇重修後奉安文 ○ 純貞孝皇后因山前停奉享告由文 ○ 重修畢告由文	○ 清節堂題詠十六首 ○ 傳教 ○ 書二十首 ○ 完文五件 ○ 一鄉契約 ○ 湖南儒生通太學諸儒文 ○ 太學回南學疏曉文 ○ 立議 ○ 告目三 ○ 稟目二十五 ○ 府使下帖三 ○ 文報十四 ○ 以書院重修事上本倭文 ○ 稟告五 ○ 情由 ○ 稟報五 ○ 督題 ○ 冤情五 ○ 所志 ○ 稟狀四 ○ 訓令 ○ 單子 ○ 泗山祠多士簡通院儒文 ○ 聲討李仁李覺鍾文 ○ 答題陳嘉謨書所文 ○ 河西先生墓所金壇防止事略敬回通 ○ 蔚山鄉校回通 ○ 光陽鄉校回通 ○ 迎日鄉校回通 ○ 祭晦奉安公主咨文 ○ 栗谷先生祠堂保存事通文 ○ 聲討李淑鍾等女議員文 ○ 駁日本政文	○ 院長先生案 ○ 執綱案 ○ 文契案 ○ 院籍	○ 奉審錄	○ 參祭錄	○ 參祭錄	○ 講案	○ 山仰契案 ○ 扶成案	○ 有司錄 ○ 獻誠錄 ○ 山仰契表誠錄 ○ 扶成案表誠錄	○ 西齋儒案 ○ 奴婢譜 ○ 保奴秩 ○ 奴婢案 ○ 土地表示	○ 藏書目錄 ○ 物品目錄



祠堂 [子坐午向一棟四間半○建坪九坪○北壁享文正公河西金先生東壁配鼓嚴梁先生○舊揭筆嚴書院額號矣去甲辰移揭于講堂今揭東祠額號佑東祠即晦庵安圭容所名而集朱文公書也]

典祀廳 [子坐午向一棟二間○三坪自官家受祭物臨時保管所]

神門 [子坐午向一棟三間○三坪○中爲神道祭物外不許出入東爲東齋儒林出入西爲西齋儒林出入而今則無論東西齋儒林以東門入西門出]

敬藏閣 [子坐午向一棟三間○四坪○藏仁宗御筆墨竹與墨竹板故名焉額號亦正祖皇帝御筆故避以紗簾]

講堂 [額號清節堂同春宋先生書○筆嚴書院額號揭于後楣同春宋先生書○午坐子向○二十六坪○一棟十五間中有大廳九間左右有夾室各三間儒生講學之所○揭白鹿洞學規尾附先生讀白鹿洞學規詩○揭賜祭文三教書一頒教文一陞配祝文一傳教一○揭執綱記執事分定記○揭鼓嚴進配批答○揭講修齋板○揭齊峯松江重宰外諸賢題詠○揭記與上梁文]

東齋 [額號進德齋同春宋先生書○卯坐酉向○十三坪一棟六間中有大廳二間左右有夾室二間一任員室一祭官室○揭國忌板○揭朱文公書]

西齋 [額號崇義齋同春宋先生書○酉坐卯向○十三坪○一棟六間中有大廳二間藏置什物左右有夾室二間一西齋任員視務所一本孫有可視務所]

門樓 [額號廓然樓尤菴宋先生書○子坐午向○十三坪○一棟上下層十八間○上層揭樸泉上梁文若泉重修記]

藏書閣 [子坐午向○七坪○一棟三間○庚戌九月建李圭憲撰上梁文金潤東撰記金忠顯書額]

藏板閣 [子坐午向○四坪○一棟三間○辛亥十月建○舊文集板二百六十一立玉峯白光勳書○新文集板三百十一立內閣寫字官書○先生遺墨草千字板十八立楷字板十八立筆法板三立古栢行板十二立半武夷九曲板四立半○先生所解百聯抄十三立半○宋在直撰上梁文權龍鉉撰記高在益書額]

直舍 [子坐午向○十五坪○一棟六間]

倉庫 [午坐子向○九坪○一棟四間半一間半爲門廊]

行廊 [酉坐卯向○十八坪○一棟四間屬直舍]

汗丈舍 [子坐午坐○十坪○一棟六間○首僕寄宿所]

講需廳 [今無]

差奴舍 [今無]

紅箭門 [一棟子坐午向左右有下馬石]

夾門 [五棟○一自廓然樓入清節堂一自清節堂通直舍一自清節堂通汗丈舍一自汗丈舍入東齋後園其一汗丈通用門]

便所 [二棟○一在東齋南側午坐子向一坪○一在行廊側]

繫牲碑 [在廟庭行充願禮于此故名焉○奉事宋日中書前面淵齋宋秉瑞撰碑文海觀尹用求書後面東江金穉漢篆]

井戶 [二所○一在直舍一在汗丈舍]

庭園 [有知事金甫炫長官朴環遠文學博士李瑄根全大總長柳基春本孫季洙奉審紀念植樹又有院任邊時淵本孫老洙駙洙相鶴等所植而老洙特出巨資]

<그림Ⅲ-12> 필암서원지 중 서원전도 및 설비기록 편집(1975년본 필암서원지)

주) 서원전도 설비기록에는 당시 각 건물의 좌향, 규모 및 수량, 글씨, 건물 기능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1) 소장전적

1975년 필암서원지 장서목록에는 206종 777책이 기록되어 있다.

(2) 고문서

고문서는 보물 제587호인 필암서원 문적일괄(14책 64매)과 국립광주박물관에 소장, 기탁 중인 김인후 관련 문서를 들 수 있다. 먼저 필암서원 문적에 관해 살펴보면 품목이 34건으로 가장 많고, 첩정 14건, 소지류가 10건, 완문 4건, 첩문 2건, 훈령 1건이다. 그 중에서 보물 제587-11호로 지정되어 있는 노비전답안(奴婢田畓案)과 보물 제597-1호로 지정되어 있는 노비보(奴婢譜), 보물 제587-1호로 지정되어 있는 필암서원원적(筆巖書院院籍), 보물 제587-12호로 지정되어 있는 노비안(奴婢案) 등은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에 걸쳐 서원 경제의 구체적인 재정상황과 노비제의 변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김인후 관련 고문서는 2011년 울산김씨 문정공 종중에서 국립광주박물관에 기증되었다. 계회도 2점, 증직, 시호교지 8점, 서경장 2장, 문묘배향 허락교서 등 교서 3점, 교첩 2점, 문묘배향상소문, 치제문 5점, 복제전필가(服齋傳筆歌), 인종대왕이 내린 묵죽도 등이 있다.

(3) 소장목판

필암서원 소장 목판은 1997년과 1998년에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라남도 지원으로 전남대학교문헌정보연구소에서 전남 소재 서원에 대한 목판 일괄조사(조사위원 송일기·전종주·김희태·노기춘)를 실시했는데, 이 때에 필암서원 소장 목판도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초각본 1판, 재각본 258판, 삼각본 391판 등 모두 650판으로 1999년 7월 5일 전라남도유형문화재 제215호로 지정되었다. 《하서전집》 258판 외 392판이 있다.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필암서원에 있다. 1568년, 1686년, 1792~1802년에 간행되었다. 김인후의 문집을 발간할 때 사용한 목판으로 지금도 원형 그대로 하서전집장판각에 보관되어 있다.

하서 김인후의 문집은 그가 세상을 뜬지 8년만인 1568년(선조 1)에 처음 간행되어 1686년(숙종 12) 중간본과 1797~1802년에 걸쳐 세 번 간행되었다. 초간본 목판 1매, 중간본 목판 258매, 세 번째의 목판 391매로 총 650매이다. 광해군 2년(1610)에 새긴 『초서천자문』 18판(1610년)과 『해자무이구곡』 18판(1610년), 선조1년(1568년) 새긴 『백련초해』 13판과 『유묵』 4판, 그리고 인종이 김인후에게 하사한 묵죽도판 3판으로 선조 1년(1568년)과 영조 46년(1770)에 새긴 것이다.

1568년(선조 1)에 처음 판각된 후 1802년(순조 2)의 삼각 등 200여 년간의 기간 동안 3회에 걸친 판각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어 특이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아울러 조선 중기의 대학자 하서 김인후의 저술로 내용도 중요하고 판각연대가 올라가며 결판이 없어 가치가 크다.

<표Ⅲ-5> 소장목판 분류

구분	수량	연대	문화재지정
구문집목판	261		
신문집판	315		
하서선생 유묵초천자판	18	1610(광해 2)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16호(1999.7.5) 장성필암서원하서유묵목판일괄 (長城筆岩書院河西遺墨木板一括)
필법판	3		
고백행판	12		
해자무이구곡판	18	1610(광해 2)	장성필암서원하서유묵목판일괄 (長城筆岩書院河西遺墨木板一括)
유묵판	4	1568(선조 1)	장성필암서원하서유묵목판일괄 (長城筆岩書院河西遺墨木板一括)
백련초해판	13	1568(선조 1)	장성필암서원하서유묵목판일괄 (長城筆岩書院河西遺墨木板一括)
어필묵죽도판	3	1568(선조 1) 1770(영조46)	장성필암서원하서유묵목판일괄 (長城筆岩書院河西遺墨木板一括)
상량문 등	3		
소계	650		

『하서전집(河西全集)』

『전남권문집해제』 1·2(전남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1997)

『전남서원의 목판』 (송일기 외, 전남대학교문헌정보연구소·전라남도, 1998)

「하서선생문집목판」 (송일기, 『전남향토문화백과사전』, 전라남도·전남대학교호남문화연구소, 2002)

	
<p>백련초해 목판</p>	<p>장성 필암서원 하서유묵 목판 [묵죽도판] 가로 70cm / 세로 100cm 주) 도난일자 2006.2.2-2.6</p>

Ⅲ. 필암서원의 현황

	
	
<p>장성필암서원하서유목목판일괄</p>	<p>『전남서원의 목판』 (송일기, 전남대학교문헌정보연구소·전라남도, 1998)</p>

(4) 기타

소장현판, 편액⁴²⁾ 11건, 학규¹⁾ 1건, 기문류 5건, 제영류 13건, 서간류 1건, 교서류 4건, 제문류 2건, 석각 1건, 국기(國忌) 현판 1건, 서예액자 1건 등이 남아 있다. 이를 통해 서원연혁, 김인후 추송, 필암서원의 추배, 제향, 서원의 운영과 학습, 인물간의 교류를 알 수 있다.

① 석각⁴³⁾

필암서원이 현재 위치한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378번지 일원(조선시대 전라도 장성부 서일면 필암리)는 두 차례의 이진 과정을 거친 제3차 입지 장소이다. 따라서 1, 2차 서원이 입지한 곳이나 그 연고지에도 시각적 기록 자료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 사례가 필암이란 이름의 유래가 된 김인후 태생지의 붓바위이다. 붓바위에는 윤봉구(尹鳳九, 1681~1767)가 썼다고 알려진 ‘필암(筆巖)’이라는 글씨 석각이 있다.

현재의 필암서원은 평지에 입지하고 주위에도 암석이 없어 자연석에 새겨진 석각은 나타나지 않는다. 필암서원 사당 우동사 앞 묘정(廟庭)에는 특이한 비석이 있는데 필암서원 계생비(繫牲碑)이다. 제물로 쓸가축을 매어 놓는 비이다. 맥동마을 난산에는 하서 김인후 망곡단(望谷壇)과 난산비(卵山碑)가 있다.



필암 바위



계생비



망곡단



난산비

② 현판과 편액

편액(扁額)은 판자에 전통건축물의 명칭을 새긴 것으로 횡액(橫額), 제액(題額)이라고 부르고 사액(賜額)은 국왕이 이름을 지어 새긴 편액을 내리던 일을 의미한다. 판자에 건물명을 새긴 편액은 건축

42) 현판(懸板)과 편액(扁額)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건물명을 새긴 편액(扁額) 시문(詩文)을 적은 현판(懸板), 현판(懸板)은 글씨나 그림을 나무판·종이·비단에 쓰거나 새겨서 문 위에 거는 액자류를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판은 건물에 거는 모든 목판을 지칭하며, 편액(扁額)은 건물 정면의 문과 처마 사이에 거는 목판을 일컫는 것으로, 현판보다 좁은 의미로 쓰여 지고 있다.

43) 석각(石刻) : 각석(刻石)·비갈(碑碣)·묘지(墓地)·탑명(塔銘)·부도(浮屠)·경당(經幢)·조상기(造像記)·석궤(石闕)·마애(磨崖) 등을 총칭하여 부르는 말이다. 중국 진(秦)나라 때부터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이전에는 청동기 등에 금문(金文)을 새겼다. 이 돌을 합쳐 금석(金石)이라고 한다. 금속에는 큰 글자를 새기기 어려운 데 비해 돌은 금속처럼 수명이 길고 큰 글자를 새기는 것이 가능하였다. 이같은 장점 덕분에 석각의 문자와 그림은 후세까지 남아 훌륭한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다.(두산백과)

물 중앙의 문 위에 걸며 시문(詩文)을 적은 현판(懸板)과 구분된다. 편액의 글씨는 국왕의 어필과 문인의 글씨가 대부분이며 옛 명필의 글씨를 모아 집자(集字)하기도 하며 구양순(歐陽詢) 등 중국의 명필의 것을 골라 썼고 대부분 엄정한 정자체인 대자해서(大字楷書)로 쓰였으며 획이 굵고 크면서도 여백이 거의 없어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한 눈에 읽어낼 수 있고 건축물의 위엄까지도 글씨에서 나타나도록 했다.

건물의 공간에다 성현이 남긴 경전이나 유명한 학자들의 글에서 인용하여 명칭을 부여하고, 당대 이름난 사람의 글씨를 받아 목판에 새겨 건물에 게시하였다. 여기에는 선현들의 독특한 현판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몇 글자 안 되는 현판(편액)의 의미를 알면 건물의 기능과 용도, 그리고 건물 안에서 생활했던 선현들의 삶의 지향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판(편액)의 글씨를 통해 서예사를 복원할 수 있고, 글씨의 시대정신도 엿볼 수도 있다.

필암서원의 현판은 확연루를 비롯한 건물의 당호를 쓴 편액과 상량문 중수기 등 기문류, 그리고 시판 등 3 가지로 구분된다. 대표적 편액으로 확연루는 송시열, 강당 청절당과 동재 진덕재·서재 송의재은 모두 송준길, 필암서원은 윤봉구가 썼다고 한다. 장경각 편액은 정조 임금의 어필이다. 우동사 편액은 주자 글씨를 집자한 것이라 한다. 확연루에는 김시찬의 ‘확연루기(1960년)’와 송명흠(宋明欽, 1705~1768)의 ‘중수상량문(長城筆巖書院廓然樓重修上梁文)’ 등 기문이 걸려 있다. 확연루에도 시판이 있는데 제목이 ‘필암서원전방당(筆巖樓前方塘)’이다. 주자의 독서유감(讀書有感)시를 모방한 듯한데, 필암서원 앞에 방당이 있음을 암시한다. 강당인 청절당에는 필암서원 중수기와 송강(松江)·청음(淸陰)의 시와 이를 차운한 시판 여러 개가 걸려 있다.

<표Ⅲ-6> 필암서원 편액

구분	명칭	위치	사진	필암서원지 내용(1975년본 필암서원지)
편액	확연루 (廓然樓)	확연루 외부		門樓[額號廓然樓尤菴宋先生書○子坐午向○十三坪○一棟上下層十八間○上層揭櫟泉上梁文茗泉重修記]
	확연루 (廓然樓)	확연루 (청절당측)		
	확연루 (廓然樓)	확연루 (북측)		
	확연루 (廓然樓)	확연루 (남측)		
	청절당 (淸節堂)	청절당 내부		講堂額號淸節堂同春宋先生書○筆巖書院額號揭于後楣同春宋先生書○午坐子向○二十六坪○一棟十五間中有大廳九間左右有夾室各三間儒生講學之所○揭白鹿洞學規尾附先生讀白鹿洞學規詩○揭賜祭文三教書一頒教文一陞配祝文一傳教一○揭執綱記執事分定記○揚鼓巖追配批答○揭講修齋板○揭齋峯松江重峯外諸賢題詠○揚記與上梁文
	필암서원 (筆巖書院)	청절당 외부 (확연루측)		1975년 당시는 확연루 내부와 마주함/계단 없음 
	필암서원 (筆巖書院)	청절당 외부 (확연루측)		현재 모습 
	진덕재 (進德齋)	동재 외부		東齋額號進德齋同春宋先生書○卯坐西向○十三坪一棟六間中有大廳二間左右有夾室二間一任員室一祭官室○揭國忌板○揭朱文公書
	숭의재 (崇義齋)	서재 외부		西齋額號崇義齋同春宋先生書○酉坐卯向○十三坪○一棟六間中有大廳二間藏置什物左右有夾室二間一西齋任員視務所一本孫有司視務所
	경장각 (敬藏閣)	경장각 와부		敬藏閣子坐午向一棟三間○四坪○藏仁宗御筆墨竹與墨竹板故名焉額號亦正祖皇帝御筆故遮以紗簾
	장서각 (藏書閣)	장서각 외부		藏書閣子坐午向○七坪○一棟三間○庚戌九月建李圭憲撰上梁文金潤東撰記金忠顯書額
	장판각 (藏板閣)	장판각 외부		藏板閣子坐午向○四坪○一棟三間○辛亥十月建○舊文集板二百六十一立玉峯白光勳書○新文集板三百十一立內閣寫字官書○先生遺墨草千字板十八立楷字板十八立筆法板三立古栢行板十二立半武夷九曲板四立半○先生所解百聯抄十三立半○宋在直撰上梁文權龍鉉撰記高在益書額
	우동사 (祐東祠)	우동사 외부		祠堂子坐午向一棟四間半○建坪九坪○北壁享文正公河西金先生東壁配鼓巖梁先生○舊揭筆巖書院額號矣去甲辰移揭于講堂今揭佑東祠額號佑東祠即晦峯安圭容所名而集朱文公書也 주) 1975년 필암서원지에는 우동사(祐東祠)로 기록

<표Ⅲ-7> 필암서원 현판 - 확연루기



廓然樓記 英祖三十六年庚辰二月日重建金時祭 號茗泉

河西金先生俎豆之宮在長城府之西十里而近顯廟朝賜號筆巖其講堂前有樓名曰廓然即尤庵宋先生所命而自書者也夫先生之高風峻節昭揭日星則凡於院宇堂寮宜用是爲扁而今茲之號若不相似然尤翁亦未嘗明言其義則其稱名而取義不幾於隱而不章乎嗚呼竊嘗妄意尤翁之微旨居可知矣程夫子之言曰君子之學莫若廓然而大公物來順應朱子演之曰廓然而大公者仁之所以爲體也物來而順應者義之所以爲用也仁立而義行則性靜而天下之動一矣蓋人方寸之地湛然虛明而無私智之爲累則鑑空衡平存諸中者自然廓然而見於外者無不應矣河西先生天資高明殆於生知而見處超然充養完粹自無私小隔蔽之累矜灑落廓然大公故隨感而應者類皆光明卓偉非常情可及方其明良應期際遇昭融則藏器待時將以大施及夫九五利見萬目咸拭而知幾其神卷而懷之終於時運大謬則遂乃自廢其身而托於沈冥亦不失於清權之中其出處大節蓋莫不由乎仁體立於內而義行於外則初非出於一朝之慷慨也凡人之有節概者或以氣稟之剛烈或以志尙之清介而若先生之所就實從本原之地廓然大公而得焉今若以先生之風節比倫於高逸之卷舒雲鳥嶮然泥滓則實踐之爲知也世之尙論先生者輒以出處之奇稱之而愚夫愚婦之所能言則其學問之功仁義之用或幾乎昧昧此尤翁所以特舉廓然二字而發揮者殆大易微顯而闡幽之義也歟抑李延平嘗謂黃太史以光霽稱周濂溪爲善形容有道氣像而仍言學者存此於胸中則庶幾遇事廓然而義少進今尤翁之擬先生奚止於善形容而其獨得之見實曠世而冥會豈不淵乎深哉竊不自揆妄以臆說如是誠不敢知其然乎其不然乎樓久頽圯甲子改修不十年而災旋即重建檁維新噲然舊觀蓋以多土。之議不可以一日無此樓也噫先生之沒殆二百餘年而一方之嚮慕自不能已者若是孰使之然哉此又不可以不記也已

군자의 학(學)은 확연하여 크게 공정하고, 하서 선생은 가슴이 맑고 깨끗하여 확연히 크게 공정하므로, 이에 우암이 특별히 “확연”이란 두 글자를 발휘(發揮)했다고 한다

廓然樓記⁴⁴⁾ **확연루기**

英祖三十六年庚辰二月日重建 金時祭⁴⁵⁾ 號茗泉

영조 삼십육년(1760년) 경진 2월일에 중건 김시찬의 호는 초천.

주) 영조연간에 중·개수되었으며, 누문 이름을 “확연루”라고 한 연유는 영조36년(1760)에 초천(茗泉) 김시찬(金時祭)이 쓴 “확연루기”를 통해 알 수 있다.

河西金先生俎豆⁴⁶⁾之宮在長城府之西十里而近顯廟朝賜號筆巖

하서 김선생(김인후)을 제사(조두)⁴⁷⁾(제사)하는 집은 장성부⁴⁸⁾의 서쪽 10리로 가까이 현묘(조선 현종의 묘호⁴⁹⁾)조에 ‘필암’이란 액호를 내렸다.

其講堂前有樓名曰廓然即尤庵宋先生所命而自書者也

강당(청절당) 앞 누의 명은 확연루, 즉 우암 송시열 선생이 명명하고 바로 자서(自書)한 것이다.

夫先生之高風峻節昭揭日星則凡於院宇堂寮宜用是爲扁而

선생의 높고 고상한 절조는 밝고도 드높아(昭揭) 해와 별도 무릇 서원과 사우, 당료(집과 요사채)에 마땅히 쓰이고 있어 이는 낮고 얕은 모양으로

今茲之號若不相似然尤翁亦未嘗明言其義則其稱名而取義不幾於隱而不章乎

이제 이 액호는 서로 닮지 않은 듯하여 우옹(송시열) 또한 일찍이 그 말의 옳음을 밝힌 즉 그 이름을 일컬어 옳음을 취함이 은밀하여 드날리지(문장처럼 또렷이 새겨지지)않음이 없지 않은가?

주) *不幾~乎(불기~호) : ~에 가깝지(근사하지) 않은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嗚呼竊嘗妄意尤翁之微旨居可知矣

오호라, 일찍이 생각건대 무릇 우옹(우암 송시열)의 깊고 미묘한 속뜻을 갖고 살았음을 가히 알 수 있음이라.

주) 거(居)는 ‘靜而思道也’라 할 수 있다. 모든 사물에 대한 존망과 길흉 등 모든 사물에 대한 이치가 내포되어 있으니 이것을 연구하여 보면 모든 것을 가히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괘사와 효사에居해可히)

程夫子⁵⁰⁾之言曰君子之學莫若廓然而大公物來順應朱子演之

정이천의 말에 군자의 배움은 확연대공⁵¹⁾하여 물래순응⁵²⁾하는 주자의 강연만 같음이 없어

주) 막약(莫若) : ~만 같음이 없다.

曰廓然而大公者仁之所以爲體也物來而順應者義之所以爲用也

가로되 확연대공은 “인”의 몸체요, 물래순응은 “의”의 쓰임이 됨이라. (중략)

44) 기(記)는 한문 문학의 한 갈래로, 어떤 경험과 그에 대한 느낌을 서술하는 장르다. 기행문이 대표적이다.

45) 김시찬(金時祭)은 1700(숙종 26)~1767(영조 43).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안동. 자는 치명(釋明), 호는 초천(苕川). 홍주(洪州)출신. 상용(尙容)의 현손으로, 아버지는 좌랑 성도(盛道)이다.

46) 조두(俎豆)는 제사 때 신 앞에 놓는 나무로 만든 그릇의 한 가지인데 한어자료에 보면 예부터 중국에서 제사나 손님을 초대하여 잔치를 벌일때 쓰는 전통적인 기구라 하고 있다. 중국인들은 동이족의 식기류인 조두(俎豆)라는 것을 오직 동쪽 고구려 등지에서만 사용한다고 기록해 놓았다. 이것을 보더라도 고구려 사람들의 식생활은 상당한 수준이었음을 보여준다.

47) 조두(俎豆)는 제사 때 신 앞에 놓는 나무로 만든 그릇의 한 가지로 조는 고기를 올려 놓는 제기이고, 두는 나무로 만든 제기를 말함.

48) 당시 장성부는 전라남도 남면 북이면·북일면·북하면·서삼면·장성읍·진원면·황룡면에 걸쳐 있었다.

49) 묘호 [廟號]는 임금이 죽은 뒤 종묘에 그 신위를 모실 때 드리는 존호(尊號)이다.

50) 정명도 선생의 아우로서 이천(伊川)지방을 한 때 다스렸기 때문에 정이천(程伊川)으로 잘 알려져 있다. 과 함께 주렴계 선생에게서 유교를 배웠으며 왕도정치를 강조하였다. 그의 유교 이론은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을 주장하여 '기' 중심의 사상에서 '이' 중심의 사상으로 옮겨가는 과도기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51) 확연대공 [廓然大公] : 널리 모든 사물에 사사로운 마음이 없이 공평함. 성인의 마음을 배우는 君子(군자)의 학문하는 태도를 이르는 말.

52) 물래순응(物來順應) : 사물이 내게 다가올 때에 억지나 무리가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함. 정이(1033~1107)는 형인 정호와 같은 계통이지만 이기이원론을 창설한 사람으로 무위자연의 경지를 이룰 것을 주장했다.



<그림Ⅲ-13> 新八道紀(신팔도기) (196) 長城(장성) <5> - 1979.5.30 기사 5면

주) 東軒(동헌)옆에 있었던 객사는 당시 筆岩書院(필암서원)으로 옮겨졌는데 현존하는 淸節堂(청절당)이 바로 그 건물.

③ 그림

필암서원 장경각에는 인종임금이 하사한 묵죽도와 묵죽도 판이 보관되어 있다. 사당인 우동사에는 김인후의 천명도가 복사된 병풍이 있고, 벽면에는 학·용·연꽃·봉황·잉어·매화·국화·소나무 등 절개와 장수를 상징하는 다양한 그림이 그려져 있다.

사당안의 병풍이 조야하게 복사된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쉽고, 그림은 그 유래를 설명하는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 1975년 간 필암서원지에 <필암서원전도>가 실려 있으나 산수화 풍의 서원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림Ⅲ-14> 장경각 내 묵죽도 및 묵죽도판



<그림Ⅲ-15> 우동사 벽면 그림

지금까지 한국 서원을 소개하는 자료나 논문에서, 석각·현판·그림은 거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⁵³⁾ 장성 필암서원은 시원하게 넓게 트인 전망이 자랑이었다. 이 전망은 문루 확연루에 올라서면 가장 잘 감상된다. 확연루(廓然樓)는 군자의 학문은 “확 트이게 넓혀 크게 공정하게 하고서, 사물이 다가오면 의리에 맞게 순응한다(廓然大公 物來順應).”는 의미를 취한 것이다. 이 문루 현판의 함축


53) 김덕현(경상대 지리교육과 교수), 『서원 기록문화의 정리, 보존관리의 현황과 과제 - 제2차 서원 전문가 워크숍. 서원 기문 및 금석석각자료 정리현황과 과제』, 2012.4.18.

적 의미를 알면, 시원하게 트인 전망 경치가 廓然의 의미와 서로 통하고, 이 확연루가 필암서원의 선비들을 무사공정·물아일체·천인합일(無私公正 物我一體의 天人合一)의 경지로 이끄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또 하서 김인후의 ‘성기성물(成己成物)’의 도학정신과 탁 트여 막힘없는 확연대공(廓然大公)의 전망경관, 그리고 문루 확연루(廓然樓)가 일체가 된 것이 필암서원의 진면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필암서원은 최근 대규모의 정비사업을 끝냈다. 정비사업의 결과 확연(廓然)하게 전망되었던 전면경관이 키 큰나무로 가려져 확연하지 못하게 변했다. 하드웨어 정비가 크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의 기본이 되는 확연루기(廓然樓記)를 비롯하여 시판 등이 아직 정식으로 번역 소개되지 못하였는데 앞으로 과제이다.

3) 필암서원 소장자료 [관외] - 하서전집(河西全集)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 김인후(金麟厚)의 시문집. 1568년(선조 1) 김인후의 문인 조희문(趙希文) 등에 의해 편집·간행되었고, 그 뒤 1686년(숙종 12) 박세채(朴世采)에 의해 다시 간행되었다. 1796년(정조 20) 문묘(文廟)에 배향할 때 어명에 의해 중단된 뒤, 1802년(순조 2) 김일주(金日柱)에 의해 간행되었다. 조희문의 구서(舊序)와 송시열(宋時烈)의 서문, 박세채의 구발(舊跋)과 이직보(李直輔)의 발문이 있다.

유 형	문헌	
시 대	조선	
성 격	시문집	
편 저 자	김인후	
제 작 시 기	1568년(초간), 1686년(재간), 1796년(중간), 1802년(삼간)	
권 수·책 수	16권 8책	
간행·발행·발급자(처)	조희문(초간), 박세채(재간), 김일주(삼간)	
소 장 처	규장각 도서, 국립중앙도서관	

다. 필암서원 건축현황

1) 필암서원의 주변입지와 풍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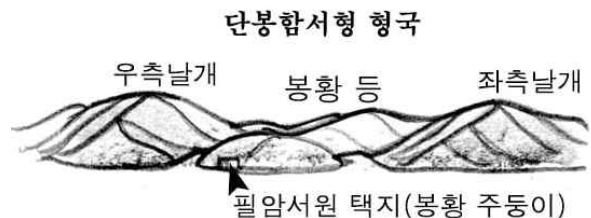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378~379번지에 있는 필암서원은 1590년에 창건, 정유재란 때 병화로 멸실되었고 그 후 이전과 이전을 거쳐 당시 창건지와는 다른 곳에 1672년 새롭게 복원 되었다. 그러므로 창건 당시(1590년) 필암서원의 배치는 알 수 없으나 현존(1672년 복원) 하는 필암서원의 배치는 후기 서원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Ⅲ-16> 장성 필암서원 위치도

필암서원의 형국은 전형적인 단봉함서형(丹鳳含書形)⁵⁴⁾으로 봉황이 임금의 조서를 물고 온다는 단봉의 주둥이 자리에 서원이 입지한 것이나 서원 명칭이 조서라는 종지와 걸맞게 필암(筆岩)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종지와 붓(筆)은 문방사우 풍수형국인데, 필암서원의 경장각에는 다른 서원에서 볼 수 없는 먹물을 상징한 묵죽도(墨竹圖)가 보관되어 있고 건축부재에는 봉황까지 그려져 있다.

54) 장영훈의 풍수서원



<그림Ⅲ-17> 단봉함서형(丹鳳含書形)의 필암서원
자료 : 이상호, 한국서원의 입지와 경관에 대한
해석적 연구(2014, 경상대학교)⁵⁵⁾

< 그림Ⅲ-18> 장영훈의 풍수서원
* 한국 제1호 풍수교수역임. 『서울풍수』 저자
[출처] 서원과 풍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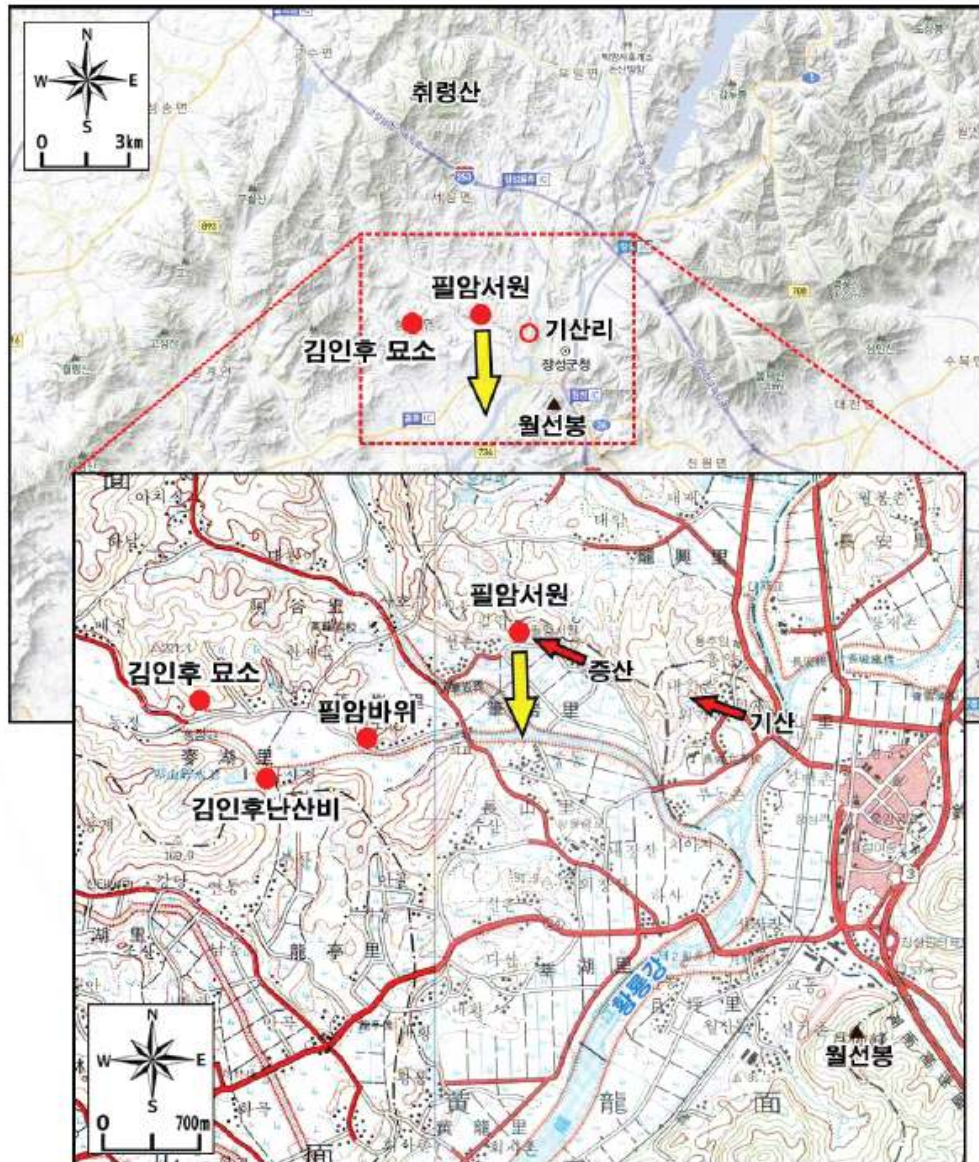
필암서원의 주산은 연화산(蓮花山)인데, 연꽃을 뜻하는 연화산은 하천이 가운데 흐르는 평야로 내려온 산에 자주 나타나는 이름이다. 필암서원의 안대 경관은 전면의 문필천과 들판 너머 멀리 보이는 안산(案山) 월선봉(月仙峰)이다. 필암서원의 풍수형국을 ‘단봉함서형(丹鳳含書形)’이라고도 하는데, 붉은 봉황이 주둥이에 책을 물고 있는 형상으로 책에 해당하는 자리가 명당이며 인재의 영달을 기원하는 입지이다.

서원은 측령산을 조산으로 증산을 배경으로 평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원 내 우동사, 내삼문, 청절당, 학연루가 서원 앞 들판으로 이어져 나가 자연과 합일하고 있으며, 한편 앞쪽으로는 ‘장수호에서 연계된 아곡천이 흐르고 있는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경관구조를 가진다. 주변 환경으로는 백양사, 홍길동 생가, 홍범사지 석탑, 가산서원, 두동사, 표의사, 진원현 이척산성, 삼성산성 등이 있다.

필암서원은 황룡강변의 기산에서 창건하여 증산으로 이건하고 다시 필암리로 옮겼다. 필암리 서쪽의 맥호리에는 필암(筆巖), 김인후묘소, 김인후난산비 등 김인후 및 필암서원과 관련된 경관들이 있다.

55) 이 논문은 한국 서원의 입지와 경관 분석을 통하여, 서원 경관에 재현된 조선시대 신유학자들의 천인합일 사상과 존현의 예, 그리고 성학 사상을 독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주자·퇴계의 서원 입지관과 한국 서원의 이념적 배경이 되는 존현과 천인합일 사상을 살피고, 신유학자를 제향하는 한국 서원의 입지와 경관 특성을 검토 및 입지 경관 특성에 따라 溪景, 江景, 野景, 山景으로 나누고, 입지 경관 유형 별로 각 서원의 입지와 전망 경관, 내부 경관, 그리고 강학공간 堂號 현관의 의미체계에 대한 해석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56) 필암서원의 입지 환경에 대하여 筆巖書院誌 에 나와 있다. “ 장성에서 북쪽으로 50리를 달려가면 笠巖山이 있으며 그 한 가지가 서쪽으로 달려 方丈山이 되었고 다시 이십리를 달려 鷺靈山이 되었다. 동으로 떨어져 남으로 달려 높이 솟아



<그림Ⅲ-19> 장성 필암서원의 입지⁵⁶⁾

자료 : 김덕현, 「韓國書院의 立地와 景觀에 대한 解釋의-樓·亭이 있는 書院을 中心으로-」 研究, 2014.

香爐峯이 나왔다. 몇 리를 굽이쳐서 은은히 멀어져 달리는 것이 文章岵 즉 원의 鎮山이 된다. 좌로는 岐山이, 우로는 秋山이 있으며, 가까이에 있는 것은 龍虎가 되고, 솟아오른진귀한 淸涼은 멀리서 門戶가 된다. 文章川은 향로봉에서 나와 院村을 감싸고 돌아 동쪽으로 들어간다. 黃龍江아래 맑고, 瑞石과 月仙의 모든 산이 스스로 동남쪽에서 와 앞에 서서拱揖하고 있다.”(長城書院曾享河西金先生數年前賜以筆巖其他本頓仄不安諸議久欲移建而遷延不果今夏其院宇 諸室皆爲兩壞 將堤因此而移於去舊遠數馬場秋山之下淸溪之上竹林之中已始矣). 筆巖書院誌 권 3, 書同春先生與文答金相公書.

2) 필암서원의 배치와 좌향

가) 필암서원의 배치와 좌향

필암서원의 배치는 전통서원과는 다른데, 이를 풍수로 조명하면 가장 중요한 혈자리에 사당이 입지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동재, 서재, 강당이 사당을 향해 좌청룡 우백호 전주작이라는 사신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혈자리에 사당이 들어간 서원은 제사 중심서원이 되어 이는 강학중심서원인 전통서원과는 서원이념이 180° 달라 강당의 좌향 또한 180° 돌아서서 입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원 건축의 입지는 풍수이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형세론에 근거하여 선택하고 있다. 특히 주산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주산에서 혈장(穴場)으로 연결된 용(龍)⁵⁷⁾에 대한 중요성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좌향의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서원건축물의 대부분이 이와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배치되는데, 강당과 동재·서재와 같은 제사간(齋舍間)의 배치관계는 제사(齋舍)가 강당 전면에 위치하는 전제후당(前齋後堂)이 가장 많고 후대에 오면 전당후재(前堂後齋)의 배치를 한 것도 나타난다. 이들 건축물은 모두 원칙적으로 남북자오선을 주축으로 한 좌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절대향(絶代向)⁵⁸⁾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으며 배치된 서원과 큰 차이점을 갖는다.⁵⁹⁾

이렇게 필암서원의 주요 전각들은 좌우대칭으로 배치되고 강당 뒤쪽 좌우의 대칭되는 곳에 동재(東齋)·서재(西齋), 그 북쪽 담장 중앙에 내삼문(內三門)이 있고 안쪽으로 사당이 건립되어 전학후묘(前學後廟) 및 전당후재(前堂後齋)의 배치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적인 자오선 방위가 아닌 상대적 개념의 방위로 당시 서원 건축에 주로 활용된 상대적 방위관을 잘 보여주는 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⁶⁰⁾

따라서 서원건축은 향교건축에 비하여 훨씬 자유로운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 향교 건축물은 관(官) 주도적이고 배향 대상이 선성(先聖) 즉, 공자와 그 제자들이었다. 때문에 좌향 설정에⁶¹⁾ 상당히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였다. 반면 서원 건축의 좌향 선택은 훨씬 자유로운 측면이 강하였는데, 이와 같이 서원의 좌향 배치가 상대적으로 향교에 비해 자유로울 수 있었던 배경은 배향하는 인물이 선사(先師)

57) 용(龍)이란 산의 흐름, 즉 산줄기를 우주 생기가 힘차게 약동하여 산맥을 타고 흐르는 것을 의미한다. 풍수를 거론함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한다.(박상규, 「조선시대 서원건축 터잡기 및 건물배치의 풍수지리적 해석」, 영남대학교 석사논문, p17,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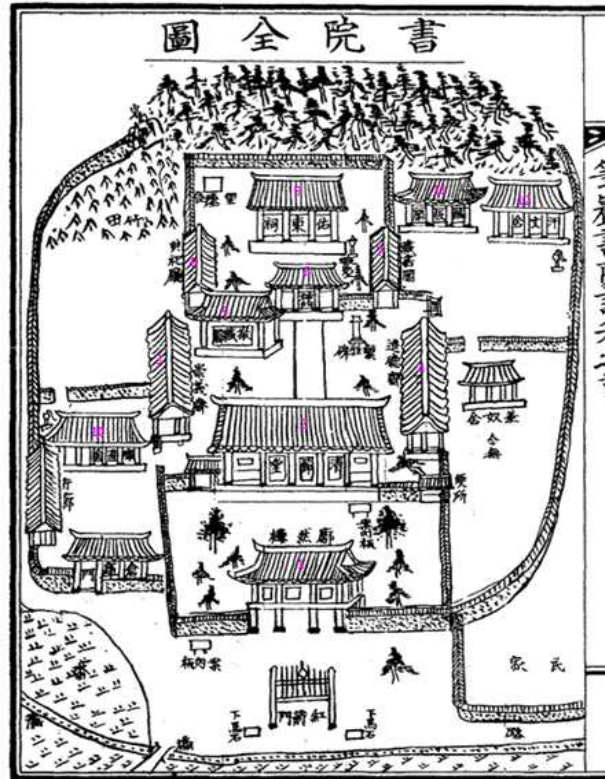
58) 좌향(坐向)은 대개 12방위(方位)로 나눈다. 좌향(坐向)이란 혈(穴)의 위치에서 바라본 방위를 말하는 것으로 혈의 뒤를 등진 방향을 좌(坐)로 하여 혈의 정면을 향(向)으로 나타낸다. 이때 결정되는 좌향(坐向)은 꼭 하나뿐이다. 좌향을 갖기까지 검토되는 향은 절대향(絶對向)과 상대향(相對向)으로 구분된다. 전통입지에서 방향은 좌향으로 구분된다. 이는 오행(五行), 팔괘(八卦), 십간(十干), 십이지(十二支)를 결합한 것이다. 국면이 같은 상대좌향(相對坐向)은 절대좌향(絶對坐向)에의 음양의 중화(中和)가 구해지고 오행(五行)의 상생(相生)이 이루어진다. 절대향(絶對向)은 태양의 운행에 의해 결정되는 향(向), 시간성(時間性)을 내포한다. 태양의 남중방위(南中方位)는 일정하여 이에서 동서남북의 방위가 결정된다. 태양의 운행에 의한 일조(日照) 일사(日射) 효과, 지역에 따른 계절풍과 기후여건에 의하여 결정되는 물리적 특성과 이에 관련된 사상적(思想的) 의미가 부여된다.

59) 이상해 글 안장헌 사진, 「서원」, 열화당, P352, 1998.

60) 박정해, 「書院建築의 坐向 決定과 風水의」 要因에 關한 研究, 건축역사연구 제19권 5호 통권 72호, p51, 2010.

61) 이상규, 「德川書院의 造營과 變遷에 關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P124.1998.

나 선현(先賢)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1. 학연루(廓然樓) 2. 청절당(淸節堂) 3. 서재(西齋) 4. 동재(東齋) 5. 경장각(敬藏閣) 6. 전사정(典祀廳) 7. 장서각(藏書閣) 8. 내삼문(內三門) 9. 사당(祠堂) 10. 고직사(庫直舍) 11. 장판각(藏板閣) 12. 한장사(汗丈舍)

주) 1970년대 필암서원전도 내부 구성 재편집

* 자료 : 기우채 김원필 편, 1975, 「필암서원지」 천, 한국학중앙연구원

< 그림 > 필암서원전도

나) 필암서원의 중심축과 좌향

필암서원은 평지에 세워진 서원으로 남북을 중심축으로 하여 주요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 서원의 형태는 명분을 중시하는 영남학과 계열의 서원은 중정(中庭)을 중심으로 완전한 좌우대칭을 중시하는 건축 형태를 띄고 있으며(남계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덕천서원, 도동서원), 명분보다 현실을 중시하는 필암서원과 같은 기호학과 계열의 서원들은 특정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분방한 건축 구조를 하고 있다.(월봉서원, 심곡서원, 자운서원, 돈암서원 등)

최초 서원인 소수서원은 숙수사라는 절터를 그대로 사용하였기에 정형화된 서원 건축의 기준은 될 수 없었다. 즉, 불교문화에서 유교문화로 넘어가는 문화의 교체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 후 함양의 남계서원을 건립 할때 퇴계 이황이 제향(祭香)기능보다 강학(講學)기능을 중시하는 전학후묘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서원은 철저하게 유학의 정명주의(正名主義)와 성리학의 이(理)를 중시한 영남학파의 사상적 특징으로 중정과 좌우대칭을 중시하는 엄격한 규격에 의해서 대부분 비슷한 건축 형태를 보이나 정암 조광조, 고봉 기대승, 사계 김장생, 율곡 이이, 우암 송시열로 이어지는 성리학의 기(氣)를 중시하는 기호학과(명분보다 현실을 중시하는 사상)계열의 서원에서는 특정한 구도에 얽매이지 않는 건축 형태를 띄고 있다.

서원은 사당을 중심으로 한 제향공간과 강당을 중심으로 한 강학공간 그리고 누(樓)를 중심으로 한 산수공간으로 구분되며 그 중심은 강학 공간이었으며, 서원의 관리를 위하여 서원 옆에 짓는 고직사(庫織舍)는 서원에서 배향하는 위인이 생전에 거주하던 곳과 반대쪽에 배치하여 위계를 분명하게 하였다.

서당이나 서원 같은 강학공간에 있는 은행나무는 공자가 제자들을 가르칠 때 은행나무 (실체는 살구나무)아래서 가르친 후로 유학을 상징하는 나무가 되었고 학자수(學者樹)라 하여 그 곳이 강학 공간임을 상징한다. 또한 나무의 자라는 모습이 위로 곧게 뻗어가기 때문에 곧은 선비정신을 상징하는 의미도 있다.

주산에서 혈처에 연결된 입수룡은 사람으로 비하면 땃줄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 좌향을 정할 때는 입수룡의 흐름에 따라 순응하는 좌향 선택법이 가장 일반적인데, 필암서원의 좌향도 입수룡의 흐름방향에 순응하는 주산순응형 좌향선택법 형식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자연적인 요소와 충분히 동화되는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과도하게 입수룡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좌향을 고집하지 않았으며 입지 선정 과정에서 자연을 거스르지 않은 단면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원건축은 철저하게 풍수지리의 논리에 따르고 있다. 풍수논리로 터를 잡고 풍수 법칙에 따라 건축할 때 풍수논리를 적용했던 사람들은 당대 최고의 지식층이던 사대부들로 서원풍수에서는 당시 지식층의 선비정신을 읽을 수 있다. 또한 당시 주자학에 심취해 있던 조선 사림(士林)들의 의식 속에는 형세풍수(形勢風水)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적극 활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표Ⅲ-6> 장성 필암서원 입수룡과 좌향

주산 형상	안산 형상	입수룡	좌향	선택 좌향법
무곡성(武曲星) ⁶²⁾	거문성(巨文星) ⁶³⁾	자(子)	자좌오향(子坐午向) ⁶⁴⁾	주산 순응형(主山 順應形)

<표Ⅲ-7> 장성 필암서원 좌향 현황

입수룡(入首龍)	좌향(坐向)	득수(得水) ⁶⁵⁾	수구(水口) ⁶⁶⁾
자(子)	자좌오향(子坐午向)	경(庚) ⁶⁷⁾	巽(손)

62) 풍수지리학의 구성법(九星法)에서 구성(九星)이란 우주천체의 중심인 북극성 주위를 운행하며 우주를 지배하는 북두칠성(北斗七星)과 좌보성(左輔星), 우필성(右弼星)을 합한 아홉개의 별을 가리킨다. 무곡성(武曲)은 제 육성(第六星)이며 합양복덕궁(閤陽福德宮)으로 오행은 금(金)이다. 방위와 화복은 유(酉), 정(丁), 사(巳), 축(丑)방위에 위치하고 부(富)를 관장한다.

63) 거문성(巨文星)은 제이성(第二星)이며 천의제왕궁(天醫帝王宮)으로 오행은 토(土)다. 방위와 화복은 손(巽), 신(辛)방위에 위치하고 총명, 귀, 장수(長壽), 재물을 관장한다.₩

64) 뒗자리나 집터 따위가 자방(子方)을 등지고 오방(午方)을 바라보는 방향. 정북(正北) 방향을 등지고 정남향을 바라보는 방향이다.

65) 장풍득수(藏風得水)는 풍수지리에서 사용되는 개념 중 하나이다. 감출 장(藏)에 얻을 득(得)을 사용하여 바람은 감추고 물은 얻는다는 뜻이다. 겨울의 차가운 북서 계절풍을 막을 수 있고 농경에 필요한 용수 공급이 용이한 곳을 말하며 풍수

다) 필암서원 건물배치 및 외부공간 구성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성 필암서원(筆巖書院)은 조선 선조(宣祖) 23년(1590) 김인후 선생의故里(故里)에 세워졌다가 병화로 소실된 후 인조 2년(1624)에 재건되었으며, 현종(顯宗) 3년(1662)에 사액(賜額) 되고 현종 13년(1672)에 현 위치로 옮겨진 것이다. 필암서원(筆巖書院)은 호남의 중심 서원으로 7개의 독립된 영역으로 전체를 구성하였다. 학연루를 정문으로 하는 중심축이 청절당 우동사를 통과하며 확실하게 나타나 있고 이 중심축은 3개의 영역을 이어주며 그 좌우로 4개의 영역이 연결되어 있고 이들 영역간의 통로로 작은 협문이 발달해 있다.

필암서원을 형성하는 대지는 남북으로 긴 형상을 한 평지인데, 서원 밖에는 홍살문과 하마석, 그리고 수령(樹齡)이 오래 된 은행나무가 서 있다. 서원에는 남쪽부터 북으로 들어가면서 설정된 남북 중심축을 따라 차례로 문루인 학연루, 강당인 청절당, 사우인 우동사가 각기 유식공간, 강학공간, 제향공간을 형성하며 질서 정연하게 좌우 대칭을 이룬다.

중심축을 따라 점점 더해지며 중첩되는 외부공간의 깊이가 잘 나타나도록 배치되어 있다. 필암서원 배치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문루와 강당의 좌향이다. 이 두 건물들은 사우를 향해 북향하고 있다. 건물의 남쪽으로는 벽을 설치하고 창문을 내었으나, 북쪽으로는 기둥 사이에 벽을 설치하지 않고 공간이 트이게 한 점이 이 두 건물들이 북향하였음을 보여준다.

강당과 사우와의 배치 관계를 보면, 강당이 북향을 하였기 때문에 강당은 서원 영역 앞으로 빠져나와 있고, 사우는 뒤로 물러나 있다. 이러한 배치는 사우 남쪽에 난 마당과 강당 북쪽에 난 마당이 서로 연결되어 제향을 할 때 마당을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점(利點)을 갖게 하였고, 모든 건물들이 서원 영역 가운데에 마련된 마당을 향하도록 하였다. 이는 강당이 남향하고 그 남쪽 앞마당 좌우에 동재와 서재가 배치된 도산서원이나 옥산서원 등과 대비를 이룬다. 이는 선현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사우로 강당이 향하도록 하여 외부공간인 마당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케 한 배치 형식이다.

제향공간을 형성하는 사우인 우동사(祐東祠)의 중앙 북벽에는 조선 중종(中宗) 35년(1540)에 과거에 급제하여 홍문관 부수찬을 지낸 하서 김인후(河西 金麟厚; 1510~1560) 선생을 주향(主享)으로 모시고, 왼쪽인 동벽에 양자징(梁子徵, 1523~1594)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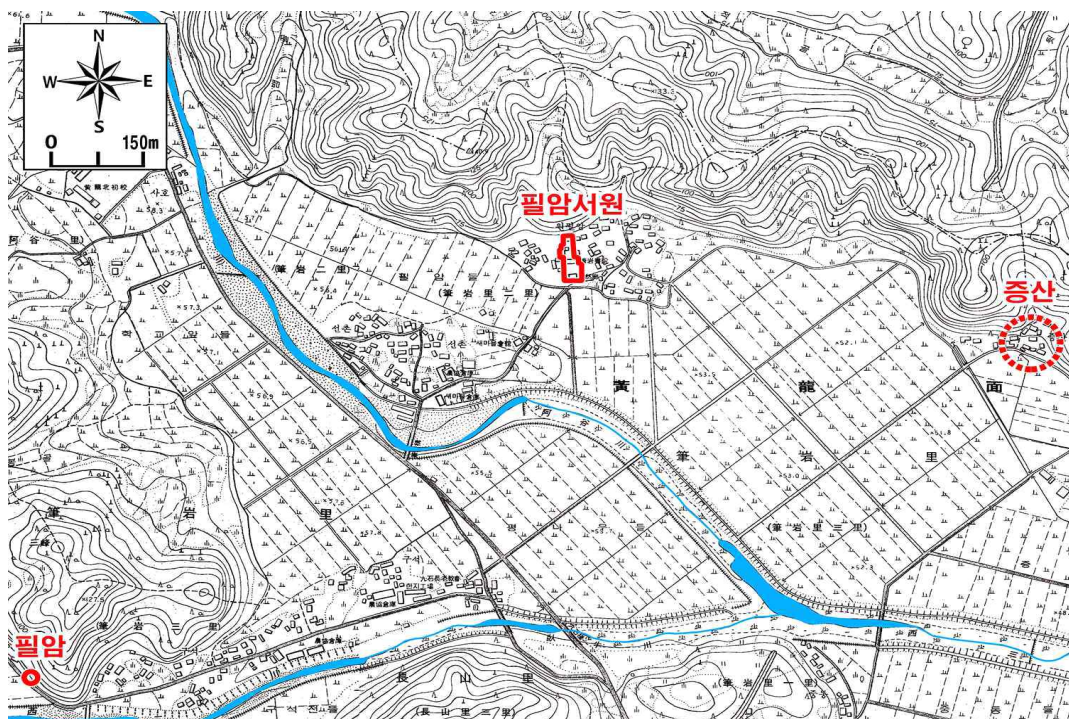
지리에서 말하는 명당의 요건이다. 장풍득수가 되기 위해서는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지형이 적합하다. 득수(得水)는 혈에서 보았을 때 혈 앞으로 흐르는 물이 처음 시작되는 곳을 말한다.

66) 지리를 논함에 있어 먼저 수구(水口)를 살피고, 다음으로 들의 형세를, 다음으로 산의 모양을 다음으로 흙빛을, 다음으로 물 흐름의 방향과 형세를, 다음으로 앞 산과 앞 물을 본다”고 말하였고, 반대로 “수구가 영망이면 아무리 많은 실림이 있어도 여러 대로 전해지지 못하고 저절로 없어진다” 라고 하였고, “또 물은 재물을 관장하는 것이므로 물가에 부자가 많다”는 등의 말이 바로 풍수학적인 해설이다. 수구(水口)는 혈의 좌우측을 흐르는 명당수가 청룡과 백호의 끝부분에서 서로 합수(合水)되어 청룡과 백호 밖으로 흘러나가는 물길을 말하며, 파구(破丘)라고도 한다, 손(巽)의 방위는 동남향임.

67) 경(庚)은 좌(坐)에 관계없이 그 방위에 용맥(龍脈)이나, 수려한 사격(砂格)이 있거나, 물이 득수(得水)하면 매우 길하다. 사주에서 십간의 7번째에 위치하는 천간이다. 만물의 개혁을 이룩하는 뜻이 있다. 방위는 서방(西方)을 의미함.

<표Ⅲ-8> 전당후재형(前堂後齋形)인 필암서원의 주요 공간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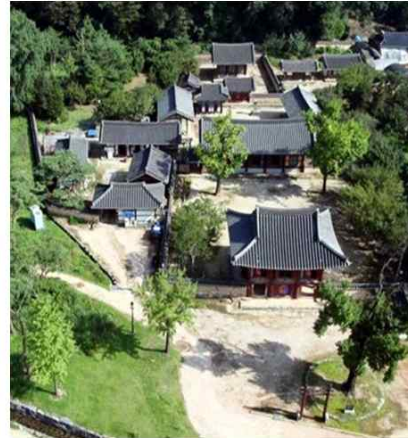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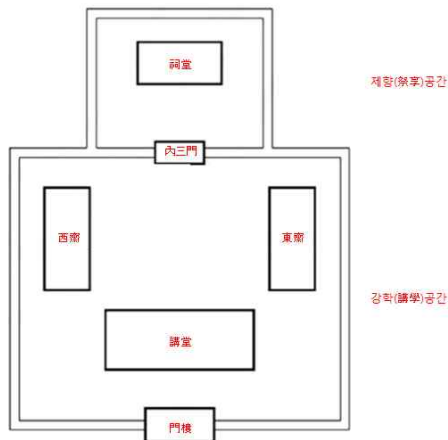
구 분	건물명	비 고
제향공간(祭享空間)	우동사(祐東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학건축(敎學建築) : 강학기능+선현제향 • 질서와 절제의 규범- 남향의 중심축선 • 신로(新路)를 따라 시각적 축 형성 • 전당후재형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향공간의 확보 가능 - 시각적 중심점 배치
	내삼문(內三門)	
강학공간(講學空間)	청절당(淸節堂)	
	동재(東齋)-진덕재(進德齋)	
	서재(西齋)-숭의재(崇義齋)	
	경장각(敬藏閣)	
기타	확연루, 장서각(장판각), 전사청, 고직사, 창고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필암마을에 입지한 필암서원 건물 배치]

이렇게 필암서원의 내부 유식공간은 전면의 확연루, 확연루와 강당 사이의 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학공간은 강당인 청절당, 동·서재인 진덕재·숭의재, 그리고 경장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향공간은 내삼문과 전사청, 우동사로 구성된다. 제향공간 동쪽의 별도 구획에 장판각, 한장사가 있다. 강당인 청절당의 측면으로 담장을 쌓아 유식공간과 강학공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고, 제향공간도 담장을 둘러 강학공간과 제향공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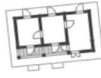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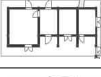
Ⅲ. 필암서원의 현황



[강학 공간과 제향 공간의 배치(전당후재형 필암서원)]

<표Ⅲ-9> 필암서원 개별 건축물 개요

건물	주초	기단	기둥	가구	도리	공포	평면(정면×측면)	도면	천장	지붕	풍판 설치	막새 기와
문루	막돌	장대석 1단	원기둥	5량가	굴도리	주심포 2익공	3×3 : 9칸 2층 우물 마루		연등 회바름	팔작 겹처마	×	○
강당	막돌	장대석 1단	원기둥	5량가	굴도리	초익공	5×3 : 15칸 중앙3칸 우물마루 좌우1칸 온돌방		연등 회바름	맞배 홀처마	○	×
동재	막돌	장대석 2단	각기둥	5량가	납도리	민도리	4×1(퇴간2칸) : 6칸 전면 뒷간 중앙 2칸 우물마루 (서재 마루 폐쇄 기능)		연등 회바름	맞배 홀처마	×	×
서재	막돌	장대석 2단	각기둥	5량가	납도리	민도리			연등 회바름	맞배 홀처마	×	×
경장각	2단 원통형	장대석 1단	원기둥	3량가	굴도리	1출목 2익공	3×1 : 3칸 우물 마루		연등 회바름 단청	팔작 겹처마	×	○
내삼문	원통형	장대석 2단	원기둥	3량가	굴도리	1출목 2익공	3×1 : 3칸 시멘트 마감		연등 회바름 단청	맞배 홀처마	○	○
사당	전면 8각 후면원 통형	장대석 2단	굴도리	5량가	굴도리	1출목 2익공	3×15 : 4칸 반 시멘트 마감		연등 회바름 단청	맞배 겹처마	○	○
전사청	막돌	장대석 1단	납도리	3량가	납도리	민도리	1×2 : 2칸 일부 틀마루		연등 회바름	맞배 홀처마	×	×
장판각	원통형	막돌3 단	각기둥	3량가	굴도리	민도리	3×1 : 3칸		연등 회바름	맞배 홀처마	○	×

건물	주초	기단	기둥	가구	도리	공포	평면(정면×측면)	도면	천장	지붕	풍판 설치	막새 기와
한장사	막돌	막돌2 단	각기둥	5량가	납도리	민도리	3×2 : 6칸 한 칸 : 퇴간 우물마루		알 수 없음	맞배 홀처마	×	○
고직사	막돌	막돌1 단	각기둥	5량가	납도리	민도리	4×15 : 6칸 5칸 온돌방 1칸 마루		알 수 없음	맞배 홀처마	×	○
행랑	막돌	막돌1 단	각기둥	5량가	납도리	민도리	4×1 : 4칸 우측3칸 우물마루		연등 회바름	맞배 홀처마	×	×
창고	막돌	막돌1 단	각기둥	5량가	납도리	민도리	3×15 : 4칸 반 한 칸반 : 문		연등 회바름	맞배 홀처마	×	×
변소1 (정방)	막돌	막돌1 단	각기둥		납도리	민도리	1×1 틀마루		연등	사모 홀처마	×	×
변소2	사각형	막돌1 단	각기둥	3량가	납도리	민도리	2×1		연등	맞배 홀처마	×	×

* 자료 : 「필암서원 건축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표 재편집

Ⅲ. 필암서원의 현황

<표Ⅲ-10> 필암서원 구성 건축물 연대별 변천과정 정리

시기	구분	배치도, 사진 및 기록에 나타나는 주요 구성건축물																			중요 사항					
1590년	창건	사당, 신문, 누정형식 건물 1동																			선현을 봉사하는 사묘(祠廟)기능					
사액 후		0주요 구성 건축물0																	기타 부속물						사당(우동사), 동재(진덕재), 서재(송의재), 문루(확연루)	
		사당	내삼문	동재	서재	강당	문루	전사청	한장사	장서각	차노사	경장각	강수청	고직사	창고	장판각	행랑	변소	건물	홍살문	안내관	하마석	망료위	석등		계생비
1662년	선액	0	0	0	0	0	0	0	0	0									9동				0		0	1659년 사액(賜額)이후 교육기능 정비
1786년	추배	0	0	0	0	0	0	0	0	0	0	0	0						12동				0		0	고암 양자징 추배, 경장각 및 강수청 신축
1886년	고사 신축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4동				0		0	사우(祠宇)보수, 고사4칸 건축 - 고직사 영역 생성
1975년	서원 전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5동	0	0	0	0	0	0	필암서원지, 안내관2개소, 하마석2개소, 석등 우동사 경내 위치, 죽전(竹田), 차노사와 강수청 해체, 장서 각 위치 변경, 수목표시 - 차노사, 강수청 없어짐 - 1926년 석등 건립 - 1971년 장판각 건립
1988년	전남 서원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5동	0		0			0	수목표시, 1988년 전남의 서원·사우 책자
1998년	논문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5동	0		0	0	0	0	1975년 서원전도에 보이는 우측 하마석 없어짐 장서각 규모 및 위치 변경 차노사, 강수청 없어짐, 행랑신축
2004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4동	0	0	0	0	0	0	1975년 강학공간 내 설치 안내관 1개소 해체 1975년 확연루 좌측설치 안내관을 우측으로 이설 우동사 앞 석등 동재 뒤편으로 이설
2015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4동	0	0	0	0	0	0	2008년 유물전시관 건립 2012년 집성관 건립



확트인 필암서원 전경 (1987년, 전남문화재도록)

2004.10.22



1975년 전남문화재도록에 보이는 필암서원 전경

2012.03.05



2013.01.14



2013.07.12



2015.03.19



<그림Ⅲ-20> 필암서원 전경 변천과정

Ⅲ. 필암서원의 현황



- ① 직인주(直印柱): 서원의 경문인 문루(門樓)임. 특히 공간인 구각(樓閣)으로, 원래는 주암 송서원의 관제이다.
- ② 정밀당(靜謐堂): 신비들이 공부하고 회의하던 강당으로 벽, 기둥, 천장까지 돌로 되어, 원래는 동문당 송준길의 관제이다.
- ③ 인덕재(仁德齋): 송준길이 공부하며 생활하고 잠을 자던 서쪽의 건물로, 원래는 송준길의 관제이다.
- ④ 순의재(肅義齋): 송준길이 공부하며 생활하고 잠을 자던 서쪽의 건물로, 원래는 송준길의 관제이다.
- ⑤ 정암각(靜巖閣): 인종 임금의 하사로 선생에게 하사한 국곡도의 목판을 보관한 건물이며, 원래는 정조 임금 관제이다.
- ⑥ 무동사(無動祠): 하사 정인후 선생과 고함 일가정 선생의 위패를 모신 사당으로, 원래는 주암의 관제를 옮겨왔다.
- ⑦ 장전각(藏殿閣): 하사 선생의 문집을 보존해 초원재문, 무어구곡, 백연초재 등 죽한 70여 개를 보관한 건물이다.
- ⑧ 한장사(汗丈舍): 서원에서 일하는 노비 중에서 최고 책임자가 생활하던 건물이다.
- ⑨ 제성비(製硯碑): 서원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제물로 쓸 거죽을 물어놓고 검사하는 때적으로도 모셨다고 전해진다.
- ⑩ 전사정(典史廳): 서원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 제물(祭物)과 제가(祭器)를 보관하는 건물이다.
- ⑪ 고직사(庫直舍): 서원을 관리하는 사원이 생활하는 건물로, 직자(直舍), 창고(倉庫), 행당(行廊)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⑫ 동상문(東上門): 예외를 갖추고 조상스럽게 행동해야 하는 신성한 곳을 알리기 위해 서원 앞구에 세운 돌은네 문.
- ⑬ 하마석(下馬石): 말을 편하게 올라타고 내릴 수 있도록 말발굽을 위한 넓적한 돌.
- ⑭ 화장실(化粧室):

[필암서원 전경(2015.3) 및 배치 현황도 재편집]

주) 8. 한장사(汗丈舍)-漢丈 : 안내판 한자 오류(掌)

(1) 진입공간(進入空間)

① 학자수(學者壽)⁶⁸⁾

공부하는 분위기에 무게가 있으면 인간도 무게있게 되고, 그러한 인간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 더 큰 무게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아무튼 우리나라의 향교나 서원의 행단은 은행나무가 자리하고 있다 (임정빈, 1987).

은행나무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불교나 유교와 함께 들어온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이유미, 2003). 현재 전통공간인 향교 및 서원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은행나무는 공자와 관련되어 있는 나무라 해도 틀리지 않는다. 옛 유학자들은 공자를 유교철학의 비조로 추앙했으며, 공자의 학행과 덕행은 송찬의 대상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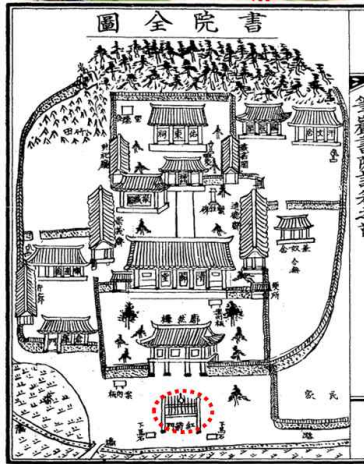
그들이 정원에 은행나무를 심었던 것은 공자의 행적과 사상을 상기하고 학행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다(허 군, 2002). 그런데 행단이라고 하는 것이 당초부터 은행나무 단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조선의 유학자 이수광은 《지봉유설》 <經書部> 諸子 편에서 행단의 나무는 은행나무가 아니라 살구나무일 것이라는 다른 주장을 폈다.

우리나라에서는 행단에 살구나무를 관여시키기보다는 은행나무를 두어 강학(講學) 분위기에 엄숙성을 부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살구나무에도 큰 것이 있기는 하나 큰 나무가 적고, 또 그늘이 질지 못한 결점도 있으며, 실용적인 서민생활상의 나무여서 문묘라든가 서원이라든가 향교 등에는 은행나무를 짙으로 심어 장엄미를 부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성균관, 전주향교, 광주(廣州)향교, 나주향교, 영천향교, 하양향교, 소수서원, 필암서원, 자운서원 등에 은행나무, 느티나무, 회화나무 등이 있어 향교 및 서원의 무게를 더해주고 있다.

필암서원의 진입·과정공간에 은행나무가 있는 곳은 강학공간이며, 무성서원의 제향공간에 있었으며, 은행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된 곳은 광주(廣州)향교, 춘천향교, 전주향교, 나주향교, 영광향교, 하양향교, 소수서원, 도동서원, 덕천서원, 필암서원에 14주가 있다.

68) 회화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향나무, 소나무 등 서원조경에서 강학공간엔 배식을 하지 않는것이 원칙이나 후면엔 학자수를 식재하였다.

Ⅲ. 필암서원의 현황



2015.7월



1987년

[필암서원 문루 앞 홍살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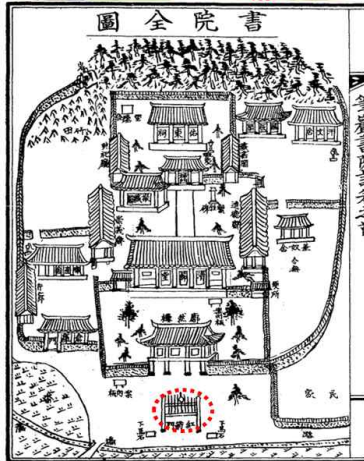
주) 1975년 서원전도 상의 문루 좌측 안내판이 현재는 우측에 위치하고 있음.

② 홍살문(紅螭門)

홍살문(紅螭門)이란 말이 처음 쓰인 곳은 중국의 <주례(周禮)>로서 임금이 행차시에 임시로 머무는 곳이다. 바깥에서 제사를 지내는 곳, 또는 빈객을 만나는 곳을 나타내던 기(旗)나 문(門)의 표시를 말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후대에 와서 충신이나 효자, 열녀를 표창하여 집이나 마을에 세우는 붉은 색 문의 표시로 그 의미가 바뀌었다.

우리 나라 홍살문은 신라 때부터 발생하여 고려에 들어와서 적지 않게 건립되었다. 특히 성종이 유교를 정치이념으로 삼으면서 홍살문 또한 많이 건립이 되었는데, 홍살문(紅螭門)이란 충신, 효자, 열녀들을 표창하여 임금이 그 집이나 마을 앞, 능(陵), 원(園), 묘(廟), 궁전(宮殿), 관아(官衙) 등에 세우도록 한 붉은 문(門)이다.

일반 서원에 세워지기도 하였는데 이는 고명한 유학자의 위패를 서원 한구석에 모셔지고 있기 때문이다. 좌우에 높은 기둥을 세우고 지붕은 없이 斜籠(사룡)만 얹고 붉은 단청을 한다. 붉은 단청을 하는 것은 신성한 곳을 나타내기도 하고 악귀를 내쫓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홍살문은 대개 효행을 중심으로 많이 포상의 형식으로 주어졌으며, 성리학적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조선왕조에서는 전국적으로 상당수 세워졌다.



2015.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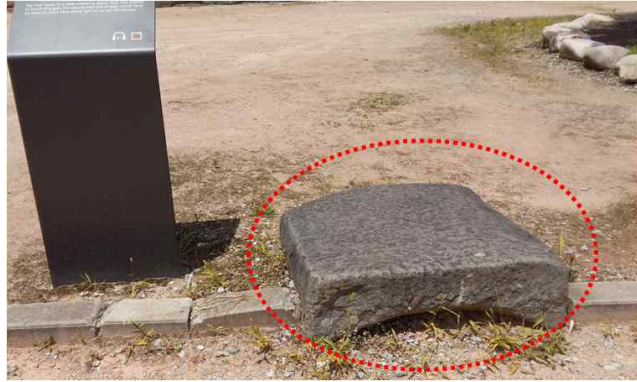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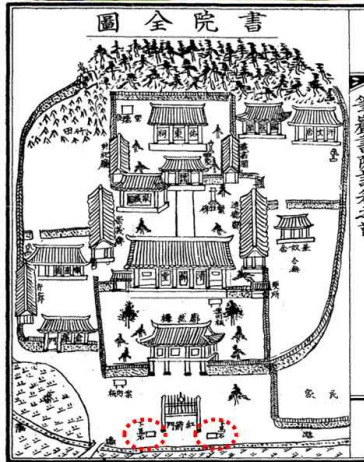
1987년

[필암서원 문루 앞 홍살문]

주) 1975년 서원전도 상의 문루 좌측 안내판이 현재는 우측에 위치하고 있음.

③ 하마석(下馬石)

하마석(下馬石)은 말에 오르거나 내릴 때 사용하는 디딤돌로 마을, 서원, 향교나 궁궐 입구에 놓인 흔한 전입시설로 말에 오르거나 내릴 때에 발돋움하기 위하여 대문 앞에 놓은 큰 돌인 노돛돌이라고도 한다.



2015.7월



2008년

[필암서원 문루 앞 하마석]

* 주) 1975년 당시 서원전도에는 하마석이 2개소에 있었으나 현재는 1개소임.



만취당 이황종 선생 하마석



황해북도 개성시 승녕서원 하마석



영암 삼락재 하마석 표지석과 하마석



남양주 대아당지 하마석



구례 오미 문화유씨 윤조루 하마석
[각종 하마석]



장성필암서원 하마석

(2) 유식⁶⁹⁾공간(遊息空間)

필암서원의 내부 유식공간은 전면의 확연루(廓然樓)와 확연루와 강당 사이의 뜰로 구성되어 있다. 서원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유교 건축물이며, 선비들이 모여서 명현(名賢), 또는 충절(忠節)로 이름 높은 위인들을 받들어 모시고 그 덕망과 절의를 본받으며 학문과 사상을 연구하던 곳으로 조선의 역사에서 철학과 사상이 담긴 중요한 건물로서 자연의 이치를 중시하고 자연 속에서 만물의 이치를 찾고 자하는 성리학적 이념에 따라 자연 경관이 빼어난 곳에 주로 건축하였다. 이것이 서원 건축에서 누(樓)마루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이다. 서원의 문루는 직접 위에 올라서서 전망되는 경관을 바라보며 천인합일의 기상을 얻는 유식경관(遊息景觀)을 일컫는다.

① 문루(廓然樓) -확연루(廓然樓)

확연루(廓然樓의) ‘확연(廓然)’은 북송시대 유학자 정이(程顥)의 “대체로 천지의 상도는 그 마음이 만물에 두루 미쳐서 사심이 없는 것이며, 성인의 상도는 그 정이 만사에 순응하여 사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군자의 학문은 확연히 공정하여(廓然而大公) 만사 사물이 왔을 때 그대로 받아들이 따를 뿐이다(夫天地之常以其心普萬物而無心 聖人之常以其情順萬事而無情故君子之學莫若廓然而大公物來而順應: 程明道, 定性書)”에서 취한 것이다.

확연루에 올라서면 지금은 2012년 조경공사로 가리워져 있지만 공사 이전엔 앞에 펼쳐진 평야의 모습에서 확연루가 의미하는 ‘廓然大公(확연대공)’을 느껴볼 수 있었다. 필암서원은 평지에 입지하여 전저후고(前低後高)를 통한 전망 경관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이층 문루인 확연루를 건립함으로써 ‘확연대공(廓然大公)’의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고, 유교사회의 텍스트 공동체 구성원들은 확연루의 전망 경관을 통하여 ‘廓然大公’의 의미를 독해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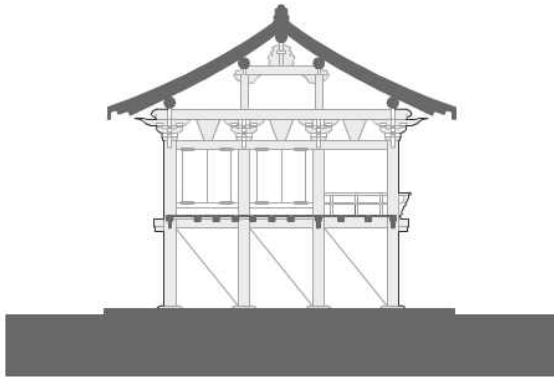
확연루에서 바라보는 넓게 트인 시야는 “마음을 크게 하면 천지만물을 체득할 수 있다(大其心則體天下之萬物)”는 대심(大心)의 의미와 드넓게 트여 만물과 일체가 되는 천인합일(天人合一)의 경지를 느끼게 한다. 확연하게 개방된 경관은 보는 이의 마음을 크게 함으로써 사심을 버리고 천지만물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는 문루 앞에 키 큰 소나무 식재 등 과도한 조경으로 확연루의 개방적 전망이 막혀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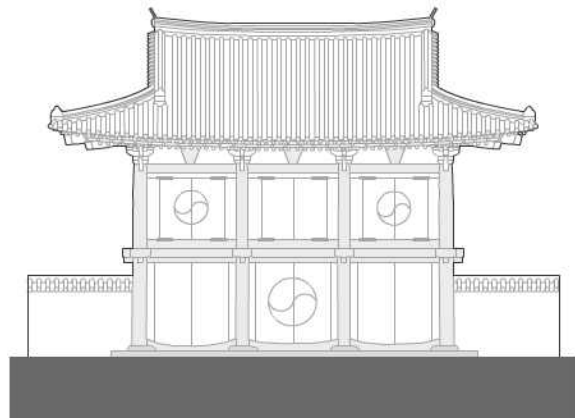
<그림Ⅲ-21> 확연루에서 보는 전망 경관

69) 장수유식(藏修游息) : 장수(藏修)는 학문을 정과(正課)로서 수습하는 일을 뜻하고, 유식(遊息)은 정과 이외의 휴식시간에도 학문에 마음을 두는 일을 의미한다. (출전 : 예기 악기편). (한자성어·고사명언구사전, 2011. 2. 15., 이담복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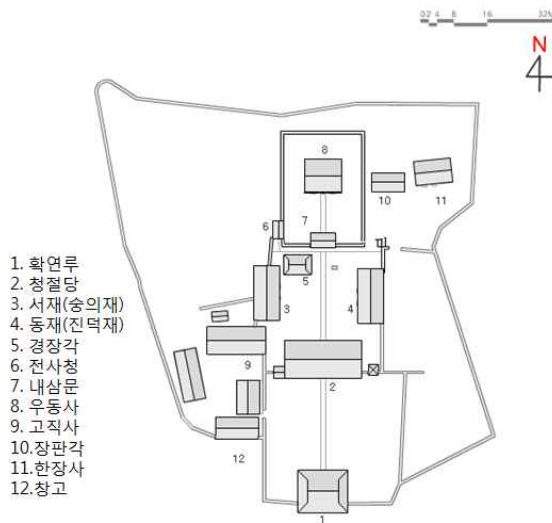
Ⅲ. 필암서원의 현황



확연루 단면도



확연루 정면도



확연루 정면(2015.7)



확연루 현판(2015.7)⁷⁰⁾

[확연루 콘텐츠 및 전경]

70) 확연루는 서원의 문루로서 방주(方柱)를 쓴 정면 3칸·측면 3칸·상하 18칸 규모의 팔작지붕 2층 누각(樓閣) 건물이며, 편액은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의 글씨이다.



[장성 필암리의 낙엽활엽수림(산림청) 1999]

확연루의 1층은 1.8m 정도로 선비들이 갓을 쓰고 출입하기에는 매우 낮은 높이인데, 동·서측면의 남측 첫 칸과 중앙 칸에는 판장문이 달려 있으며, 2층을 오르는 계단은 동측면 중앙 칸에 나있으며 경사가 가파르다. 평지에 세워진 남계서원 등은 누 출입 계단이 누마루 아래 설치가 되어 있고 경사지에 세운 병산서원 등은 건물 후면에서 지형차를 이용하여 쉽게 오르내리게 처리한 것과 차이가 있다.

필암서원의 계단 처리 방식은 평지가 아닌 경사지에 적합하다.⁷¹⁾ 확연루는 증산으로 이진하고 사액받을 당시에 건립된 것으로 증산에서의 서원 입지는 전저후고의 경사지 입지였음을 알 수 있다. 기산에서는 강경(江景)의 서원으로 확연루가 없었으며, 증산에서의 서원 입지와 현재의 서원 입지는 경사지와 평지의 차이는 있으나 확연루에서 들판을 바라보는 야경(野景)서원이었던 점은 같다고 볼 수 있다.



폐쇄적인 전면(1987)



개방적인 배면(1987)



가파른 측면 계단(1987)

[강학공간과 사당공간 방향으로 개방된 확연루⁷²⁾]

71) 조상순·이상해, 1998, “필암서원의 건축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7(2), P 66.

72) 문루 확연루는 2층의 전면 전체가 판문으로 폐쇄적이며, 측면은 3칸 중 2칸이 관벽과 판문으로 측면 일부와 후면이 개방되어 내부 공간을 지향하고 있다.

송명흠⁷³⁾의 확연루중수상량문(廓然樓重修上梁文)에서 필암서원은 소수의 가옥이 있는 작은 마을 속에 입지하였으⁷⁴⁾며, 확연루 주변에 연못이 있었고, 주변 산과 시내, 마을과 우물, 푸른 뜰과 연못을 보며 유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른 서원과 달리 청절당의 측면에 담을 쌓아 확연루를 중심으로 한 유식공간과 청절당을 중심으로 한 강학공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다.

“ 위는 누(樓)고 아래는 문(門), 규모와 제도는 옛날을 따랐으나 산을 두르고 물을 임하며 보고 듣는 것이 새롭다. 우물은 출렁이고 마을은 좁으니 안정(顔亭)의 풍류는 변하지 않고 연못은 향기롭다. 뜰은 푸르고 영문(濂門)을 읊고 희롱함은 끝이 없다.⁷⁵⁾ ”

(3) 강학공간(講學空間)

① 강당(講堂) - 청절당(淸節堂)

청절당(淸節堂)은 학문과 토론을 하는 필암서원의 중심 공간으로 이곳에서는 강연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강학공간이다.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된 온돌방을 들인 구조로 된 이 건물은 진원현(珍原縣)⁷⁶⁾의 객사였던 것을 1672년에 옮겨 온 것으로 입구 쪽에서 볼 때 앞쪽이 뒷면이고 뒤쪽이 정면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강학공간인 강당이 사당을 향해 북향하고⁷⁷⁾ 있는 구조라는 점이 특이하다. 건물 남쪽 면은 벽을 설치하고 창문을 내었으나, 북쪽 면은 기둥 사이에 벽을 설치하지 않고 비워 놓은 것이다. 앞면 전체에 분합문(分閤門)⁷⁸⁾을 달아 여름에 모두 들어 올리면 확연루에서 사당까지 시선이 통과하게 된다. 출입은 왼쪽에 달린 협문으로 드나들게 되어있다. 협문으로 들어가면 비로소 앞면을 볼 수 있다.

이 건물에는 9칸 대청과 좌우의 3칸 협실이 있고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 1607 ~1689)이 쓴 신

73) 송명흠(宋明欽:1705~1768)은 조선후기의 학자이다. 자(字)는 회가(晦可)요, 호는 역천(逸泉:木+樂)이며 시호(諡號)는 문원(文元)이고 관은 은진(恩津)이니 동춘당 송준길(同春堂宋浚吉))의 현손이다. 도암 이재(陶菴李穡)의 수제자로 기호학과에 속하며 주기적(主氣的) 입장을 취한 학자다.

74) ‘마을이 좁다’는 것은 야경(野景)서원의 입지 형태를 나타낸다. 계경(溪景)이나 강경(江景)의 서원들은 주위에 민가가 거의 없으나, 야경의 서원들은 대체로 소수의 가옥이 있는 마을에 입지하고 있다.

75) 上樓下門規制仍舊繞山臨水眺聽維新井濂巷陋顔亭之風流不改池香庭翠濂門之吟弄無邊(河西先生全集附錄 권2, 廓然樓上梁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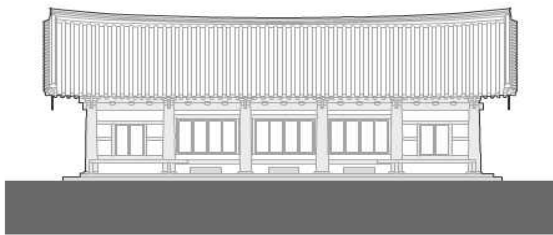
76) 신증동국여지승람 전라도 장흥 도호부 진원현(珍原縣)조에 “**珍原縣** 本百濟丘斯珍兮縣, 新羅改珍原縣, 爲長城郡領縣, 高麗爲羅州任內. 明宗壬辰, 置監務, 本朝因之(본래 백제의 구사진혜현(丘斯珍兮縣)이었는데, 신라에서 진원현으로 고쳐서 장성군(長城郡)의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고려에서 나주(羅州)의 임내(任內)로 하였다가 명종(明宗) 2년 임진에 감무(監務)를 두었고, 본조에서도 그대로 따랐다.)”라 하였다. **폐성 연대는 "반이나 되락되었다"**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내용으로 볼때 1531년(중종 26) 이전임을 알 수 있고,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된 1481년(성종 12) 이전의 조선 초기(15세기)로 추정된다. 따라서 진원현성은 1600년(선조 33) 장성현에 합병되기 이전에 이미 읍성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진원현성은 표고 40m쯤의 대체로 낮고 평평한 분지형의 두 개의 작은 봉우리를 연결하여 축성한 포곡형 산성이다. 남아있는 유구를 통해 볼 때 성벽은 내탁법에 의해 수축하였고 성벽 안쪽은 내벽을 축성할 당시 삭토하여 내벽 이 형성 되었는데 배수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성벽의 길이는 800m이며 가장 양호한 동벽의 높이는 3m 내외로 6·25때에 진원지서(현 파출소)의 방호벽을 구축 할 때 거의 훼손되었으며, 그 후에도 새마을 사업 등에도 성곽 돌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져 오고 있다. 특히 하서 김인후 선생을 봉안하고 있는 필암서원의 청절당은 옛 진원현 객사 건물을 옮긴 것이다. 이 건물은 15칸 26평형의 강당으로 중앙은 대청 좌우에 협실을 갖추고 있어 당시 현의 규모를 가늠케 한다.

77) 북향(北向)의 연유는 임금은 신하를 대할 때 남면하고(君南面) ‘신하는 임금을 대할 때 북면한다(臣北面)’는 당시의 군신(君臣)간의 대하는 예의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니까 신하는 남쪽에 자리하여, 맞은쪽인 북쪽에 있는 임금을 바라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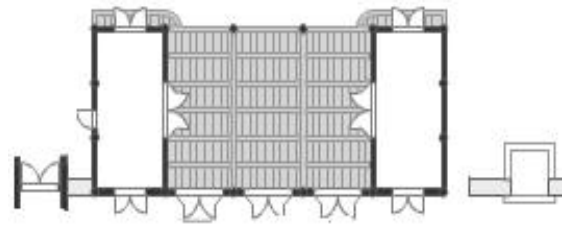
78) 분합문(分閤門)은 대청 앞에 드리는 네 쪽으로 된 긴 창살문. 걸창과 같이 되고, 아래쪽에 통널 조각을 댄다.

도비문 중 청풍대절(淸風大節)이라는 글을 인용하였으며 대청에는 조선 효종 때 대사헌과 병조판서 등을 지낸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 1606 선조 39~1672 현종 13)의 글씨로 된 편액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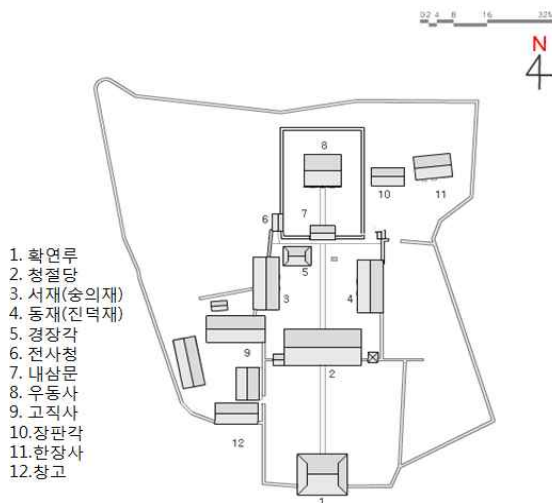
또한 처마 밑에는 인간을 포함한 우주만물의 형성 이전에 부여되는 천리(天理)는 동일하나, 일단 만물이 형성된 뒤 부여된 이(理), 즉 성(性)은 만물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는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을 주창한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요 공조판서를 지낸 병계(屏溪) 윤봉구(尹鳳九 1683 숙종 9 ~ 1767 영조 43)의 글씨로 된 필암서원이란 편액이 달려 있다.



청절당 입면도-정면도



청절당 평면도



화연루 쪽에서 본 청절당 배면 (2015.7)



청절당 정면 및 청절당과 필암서원 현판(2015.7)

[청절당 콘텐츠 및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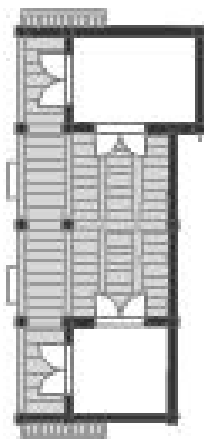
② 동재(東齋)와 서재(西齋)

일반적으로 동재(東齋)는 강당(講堂)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마주보는 건물을 짓고 각각 동재·서재라고 불렀다. 성균관의 경우 강학(講學)을 하는 명륜당(明倫堂)의 좌우에 동재·서재를 두고, 동재에는 생원, 서재에는 진사를 수용했다. 후기에 당쟁이 심해지자 당색에 따라 동·서로 학생을 나누어 수용한 적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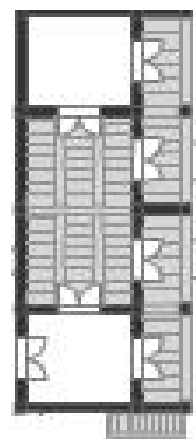
지방교육기관인 향교(鄕校)와 서원(書院)에도 동재·서재가 있었다. 동재는 양반자제가, 서재는 평민자제가 많이 기숙했다. 이렇듯 서원의 동재(東齋)는 선배들이 머무는 방이요, 서재(西齋)는 후배들이 머물렀던 방을 말한다.

진덕재(進德齋)는 동재(東齋)로 정면 4칸 측면 1.5칸의 규모로 길쭉하고 평활한 형태이다. 전면에는 툇마루가 깔려있으며 마루면의 높낮이가 미세하게 변화하여 모종의 위계를 나타낸다. 다시 말해 양끝 방쪽의 툇마루가 가운데 대청 부분보다는 높게 되어 기능의 위계를 따랐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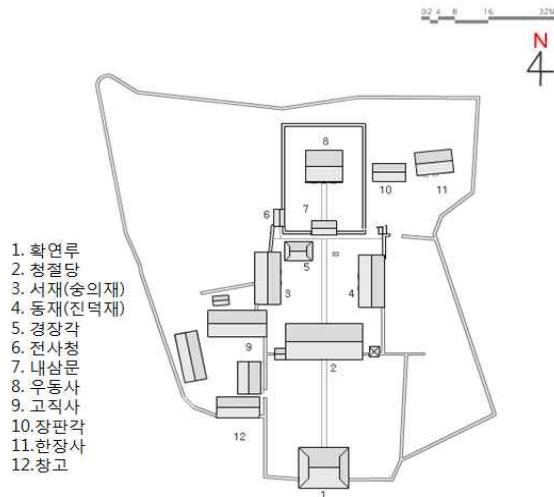
숭의재(崇義齋)는 서재(西齋)로 정면 4칸 측면 1.5칸의 규모로 길쭉하고 평활한 형태이다. 전면에는 툇마루가 깔려있으며 마루면의 높낮이가 미세하게 변화하여 모종의 위계를 나타낸다. 청절당 앞마당 좌우로 유생들의 생활공간이 동재와 서재가 있으며 진덕재(進德齋), 숭의재(崇義齋)라는 현판은 송준길이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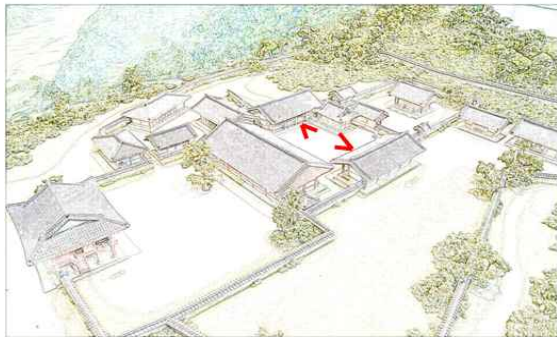
서재 평면도



동재 평면도



서재(西齋)－ 송의재(崇義齋) 전경(2015.7)



동재(東齋)－ 진덕재(進德齋) 전경(20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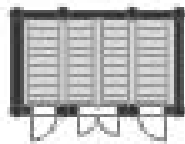
청절당에서 본 동재(우)와 서재(좌), 사당(정면) 내삼문 전경(2015.7)
[동서재 콘텐츠 및 전경]

③ 경장각(敬藏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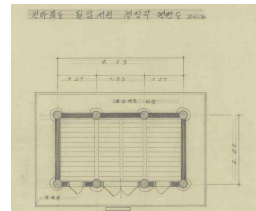
장판각과 별도로 경장각(敬藏閣)을 따로 지어 보관한 것은 하서 선생의 가르침을 받은 조선 12대 임금 인종이 내린 묵죽도(墨竹圖)의 판각을 보관하기 위해 따로 지은 것이 아닌가 한다. 편액의 글씨는 조선 22대 정조의 초서 어필(御筆)이며, 하서 김인후 선생을 문묘에 배향코자 정조의 내탕금(內帑金)으로 지어진 건물이며 선왕 인조의 유품이 보관된 장소이기에 손수 편액에 글씨를 제작해 내린 것 같다. 경장각에는 인종이 김인후에게 하사한 묵죽도와 묵죽도판이 보관되어 있다. 또한, 건물 지붕 아래 네 귀퉁이 중 세 곳은 용, 한 곳은 봉황이 조각되어 있다.

묵죽도(墨竹圖)의 판각을 보관하고 있는 곳으로, 하서는 인종이 세자였을 당시, 시장(侍講)이었는데, 그때 이를 하사받은 것으로, “대(竹)”은 절의를 상징하는 것으로, 하서는 고향에서 인종의 승하 소식을 듣고 통곡하였으며, 매년 인종의 기일에는 집 뒷산에 올라 북쪽을 향해 울었다고 한다. 후에 하서의 절개를 높게 평가한 정조는 어필로 수장하고 있는 것을 존경한다는 의미의 “경장각(敬藏閣)”이라는 쓴 편액을 하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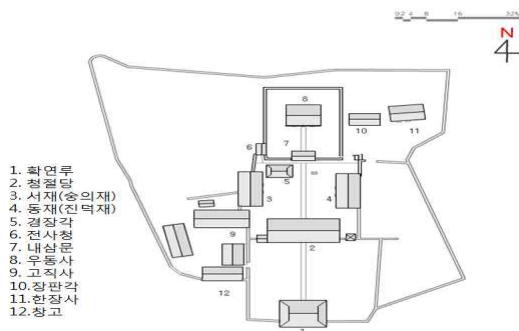
조선시대의 단청이 왕궁을 위시한 관아건축에만 사용되고 민간에는 금지되었지만⁷⁹⁾ 이곳 필암 서원엔 사당인 우동사, 출입구인 환연루, 그리고 경장각 건물이 단청이 되어 있다. 그 중 이 경장각의 단청이 가장 세련된 건물로 정면 3칸 측면 1칸 팔작지붕의 작은 건물이다.



경장각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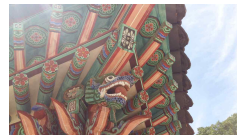
경장각 평면도(국립문화재연구소 자료)
주) 전라북도 필암서원 경장각 평면도(전라북도로 오기)



1. 환연루
2. 청절당
3. 서재(송의재)
4. 동재(진덕재)
5. 경장각
6. 전사청
7. 내삼문
8. 우동사
9. 고직사
10. 장판각
11. 한정사
12. 창고



경장각(敬藏閣) 전경 (2015.7)



경장각 전경, 단청(용, 봉황) 및 인조대왕 친필 편액(2015.7)



[경장각 콘텐츠 및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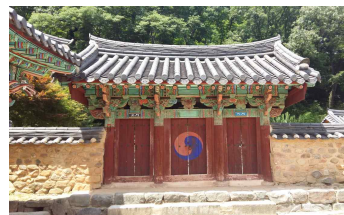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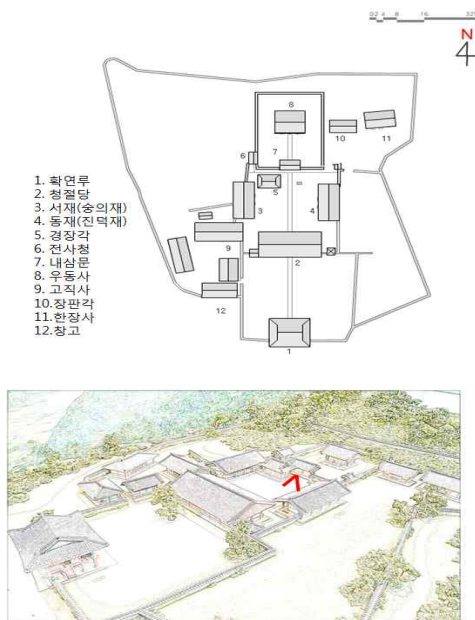
79) 이후 문종 때 모든 건물에 주칠을 금하였던 것을 완화하여 관청과 사찰, 표너, 충신, 열녀등의 사당(종가, 양반가 사당)중에선 단청이 남아있는 경우가 간혹 있다)에 단청이 허용되기 시작했다.

(4) 제향공간(祭享空間)

(가) 외부공간

① 내삼문(內三門)

내삼문은 사당으로 통하는 제향공간의 정문으로 서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문이기 때문에 서원의 정문인 외문에 대하여 내문이라고도 하고, 일반적으로 3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삼문이라고도 한다. 청절당 바깥채 안쪽에 세 칸으로 세운 솟을대문⁸⁰⁾ 형식으로 주로 향사를 지낼 때 제관들이 출입하였다. 이 내삼문은 제향공간의 정문으로 그 안쪽이 성역이 되므로 신과 사람이 만난다는 뜻으로 '내신문'이라고도 한다.⁸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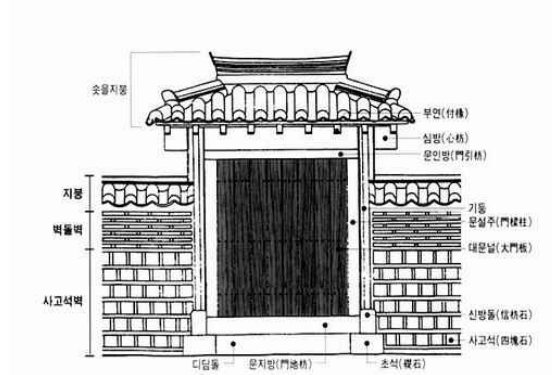
내삼문 전경(2015.7)



우동사에 본 내삼문 안쪽 전경 (2015.7)

[내삼문 콘텐츠 및 전경]

80) 옛날 양반택이나 서원 향교의 정문인 솟을대문은 말 그대로 하늘을 향하여 솟아오르며 대문으로서의 자기 과시를 확실히 하는 문이다. 나즈막한 사랑채 혹은 행랑채 벽이나 담이 계속되다가 중간에 불쑥 솟아오르는 대문은 높이는 높지 않지만 이르게 극적인 변화로 유난히 높아 보이는 것이 솟을대문이다. 즉 수평선과 수직선의 절묘한 대비 기법의 대문이다. 평화로운 수평선을 뚫고 파격을 가하는 솟을대문은 사람들 눈에 잘 띄이면서 적절한 위용을 갖추었으며 대문의 상징적 기능을 만족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솟을대문은 결코 과하지 않았으며 사람 몸 크기에 적절한 높이와 폭을 갖고서 불필요한 장식물도 삼가 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담백한 한옥이나 서원의 분위기와 잘 어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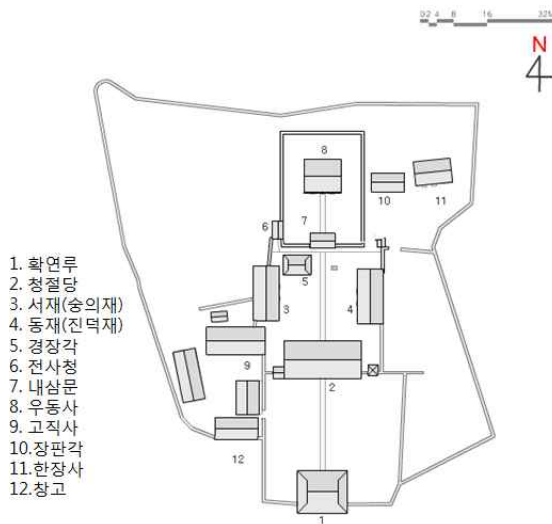
81) 문화원행백과 사진으로보는 한국전통건축, 2002, 한국콘텐츠진흥원.

② 전사청(典祀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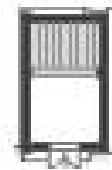
전사청(典祀廳)은 나라의 전사는 주로 외사(外祀)하는 무 [兆] , 시조에게 지내는 체사(禘祀), 지신에게 지내는 교사(郊祀), 종묘에 지내는 종사(宗祀), 조상에게 지내는 조보(祖報)의 다섯 가지를 말한다.

전사청은 통일신라 때 제사를 맡은 관청의 명칭으로 쓰여졌다. 제사의 의식이 다양화해지고 제례가 발전됨에 따라 전사의 기구를 예부(禮部)로부터 독립시킬 필요가 있어 처음 전사청으로 분리시켰다가 713년(성덕왕 12) 전사서(典祀署)로 되었고, 고려에 들어와서 전의시(典儀寺)·태상부(太常府)·봉상시(奉常寺)·대상시(大常寺) 등으로 바뀌었다가 1409년(태종 9) 봉상시로 개칭되었다. 또한, 국가에서 제사를 지내는 종묘나 문묘, 기타 전각이 있는 곳에는 제례 때 전사관(典祀官)이 집무하면서 제사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점검하는 전사청이 있다.

필암서원의 전사청은 제향 때에 필요한 제수(祭需)를 마련해 상차림을 준비하고 제기 등의 기물을 보관하던 곳으로 제기고(祭器庫)라고도 한다. 이와 같이 전사청(典祀廳)은 제사를 지내기 전날에 제수를 보관하던 곳으로, 평상시에는 제기와 제구를 보관한다. 사당과 같은 울타리에 있는 것이 보통인데, 이 서원의 전사청은 경장각 배면 내삼문의 서쪽에 있다.



내삼문 전경 (20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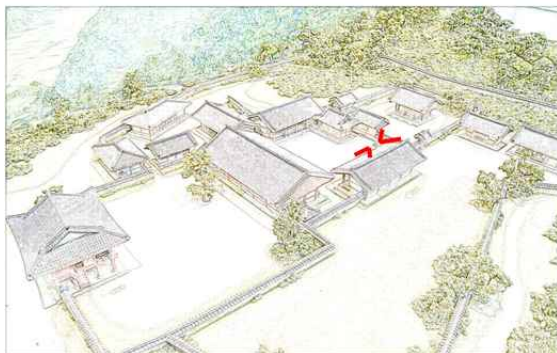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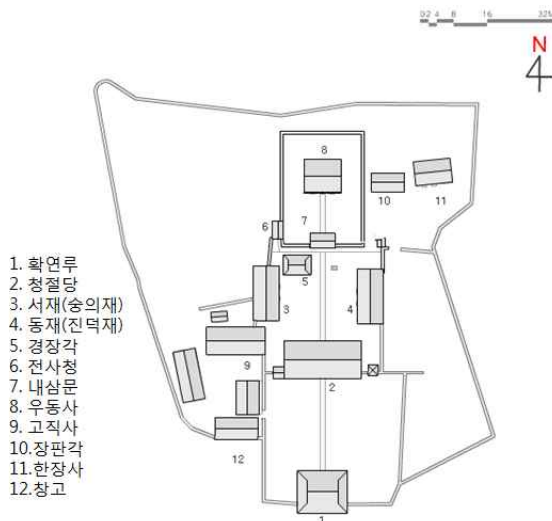
전사청(좌), 경장각(중앙), 내삼문(우)-좌협문에서 본 전경
[내삼문 콘텐츠 및 전경]

③ 계생비(繫牲碑)와 묘정비(廟庭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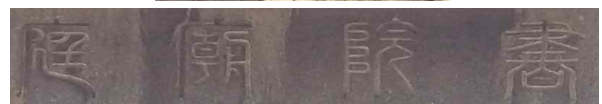
생단(牲壇)은 향사에 쓸 희생을 검사하는 단으로 성생단(省牲壇)이라고도 한다. 소수서원의 생단은 서원 정문 앞 오른쪽에, 남계서원의 생단은 강당 오른쪽에 위치하고, 필암서원의 경우는 생단 대신 내삼문 앞에 계생비(繫牲碑)가 세워져 있다.

전면의 필암서원계생비(繫牲碑)는 향사에 제물로 쓸 가축을 매어 놓는 비로, 즉 제사에 쓸 동물을 묶어 놓고 충돌례(充腠禮)를 행하는 곳으로 제관들이 그 주위를 돌면서 제물로 쓸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했다고 한다. 후면의 묘정비(廟庭碑)는 서원의 건립 취지와 연혁, 서원에 모셔진 인물에 대하여 기록한 비석으로 서원비(書院碑)라고도 부른다.

필암서원지⁸²⁾에 의하면 계생비는 “묘정(廟庭)에 있으며, 충돌례(充腠禮)⁸²⁾를 행하며, 이 역시 옛이름이다. 봉사(奉事) 송일중(宋日中)이 앞면을 썼으며, 연재(淵齋) 송병선이 비문을 지었고, 해관(海觀) 윤용구(尹用求)가 뒷면을 썼다. 동강(東江) 김녕한(金寧漢)이 받아썼다”고 하였다.



전면 - 필암서원계생비 (2015.7)



내삼문 앞 묘정비(서원묘정) 전경(20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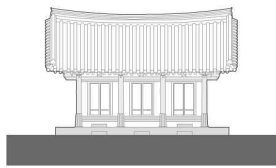
[계생비 및 묘정비 콘텐츠 및 전경]

82) 계생비에 준비된 희생이 정결한가를 축관이 “돌(膺)”하고 물으면, 헌관이 좋으면 “충(充)”하여 의식이 끝나는 의(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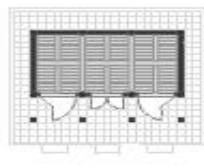
(나) 내부공간

① 사당(祠堂)- 우동사(祐東祠)

우동사(祐東祠)는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전면 한 칸은 퇴칸으로 개방되어 있으며 익공(翼工)형식의 맞배지붕을 하고 있다. 사당 내부 중앙의 북쪽 벽에는 ‘문정공하서김선생(文正公河西金先生)’이라는 김인후의 위패가, 동쪽 벽에는 ‘고암양선생(鼓巖梁繭遮)’이라는 양자징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으며, 또한 벽면에는 학, 용, 연꽃, 봉황, 잉어, 매화, 국화, 소나무 등 절개와 장수를 상징하는 여러 종류의 그림이 있다. 편액은 주자의 글씨를 집자·집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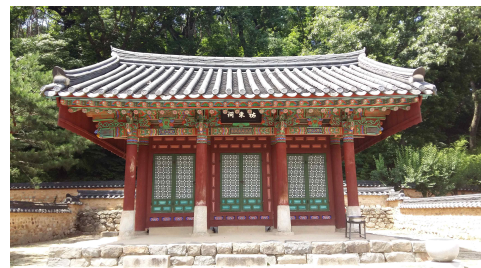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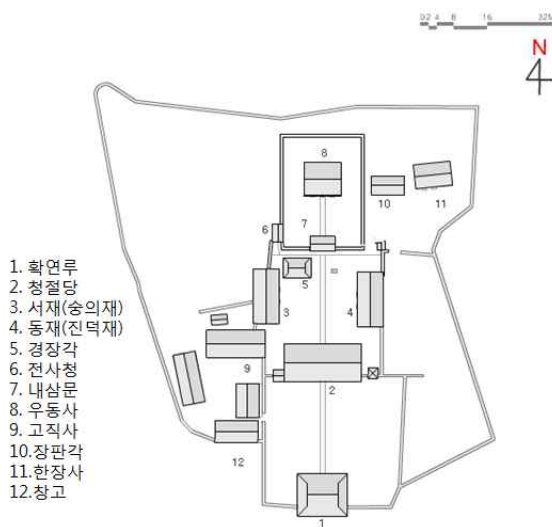
우동사 입면도- 정면도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우동사 평면도



우동사 내부 전경



우동사 전면 전경(2015.7)



우동사 배면 전경(2015.7)



우동사 동측면



우동사 서측면



[우동사 콘텐츠 및 전경]

② 관세위(盥洗位)와 망료위(望燎位)

관세위(盥洗位)는 일반적으로 돌기둥을 세워 그 위에 관분(盥盆), 즉 대야를 올려놓는다. 보통 사당 기단 앞 왼쪽 계단의 왼쪽에 위치하는데, 사당이 남향일 경우 사당 앞 동쪽 계단 동쪽에 위치한다.⁸³⁾ 즉, 관세위(盥洗位)는 제향(祭享) 때, 제관(祭官)이 손을 씻는 자리를 말하며, 관세(盥洗)는 헌관(獻官) 및 집사자가 제사를 지내기 전에 손을 씻어 깨끗이 할 때 사용하는 세숫대야를 말한다. 수건인 관건(盥巾)과 함께 둔다.

망례위(望瘞位), 망료위(望燎位)는 제향을 지내고 난 뒤 축문(祝文)을 불사르고 묻는 곳이다. '례(瘞)'는 묻는 것이고, '료(燎)'는 태우는 것을 뜻한다. 망료위(望燎位)는 제사를 마친 뒤 제문을 쓴 종이를 태우기 위한 돌판으로 제사를 지낸 후 축문을 태우는 곳을 말하는데, 필암서원의 망료위는 사당 오른쪽 옆에 마련되어 있다.

필암서원 망료례는 축문을 감(坎)에 묻거나 태워 묻는 예이다. 축문을 폐백과 함께 묻는다고 필암서원(筆巖書院)의 역사(歷史)와 향사(享祀)하여 망예례(望瘞禮)라 하지만, 영조 대 이후로 감에 묻지 않고 태우기 때문에 망료례라고 한다. 망료례는 대축이 철번두 후에 축을 태우면, 초헌관이 찬인의 인도 하에이를 지켜보는 의식이다. 1975년 필암서원지 향사홀기에는 망예례라고 되어 있고, 망료 후에 '예필'을 고하면 헌관 이후 모두가 찬인의 인도 하에 문을 나가며, 축 및 집례의 재배가 모두 끝난 후에 주독을 덮고 모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2010년 향사홀기에는 망료례로 되어 있다. 즉 초헌관이 찬인의 인도 하에 망료위에 이르러 북향하여 서면, 축은 축문과 폐백 대바구니를 취하여 서쪽 계단으로 내려와 망료위에 이르러 초헌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축문과 폐백을 태운다.

망료가 끝나면 초헌관은 찬인의 인도 하에 제자리로 돌아온다. 찬인은 초헌관의 좌측으로 나아가 '예필'을 고하고, 축은 사당안으로 들어가 합독(閣櫛)을 한다. 축과 제집사는 모두 배위로 돌아와 재배를 하고, 집례, 알자, 찬인도 모두 재배를 한다. 초헌관 이하는 찬인의 인도 하에 사당 서문으로 나와 청절당(강당)으로 돌아온다.



[우동사의 망료위(우동사 배면 서측)와 관세위(우동사 전면 북향, 동남측)]

83) 한국 미의 재발견 - 궁궐 · 유교건축, 2004. 11. 30., 서울출판사.

(5) 기타 공간

① 장서각(藏書閣)

1970년 건립, 1997년 보수한 기록이 있는데, 우동사 좌측, 내삼문 우측의 장서각은 현재 없고 그 자리에 협문이 있는데, 2008년 유물전시관이 건립되면서 해체된 것으로 여겨진다. (1975년 간 필암서원지- 藏書閣[子坐午向○七坪○一棟三間○庚戌九月建李圭憲撰上梁文金潤東撰記金忠顯書額]



< 사진 > 장서각 전경(지금은 사라짐)
자료 : 소구리문화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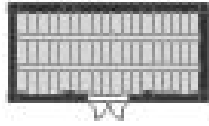
이전 장서각에 위치한 협문(2015.7)

[장서각 해체 전 과 해체 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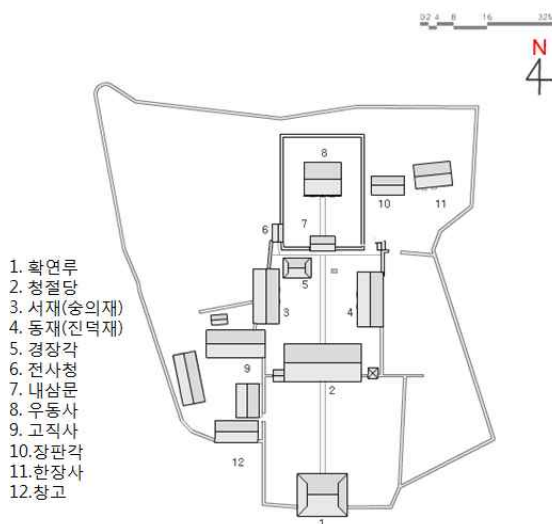
② 장판각(藏板閣)

일반적으로 서원엔 모시는 선생의 문집을 새긴 목판을 보관하는 곳을 장경각(藏經閣) 또는 장판각(藏板閣)이라 하는데, <하서전집> 649판, <초천자문> 18판, <무이구곡> 18판, <백련초해> 13판, 유목 등 698개의 판각 등이 장판각에 보관되어 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서원 동편의 장서각은 전적을 수장하고 있었으며, 그 동북쪽 토담 밖에 있는 장판각은 『하서집』의 판목을 소장하였던 곳으로 노비보(보물 587-1), 원장선생안(587-2), 집강안, 문계안(587-4~5), 유생안, 원적 4건(576-7~10), 봉심록 3책(587-13), 참제록, 양자강명축관계품목(587-14) 등의 중요한 고문서 1괄이 보물 587호로 지정되어 있다⁸⁴). 이밖에도 인종 목죽과 하서유목 등 60여 건의 귀중한 사료가 소장되어 있다.



장판각 평면도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장판각(좌) 및 한장사(우) 전경



장판각 전면 전경(2015.7)



장판각 현판 (2015.7)



장판각 내부 전경(2015.7)

[장판각 콘텐츠 및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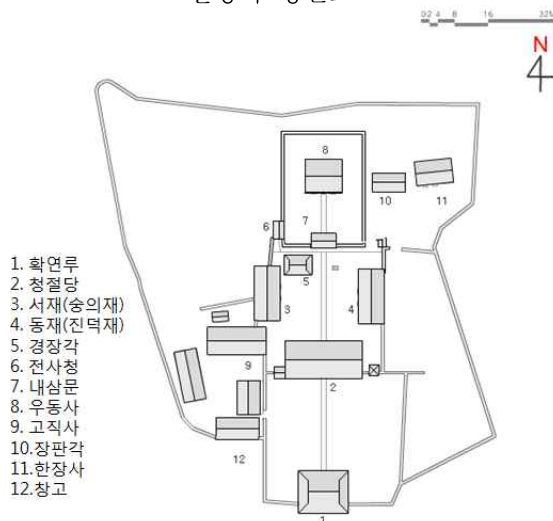
84) 2008년 5월 21일 개관한 이날 개관된 유물전시관은 지난 1999년 본관건물이 착공된 뒤 그동안 4차례의 자문위원회와 명지 대학교 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원의 마스터플랜을 기초로 2007년 1월 증축공사와 함께 필암서원 주변정비사업이 마무리돼 개관하게 됐다. 필암서원 유물전시관은 수장고, 관리동, 휴게실 및 연결회랑, 외삼문으로 이루어진 전통 한옥 목조 건물이다. 현재 전시관 내에는 하서 김인후 선생의 유품으로 국가지정 보물 제 587호 노비보를 비롯해 문서와 현판, 앞다지 장 등이 있다.

③ 한장사(汗丈舍)

장판각을 지키는 사람이 거처하던 곳, 즉 관리인(노복)중 책임자가 살았던 집이다. 고목(告目)은 각 관청의 하급 관리가 상급 관원에게 혹은 향교나 서원의 한장(漢丈 혹은 汗丈)이 임원에게 간단히 보고하거나 문안을 드릴 때 작성하는 문서이다.



한장사 평면도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장판각(좌) 및 한장사(우) 전경



한장사 전경(2015.7)
주) 현재는 필암서원 관리사무소로 사용중임



한장사 배면(20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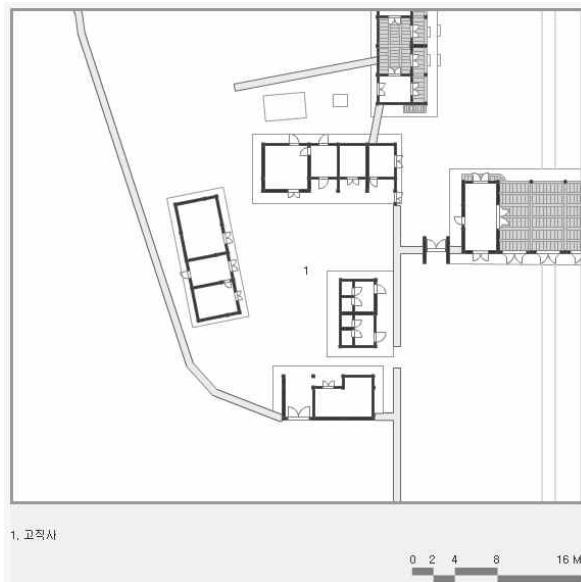
[한장사 콘텐츠 및 전경]

④ 고직사(庫直舍)

서원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고직사가 있다. 서원의 관리자는 원지기, 교지기, 재지기라고 하는데, 교지기는 향교 관리자에서 비롯되었다. 고직사는 서원의 기능을 수행하는 원지기의 주거기능, 재생들의 식사와 제사시 음식을 준비하는 기능, 식량·용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 기능 등을 갖는데, 교직사, 관리사, 주사라고도 한다.

방과 대청, 부엌 등으로 평면이 구성되는 것은 일반 살림집과 같으나, 안마당이 부엌 공간이 연장된 작업공간으로 되어 있고, 사랑채가 없다. 원생들의 식사 준비도 이곳에서 이루어지는데, 식사는 강학공간과 고직사 사이의 협문을 통해 음식을 운반하며, 원장 등은 강당의 원장실 등에서 각상을 받고 원생은 동재와 서재에서 겸상을 한다.

고직사는 시대별, 지역별로 서원의 기능이 변화함에 따라 건축내용에 변화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고직사는 강학공간 밖 좌측, 또는 우측에 위치한다. 고직사의 평면유형은 일반적으로 ㄱ, 또는 ㄷ자형이 많다. 그러나 전라도 지방은 一자형, 충청도 지방은 ㄱ자형, 경상도 지방은 ㄷ, ㄱ자형이 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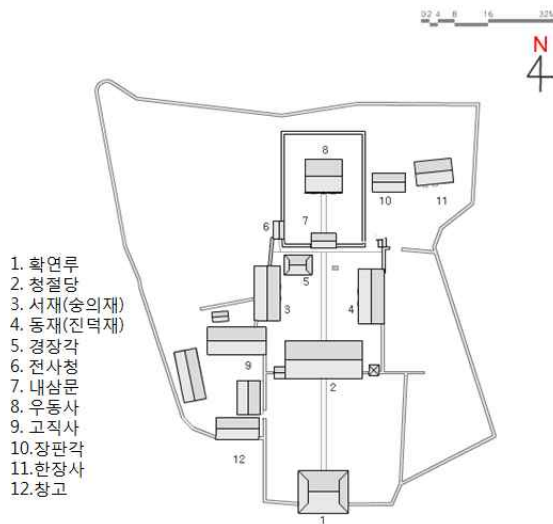
고직사공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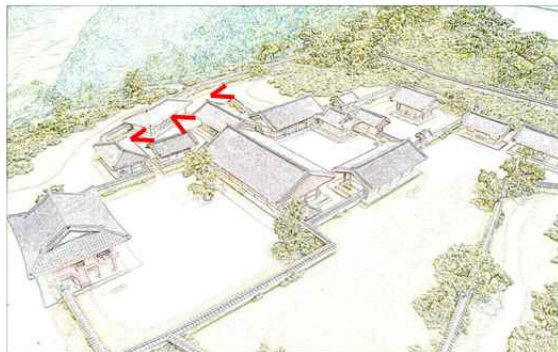
고직사 전경



행랑 전경



강학공간과 고직사 사이의 협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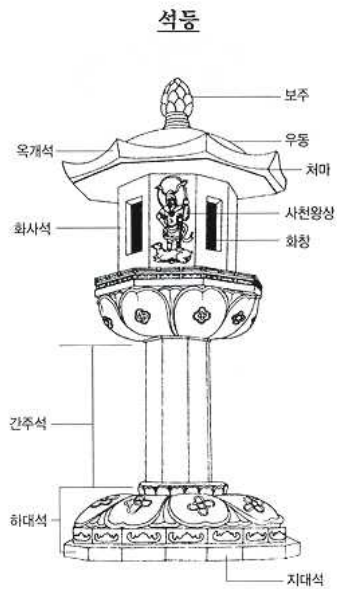


고직사 서측에서 본 청절당(좌;고직사, 우:화장실)
[고직사공간 콘텐츠 및 전경]

⑤ 석등(石燈)

석등은 부처의 광명을 상징한다 하여 광명등(光明燈) 이라고도 하며, 대개 대웅전이나 탑과 같은 중요한 건축물 앞에 자리한다. 일반적으로 불을 밝혀두는 화사석(火舍石)을 중심으로, 아래로는 3단을 이루는 받침돌을 두고, 위로는 지붕돌을 올린 후 꼭대기에 머리장식을 얹어 마무리한다.

필암서원 광명등 남측면에 음각되어 있는 “ 개국오백삼(開國五百三)”은 조선(朝鮮) 개국(開國) 503년을 의미하며, 서기 1894년에 해당된다. 또한, 필암서원 광명등 서측면에 음각되어 있는 “십오년병인(十五年丙寅)” 1926년 일본 대정(大正) 15년, 쇼와(昭和) 원년을 의미한다. 이로 미루어 원래 우동사 경내에 있던 석등은 1926년에 설치된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은 동재 동편 담장 밖으로 이설되어 자리하고 있다.



開國五百三

十五年丙寅

十月日建

筆巖書院



남측면



서측면(1926년)



북측면



동측면

[석등의 구조와 필암서원 경내에 있는 석등(광명등) 전경]



[우동사 경내에 있었던 석등]

라) 필암서원 관련유적과 유물 등

① 백화정(百花亭)

장성 백화정은 장성군 황룡면 맥호리 맥동마을에 있는 16세기 조선의 대표적인 유학자였던 하서 김인후가 태어난 곳으로 이곳 대맥동(大麥洞:麥湖洞)에는 하서가 태어나고 자랐던 생가는 현재 빈터만 남아 있다. 하서가 생전에 글을 읽고 시를 지으며 술을 마셨고, 제자들과 학문을 강론했던 '백화정(百花亭)'이라는 정자만 1961년 백화정은 1961년 후손 김연수, 김봉수 등이 복원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3칸 대문과 담장으로 둘러 싸여 있다. 복원되어 지금은 재각으로 사용하고 있다.

원래 백화정은 하서선생의 외현으로 세자 때부터 깊은 신뢰를 나누던 인종이 즉위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자 조정과 인연을 끊고 낙향한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01~1560)가 1550년 순창에서 맥동 본가로 돌아온 후 1552년에 건립한 정자로 이곳에서 10년 동안 학문에 정진했다. 장성군에는 필암서원과 황룡면 맥동마을 등에 그에 대한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

하서는 문묘에 배향된 호남유일의 선비이다. 백화정은 하서가 태어나고 타계하였던 곳으로, 지금의 건물은 1961년에 복원한 것으로 백화정 뜰에 서면 오른편으로 난산(卵山)이 내다보이며, 정자에서 난산(卵山)까지는 도보로 10분 정도 걸린다. 난산은 하서가 매년 인종의 기일(忌日)에 그를 생각하며 통곡하던 곳인데, 이 산에는 난산비와 통곡대가 있다.



[백화정에서 바라 본 난산(卵山) 전경]



[김인후 생가터 추정(황룡면 맥호리 193번지 일원) 전경]



[맥동마을 입구 도로변에서 본 백화정]



[백화정 바깥채(1972년 건립)]



[백화정 전경(1961년 중건)]



[백화정 주련(柱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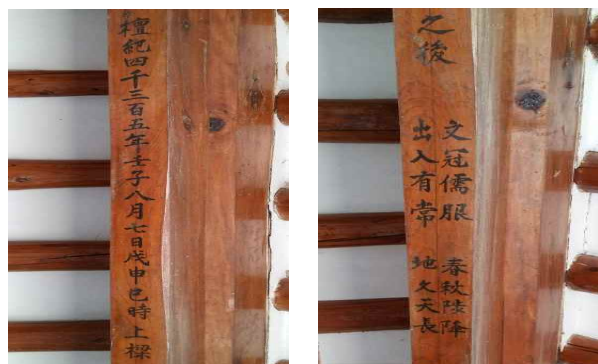
[백화정상량문(百花亭上樑文) 85]
“先祖降生四百五十二年辛丑八月日”
주) 김인후 탄생 452년(1961년 신축년) 상량



[백화정 현판]



[김인후 선생 생가터⁸⁶⁾]



[백화정 바깥채 상량문]
“檀紀四千三百五年壬子八月七日戊申巳時上樑”
주) 1972년 8월 7일(무신일) 오전 11~ 오후1시에 상량

85) 김인후(金麟厚)의 16세손 김석재(金石在)가 병화로 소실된 정자를 복원했던 1961년에 쓴 상량문.

86) 전남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장성군 황룡면 맥호리 193번지 일원(1.910m²)의 유물산포지에 대한 “하서 김인후 생가터(추정) 주변 문화재 지표조사(2011.09.21~2011.11.19)” 및 건물지 조사를 위한 “장성 하서 김인후 생가터 관련유적 시굴조사(2012.01.05~2012.01.13)”가 이루어진 바 있다.

백화정 바깥채 상량문에 적혀 있는 상량문에 “ 문관유복 출입유상(文冠儒服 出入有常) 춘추척강 지구천장(春秋陟降 地久天長) ” 즉, “ 문관[文冠; 문관(文官)들이 착용하던 모자를 지칭하는 말]과 유복[儒服; 유생(儒生)들이 입는 의복(衣服)]을 입고 출입함에 상도(常道)⁸⁷⁾가 있고, 봄가을 조상의 무덤에 척강(陟降=先塋)하니 천장지구⁸⁸⁾하도다 ” 라고 되어 있어 예나 지금이나 예와 의의 의미가 쇠퇴되어 가는 때에 절로 숙연해 짐을 느낄 수 있다.

② 하서 김인후 유허비와 손부의 열녀비

백화정에서 김인후 신도비가 있는 방향으로 조금 가면 맥동마을 앞에 열녀비각(김인후 손부 두 분)과 비(문정공하서김선생유허비)가 있다. 열녀비각에 기록된 한 사람은 기고봉(奇高峯) 기대승(奇大升)의 딸((烈婦宣敎郎金南重妻奇氏)이며 하서 손자 남중(南重)⁸⁹⁾의 부인이요, 또 한분은 하서 손자 중충의 부인 박씨(烈婦參奉金仲聰妻朴氏)이다. 이분들은 모두 정유재란 때 왜적이 침입하였을 때 죽음으로서 절개를 지켰다. 특히 기씨부인은 팔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피화를 당하고 물에 빠져 죽었다 한다.



열녀비 전면
烈婦參奉金仲聰妻朴氏之閭
烈婦宣敎郎金南重妻奇氏之閭



열녀비 배면



하서 유허비 전면 및 배면
先生(선생) 歿後(몰후) 三百十九年(삼백십구년)
歲在(세재) 戊辰(무진, 1868년) 夏四月(하 사월)에
嗣孫(사손) 通仕郎(통사랑) 行(행) 溫陵(온릉)
參奉(참봉) 容珣(용순) 謹識(근지)

[열녀비각(좌) 및 문정공(文正公)⁹⁰⁾하서김선생유허비(우)]

87)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본질적 존재이자 진리이며, 인간 행위의 방향을 암시하는 실천적 근거로서 노자(老子)가 제시한 도가사상(道家思想)의 중요한 개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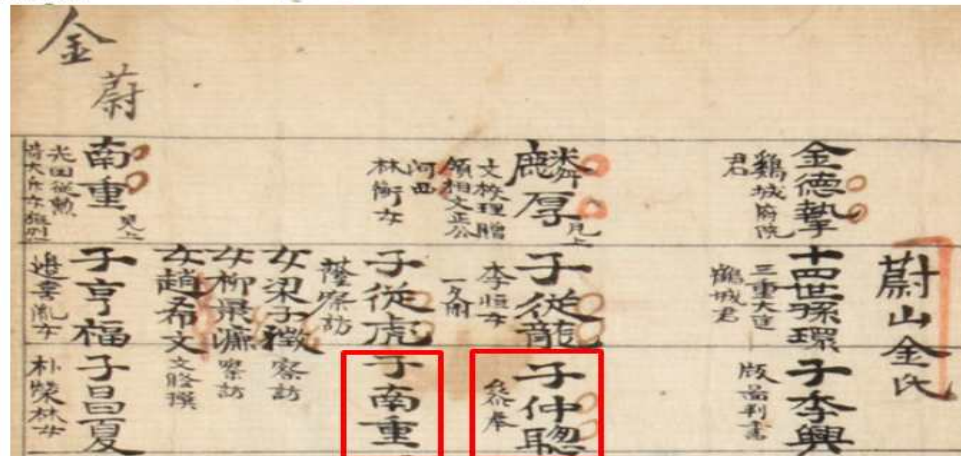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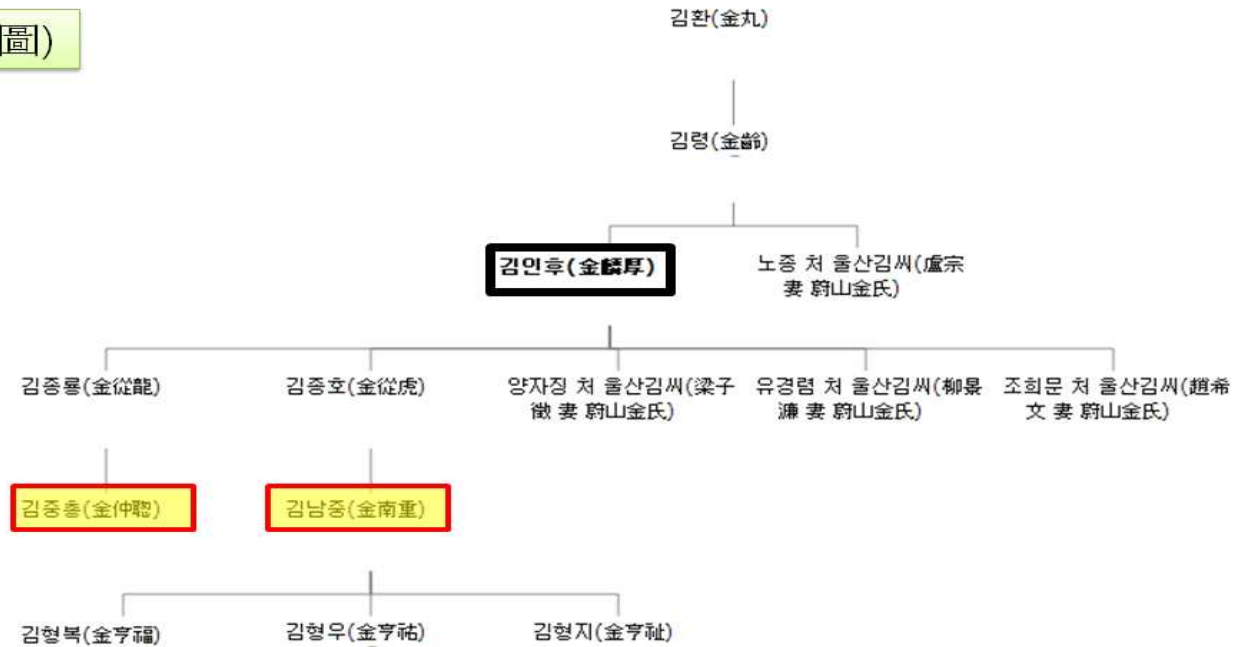
88)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천장지구는 하늘과 땅이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사물이 오래오래 계속됨을 이르는 말

89) 하서 선생은 중룡, 중호 두 아들을 두었는데 둘째 중호의 큰아들이 남중(南重)이며, 그 부인이 바로 행주 기씨 부인이다. 울산 김씨 하서의 손자 김남중의 묘는 전북 순창군 북흥면 반월리(월성부락=화개사밀)에 있었는데, 지금은 전남 장성군 황룡면 맥동리에는 우리나라 유학의 대가 하서(河西) 김인후(金仁厚) 선생 묘가 있다. 하서 선생 묘 아래에는 손자인 김남중과 그 부인 행주기씨(幸州奇氏) 묘가 있는데 행주기씨 묘가 일비장(一臂葬) 즉 팔뚝무덤이라고 전해진다. 신체의 일부인 팔뚝만 모신 무덤이라는 뜻이다.

90) 신도비에는 文靖公(문정공)으로 되어 있고, 유허비에는 文正公(문정공)으로 되어 있다. 현종 10년(1669, 기유) 8월에 文靖公(문정공)이라는 시호를 받았고, 정조 20년(1796, 병진) 10월에 文正公(문정공)으로 시호를 고쳐 받았다.

만가보 가계도(萬家譜 家系圖)

본 관 : 울산김씨(蔚山金氏)
 족보기록 : (子)麟厚
 성명 : 김인후(金麟厚) - 見上
 별호 : 河西, 文正
 과거 : 문과
 관력 : 校理 贈 領議政
 배우자 : 김인후 처 임씨(金麟厚 妻 林氏)



자료 :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만가보 가계도 편집

[만가보 가계도 재편집(하서 김인후)]

[문화콘텐츠 - 스스로 팔을 자른 기씨부인(奇氏夫人)]

행주기씨 열녀문이 세워지게 된 이야기.

기씨부인은 대학자 기대승(奇大升)의 딸로 당시 덕망으로 이름 높은 문장가이자 대학자인 하서 김인후(金麟厚)의 손부이다. 기씨부인은 김인후의 손자인 남중에게 시집을 왔는데 단정한 용모와 조용한 성품, 시부모 공경, 일가 친척 사이의 우애, 야무진 집안 일처리 등으로 마을 사이에서 칭찬이 자자했다.



임진왜란에 이어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김남중의 집안은 피난을 가기로 결정하였다. 남편은 늙은 부모를 모시고 피난을 떠나고 기씨 부인은 남아서 집을 지키기로 결정하였는데, 남편이 차마 기씨 부인을 두고 떠나지 못하자 부인은 “처는 없으면 다시 얻을 수 있지만 부모는 한번 잃으면 다시 얻을 수 없는 것이니 어서 길을 떠나십시오.”라며 남편을 독려했다.

전쟁의 사태가 악화되자 기씨 부인도 친정인 임곡으로 잠시 피난을 떠났다가 왜군이 물러났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마을로 되돌아오던 중이었다. 황룡강을 막 건넌을 때 갑자기 왜군들이 나타나서 기씨 부인 앞으로 달려들어 팔을 잡아 이끌었다. 부인은 깜짝 놀랐지만, 태연히 “씩 물러 섰거라!”라며 호통을 쳤다. 왜군이 팔을 놓아주지 않자 미리 간직했던 칼을 빼서 왜군들에게 붙잡힌 팔을 잘라버렸다. 부인의 팔이 땅에 떨어지고 선명한 피가 붉게 흘렀으나 부인은 아픔도 느껴지지 않는지 눈살 하나 찌푸림이 없었다.

왜군들은 기씨 부인의 태도에 놀라서 슬금슬금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이들 모습이 사라지자 기씨 부인은 땅 위에 떨어진 팔뚝은 뒤로 한 채 강을 향해 한 발 한 발 걸음을 내딛었다. 바람과 함께 유유히 흐르는 황룡강 위로 노을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마침내 부인은 몸을 던져 자결하고 말았다. 이 모습을 지켜본 노비는 땅 위에 떨어진 팔을 거두어 소중히 간직했다.

노비는 이듬해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온 남편 김남중에게 그 사연을 전했다. 김남중은 안타까운 마음에 크게 통곡하고 말았다.

이 사연을 들은 조정은 맥동마을에 정문을 세워 기씨 부인의 뜻을 기리고 훗날 사람들의 귀감이 되도록 하였다.

자료 : 문화콘텐츠닷컴[시대: 조선, 시기 : 1597년(선조 30)]



[장성 황룡면 맥동리 원당산 선영계하 외로운 일비장((一臂葬)묘 전경]

일비장(一臂葬)

- 작사 : 김예송
- 작곡 : 김기봉
- 노래 : 민재연 (2006년 1집) - 가수 민혜경의 친언니

정녀여~ 의~녀여~ 하서선생~손부여~
 왜병에게 손목잡혀 이 한몸 던지니
 아~아~아~ 정유재란 치욕의태
 아~아~아~ 어찌우리 잇을손가
 자손만대 잇을손가 정녀여~ 의~녀여~

가슴깊이 간직했던 은장도 꺼내어
 더럽혀진 팔을뚫고 황룡강에 몸던져
 한~여인에 굳은절개 일편단심
 원당산 기슭위에 기슭위에
 팔하나 묻혔으니 정녀여 의~녀여~

③ 어사리(御賜梨)

생가유허 곁에는 하서선생 당시에 심었던 『어사리』(御賜梨)⁹¹⁾가 지금까지 살아 있다. 하서 선생의 옛 집터 앞에 동궁 시절의 인종께서 하서 김인후 선생에게 내린 배를 심었는데, 3번이나 고사한 나무가 되살아났다고 한다. 하서 유허비와 열녀비 뒤에는 큰 나무가 두 그루 있다. 그중에 배나무가 있는 데 이 배나무가 바로 어사리이다.

인종은 동궁시절에 하서 선생에게 배 세 개를 하사하였다 한다. 하서는 귀한 선물인지라 부모님에게 바쳤다. 그리고 이 배 씨를 텃밭에 심었는데 싹이 자라서 배나무가 되었다 한다. 이 배나무가 바로 어사리(御賜梨)이다.



[어사리 안내판]



[어사리 전경]



[하서 유허비 및 열녀비각 뒤의 왼쪽 나무 어사리]



[맥호리에 거주하는 하서선생 후손 김영우 선생의 설명(2015.7)]

91) 인종이 하사한 배의 씨가 자란 배나무를 지칭한다. ‘임금이 될 세자가 선물로 내려주신 배’란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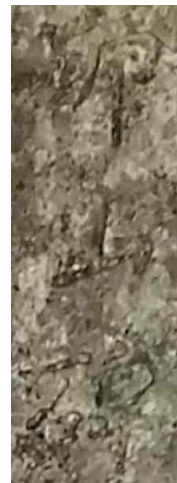
④ 장성김인후난산비 (長城金麟厚卵山碑)와 망곡단(望哭壇)

김인후 난산비는 김인후(1510~1560)가 매년 인종의 기일(忌日)인 7월 1일 맥동마을 난산(卵山)에 올라 북망통곡(北望慟哭)한 것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비이다.

호패형의 일반형 석비로 전면 상단에 전서로 횡서로 ‘난산지비(卵山之碑)’, 첫줄에 종서로 ‘난산비(卵山碑)’라 제하고, 이어 찬자(윤행임)와 서자(이익회)를 쓰고 비문을 적고 있다. 비문은 비의 제목을 포함하여 모두 31행(전 10행, 좌 5행, 후 10행, 우 6행), 1행 26자이다. 비문은 석재 윤행임(1762~1801)이 짓고, 이익회(1767~1843)가 글씨를 썼다.



<사진> 전면 상단에 ‘난산지비(卵山之碑)’-전서 횡서



<사진> 전면 첫 줄의 ‘난산비(卵山碑)’

끝 부분에 추기가 있는데 ‘영력 사계묘 윤정현 근지(永曆 四癸卯 尹定鉉 謹識)’라는 기록이 있어 조선 헌종 9년(1843)에 윤정현(1793~1874)이 추가하고 세웠음을 알 수 있다. 윤정현은 난산비의 원비문을 지은 윤행임의 아들이다.

장성 김인후 난산비는 김인후가 인종 승하시 망곡한 것(망곡단)을 기념 추모하기 위하여 세운 것으로 김인후의 행적과 정신을 알 수 있으며 국상(國喪)에 따른 당시 제도사를 알 수 있는 등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다.

[장성김인후난산비 (長城金麟厚卵山碑) 문화재지정 현황]

종 목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41호
명 칭	장성김인후난산비 (長城金麟厚卵山碑)
분 류	기록유산 /서각류/금석각류/비
수량/면적	1기
지정(등록)일	2003.10.04
소재지	전남 장성군 황룡면 맥호리 105번지
시 대	조선시대



[장성김인후난산비 (長城金麟厚卵山碑) 와 망곡단]



[장성김인후난산비각]



[장성김인후난산비 배면-호패형]



[장성김인후난산비 전면]



[장성김인후난산비 측면]

해 마다 인종의 기일(7월1일)에 이곳 난산에서 통곡하였는데 그 자리를 돌로 표시 하였다. 하서의 제자 송강 정철은 <하서를 그리며>란 시를 썼는데, 이 시에는 하서가 인종을 못 잊어 하고, 해마다 인종의 기일(7월1일)에 고향의 난산에 들어가 통곡한 내용이 잘 나타나 있다.

東方無出處 (동방무출처)

동방에는 출처 바른(잘한) 사람이 없더니

獨有湛齋翁 (독유담재옹)

홀로 담재옹(하서의 다른 호)만 그리하였네.

年年七月日 (년년칠월일)

해마다 칠월이라 그날이 되면

痛哭萬山⁹²⁾中 (통곡만산중)

통곡소리 온 산에 가득하였네.

[송강 정철의 “ 난산통곡 ” ⁹³⁾]



[망곡단(望哭壇) 오르는 계단(좌) 및 북향한 망곡단(望哭壇 ; 일명 통곡대)]

92) 만산(萬山) : 난산(卵山)을 말하는데, 난산의 글자의 기상이 웅졸하다 하여 만산으로 바꾸어 씀.

93) 이 시의 편액이 필암서원 강학당인 청절당에 붙어 있다.

⑤ 하서김인후 유적-원당재 및 묘역

맥동 뒤편 원당산에 있는 하서 선생의 묘역 입구 도로변에 놓인 하서 김인후 신도비 또한 웅장함을 보이고 있어 학문으로 후세에 명성을 떨친 성현임을 느끼게 한다. 1742년에 건립된 구 신도비와 1983년에 세운 새 신도비가 10여 미터 간격으로 나란히 위치하고 있다.

김인후 신도비(神道碑)(전라남도 기념물 제219호, 2003. 10. 4.지정)는 전남 장성군 황룡면 맥호리 산 25번지 일원(조선시대 전라도 장성현 서일면 필암리) 묘역 입구에 있다.

김인후의 생애와 행적을 기록한 비로 귀부와 비신, 이수를 갖추고 있으며 1742년(영조 18, 승정기 원후 재임술)에 세웠다. 송시열(宋時烈)이 비문을 짓고 비문 글씨는 이재(李穡), 전서는 김진상(金鎭商)이 썼다. 전후면에 각 19행씩, 양 측면에 각 8행씩 모두 54행, 1행 54자의 내용이다.

김인후 신도비는 석비로 크기는 높이 218cm, 너비 95cm, 두께 40cm이다. 묘역에는 묘비 1기(향우), 상석, 문인석 2기, 羊像 2기, 망주석 2기, 장명석등 1기, 양석 4개 등의 석물을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이 비는 동국 18현에 드는 학자로서 도학과 절의, 문장을 갖춘 생애와 행적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립 당시의 명유(名儒)인 우암 송시열이 문을 지었고 이재가 글씨를 쓰는 등 기록사료로서의 가치도 크다. 묘역은 석물을 잘 갖추고 있다.

신도비 바로 위에 있는 작은 묘역은 하서 선생의 부친인 참봉 김령(金齡)의 묘역이며, 묘지는 면앙 송순이 글을 쓰고 하서 선생이 비문을 지었다. 비가 오래 되어 자획이 불문명하여 1926년에 김경주씨가 새로 비를 세웠다고 한다.



[신 신도비(좌)와 구 신도비(우) 전경]



울산김씨 중파의 재실인 <원당재>
- 정면 7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의 재실에는 편액과 12개의 주련이 있음 -



[묘역 전경]

- 묘비 1기(향우), 상석, 문인석 2기, 羊像 2기, 망주석 2기, 장명석등 1기, 양석 4개 등/원당재 전경



묘역의 장명석등



필암서원 동계 뒤의 석등(예전 우동사 앞 위치)

[묘역의 장명석등(좌) 과 서원경내의 석등(우) 비교]

주) 두 석등 모두 1926년에 건립(필암서원 경내 석등에 석각)

⑥ 김인후부조묘⁹⁴⁾(金麟厚不祧廟)

장성군 북하면 중평2길 15-15(중평리 582) 중평마을에 있다. 하서 김인후의 신위를 모신 불천위(不遷位)⁹⁵⁾사당이다. 1832년(순조 32) 북하면 용두리에 세웠으며 이후 옥과, 창평을 거쳐 황룡면 장산리에 모시다가 1957년 현재의 중평리로 이전하여 다시 세웠다.

유적은 내삼문인 집성문(集成門)과 사당인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인 문정묘(文正廟)에는 인종이 친히 그려 하사했다는 목죽도와 연방계회도, 동호계회도, 그밖에 다수의 고문서를 보관하고 있다.

정월 대보름은 하서 선생의 기제일로 울산김씨 문중 사람들은 이날 문정묘에 모여 다례를 올리고 김인후 선생은 음력 1월 16일, 부인 여흥윤씨(驪興尹氏)는 음력 2월 4일에 기제를 모신다.



[김인후 부조묘 입구 바깥채 전경]
주) 檀紀四阡參百參十參年庚辰拾月壹日戊午時上樑
(2000년 10월 1일 오전 11시~오후 1시 사이 상량)

[김인후 부조묘 입구 바깥채 종중 표시]

- 94) 부조묘(不祧廟)는 본래 4대가 넘는 조상의 신주는 사당에서 꺼내 묻어야 하지만 나라에 공훈이 있는 사람의 신위는 왕의 허락으로 옮기지 않아도 되는 불천지위(不遷之位)가 된다. 따라서 불천지위가 된 대상은 사당에 계속 두면서 기제사를 지낼 수 있다. 부조묘는 중국의 한나라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 부조묘가 등장한 것은 고려 중엽 이후 사당을 짓게 되면서부터인데, 불천위가 된 신주는 처음에 묘 밑에 설치할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종가 근처에 사당을 지어둘 수 있게 됨으로써 부조묘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부조묘는 본래 국가의 공인절차를 받아야 하나 후대로 오면서 지방 유림의 공의에 의해서도 정해졌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95) 불천위(不遷位)란 국가공신 혹은 덕망이 높은 자를 나라에서 정하여 제사를 지낼수 있도록 허락한 것으로서, 조선초기 개국공신부터 후기까지의 덕망높은 자들이 선정되었다. 불천위는 총 3가지의 종류가 있으며 그중 국불천위(國不遷位)는 나라에서 특별히 정한 것으로, 3가지 불천위중 가장 권위가 높다.
- 1.국불천위(國不遷位) : 국가에 지대한 공을 세우거나 학문이 높아 백성으로 부터 추앙을 받는 인물로서 임금이 교지로서 정함. 즉 시호를 받은 2품 이상의 관리로서 국가적 인물 (왕과,왕자,부마는 국불천위다)
 - 2.향불천위(鄉不遷位)(유림불천위) : 유학발전에 큰 업적을 남기고 충절이 높은 분을 엄격 한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수 이상의 유림이 흔쾌히 찬성하여 결정한 인물. 즉 시호를 받은 2품 이상의 관리로서 지역적 인물
 - 3.사불천위(私不遷位)(문중불천위) : 인물의 판단 기준은 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므로 조금 다른 각도로 불천위로 모셔진 분들도 있다. 조선후기로 내려오면 시호도 받지 못하고 학자로서도 크게 명성을 떨치지 못했지만, 문중 차원에서 자기 조상 가운데 한 분(입향조, 현조 등)을 지역 유림의 추인을 받는 형식으로 불천위로 올림하기도 하였다. 이는 정통성과 정체성 확립이 절실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올림된 분을 ‘사불천위’라 한다.

Ⅲ. 필암서원의 현황



[종가(좌) 근처에 사당을 지어둘 수 있게 된 김인후 부조묘(우) (2015.7)]



[집성문(集成門) 전경]



[문정묘에 본 집성문(集成門) 안쪽]



[집성문(集成門) 에서 현판]



[집성문(集成門) 현판 각자(김충현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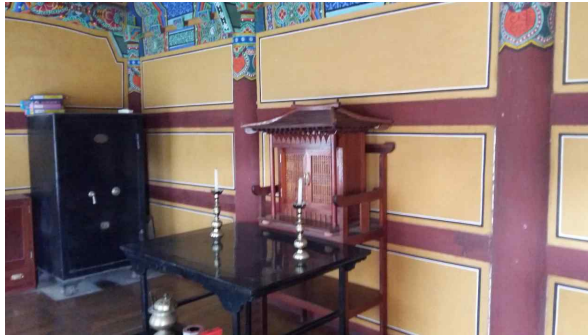


[문정묘(文正廟) 현판]
주) 乙卯秋後學 金忠顯⁹⁶謹書(1975년 가을로 추정)



[문정묘(文正廟) 전경]

96) 일중(一中) 김충현(金忠顯; 1921~2006)은 20세기에 활동하며 한글 서예의 보급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서예가.



[문정묘(文正廟) 내부 위패]



[문정묘(文正廟) 내부 모습]
주) 16대 종부 황주남(黃周男)여사

경향신문

1978년 10월 9일 (월요일)

[4]

가성애의 어린이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모여서 놀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어린이들은 웃고 노는 모습이 보인다. (기사 내용 일부 생략)

남자의 안주인

안주인 생활을 통해 본 전통의 가도

안주인 생활을 통해 본 전통의 가도. (기사 내용 일부 생략)

생활전체가 긴장감의 연속

생각과 행동이 긴장감의 연속. (기사 내용 일부 생략)

金麟厚 16·17대 종부

黃周男·朴次任씨

황주남(黃周男) 16대 종부, 박차임(朴次任) 17대 종부. (기사 내용 일부 생략)

[명가의 안주인- 김인후 맥 16·17종부 관련 기사(1978.10.9, 경향신문 4면)]

⑦ 명정재와 민씨 할머니 묘

「명정재」는 울산김씨 문중이 최초로 장성에 내려와 터를 잡았던 여흥민씨 할머니를 모시기 위해 세운 재실(齋室)⁹⁷⁾이다. 1927년 발행된 「장성읍지」에 이곳에 재실이 기록되어 있어 오래 전부터 존 재했음을 알 수 있으나, 재실은 1930년경에 건립되었다.

1993년 재실과 교육원을 다시 건립하고, 김온 신도비(神道碑)와 세적비(世蹟碑)를 옮겼으며, 민씨 할머니 행장비(行狀碑)와 말씀비를 세웠다. 묘소는 민씨할머니 봉분과 ‘정부인여흥민씨지묘’ 비석이 좌측에는 민씨 할머니 남편인 홍려군 김온(1348~1413)선생의 신위단(神位壇)이 세워져 있다.

민씨 할머니는 태종 임금의 왕비인 원경왕후 민씨의 사촌 언니로 하소부인이라 불리었으며, 평소에 학문을 좋아하고 무학대사에게 풍수지리를 배워 「하소결(荷紹訣)」을 남기기도 했다. 남편인 김온 선생은 1413년 태종 임금이 처남인 민무구, 민무질 형제 등 외척을 몰아낼 때 남편도 함께 화를 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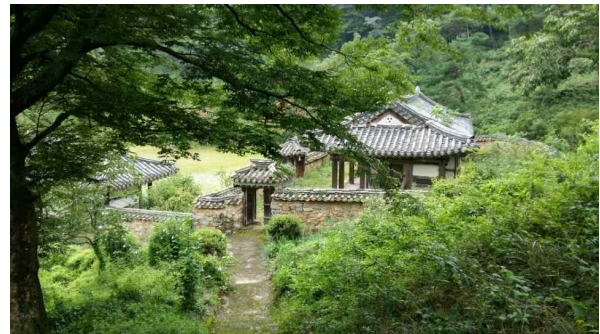
민씨 할머니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세아들을 데리고 전라도로 내려왔으며, 장성 갈재에 도착해 대추나무로 깎아 만든 매를 날려 내려앉은 곳인 장성군 황룡면 맥동마을에 터를 잡고 정착하였다.

민씨 할머니는 “나를 명정마을에 묻어라, 그러면 말을 탄 자손들이 밀등에 가득하리라.”라는 유언을 남겼는데, 그 복을 받은 5대 후손인 하서 김인후(1510~1560) 선생은 동국18선정(東國十八先正)으로 성균관 문묘(文廟)와 전국 향교의 대성전 그리고 장성 필암서원에 배향되어 있다.



[명정재 전경]

97) 시조나 중시조(中始祖)의 묘소 또는 지파(支派)의 회전(會奠) 근처에 세워진 건물



[여흥민씨 할머니 묘 전경]



[여흥민씨 할머니 묘에서 바라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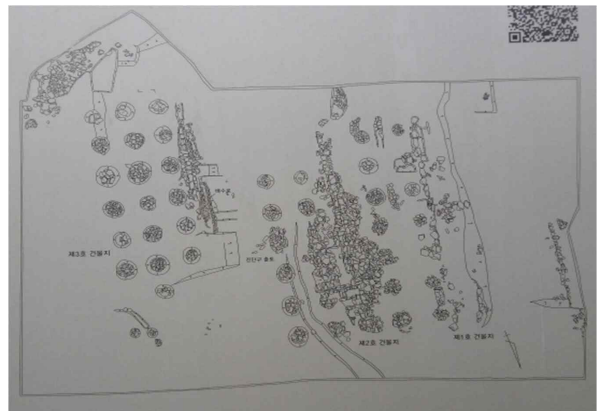


[명정재 주변 전경]

⑧ 훈몽재(訓蒙齋)

㉠ 훈몽재 유지 (訓蒙齋 遺址) 위치

순창군에 관한 가장 오래된 문헌은 『삼국사기』로서 백제 말기부터의 기록이 전해지고 있으나 그 기록은 고을의 설치와 폐지 또는 그 이름의 변경과 수영의 배치 여부 등에 관한 단편적인 것뿐이다. 고려 때에는 순창현으로 고쳐 남원부에 소속시켰다가 명종 6년(1175) 감무를 두었고 충숙왕 원년(1314) 국통 정오의 고향이라 해서 군으로 승격되었다. 조선시대에 남원진관에 소속되었고 고종 32년 남원 관찰부에 속한 군이 되었으며 그 다음 해 전라북도로 편입되었다. 이밖에도 1548년(戊申)⁹⁸⁾ 하서 김인후가 학문연구와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 세웠던 훈몽재(訓蒙齋)에 대한 복원을 위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⁹⁹⁾. 2005년 발굴조사에 의해 훈몽재 터와 붓술 기와류, 자기류 등을 발견하여 이를 토대로 순창군이 현 위치에 복원하여 하서선생의 학문적 업적과 정신을 되살리고 나아가 역사적 가치 재조명과 예절, 유학 등 전통문화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훈몽재 유지 전경]

[훈몽재유지 문화재 지정 현황]

종 목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189호
명 칭	훈몽재 유지 (訓蒙齋 遺址)
분 류	유적건조물 / 교육문화/ 교육기관/ 서당
수 량 / 면 적	1,396㎡
지정(등록)일	2012.11.02
소 재 지	전북 순창군 쌍치면 둔전리 45
시 대	조선시대

98) < 訓蒙齋重修契序/송달수(宋達洙) 守宗齋集卷之九 > 에 의하면, “ 訓蒙齋. 河西金先生與諸生講磨藏修之所也. 嘉靖乙巳. 仁廟賓天. 先生遂大歸鄉里. 杜門斂跡. 專心講學. 戊申. 自長城移寓淳昌之鮎巖村. 創立是齋.”라 기록되어 있다.

99) 박현수·윤성준 2007, 『淳昌 訓蒙齋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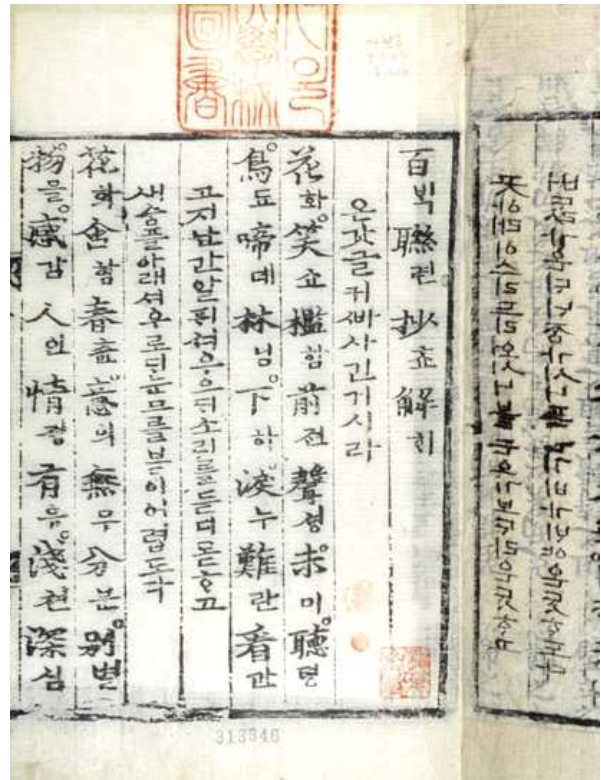


[훈몽재 전경 재편집]



[훈몽재 전경(2015.7)]

훈몽재(訓蒙齋)는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 둔전리에 있는 조선 전기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60)가 1548년(명종 3)에 처향(妻鄉)인 순창 점암촌 백방산 자락에 지은 강학당이다. 김인후는 주자(朱子)의 이기 이원론(理氣二元論)을 계승하는 견해로 성경(誠敬)의 실천을 학문적 목표로 삼아 이를 조선 왕조의 통치 이념으로 확립하는 데 기여하였다. 송강(松江) 정철(鄭澈; 1536~1593), 월계(月溪) 조희문(趙希文 ; 1527~1578) 등 당대의 유명한 학자들을 배출하였으며, 순창 지역이 호남 유학의 산실임을 입증하고 있다. 이렇게 을사사화(1545년)가 일어나자 처가인 순창으로 낙향해 학문연마와 후학 양성에 몰두해 하서집 16권 8책과 '백련초해(百聯抄解)'¹⁰⁰⁾를 남겼다.



[백련초해(百聯抄解) 표지 및 본문]

* 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花笑檻前聲未聽(화소함전성미청/화소함전성미청)/꽃이 난간 앞에서 웃으나 그 소리를 들을 수 없고
鳥啼林下淚難看(도데임하누난간/조제임하루난간/새가 숲에서 울고 있으나 그 눈물을 보기 어렵구나

㉠ 훈몽재 (訓蒙齋) 변천과정

훈몽재 유지 (訓蒙齋 遺址) 변천을 살펴보면, 김인후가 39세 되던 1548년에 후학들을 양성하기 위해 처향(妻鄉)인 순창군 쌍치면의 점암촌에 초당을 짓고, '훈몽(訓蒙)'이라는 편액을 걸고 강학을 하였다. 김인후가 훈몽재에 머물렀던 시기는 1548년부터 그가 부친상을 당하여 장성으로 돌아간 1549년까지 약 2년간이다. 김인후가 처음 훈몽재를 지은 곳은 대학암(大學巖) 위쪽이었다고 하는데,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

김인후의 5세손인 자연당 김시서(金時瑞 ; 1652~1707)가 1680년(숙종 6)경 인근에 자연당을 짓고 거처하며 훈몽재를 중건하여 후학을 양성하였다. 이후 훈몽재가 퇴락하자 후손과 유림들이 다시 1820년경 점암촌에 훈몽재를 중건하고 어암서원(魚巖書院)을 건립하여 김인후, 김시서, 송강 정철, 율곡(栗谷) 이이(李珥 ; 1536~1584)의 위패를 봉안하였으나 1867년(고종 4) 흥선 대원군(興宣大院君)의 서원 철폐령으로 훼철되었다.

100) 백련초해(百聯抄解)에서 연(聯)이란 글을 조각으로 나눌 때 쓰는 말로 한시에서는 서로 맞서는 두 글귀가 한 작을 이루는 것을 연이라 하는데, 초학자에게 한시를 가르치기 위하여 칠언고시 중에서 연구 100개를 뽑아서 한글로 해석을 붙인 책으로 김인후의 편찬으로 전해진다.

일제 강점기에 훈몽재가 중건되었으나 1951년 6·25 한국전쟁 때 다시 소실되었다. 아무튼 훈몽재는 하서 김인후 선생이 송강 정철, 양자징, 조희문, 기효간, 변성온 등 조선시대 성리학 발전에 큰 획을 그은 50여명의 대학자를 배출한 후학양성의 도량으로서 비록 시골에 위치한 학사(學舍)였지만, 1796년 정조 임금의 그 존속여부를 물을 정도로 국가로부터 실력을 인정받은 교육기관이었으며, 지난 2003년 종중원들의 노력과 이들의 뜻을 받아들인 순창군의 노력으로 오늘날 새롭게 복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05년 전주대학교 박물관의 발굴조사 결과 표토층의 10~20cm 아래에서 훈몽재의 유지로 추정되는 건물지가 확인되었고, 현재는 복토작업이 이루어져 있다. 또한, 2009년 11월 9일 현재의 위치에 훈몽재를 중건하고 동년 11월 29일 개원하였다.

순창군에서 김인후의 학문적 업적과 정신을 되살리고 후세에 전승·발전시키며, 나아가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예절·유학 등 전통문화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훈몽재에서는 유학 전문 교육반(한문학과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훈몽재에 거주하면서 『논어』, 『맹자』 등 유학 경전을 전문으로 공부), 방학 예절 교육반(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방학 기간 동안 1~4주 예절 및 인성 교육), 단기 체험 학습반(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일반인을 대상으로 1~2일의 짧은 기간 동안 예절 및 심신 단련), 여성 교육반(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가정주부의 역할 및 도덕성 회복, 애경사 시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 등을 교육)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훈몽재 연혁(沿革)》

- 1548년(명종 3년) 훈몽재 창건
- 1680년 경 하서 선생 5대손 김시서 자연당 이란 이름으로 복원
- 1827년 점안촌에 복원 및 어암서원 건립, 1867년 서원 철폐
- 1951년 6.25전쟁 때 소실
- 2003년 훈몽재 복원사업 추진
- 2005년 전주대학교 박물관 발굴조사
- 2009년 훈몽재 복원 완료

㉔ 훈몽재(訓蒙齋)와 부속 건물

지정대상지에 인접하여 훈몽재와 부속건물인 자연당(自然堂), 삼연정(三然亭), 지식묘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 추령천(秋嶺川)변에는 대학암(大學巖)이라고 새겨진 바위가 있는데, 송강 정철이 이곳에서 김인후에게 대학을 배웠다는 전설이 전하고 있다.

■ 훈몽재(訓蒙齋)

훈몽재는 원래의 이름은 훈가(訓家)였으며, 훈몽은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뜻이다. 하서 김인후(1510-1560)선생이 명종 3년에 순창 점암촌(현재 위치) 백방산 자락에 지은 강학당인데, 주자의 이기이원론을 계승하는 견해로, 성경(誠敬)의 실천을 학문의 목표로 삼아 이를 조선왕조의 통치이념으로 확립하는데 기여하였다. 송강 정철, 월계 조희문 등 당대 유명한 학자들을 배출하였으며 순창이 호남 유학의 산실이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2009년에 복원한 훈몽재 전경 및 현판(2015.7)]

■ 자연당(自然堂)

하서 김인후 선생이 당초 건립했던 훈몽재는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소실 후 하서 선생 5대 손인 김시서(1652-1707)선생이 '자연당'이라는 이름으로 복원하였다. 하서 선생이 낙향하면서 자신의 자연귀의 사상을 '자연가'¹⁰¹⁾라는 시를 통해 표현하였는데 김시서(金時瑞)¹⁰²⁾선생이 '자연당'을 지어 이를 구현했다고 할 수 있다.



[자연당 전경(2015.7)]

[자연당 현판(2015.7)]

101) “靑山自然自然 綠水自然自然 山自然水自然 山水間我亦自然 已矣哉自然生來人生 將自然自然老(산수도 절로절로 녹수도 절로절로 산절로 수절로 산수 간에 나도 절로 이 중에 절로 자란 몸이 늙기도 절로하여라) “

102) 김시서(金時瑞)[1652~1707]의 자는 휴징(休徵), 호는 자연당(自然堂), 본관은 울산(蔚山)이다. 아버지는 김창하(金昌夏)이다. 전라남도 장성에서 출생하였으며, 송시열(宋時烈)의 문인이다. 순창의 쌍치에 은거하며, 5대조인 하서(河西)?김인후(金麟厚)가 10여 년 동안 강학하던 훈몽재(訓蒙齋)를 1680년경 수축(修築)하고 그 옆에 초당(草堂)인 자연당(自然堂)을 새로 지어 하서의 유업을 계승하였다. 순창의 화산 서원(花山書院)과 어암 서원(魚巖書院)에 배향되었다.



자연당중건 상량문(2009년 기축년 백로절)

[자연당 전경(2015.7)]



자연당중건기

■ 양정관(養正館)

매산 홍직필(梅山 洪直弼 ; 1776-1852)의 '훈몽재기'에 수록된 하서 선생의 교육이념인 '몽이양정(蒙以養正)'에서 따와 '양정관'이라 하였다. '훈몽재복원사업'을 통해 신축한 교육관으로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한학, 한문, 예절교육 등)과 학술회의 등이 개최될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양정관창건기(2009년 기축년 선생몰후 449년)

[양정관 전경 및 현판(2015.7)]



양정관창건기(2009년 기축 5월 하순)



■ 삼연정(三然亭)

하서 선생의 문학적 사상인 '삼연(三然)'은 산(山), 수(水), 인(人)을 구현한 정자다. 하서 선생이 지은 1,600여 수의 시에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인 '삼연(三然)'¹⁰³에서 그 명칭을 따왔다. 하서 선생의 소쇄원 48영(瀟灑園 48詠) 중 14영 '원규투류(垣竇透流 ; 담장 밖에서 뚫고 가는 물이 흐름을 엿보다)'는 '삼연'이 잘 드러난 시이다.



삼연정 전경

[양정관 전경 및 현판(2015.7)]



하서 친필집자 삼연정 현판

103) 三然之義 實本於河西文正先生 山水人三自然之歌意 而亭在淳昌之訓蒙自然二齋之傍焉. < 三然亭記 >.



[삼연정기(2009년 5월 25일) (2015.7.)]

[소쇄원 48영 중 14영]



제14영 담장 밑구멍을 뚫고 흐르는 물
垣竅透流

한 걸음 한 걸음 물을 보고 지나며
글을 읊으니 생각은 더욱 그윽해
사람들은 진원을 찾아 거슬러 가지도 않고
부질없이 담 구멍에 흐르는 물만을 보네
步步看波去
行吟思轉幽
眞源人未沂
空見透牆流

지금도 담장 밑에 도랑을 내어 예전처럼 물이 흐르고 있다. 계곡물이 흐르는 줄기를 두고 그 위에 담을 쳐놓음은 하나의 신기에 속한다. 오곡류는 바로 그 아래이며 좌측으로 오곡문을 지나면 뒷산으로 이어진다.

- * 투류透流 : 透牆流. 담을 뚫고 흐르는 물.
- * 행음行吟 : 거닐면서 글을 읊는 것.

* 자료 : 소쇄원 홈페이지

■ 대학암(大學巖)

대학암(大學巖)은 둔전리 백방산(栢芳山)¹⁰⁴ 아래 추령천변에 위치하여 현재도 30여명이 앉을 수 있을 정도의 평평하고 넓은 바위이다. 하서 김인후선생의 문하생이었던 송강 정철(1536-1593)의 친필 '대학암'이 암각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하서 선생이 정철을 비롯한 많은 제자들에게 [대학]을 강의했다고 한다. 송강 정철은 훈몽재에서 13세까지 공부하였다고 한다.



대학암과 추령천 전경(2015.7)



추령천변 송강 정철의 친필 '대학암' 암각



30여명이 앉을 수 있을 정도의 평평하고 넓은 대학암 및 주변 전경
[양정관 전경 및 현판(2015.7)]

■ 지석묘(支石墓)

복원된 훈몽재 경내 마당 한가운데 있는 것은 청동기시대에 정치권력이나 경제력을 가진 족장층 지배층의 대표적인 무덤양식인 전형적인 남방식 지석묘로 남북방향으로 놓여져 길이 4.9m 폭 2.43m 높이가 1.4m 의 규모로 훈몽재터는 청동기시대부터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아왔음을 추정할 수 있다.



[지석묘 전경(2015.7)]

104) 백방산(栢芳山)은 전라북도 순창군의 북서쪽 북흥면 하리(下里)에 위치하고, 쌍치면 둔전(屯田)리와 경계에 있는 산이다 (고도 : 668m). 『대동여지도』에는 '백방산(栢房山)'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음운은 같지만 뜻이 다르다. 산록의 남쪽에 점암천(點岩川)이 흐르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동백나무가 우거진 이미지'가 연상되는 산으로 산세는 남서쪽으로 발달하면서 소백(小白), 장대 등의 봉우리가 있다. (한국지명유래집 전라·제주편 지명, 2010. 12., 국토지리정보원)

[훈몽재 관련 고도서]

■ 답통훈몽재유회소문(答通訓蒙齋儒會所文) / 奇宇采, 金源弼 筆岩書院誌¹⁰⁵⁾ 天

右答通事際今儒風衰頹人各爲己視院事如冗戲之時諸公傳聞本院任付掇之報會議發文凡其慕賢護院之誠使儒者興起而有餘感佩無已至於論旨不能無說夫先審孰是孰非後斷某非某是固是公論之順序也若倒其順序不審其先徒斷其後未得爲公論故君子以審是非爲難斷是非爲易此是非之間理直者中心自足故寧答人之問不事自辨理曲者良心自掉故逆人之問先答自辨故俗論動輒直者似非曲者似是不以明眼審其眞狀每爲俗論之所欺所謂公論化爲私議乃已述夫去年秋享時所選院任不顧一身之是非專以院事爲己任結冤得謗而推還高敞院土也督刷賭租未納也拒斥取食客清刷下記也起壘陳荒之畝也凡此數事寧論其功不可毀斥者也貴喻有選擇之非其人云云何哉貴喻有儒林與本係同聲相應云云以本問題曾不經儒會及本孫門會之公決儒林本係之總意思據何以斷定乎今春畝役時院任少而役丁多監役未及故暫用劉洪烈助監其役矣劉也與潛院宇私撤兩掌議名札被撤者避嫌故掌財沈瑋澤氏還付之劉又再犯故掌財金時中還付之貴諭有自付自名至於再三眞天下顏厚人云云何哉以若荷儒會之公選擔院事之重責者遭匹夫私撤之辱決然引退孤公選而遺院事可乎不乎劉也遊說不悅兩掌議者諸人遊布浮說諸若若有傳聽則何不公選代表來查實情然後斷其是非乃今坐聽浮說徒斷其斷之甚耶縱有護賢之誠惜無斷事之公也今者被撤諸氏避嫌故鄙等代表院任敢奉答惟請撤回原文特舉一員實查眞狀斷其是非之地幸甚

壬申七月十七日筆巖書院任奇貞度金時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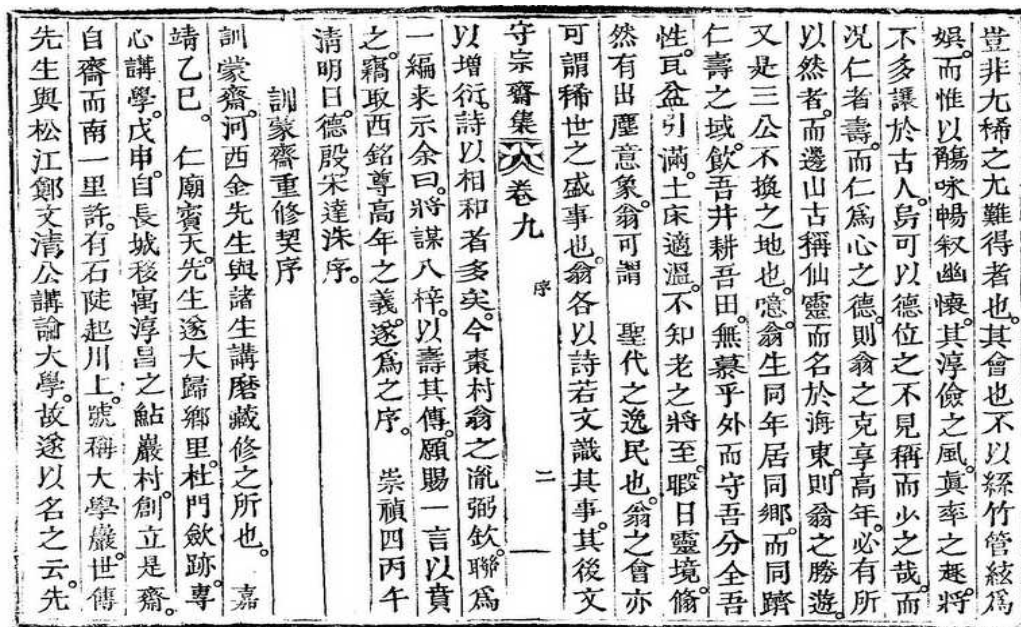
[1975년 간행 필암서원지 천(筆岩書院誌 天)]

* 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105) 『필암서원지』는 조선전기 학자이자 문신인 김인후(金麟厚, 1510~1560)를 배향하기 위해 건립된 필암서원의 연혁, 강론활동, 운영실태 등 일체를 호남 유림들이 모아 정리한 기록이다. 조선시대의 필암서원 자료는 서원지 형태로 집대성되지는 못하고 1949년(기축 정춘원서문, 7권1책)과 1975년에 석판본으로 2차례에 걸쳐 3회 간행된다. 1949년본은 1책으로, 1975년본(갑인 김운동 서문, 을묘 안중선 서문)은 4책과 3책으로 간행된다. 1949년본 『필암서원지』는 1941년(신사)에 경운 기우채, 용계 김원필이 원지를 7권 1책으로 편차하고 1949년에 소산 정춘원, 금헌 나우순, 후손 김규직 등이 발간하여 널리 배포하고자 했으나 한국전쟁으로 인해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 한다.

■ 훈몽재중수계서(訓蒙齋重修契序)/송달수(宋達洙)¹⁰⁶⁾ 守宗齋集卷之九

訓蒙齋。河西金先生與諸生講磨藏修之所也。嘉靖乙巳。仁廟賓天。先生遂大歸鄉里。杜門斂跡。專心講學。戊申。自長城移寓淳昌之鮎巖村。創立是齋。自齋而南一里許。有石陡起川上。號稱大學巖。世傳先生與松江鄭文清公講論大學。故遂以名之云。先生之居是村。不知爲幾年。而後先生五代孫自然堂公。能繼先業。就其遺墟。重加恢拓而居焉。文谷金公嘉其志。以詩勉之曰。沂上春風庭畔草。好將心法繼箕裘。丹巖閔公以本道伯。匹馬來尋。有摩挲相國樞衣石。二老遺芳百代欽之句。蓋指大學巖也。噫。賢人所過。山川草木。皆有精采。況於其所嘗遊居而講誦之處乎。其地四山環拱。大川橫帶。雖無泉石奇絕之景。頗有園林幽靜之趣。卽湖南之武夷也。然年代漸遠。荒廢已久。草樹蓊翳。藤蘿繆轆。頽然一古邱而已。惟有活水石塘。靜如古井。清如懸鏡。尙可以溯其流而探其源。則眞程夫子所謂水不忍廢。地不忍荒者也。行路之咨嗟。士林之歎歎。久而采甚。往在辛卯。立祠遺址。以祀先生。而松江與自然堂從而膺享。士友相慶曰。先生之遺蹟。可以復尋矣。但財力不贍。此齋未及修。用是慨歎。余與先生後孫若而人。謀所以重建之方。以若干財。共成條約。適有異議。余卽罷之。而餘員仍舊。願從者亦多。然以其稽緩無期。先生後孫景休出百金。光休及道煥。各以財助之。自然公長孫堯一。亦出財而終始拮据。殫竭誠力。以丙申春。臨塘而建數架。左爲堦以宜冬。右爲軒以宜夏。蓋以陶瓦。周以土墻。其排布設施。處所向背。未知視舊制何如。而可謂苟完矣。入是齋者。苟能志先生之志。學先生之學。撫斷岸之孤松。則挹先生之高風。對方塘之霽月。則想先生之清襟。不爲他岐所惑。而向上進步。以尋孔朱正脉。則可以不負先生當日教訓之意。而其於大易養正作聖之功。亦庶幾焉。是宜吾黨之所共勉也。契財土木經費。尙有奇羨。留置出息。將以爲多士會講之資。而不幸契中。有不欲參同。并徵其財而出者。豈所謂鮮克有終者耶。於是去者半處者半。茲更存拔成案。而屬余識其事云。崇禎四丙午夏。恩津宋達洙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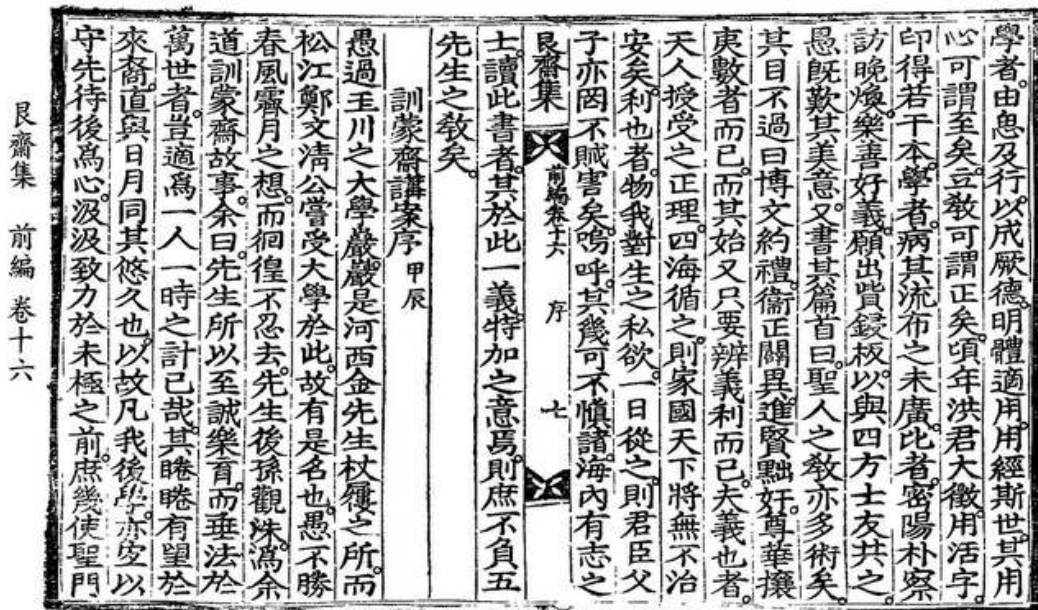
[1902년 송달수의 조카 송병선(宋秉璿)이 편집·간행한 수종재집(守宗齋集)]

* 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106) 송달수[宋達洙; 1808(순조 8)~1858(철종 9)]는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은진(恩津). 호는 수종재(守宗齋). 송시열(宋時烈)의 8대손으로, 아버지는 흠학(欽學)이며, 어머니는 연일정씨(延日鄭氏)로 진사 치환(致煥)의 딸이다. 송치규(宋祁圭)의 문인이다. 교관(敎官)을 거쳐 1847년(헌종 13) 6품직에 올랐고, 1852년(철종 3)에는 경연관(經筵官)·사헌부의 지평(持平)·장령(掌令)을 역임하였으며, 이어서 부호군(副護軍)을 역임하고 1855년 승지에 이어 이조참의에 이르렀다. 학문에 힘써 예학과 성리학에 밝았다. 성리학에 있어서는 주로 이이(李珥)의 설을 따랐으며, 인물동이론(人物同異論)에서는 인물동성(人物同性)을 주장하는 낙론(洛論)을 지지하였다. 저서로는 『수종재집(守宗齋集)』이 있다.

■ 훈몽재강안서(訓蒙齋講案序)/전우(田愚) 艮齋¹⁰⁷先生文集前編卷之十六

愚過玉川之大學巖。巖是河西金先生杖屨之所。而松江鄭文清公嘗受大學於此。故有是名也。愚不勝春風霽月之想。而徊惶不忍去。先生後孫觀洙。爲余道訓蒙齋故事。余曰。先生所以至誠樂育。而垂法於萬世者。豈適爲一人一時之計已哉。其睠睠有望於來裔。直與日月同其悠久也。以故凡我後學。亦宜以守先待後爲心。汲汲致力於未極之前。庶幾使聖門一燈。不遂至於燼滅。是乃所以慰先生在天之靈也。訓蒙齋之講。惡可已乎。觀洙聞之喜曰。此實吾之所矢願而未之果。幸賜一言以振之。愚惟先生剛毅直方之蘊。則大冬之松柏也。光明溫粹之發。則清水之芙蓉也。儼乎百世師表。展也三代人物。竊伏見正廟親製祭文。有曰。雅言則禮。從事於敬。一部曾傳。平生本領。嗚呼。是可以知先生矣。至若松翁。以清名直節。爲栗牛契友。作國家柱石。亦可以見授受之正矣。愚願後學之會講於此者。惟禮敬之是懋。而慕倣乎先生十年小學之教。以進於大學。而用立儒者之基本焉。則其於羣經百家之說。性命理氣之論。與夫出處之正。衛闢之嚴。亦將指先生以爲歸矣。此於世教。豈曰小補之哉。請以是爲訓蒙齋講案序。



[1984년 보경문화사에서 축쇄·영인한 『간재전집』]

* 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107) 간재집(艮齋集)은 조선 말기의 학자 전우(田愚)의 시문집. 전우의 문집은 1975년 김형관(金炯觀)·성구용(成九鏞) 등이 편집한 화도본(華島本)이 『전우전집』이라는 제목으로 아세아문화사에서 영인되었고, 1984년 보경문화사에서 『간재전집』으로 축쇄·영인되었다. 목록 1책, 원집 43권 21책, 속편 16권 8책, 추담별집 15권 8책, 합 74권 38책. 목판본·신연 활자본. 규장각 도서·장서각 도서·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⑨ 낙덕정(樂德亭)

하서 김인후 선생의 발자취를 추모하여 1900년(광무 4)에 김상기·김노수 등 후손이 세운 정자로 명종 즉위년(1545)에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학자인 하서 김인후가 관직을 그만두고 세상을 피해 숨어 살던 곳이다. 하서 선생은 을사사화(1515년) 이후 이곳에서 3km 떨어진 처향(妻鄉)인 점안촌에서 훈몽재(訓蒙齋)를 짓고 후학을 가르쳤다.

김인후는 낙덕암 주위의 산세를 유난히 좋아했던 것으로 전하며, 자연을 즐기는 한편 후세들에게 성리학을 가르쳤다. 당초 메기바위라 부르던 곳에서 하서 선생이 강론과 담소를 즐기셨다하여 낙덕암(樂德巖)이라 부르고 그곳에 세운 정자의 이름도 '낙덕정(樂德亭)'이라 이름 지었다고 한다.

고종 4년(1900)에는 훗날 이곳에서 훌륭한 인재가 나올 것이라는 김노수의 예언을 따라 낙덕암 위에 정자를 지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순창출신으로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 선생이 어릴때 공부 하였던 정자이기도 하다.

[낙덕정 문화재 지정 현황]

종 목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72호
명 칭	낙덕정 (樂德亭)
분 류	유적건조물 / 주거생활/ 조경건축/ 누정
수량 / 면적	1동
지정(등록)일	1975.02.05
소 재 지	전라북도 순창군 북흥면 상송리 49-1
시 대	조선시대



[낙덕정 전경]
자료 : 문화재청 및 전라북도 순창군청

⑩ 영귀서원(詠歸書院)

영귀서원(詠歸書院)은 1564년(명종 19년) 옥과 유림들이 **옥과 현감으로 재임하였던¹⁰⁸⁾ 김인후의 학문과 절의를 추모**하고자 건립한 사우(祠宇)로 처음 옥과면 죽림리에 영귀정사(詠歸亭祠)로 세워진 뒤 그로부터 130년 후인 1694년(숙종 20년)에 들어와 영귀서원으로 발전하였다.

자료에 따라 배향인(配享人)이 다른데,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나 『전고대방(典故大方)』에는 주향(主享) 김인후 외에 유팽로(柳彭老), 이홍발, 신이강(辛二剛)을 제향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와 달리 『영귀서원지』에는 이홍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대신, 유팽로, 신이강 외에 허계(許繼)-1797년 추향-와 허소(許紹), 위백규(魏伯珪) 등 모두 6위의 위패를 봉안(奉安), 제향(祭享)하고 있다.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오던 중 홍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68년(고종 5)에 철폐되었다가 1960년 전라남도 유림에 의하여 현재의 위치에 복원되었다. 1965년에는 위백규(魏伯珪)를 봉안하여, 6위를 모시게 되었다. 또한, 《필암서원지 筆巖書院誌》 3책을 비롯하여 300여 권의 문헌이 있다.

경내의 건물로는 3칸의 사우(祠宇), 신문(神門), 동서 협문(夾門), 3칸의 강당, 1칸의 전사청(典祀廳), 외삼문(外三門)·고사(雇舍) 등이 있다. 사우에는 김인후를 주벽(主壁)으로 하여 좌우에 허소·유팽로·위백규·허계·신이강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전남 곡성군 검면 영귀서원(詠歸書院) 현황]

구 분	내 용
주 소	전라남도 곡성군 검면 현정리 391
배 향인물	김인후(金麟厚), 유팽로(柳彭老), 신이강(辛二剛), 허계(許繼), 허소(許紹), 위백규(魏伯珪)
창건연도	1564년(명종 19)
향 사 일	음 3월 8일

* 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곡성군 홈페이지, 곡성문화원.



[영귀서원 외삼문 바깥 및 안쪽 전경]

108) 1543년에 홍문관박사 겸 세자시강원설서·홍문관부수찬이 되어 세자 보도(輔導)의 임을 맡았다. 특히, 기묘사화 때 죽임을 당한 제현(諸賢)의 원한을 개선해 문신으로서 본분을 수행하였다. 그 해 부모의 봉양을 위해 옥과현감(玉果縣監)으로 나갔다.



영귀서원 고사(雇舍) 전경



영귀서원 전사청(典祀廳)



영귀서원 신문(神門)



영귀서원 사우(祠宇)

[영귀서원 내부 전경]



검면 현정리 입구 영귀서원 표지석



구 검면초등학교 입구에서 본 영귀서원 전경
[영귀서원 전경(2015.7)]

⑪ 김인후와 소쇄원(瀟灑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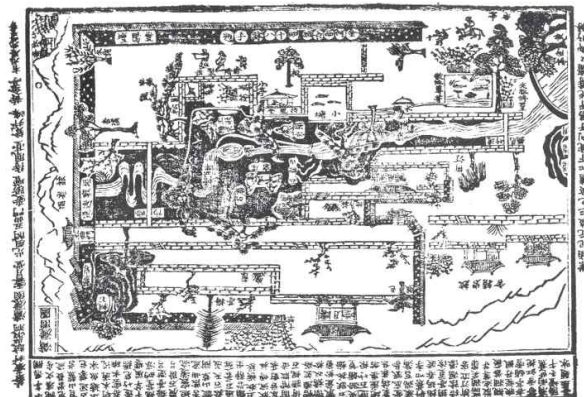
소쇄공 양산보의 사돈인 하서 김인후가 여름을 나기 위해 이곳에서 수십 일을 지냈으며, 소쇄원 48영에 표현된 계곡의 이미지는 대부분 여름의 풍경으로 소쇄원의 공간구성과 의미를 48가지로 담아 낸 것이 하서 김인후의 <소쇄원사십팔영>이다. 소쇄원 48영에 제시된 경물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김인후의 느낌과 비교하며 감상한다면 훨씬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¹⁰⁹⁾

소쇄원에 대한 최초의 기사는 1528년 ‘소쇄정즉사(瀟灑亭卽事)’에 보이며, 이후 송강 정철은 ‘자신이 태어난 해(1536년)에 소쇄원이 조영 되었다’라는 시를 남겼다. 이후 **하서 김인후는 1548년 <소쇄원사십팔영>을 지어 애양단¹¹⁰⁾의 담장에 걸었으며**, 제봉 고경명은 1574년 유서석록(遊瑞石錄)에서 소쇄원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1755년 소쇄원을 그린 목판인 <소쇄원도>가 있어 당시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제월당 내부는 소쇄원사십팔영과 소쇄원을 주제로 한 한시들이 걸려 있다. 제월당 현판은 우암 송시열이 썼다고 전한다.

이와 같이 소쇄원은 가까이에 있는 식영정, 환벽당과 함께 조선중기 호남 사림문화를 이끈 인물의 교류처 역할을 하였다. 면앙 송순, 석천 임억령, **하서 김인후**, 사촌 김윤제, 제봉 고경명, 송강 정철 등이 드나들면서 정치, 학문, 사상 등을 논하던 구심점 역할을 한 곳이다. 우리나라 선비의 고고한 품성과 절의가 엿보이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조선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정원이다. (자료출처: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



[소쇄원 애양단]



[1755년 4월 제작 소쇄원도¹¹¹⁾]
주) 목판본 위쪽에 소쇄원 48영 시가 판각
(가로 36cm×세로 24cm)

109) 박연호 교수(서남대 국문과), “ 담양의 누정- 무엇을 어떻게 볼가 ”.

110) 애양단이란 김인후(金麟厚)가 지은 <소쇄원사십팔영 瀟灑園四八詠> 가운데 있는 '양단동오(陽壇冬午)라는 시제를 따서 송시열(宋時烈)이 붙인 이름이다.

111) 소쇄원은 조성연대가 명확하지 않지만 양산보와 그 아들 **양자경**, 그의 손자 양천운에 이르는 3대에 걸친 조성과정을 거쳤다고 하며 소쇄원 공간은 판화로 1755년에 만들어진 소쇄원도와 1548년 하서 김인후가 쓴 소쇄원 48영에 의해서 잘 알 수 있다. 현재는 1,400여 평의 담장 안 영역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그 범위를 포괄적으로 보면 內園과 담장 밖 공간의 外苑으로 대별할 수 있겠다.

⑫ 하서로(河西路)와 김인후

하서로는 2008년 11월 17일 북구 운암동, 양산동, 용두동, 용전동, 태령동을 관통하는 옛 박물관로와 지산로, 태령로를 합친 연장 11.4km의 길로서 광주북구에 신청,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공고와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 의결로 2009년 7월 고시되었다.

다른 도로에 비해 우리 지역이 배출한 선현의 호(號)를 따서 길 이름을 지었다는 데 특색이 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에 한국의 상징적 문인인 한 성리학자의 업적을 기리는 도로가 들어선 것으로 이 도로명의 주인공 하서 김인후(1510~1560)는 조선시대에 광주와 인접한 장성에서 태어나, 문과에 급제한 후 인종이 세자로 있을 때 그를 가르쳤다. 그러나 인종이 즉위한지 얼마 안 돼 세상을 떠나자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학문에 정진했던 사람과 선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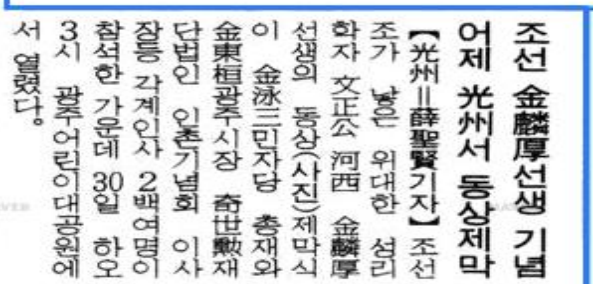
기록에 의하면 선생이 젊은 시절이나 낙향 후에 학문을 닦는 과정에서 하서로 구간을 자주 오갔다. 또 이 도로의 시발점인 중외공원에는 이미 선생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문묘에 배향된 우리나라 18현(賢) 중 호남출신으로 하서 김인후가 유일하다.



[하서로 도로명 표지석 제막식]
자료 : 광주광역시 북구청 홍보전산과
주) 2010년 2월 20일 제막



[광주광역시 북구 중외공원 시립미술관 앞
하서 김인후 동상]
주) 1992년 10월 31일 동상제막



[1992년 10월 31일(토) 경향신문 22면 기사]

⑬ 하서 김인후 탄생 500주년 기념 여행 코스(2010년)

▪ 관내

- 필암서원→맥동생가터(백화정, 어사리)→하서묘역(신도비)→통곡대(난산비)→민씨 할머니 묘소(장성군 북이면)→부조묘(장성군 북하면)

▪ 관외

- 화순(물염정, 적벽)→담양(소쇄원, 식영정, 면앙정)→곡성 겸면(영귀서원)→순창(훈몽재, 낙덕정)→광주박물관, 중외공원(하서로)

⑭ 장성 8경과 필암서원

장성8경은 당시 본격적인 주5일제 시행에 대비하고, 장성군 관광자원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증가하는 관광수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자 역사체험, 생태체험, 명소관광 등으로 벨트화 하여 추진하고자 2004년 장성 8경 선정위원회를 열어 장성 8경을 선정하고 관광자원화에 나선 바 있다.

구분	명칭	사진	구분	명칭	사진
1경	백양사		5경	홍길동테마파크	
2경	축령산휴양림		6경	필암서원	
3경	장성호(문화예술공원)		7경	입암산성	
4경	남창계곡		8경	금곡영화촌	

* 자료 : 장성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⑮ 필암서원과 중국 악록서원 교류 시작(2013년)

군과 중국 호남대학은 지난 2013년 10월 필암서원과 악록서원 간 교류 협력을 위한 협의서를 체결했다. 이는 한국서원이 중국서원과 공식적으로 교류 협약을 맺은 최초사례로 제향(서원에서 지내는 제사) 때 초청과 유림 및 서원 관계자 교류,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의 활발한 교류에 상호 합의한 것이다. 한편 악록서원(嶽麓書院)은 중국의 4대 서원 중 하나로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현재까지 석사와 박사를 양성해 오고 있는 천년학부(千年學府) 명성을 지닌 교육기관이다.



[업무교류간담회(좌) 및 악록서원 전경(우)]

라. 필암서원 문화재지정 및 세계문화유산 추진 현황

1) 필암서원(筆巖書院) 및 관련 문화재 지정 변천 과정

- 1972.01.29 : 필암서원,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호 지정
- 1975.04.23 : 필암서원, 사적 제 242호 승격(문화공보부 고시 제303호; 1975.4.26)
[문화재지정목록(관보 제7032호, 1975.4.26.)]

문화재			문화재지정구역				
종별	지정번호	명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토지소유자
사적	242	필암서원	전남 장성군 향룡면 필암리	377	대	1,340평	필암서원
			“	378	대	424평	“
			계	2필		1,764평	

- 1975.05.01 : 필암서원 문적 일괄(筆巖書院 文籍 一括), 보물 제587호 지정(문화공보부 고시 제304호; 1975.5.7)
[문화재지정목록(관보 제7040호, 1975.5.7) - 14책 64매]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보물	587	필암서원문서일괄	14건	필암서원	전라남도 장성군 향룡면 필암리		
		1) 노비보 1책(19장)		“	“		
		2) 원장선생안 1책(3장)		“	“		
		3) 필암서원집강안 1책(19장)		“	“		
		4) 문계안(Ⅰ) 1책 (7장)		“	“		
		5) 문계안(Ⅱ) 1책 (24장)		“	“		
		6) 필암서원서재유안 1책(4장)		“	“		
		7) 필암서원원적(Ⅰ) 1책(26장)		“	“		
		8) 필암서원원적(Ⅱ) 1책(32장)		“	“		
		9) 필암서원원적(Ⅲ) 1책(22장)		“	“		
		10) 필암서원원적(Ⅳ) 1책(16장)		“	“		
		11) 장성필암서원성책 1책(9장)		“	“		
		12) 노비안 1책(3장)		“	“		
		13) 봉심록 3책		“	“		
		14) 양지징각축관계품목 1매		“	“		

- 1999.07.05 : 장성필암서원하서선생문집목판(長城筆岩書院河西先生文集木板),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15호 지정
- 초간본 목판 1매, 중간본 목판 258매, 세 번째의 목판 391매으로 총 650판
- 1999.07.05 : 장성필암서원하서유목목판일괄(長城筆岩書院河西遺墨木板一括),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16호 지정
- 광해군 2년(1610)에 새긴 『초서천자문』 18판과 『해자무이구곡』 18판, 선조 1년(1568년) 새긴 『백련초해』 13판과 『유목』 4판, 그리고 인종이 김인후에게 하사한 목죽도판 3판으로 선조 1년(1568년)과 영조 46년(1770)에 새긴 것임. 총 56판
- 2006.02.02~06 : 전남 유형문화재 제216호 필암서원 하서유목 목판 중 목죽도판 3점 도난
- 2008.12.10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일괄조정 및 지형도면 고시(문화재청고시 제 2008-160호)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일괄조정 내역]

지정 번호	지정명칭	소재구분 1	소재구분 2	관리단체	조정내용(계)		지정구역		보호구역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242	필암서원	전남	장성군	장성군	47	48,303	2	5,832	45	42,471

Ⅲ. 필암서원의 현황

- 2011.07.28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명칭 변경 및 지정·해제 고시(제 2011-116호)

[필암서원 → 장성 필암서원 (長城 筆巖書院)]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명칭 변경]

종별	연번	현행	변경	변경사유	지역
사적	242	필암서원 (筆巖書院)	장성 필암서원 (長城 筆巖書院)	지역명 병기, 한글맞춤법(띄어쓰기)적용	전남

주) 문화재의 역사적 문헌, 고증, 유적명 또는 전래되어오는 “고유한 명칭” 등에 지역명을 병기하여 문화재의 이해를 제고하고 명칭을 한글로 표기하되 한자를 병기하도록 함

[문화재 지형도면 고시 현황]

고 시 명	문화재청 고시 제2008-160호
고 시 일	2008.12.10
문화재명	필암서원
소 재 지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378 외
고시면적	(당초) 지정구역 5,832㎡, 보호구역 42,471㎡→(조정) 지정 5,832㎡, 보호구역 48,303 ㎡
지정구분	국가
지정종목	사적
지정번호	제 242호

대한민국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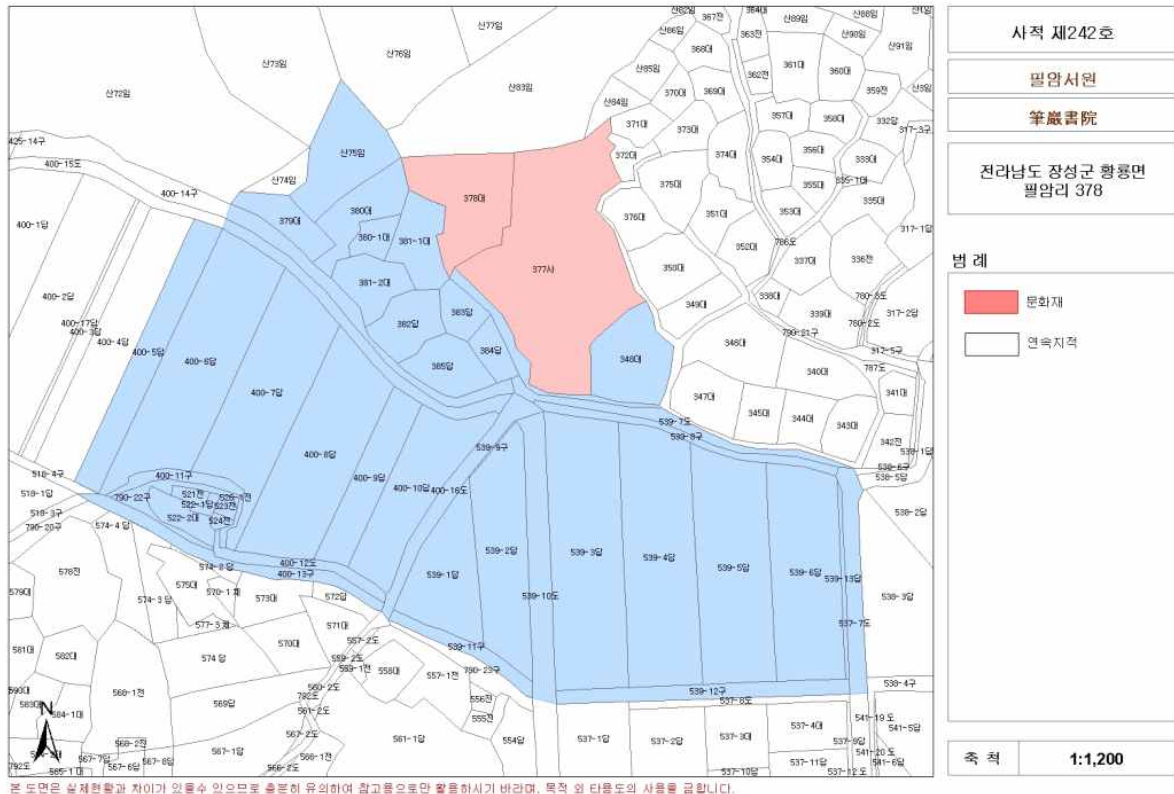
제16895호(그2) 2008. 12. 10. (수)
(2008.12.10일자는 정호, 그2로 발행됩니다.) (상)

【고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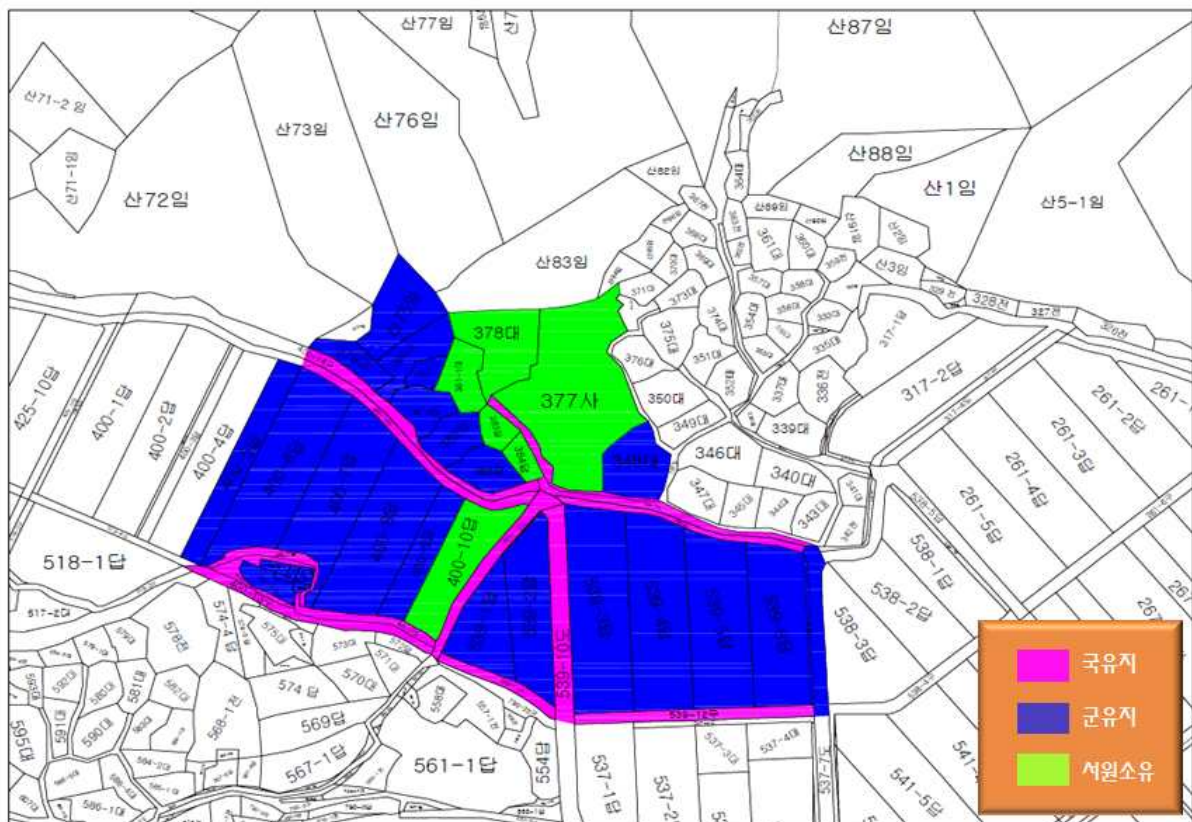
○문화재청고시제2008-160호(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보)..... 2
호)구역 일괄조정 및 지형도면

지정 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구분1	소 재 구분2	관리단체	조정내용(제)		지정구역		보호구역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235	삼년산성	충북	보은군	보은군	51	232,655	51	232,655	-	-
236	봉영총렬사	경남	봉영시	(재)봉영총렬사	57	10,330	57	10,330	-	-
237	함춘원지	서울	종로구	종로구	1	4,144	1	4,144	-	-
238	순흥어숙묘	경북	영주시	영주시	1	1,244	1	1,244	-	-
239	거창둔마리벽화고분	경남	거창군	거창군	1	8,094	1	8,094	-	-
240	마산의동성산패총	경남	창원시	창원시	1	54,230	1	54,230	-	-
241	월성화산리회유토기요지	경북	경주시	경주시	7	10,800	7	10,800	-	-
242	필암서원	전남	장성군	장성군	47	48,303	2	5,832	45	42,471
243	석촌동백제조기적석총	서울	송파구	송파구	6	49,827	6	49,827	-	-
244	신라경순왕릉	경기	연천군	연천군	2	11,777	2	11,777	-	-
245	경주나정	경북	경주시	경주시	3	6,734	3	6,734	-	-
246	재매정	경북	경주시	경주시	9	5,509	9	5,509	-	-
247	사당동백제요지	서울	관악구	관악구	2	1,998	2	1,998	-	-
248	대한의원	서울	종로구	종로구	1	5,091	1	5,091	-	-
249	부여송국리선사취락지	충남	부여군	부여군	277	540,869	277	540,869	-	-
250	고창분청사기요지	전북	고창군	고창군	2	16,523	2	16,523	-	-

< 그림 > 문화재청지정고시 제 2008-160호(2008.12.10) 재편집



[문화재청지정고시도면 제 2008-160호(2008.12.10.)]



[필암서원 지정고시 토지소유자별 현황]

Ⅲ. 필암서원의 현황

대한민국정부



제16895호(그2) 2008. 12. 10. (수)
(2008.12.10일자는 정호.) (하)

【고 시】

○문화재청고시제2008-160호(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보) 2
(호)구역 일괄조정 및 지명도면)

○사적 제242호 '필암서원'-전남 장성군

(단위: m²)

소재지	지 번	지적면적	지정구역	보호구역	소 유 자
필암리	348대	1,045	0	1,045	장성군
필암리	377사	4,430	4,430	0	필암서원
필암리	378대	1,402	1,402	0	필암서원
필암리	379대	502	0	502	장성군
필암리	380-1대	245	0	245	장성군
필암리	380대	717	0	717	장성군
필암리	381-1대	658	0	658	필암서원
필암리	381-2대	575	0	575	장성군
필암리	382답	621	0	621	장성군
필암리	383답	314	0	314	필암서원
필암리	384답	291	0	291	필암서원
필암리	385답	651	0	651	장성군
필암리	400-10답	1,680	0	1,680	필암서원
필암리	400-11구	261	0	261	국(농림부)
필암리	400-12도	331	0	331	국(건설부)

제16895호(그2)

관

보

2008.12.10. (수요일)

소재지	지 번	지적면적	지정구역	보호구역	소 유 자
필암리	400-13구	601	0	601	국(농림부)
필암리	400-14구	1,451	0	680	국(농림부)
필암리	400-15도	1,167	0	666	국(건설부)
필암리	400-16도	616	0	616	국(건설부)
필암리	400-5답	1,378	0	1,378	장성군
필암리	400-6답	3,118	0	3,118	장성군
필암리	400-7답	2,625	0	2,625	장성군
필암리	400-8답	2,739	0	2,739	장성군
필암리	400-9답	1,031	0	1,031	장성군
필암리	521전	83	0	83	장성군
필암리	522-1답	66	0	66	장성군
필암리	522-2대	299	0	299	장성군
필암리	523전	65	0	65	장성군
필암리	524전	42	0	42	장성군
필암리	526-1전	3	0	3	장성군
필암리	537-7도	1,826	0	642	장성군
필암리	539-10도	1,607	0	1,064	국(건설부)
필암리	539-11구	347	0	347	국(농림부)
필암리	539-12구	710	0	710	국(농림부)
필암리	539-13답	159	0	159	장성군
필암리	539-1답	1,353	0	1,353	장성군

1000

소재지	지 번	지적면적	지정구역	보호구역	소 유 자
필암리	539-2답	1,835	0	1,835	장성군
필암리	539-3답	3,314	0	3,314	장성군
필암리	539-4답	3,096	0	3,096	장성군
필암리	539-5답	2,775	0	2,775	장성군
필암리	539-6답	2,444	0	2,444	장성군
필암리	539-7도	512	0	512	국(건설부)
필암리	539-8구	417	0	417	국(농림부)
필암리	539-9구	22	0	22	국(농림부)
필암리	787도	1,431	0	324	국(건설부)
필암리	790-22구	266	0	266	국(농수산부)
필암리	산75임	1,289	0	1,289	장성군
계	47필지	52,410	5,832	42,471	

[문화재청지정구역 조정내용 제2008-160호(2008.12.10.)]
주) 당초 45필지에서 47필지로 2필지 추가

제18753호

관

보

2016. 5. 4.(수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6-28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사적 제154호 「경주 옥산서원」의 문화재 지정구역 일부를 조정하고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하는 사항과 사적 제55호 「영주 소수서원」 등 8개 서원의 보호구역을 신규 및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4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지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지정 내용

지정번호	문화재명	기존 지정면적(m ²)		조정후 지정면적(m ²)	
		지정구역	보호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사적 제154호	경주 옥산서원	26,063	-	25,873	69,808
사적 제55호	영주 소수서원	18,657	-	18,657	71,318
사적 제166호	정읍 무성서원	1,428	4,093	1,428	6,587
사적 제170호	안동 도산서원	323,110	-	323,110	183,245
사적 제242호	장성 필암서원	5,832	42,470.8	5,832	46,834.8
사적 제260호	안동 병산서원	22,620	-	22,620	4,631
사적 제383호	논산 돈암서원	5,548	36,558	5,548	59,151
사적 제488호	달성 도동서원	8,891	-	8,891	17,875
사적 제499호	함양 남계서원	4,810	-	4,810	36,408

나.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불임)

다. 고시사유

○ 서원의 완전성 유지를 위해 서원과 일체를 이루는 주변 자연경관과 서원의 보존·정비, 현대적 활용을 위해 보호구역을 지정 및 확대 조정하고, 일부 불합리하게 지정된 문화재 지정구역을 필지 단위로 조정함.

라. 관리단체 : 조정 및 추가지정되는 부분은 기존 관리단체가 관리

3.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장성 필암서원」 보호구역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m ²)	지정면적 (m ²)	소유자	
						성명	주소
추가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산83	임	4,364	4,364	필암서원	-
	계	1필지		4,364	4,364		

[문화재청지정구역 조정내용 제2016-28호(2016.5.4.)]

주) 사원의 완전성 유지를 위해 1필지 추가.

2) 필암서원 연혁(창건~중수 등)

<표Ⅲ-11> 필암서원 연혁

연도	내 용
1590년	호남 유림 하서 김인후金麟厚의 도학을 추모하여 필암서원 창건
1597년	정유재란으로 서원 건물 소실
1624년	문인들이 황룡면 필암리 증산동으로 자리를 옮겨 복설
1658년	전라도 유생들이 서원 사액 연명 상소를 올림
1659년	지방 유림들의 청액소請額疏로 '필암筆巖'이라 사액賜額
1662년	선액(宣額), [예조정랑 윤형계(尹衡啓) 치제, 사제문 신형(申炯) 찬]
1669년	김인후에게 '문정文靖'이란 시호가 내려짐[道德博聞曰文 寬樂令終曰靖]
1672년	3월 현 소재지(장성 황룡면 필암리)로 다시 이설함, 진원현 객사를 옮겨 청절당으로 삼음
1744년	확연루 개수(改修) ¹¹²⁾
1752년	보수 후 수년 뒤에 확연루가 화재로 불에 타 중건(重建) ¹¹³⁾
1759년	동재와 서재를 중수(重修) ¹¹⁴⁾
1760년	초천 김시찬 「확연루기(廓然樓記)」 지음
1771년	전라도 유생 양학연(梁學淵) 등이 김인후의 문묘 종향을 상소(불허)
1775년	강수청 건립
1796년	10월 '문정文正'[道德博聞曰文, 以正服人曰正] 시호 받음
1887년	장성부사 김승집(金升集)의 지원으로 서원 동재와 서재 중수, 강당과 문루 보수, 토지 매득
1938년	강당과 고사를 개수하고 문랑(門廊)과 묘정(廟庭)을 포장
1941년	사우를 중건하고 신문과 경장각을 수리
1949년	『필암서원지』 간행(정춘원 서문, 7권1책)
1953년	산양계와 강회를 설치
1956년	한 장사(汗丈畝) 개수
1967년	확연루·양재·신문·고직사 보수, 확연루 단청
1970년	장서각 건립
1972년	청절당 개와蓋瓦와 전기설비 설치
1973년	주변건물8동 철거하면서 대지를 넓힘
1974년	동서측 담장 개 축(改築) ¹¹⁾
1975년	시적 제242호 지정 필암서원 문적일괄 14책 34매이 보물 제584호 지정 『필암서원지』 석판본 간행(12권4책본, 12권3책본, 한 장사 해체 보수
1991년	내삼문 보수
1992년	동, 서재 보수
1993년	청절당, 확연루 보수
1995년	담장 해체 보수
1997년	청절당, 한장사, 정서각, 장판각, 고직사 보수
1998년	유물전시관 건립
1999년	필암서원 하서선생문집 목판 및 유목 목판 일괄 전남도 유형문화재 제215호, 제216호 지정
2000 - 01년	토지 매입(12,949평), 건물17동 보수, 유물전시관(원진각) 건립 등
2006 - 10년	유물전시관 증축, 교육관(집성관)·송의관 건립

* 자료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자료 참조 재편집

- 112) '개수(改修)'는 '고치고 수리한다'는 뜻으로 즉 수리를 하게 된 원인이 건축물의 구조적 불안정이나 손상에 원인이 있지 않고, 고쳐 지어야 할 사안이 발생하여 고쳐 지으면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고칠 때 사용하는데, 필요에 따라 고쳐서 짓는 것을 '개수(改修)'라고 하며, '수개(修改)'라고 적기도 한다.
- 113) '중건(重建)'은 하나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거나 자연스러운 퇴락과 같은 다른 사유로 인하여 수리가 불가피한 경우, 건물 전체를 해체하여 다시 지으면서 원래의 모습대로 지은 것을 말하는데, 즉, 수리 전후의 모습이 재료의 교체가 있을 뿐 대부분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이 점이 '중창(重創)'과 다른 차이이다.
- 114) '중수(重修)'는 큰 규모의 수리를 말하는데, 예로 지붕의 기와나 서까래의 교체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수리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다. 그러나 대들보, 도리, 기둥, 추녀와 같은 중요한 부재를 교체할 때는, 해체의 범위가 크고 교체되는 부재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무거운 또는 중요한 수리'라 하여 '중수(重修)'라는 표현을 쓴다.

3)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추진 연혁

<표Ⅲ-12>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추진 연혁

연도	제목	주요내용
2009.09	세계유산 등재추진 검토 자문회의	문화재청에 '한국의 서원'세계유산등재 추진 제안
2010.10	세계유산 등재추진 간담회(1차)	세계유산 등재 로드맵 및 사업계획 관련 워크숍
2010.11	세계유산 등재추진 간담회(2차)	로드맵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관련 논의
2011.01	세계유산 등재추진 간담회(3차)	문화재청장, 유네스코 사무 총장 등재관련 조언 및 지원
2011.02	세계유산 등재추진 간담회(4차)/서원대표자 심포지엄 개최	추진 로드맵과 주요사업 계획 협의/서원측 재발전을 위한 서원의 보존과 활용방안
2011.03	세계유산 등재추진 간담회(5차)	추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안 협의
2011.04	대통령 보고(2011.04.08)/주비위원회 발족식(2011.04.14)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계획'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주비위원회 발족
2011.09	잠정목록 등재신청서 제출	국가브랜드위원회, 문화재청
2011.10	서원 국제 학술회의 개최	'한국 서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2011.12	제1차 서원 전문가 워크숍 개최/잠정목록 등재	한국 서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록 확정
2012.03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가브랜드위원회, 문화재청, 14개 지방자치단체
2012.04	'한국의서원세계유산등재추진단'발족	발족식(장소 : 프레지던트호텔)
	제2차 서원 전문가 워크숍 개최	'서원 기록문화 정리,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
2012.06	제3차 서원 전문가 워크숍 개최	서원의 교육(강학)과 제향의례
2012.08	등재신청서 및 보존관리계획서 작성	등재 신청서 국문/영문 보고서 작성
2012.11	제4차 서원 전문가 워크숍 개최	서원 현판자료 정리,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
2013.02	해외 유사유산 답사 : 일본, 중국	한국의 서원과의 차별성 검토 : 유교 문화권
2013.03	제5차 서원 전문가 워크숍 개최	세계유산 등재대상 한국의 서원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
2013.04	국내(전국)학술대회	한국 서원의 현대적 계승과 활용
2013.05	국제 학술대회	전통사회 교육시설의 세계유산적 가치
2013.06	해외 유사유산 답사 : 모로코, 터키	한국의 서원과의 차별성 검토 : 이슬람 문화권
2013.08	한국의 서원 도면 제작	세계유산 등재신청서에 부합하는 도면 제작
2013.09	한국의 서원 사진 제작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한 대상 서원의 사진 제작
2013.10	도동서원 학술대회	도동서원의 재조명(주최 :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2013.10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협의회 워크숍	등재신청 후 각 서원의 역할
2013.11	서원 도록 3종 제작	현판 기문/고서 책판/제향의례 도록 제작
	'한국의 서원'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제출 우선 등재추진대상 선정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
2014.03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협의회 워크숍	서원활성화 활용사업의 필요성과 방법
2014.04	서원총서 발간	주제별, 서원별 각 1종씩 제작
	국내학술대회 - '서원문화의 계승방안과 서원의 현대적 활용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10	국제학술회의 - '국외 교육유산의 이해와 한국 서원과의 비교	한국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2015.01	등재신청서 및 부속자료 제출	유네스코

자료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http://www.seowonheritage.org/page/%EC%97%B0%ED%98%81>

마. 필암서원의 조경

김인후를 제향한 필암서원은 대표적인 평지형 경관의 서원으로 필암서원의 안대경관은 전면 가까운 곳을 흐르는 문필천과 들판 너머 멀리 아득해 보이는 안산 월선봉이다. 나지막한 산에 기대어 건립된 필암서원건물들은 남북 자오선(子午線)을 중심축으로 하여 주요 건물들이 대칭으로 배치된 조선시대 전형적인 유교건축물이다.

서원 앞에는 선현의 신위가 봉안된 신성한 장소임을 알리는 홍살문이 세워져 있다. 안으로 들어서면 정문에 해당하는 확연루(廓然樓)가 있는데, 이는 ‘크고 넓고 무한한 영역’을 뜻하는 말이다. 확연루에서 바라보는 넓게 트인 시야는 만물과 일체가 되는 천인합일(天人合一)의 경지를 실감케 하는 공간이다.

필암서원을 대상으로 한 조경 분야의 연구로는 이원호(2011)의 연구가 유일한데 이 연구에서는 2001~2009년간 실행된 성역화사업으로 필암서원의 3배 면적에 이르는 부속시설이 신축됨으로써 서원의 왜소화현상이 심각해졌음을 지적하고, 과도한 식재로 야기된 식재관리의 문제를 우려하였다. 김정수(2012)는 필암서원은 양택풍수가 절대적으로 적용된 친환경건축이며, 공간확장의 방법으로 채(棟)의 분화를 반복함으로써 단함과 열림을 통해 바람을 다스렸다고 설명하였다.

필암서원의 입지는 문장산과 통안천에 의해 뚜렷한 배산임수의 형국을 이룬다. 필암서원의 풍수형국은 단봉함서형(丹鳳含書形)으로, 함서를 물고 있는 단봉의 주둥이인 혈(穴)에 사당 우동사가 택지되었다고 해석되며, 죽전(竹田)을 배후로 목죽도를 보관한 경장각의 귀공포 추녀의 봉황조각에서는 하서와 봉황(머리)을 일체화하고자 했음이 발견된다. 풍수지리를 반영한 필암서원의 터잡기는 자연과 인간이 하나되는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인식 결과임이 읽혀진다

1) 필암서원 조경관련 기록

가) 필암서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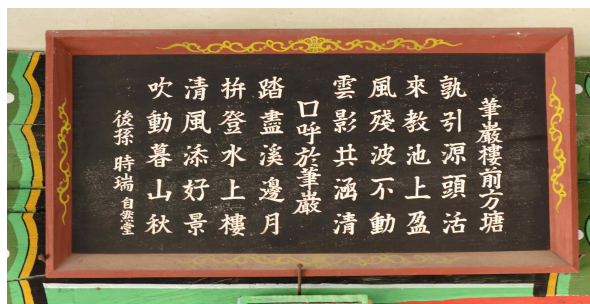
『필암서원지』는 조선전기 학자이자 문신인 김인후(金麟厚, 1510~1560)를 배향하기 위해 건립된 필암서원의 연혁, 강론활동, 운영실태 등 일체를 호남 유림들이 모아 정리한 기록이다. 조선시대의 필암서원 자료는 서원지 형태로 집대성되지는 못하고 1949년(기축 정춘원서문, 7권1책)과 1975년에 석판본으로 2차례에 걸쳐 3회 간행된다. 1949년본은 1책으로, 1975년본(갑인 김윤동 서문, 을묘 안종선 서문)은 4책과 3책으로 간행된다.

또한 1949년본 『필암서원지』는 1941년(신사)에 경운 기우채, 용계 김원필이 원지를 7권 1책으로 편차하고 1949년에 소산 정춘원, 금현 나우순, 후손 김규직 등이 발간하여 널리 배포하고자 했으나 한국전쟁으로 인해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 한다. 이 서원지는 서문(기축[1949] 烏川 鄭春源), 범례(25조), 목차, 권수, 권일~권칠, 발문(屠維赤奮若[기축, 1949] 후손 圭稷, 신사[1941] 光山 金元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필암서원지 권2 「확연루상량문(廓然樓上梁文)」에 확연루를 중심으로 연못과 정자가 있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며, 주변 지세에 대해서도 묘사하고 있어 당시의 경관을 추측할 수 있다. “上樓下門 規制仍舊 遶山臨水 眺聽維新 井渌巷治 顏亭之風流不改 池香庭翠 濂門之吟弄無邊” (위는 루이고 아래는 문이 있는데, 규정은 옛것에 의존하여 산을 두르고 물을 내려다보며(요산임수) 조청(眺聽) 유신(維新)하고 정설(井渌)하며 고을을 다스리니 안정(顏亭)의 풍류를 고치지 않고 연못에서 나는 향기(池香)와 푸른 뜰, 도랑물과 출입문 소리에 음롱(吟弄)함이 끝이 없으니...)

나) 확연루 내 현판 - 필암루전방당(筆巖樓前方塘)

이 누각 앞에는 연못이 있었다. 김인후의 5대 후손 자연당(自然堂) 김시서(金時瑞 1652 효종 3년~1652 숙종 3년) 시 '필암루 앞 연못(筆巖樓前方塘)'에 나타난다.



吹 清 拚 踏 雲 風 來 孰
動 風 登 盡 口 影 殘 教 人
暮 添 水 溪 呼 共 波 池 源
山 好 上 邊 於 筆 涵 不 上 頭
秋 景 樓 月 巖 清 動 盈 活

後孫時瑞自然堂
筆巖樓前方塘

누가 물꼬를 끌어다 사렸나
와서 연못을 가득차게 하였네
바람 아직 남았는데 물결이 일잡으니
구름 그림자도 가라앉아 맑구나

[필암루전방당(筆巖樓前方塘) 현판]

2) 필암서원 경내 공간 식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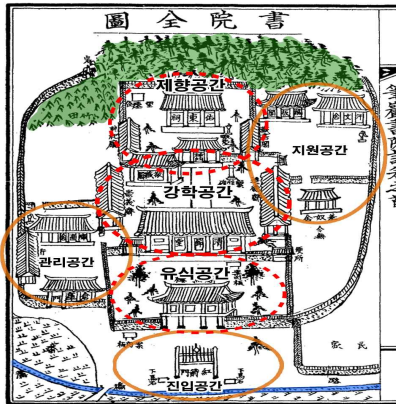
필암서원에 식재된 수목은 주로 울산 김씨 문중에서 식재한 것과 1980년대 조경정비 시에 식재된 것으로 교목 23분류군, 관목 6분류군, 초화류 5분류군으로 평지의 한정된 공간에 밀식되어 있다. 노거수로 군보호수로 지정된 확연루 앞 홍살문 우측의 은행나무를 비롯하여 소나무, 향나무, 측백나무, 느티나무, 회화나무, 배롱나무, 매화나무 등 우리나라 전통조경에 사용되는 수목들이 주로 식재되어 있다. 경내의 차나무는 연화산의 야생차밭에서 도입되어 식재된 것이다.

향후 필암서원 조경정비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문화재지역에서 주로 야기되는 경내의 식재수목에 대한 수형관리, 과도한 수목식재로 인한 밀도의 조정과 백송, 칸나 등 외래수종 제거, 외부시설의 과도한 식재로 인한 주공간의 왜소화 방지, 식재권역별 공간간의 단절성 회복 등을 들 수 있으며, 서원 내 건물의 우동사 벽화 소재인 식물그림을 활용한 식재구상 등을 제시할 수 있다.

2010년 시적지 조경정비 기준확립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과제로 지원·수행된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이원호의 『장성 필암서원의 식재현황과 정비방안』에서 살펴 본 사례연구는 조경정비 시 지나친 조경수목의 도입으로 인한 전통공간의 원래 장소성 상실이 문제시되고 있음을 논한 사실은 향후 보전적 차원에서 필암서원과 같은 전통조경공간의 정확한 실태파악 등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논거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필암서원 경내는 사당(제향)공간, 강학공간, 관리(고직사)공간, 유식공간(확연루), 지원공간(장판각, 한장사 및 차노사 터, 강수청 터 등)으로 구분되며, 경내지역에 식재된 수목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Ⅲ. 필암서원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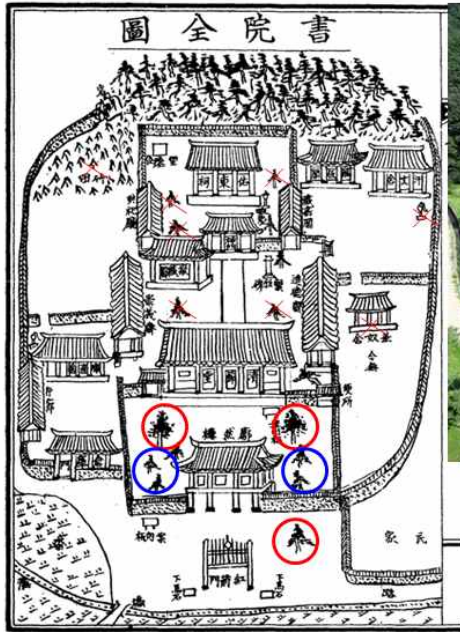


서원전도(필암서원, 1975)로 본 기능공간
[경관적 재구성을 통한 '장성 필암서원' 경관짜임의 讀解 (韓國傳統造景學會誌 제32권 제2호), 2014.6.]

항공사진으로 본 필암서원(자료: 김치년, 2011: 144쪽
[韓國傳統造景學會誌 제32권 제2호], 2014.6.]

<표Ⅲ-13> 필암서원 경내지역 식재수목 현황

구분	수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상록교목	조형소나무	H3.0xW1.5xR12	주	19	
	조형소나무	H3.5xW1.5xR15	주	21	
	조형소나무	H4.0xW1.8xR20	주	12	
	향나무(재래)	H4.0xW2.0	주	13	
	소계		주	65	
낙엽교목	매화나무	H3.5xR10	주	22	
	모과나무	H4.0xR15	주	8	
	벽오동	H3.5xB7	주	27	
	산벚나무	H3.5xB8	주	26	
	산수유	H2.5xW1.2xR7	주	37	
	은행나무	H3.5xB12	주	22	
	청단풍	H2.5xR8	주	17	
	소계		주	159	
교목계			주	224	
상록관목	산죽나무	H1.2xW0.4	주	2,050	
	차나무(녹차)	H0.8xW0.5	주	610	
	치자나무	H0.8xW0.6	주	51	
	소계		주	2,711	
낙엽관목	모란	H0.6x5지	주	300	
	수수꽃다리	H1.8xW0.8	주	96	
	영산홍	H0.3xW0.3	주	600	
	자산홍	H0.3xW0.3	주	600	
	철쭉(전통수종)	H0.5xW0.5	주	560	
	소계		주	2,156	
관목계			주	4,867	
지피	잔디(평떼)	0.3 x 0.3 x 0.03	M2	2,285.7	



1975년 서원전도와 2015년 사진 비교(식재수목)

[1975년간 서원전도와 20015년 사진 비교(식재수목)]

- 주1) 유식공간 및 진입공간의 식재수목은 현재에도 보임
- 주2) 1975년 당시 서원전도에는 강학공간, 제향공간에 식재수목이 현재에는 사라지고 없음
- 주3) 서원전도 상 죽전(대나무 밭)은 거의 사라지고 그 자리에 소나무와 철쭉등이 자리하고 있음



[확연루 앞 은행나무]



[확연루 내 백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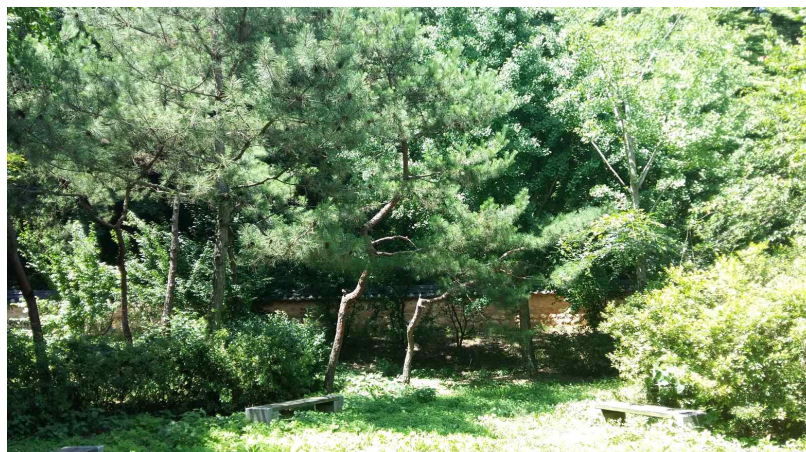
[확연루 앞 유식공간 매화나무]



[준비공간(장판각, 한장사) 매화나무]



[차노사터 모과나무&산수유나무]



[관리공간(고직사, 구 가수청 터 주변) 소나무 & 차나무]

4. 관리현황

가. 관리조직 및 현황

1) 문화재청

사적으로 지정된 필암서원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차원의 관리주체는 문화재청의 보존정책과로 사적 정비 및 보존관련 업무, 매장 문화재 보호 및 발굴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문화재청 보존정책에서 주관하는 관련업무는 다음과 같다.

- 사적 관리 및 시·도지정 기념물 관리 지원
- 사적 및 보호구역의 보존·관리
- 사적 추가지정 및 해제 및 현상변경 검토
- 사적 기록관리 총괄
-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의 운영
- 문화재 보수·정비 설계도서 검토 및 기술지도
- 문화재 및 주변지역 건설공사 등 영향검토



[문화재청 행정조직도]

2) 전라남도

전라남도는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지 증진,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재 관리, 지역개발 및 도시계획, 그리고 지역안전 및 소방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광역자치단체이다. 전라남도의 역할 가운데 특별히 필암서원의 보존관리에 관여하는 부서는 문화관광체육국 소속의 문화예술과이다. 문화재계 업무 가운데 사적지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련된 업무는 다음과 같다.

- 국가 문화재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 문화재보수정비 및 현상변경허가 설계승인
- 문화재수리업체 등록 및 관리
- 무형문화재 보호육성



[전라남도청 행정조직도]

3) 장성군

장성군은 필암서원을 포함한 관내의 문화예술 및 문화재 관리를 위해 문화관광과를 설치하였다. 장성군 문화관광과의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전통문화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 문화재의 지정·해제 및 보존·관리
-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 문화재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 추진

위와 같은 여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장성군 문화관광과는 문화재와 문화예술단체 등을 담당하는 문화예술담당, 관광지 홍보와 축제를 담당하는 관광진흥담당, 관광지를 개발하는 관광개발담당,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관광담당, 테마파크 관광지를 관리하는 테마파크담당, 체육시설 및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체육지원담당 등 총 6개 분야의 담당을 설치하여 업무를 분담하고 있으며, 필암서원을 비롯한 문화재의 관리는 문화예술담당하며, 유물전시관(원진각)과 수련관(집성관)은 테마파크담당에서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장성군청 행정조직도]

4) 관리사무소

필암서원에는 관리사무소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서원 내 고직사에 관리인과 유물전시관과 집성관에 공무원을 배치하여 유지관리에 관여하고 있다.

5) 서원운영위원회

필암서원의 운영의 주체는 울산 김씨 문중이다. 울산 김씨 문중은 서원을 중심으로 한 유림들의 결사이며 주로 제향, 예결산, 임원선임, 재산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운영위원회의 주요 업무 및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Ⅲ-14> 필암서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주요업무

임원구성	주요업무
위원장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향 관련사항 - 예산의 작성 및 집행의 결산 - 원장, 각 유사, 운영위원 등 임원선임 -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도유사 1명	
별유사 1명	
집강 8명	

나. 보수정비 현황

필암서원은 1590년 창건된 이래로 지속적인 보수·복원 과정을 거쳐 왔다. 필암서원의 문화재 및 유형유산의 보수·복원 이력은 다음과 같다.

<표Ⅲ-15> 필암서원 보수 연혁

연도	보수정비내용
1590	호남 유림 하서 김인후(金麟厚)의 도학 추모하여 필암서원 창건
1624	문인들이 황룡면 필암리 증산동으로 자리를 옮겨 복설
1672	3월 현 소재지(장성 황룡면 필암리)로 다시 이설함, 진원현 객사를 옮겨 청절당으로 삼음
1677	고암 양자징(鼓峇 梁子徵)을 배향요청(불허)
1680	필암서원성책 작성
1744	확연루 보수
1744-1752	필암서원 노비보(奴婢普)작성
1752	보수 후 수년 뒤에 확연루가 화재로 불에 타 중건
1759	동재와 서재를 중수
1772	억천 송명흠(宋明欽)의 중건 상량문

연도	보수정비내용
1775	강수청 건립
1887	장성부사 김승집(金升集)의 지원으로 서원 동재와 서재 중소, 강당과 문루 보수, 토지매득
1926	광명등 건립, 고사·행랑신축, 사우·강당·양재·문루의 장대석을 설치
1938	강당과 고사를 개수하고 문랑(門廊)과 묘정(廟廷)을 포장
1941	사우를 중건하고 신문과 경장각을 수리
1949	필암서원지 간행(정춘원서문, 7권 1책)
1953	산양계와 강회를 설치
1956	한 장사(汗丈畝) 개수
1967	확연루·야재·신문·고직사 보수, 확연루 단청
1968	필암교 건설
1970	장서각 건립
1971	장판각 건립
1972	청절당 개와(蓋瓦)와 전기설비 설치
1973	주변건물 8동 철거하면서 대지를 넓힘
1975	사적 제 242호로 지정. 필암서원 문적일괄 [14책 64매]이 보물 제 584호로 각각 지정. 필암서원지 석판본 간행 (12권 4책본, 12권 3책본)
1989	소화전 설치
1991	내삼문 보수
1992	동·서재 등 보수
1993	청절당, 확연루 보수
1995	담장 해체 보수
1996	화장실 개축
1997	청절당, 한 장사, 정서각, 장판각, 고직사 보수
1998	유물전시관 건립
1999	필암서원 하서선생문집 목판 및 유목 모간일괄 전남도 유형문화재 제 215호, 216호로 지정
2000-2001	토지 매입(12,949평), 건물 17동 보수, 유물전시관 건립 등
2002	오수처리시설 설치
2003	부지조성, 발굴 등
2004	전통조경, 주차장, 화장실 등
2005	진덕원, 송의관 건립
2006-2010	유물전시관 증축, 진덕원·송의관 건립
2009	전통조경지 재선충병 방제
2010	전통조경지 재선충병 방제
2011	재난방재 시스템 설치

필암서원은 1990년부터 2012년까지 총 177억 6천만원의 보수복원 재정지원이 연차별로 이루어져 왔다. 청절당, 확연루, 동·서재, 고직사 등 필암서원의 주요 건축물을 보수비용으로 2억 5천여만원이 지원되었고 화장실, 주차장, 유물전시관 등과 같은 관광편의시설을 확충하는데 약 54억 1천만원이 투입되었다.

Ⅲ. 필암서원의 현황

필암서원의 고정지출 내역으로는 보유한 토지 재산세, 춘추향사비, 당회, 학학술연구비 등과 기타 행사 부대비용을 들 수 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연간 30만원 정도이며 춘추향사비가 1회에 600만원씩 총 1200만원, 당회가 총 300만원, 학술연구비가 연간 1400만원, 기타 외부행사가 고정적으로 600만원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표Ⅲ-16> 필암서원 보수지원 세부 현황

(단위:천원)

연도	내용	계	국비	도비
1990	옥외 소화전 설치	35,000	17,500	17,500
1991	내삼문 보수	7,142	5,000	2,142
1992	동·서재 등 보수	7,580	54,306	23,264
1993	청절당, 학연루 보수	71,428	50,000	21,428
1995	담장 보수	15,000	10,500	4,500
1996	화장실 개축	50,000	-	50,000
1997	청절당, 고직사 등 보수	100,000	70,000	30,000
1998	유물전시관 건립	797,143	250,000	547,143
2000	토지매입, 건물 보수 등	4,300,000	3,000,000	1,300,000
2002	오수처리시설 설치	428,571	300,000	128,571
2003	부지조성, 발굴 등	2,571,428	1,800,000	771,428
2004	전통조경, 주차장, 화장실 등	2,571,429	1,800,000	771,429
2005	진덕원, 송의관 건립	3,600,000	1,800,000	1,800,000
2006	유물전시관 증축	2,000,000	1,000,000	1,000,000
2008	진덕원, 송의관 마무리	576,000	288,000	288,000
2009	전통조경지 재선충병 방제	60,000	42,000	18,000
2010	전통조경지 재선충병 방제	60,000	42,000	18,000
2011	재난방재시스템 설치	340,000	238,000	102,000
2012	시설물 차폐용 조경	100,000	7,000	30,000

<표Ⅲ-17> 필암서원 주요 고정 지출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1회	총액	비고
토지 재산세	150	300	-
춘추향사비	6,000	12,000	-
당회	3,000	3,000	운영비
학술연구비	14,000	14,000	백일장
기타 외부 행사	3,000	6,000	강연회

다. 소방시설 현황

필암서원 대부분의 건축물들은 목구조이기 때문에 화재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장성군에서 경내에 분말 소화기 15대, 청정소화기 5대, 옥외소화전 3개소, 방수총 2대, CCTV 5대를 설치하였으며, 총 10대의 화재감지기가 각 건물마다 설치되어 작동중이다. 소방시설은 각 건물마다 1개 이상이 배치되어 있으며 건물 10m 내로 옥외 소화전이 배치되어 있다.

<표Ⅲ-18> 필암서원 내 소방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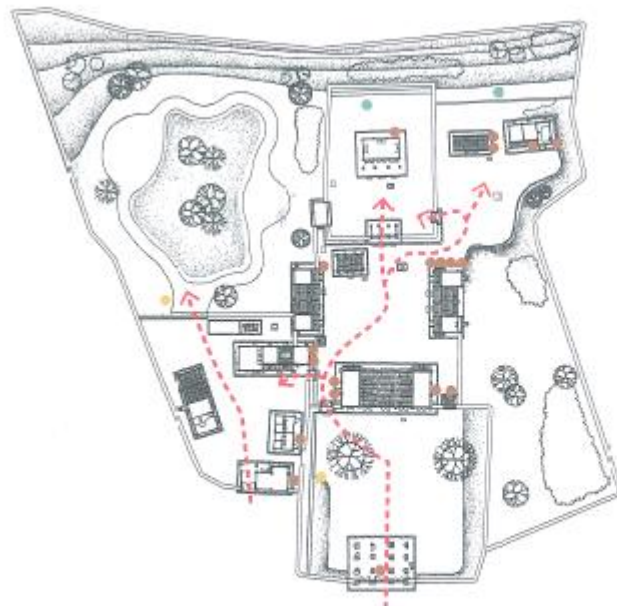
구분	소화기		옥외 소화전	CCTV	화재감지 시스템	방수총
	분말	청정				
서원 경내	15개	5개	3개	5개	10개	2개
소방용수 (수원)	약 50ton (지하수조)					



[옥외소화전]



[감시카메라(CCTV)]



[필암서원 소방시설 현황도]

5. 활용현황

가. 필암서원 향사

필암서원의 향사는 봄과 가을의 춘추제향을 석전제와 같이 중월(음력 2월과 8월)에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초기서원은 제월(음력 3월과 9월)의 사정(上丁)이었으나 한 달 사이를 두고 향교와 서원의 제례를 지내는 것이 번거롭고 제수 마련에도 문제가 있어 상정(上丁)의 향교 석전제 뒤인 중정(中丁)에 서원 제례를 지내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필암서원 향사]

나. 필암서원 선비학당

장성군은 조선시대 선비들의 근원지로 잘 알려져 있다. 이들은 학업의 증진을 위해 힘쓰고 나라를 위해 충성을 바쳤다. 필암서원은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유학의 가르침을 알리고 올바른 가치를 확립하고자 선비학당이라는 이른바 유학자들의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1999년 4월 29일 박래호 동양학연구원장을 비롯한 다양한 연사들이 필암서원 강당인 청절당에서 강의를 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매주 세 번 두 시간씩 약 20명의 학생들에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자성어, 명심보감, 대학, 효경 등이 수업에서 다루어진다. 학생들은 김인후를 비롯한 장성군 출신 선비들이 가졌던 철학과 가치 등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다. 수업 참가자는 매년 15,000명에 달한다.



[필암서원 선비학당]

다. 집성관 선비체험

집성관은 필암서원의 선비문화 교육 체험장을 말하며, ‘문불여 부불여 장성에서의 1박 2일 캠프’는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김인후의 일대기, 박수량 백비를 참배하며, 인종의 향한 충절, 조선시대의 왕세자 교육, 청렴정신 등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개관초기인 2011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매회 30명씩 7회를 실시하여 모두 183명이 참여하였다. 관외에서는 광주, 보성, 무안, 경기도, 대전 등지에서 참여하였다. 외국인과 함께하는 ‘두 번째 나라 한국 체험’ : 2011 문화재청 문화재 생생 사업으로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청렴·절의 찾아 떠나는 1박 2일 선비여행]

	시간	일정	내용	비고
첫 째 날	14:00 ~ 14:30	등록	도착, 숙소배정, 모둠별 인사나누기	청렴문화센터, 청백당
	14:30 ~ 15:00	장성관련 동영상 및 백비	장성 청렴교육 소개	교육장
	15:00 ~ 16:00	청렴강의	다산의 목민심서 등 (하서 김인후, 아곡 박수량, 지지당 송흥)	교육장
	16:00 ~ 18:00	절의, 청렴길 따라걷기	청렴센터-필암서원-붓바위-백화정- 난산정-하서묘소-청백당(부조묘)	-
	18:00 ~ 19:00	석식	청백리 자연밥상	청백리 자연밥상
	19:00 ~ 20:00	청렴백일장	“망해부” 및 “읍취루부” 강독후 시짓기	교육장
	20:00 ~ 21:00	청렴골든벨	청렴사자성어, 퍼즐맞추기	교육장
	21:00 ~	취침	-	청렴문화센터, 청백당
둘 째 날	07:00 ~ 08:00	기상	세계문화유산 “택견” 체조로 아침열기	청렴문화센터, 청백당
	08:00 ~ 09:00	조식		청백리 자연밥상
	09:00 ~ 11:00	탁본체험	필암서원 각종 현판 탁본체험	필암서원 청절당
	11:00 ~ 12:00	청렴주먹밥 만들기	주먹밥을 만들어 보고 자린고비(근검, 절약)에 대해 교육	필암서원 청절당
	12:00 ~ 13:00	중식	주먹밥 먹기	-
	13:00 ~ 15:00	전통다례체험	다도체험 및 전통차 우려먹기	청절당
	15:00 ~ 15:30	수료식	설문조사 및 기념촬영	-

IV. 기본구상

1. 정비 기본방향

가. 기본개념

- 서원의 역사성, 사회적 역할, 기능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존·관리·활용방안을 수립한다.
- 유적의 가치보존에 중점을 두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복원은 지양한다.
- 관련계획 및 관련법 검토 등 제도적, 재정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성 있는 재원투자계획을 수립한다.
- 계획수립 과정에서 관계전문가, 관계기관의 지문, 검토 및 협로를 받아 계획을 수립한다.
-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준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제시하고, 진정성(Authenticity)과 완전성(Integrity)에 부합되는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 완전성에 관한 기술

9개 서원들은 유학의 체계화된 교육기관을 상징하며 사림 집단의 도학적 학문 전통을 내재화 하는 집합체로서, 성리학이 추구하는 입지를 갖추고 있고 장수의 학습을 위한 제향공간, 강학공간, 유식공간이 온전히 보호되고 있다. 또한 무형적 유산으로 제향의식, 관련기록유산으로 서원 관련 서적이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 유·무형유산의 완전성을 확인할 수 있다. 등재 신청 대상인 9개 서원에는 조선시대 서원의 기능을 충족시킨 유식공간, 강학공간, 제향공간, 지원공간, 진입공간을 구성하는 건물들이 제대로 보전되고 있으며, 서원 건립 당시부터 고려되었던 입지의 조건을 오늘날까지 충족시키고 있다. 9개 서원은 서원이 성립될 수 있는 완전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산의 특성을 대표하기에 충분한 범위의 공간을 문화재보호법 상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개발, 압력 등 부정적 영향으로 인한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공공적 관리 체계, 지속가능한 보존관리계획이 마련되어 있다.

－ 진정성에 관한 기술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 9개 서원들은 건립 이후 주변 산수 경관, 건축 배치, 건축 형식과 공간 측면에서 모두 진정성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존속된 서원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다. 9개 서원들이 확보하고 있는 진정성은 역사 기록 및 다양한 사료에 의해 그 진정성이 뒷받침되고 있다. 대상 서원의 운영은 기존의 주체인 유림 조직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서원의 물리적 구조 및 중요한 특성의 퇴락과 변형을 방지하는 보호 조치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정한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국가기관인 문화재청의 감독 하에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있다.

■ 세계문화유산 등재기준 중 서원에 적용될 등재 기준 해당 항목은 (ii), (iii), (iv), (vi)이다.

(ii)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기념비적 예술, 도시계획 또는 조경 디자인의 발전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표현해야 한다.

조선시대의 서원은 중세 동아시아에서 성리학이 교류된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산이다. 서원은 성리학이 조선사회에 정착하고, 꽃을 피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조선시대의 사림은 서원에서 성리학을 학습하면서 조선사회에 정착시켰을 뿐 아니라, 중국, 일본과 다른 조선의 성리학을 발견시켰다. 조선시대의 서원은 사림 교육기관을 대표하는 시설로서, 중세 동아시아의 중요한 사상 중의 하나인 성리학이 조선에 전래되어 조선 사회에 정착하여 조선의 성리학이 형성되게 한 산실이었다. 서원의 건축과 자연경관의 조화에서 보이는 소박함과 검소함은 장수를 통한 학습방법과 성리학의 세계관, 그리고 한국인의 자연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에 현존하는 637개의 서원 중에서,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을 하는 9개 서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iii) 살아있거나 또는 이미 시작된 문화적 전통, 혹은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가 되어야 한다.

조선시대의 서원은 400여 년에 이르는 역사를 통해 조선 사회에 정착되면서 성리학의 전통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조선시대의 서원은 양반 사림의 전인(全人) 교육을 맡은 학교였다는 점, 전인교육을 통해 양성된 사림의 활동 근거지였다는 점, 문중(門中) 내지 동성(同姓) 집단 내부의 결속을 강화시켜주는 기반이었다는 점, 지방문화센터로서의 구실을 하였다는 점, 공론(公論) 형성의 중심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성리학을 바탕으로 조성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의 서원은 성리학이 지향하는 자연관과 문화 전통을 보여주는 특출한 사례가 된다. 한국에는 현재 637개의 서원이 있으며, 그 중에서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하는 9개 서원들은 이러한 문화적 전통을 가장 대표적으로 잘 보여준다.

(iv) 인류 역사의 주요 단계(들)를 보여주는 유형의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의 뛰어난 사례여야 한다.

조선시대의 서원은 건축과 주변 경관이 어우러져 앙상블을 이루는 것임을 보이는 탁월한 사례에 속한다. 서원 건립을 주도한 사람들은 서원 주위의 산수 경관과 건축이 합일할 수 있도록 자연지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서원 공간을 조성하였다. 천인합일을 최고의 이상으로 삼는 사림들의 자연관은 서원이 주변경관이 좋은 곳에 자리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하는 9개의 서원들은 유식공간, 강학공간, 제향공간이라는 독특한 건축 공간형식과 배치 유형으로 조영(造營)되어 사람들이 서원에서 천인합일을 일상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서원의 입지 및 공간구성, 건물 배치가 주변의 자연 경관과 강한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서원 주변 자연경관은 건축과 하나의 전체를 이루며 그 장소의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이런 측면에서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하는 9개 서원들은 주변 자연 경관과 건축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아야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는 건축적 앙상블의 특별한 유형에 속한다.

IV. 기본구상

(vi) 탁월한 보편적 의의를 가진 사건 또는 살아 있는 전통, 사상 또는 신조, 예술적·문학적 작품과 직접적 또는 가시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사립 교육기관인 조선시대의 서원은 유교 사상과 학술 활동, 예(禮)의 실천, 신앙, 살아있는 전통과 직접적으로 그리고 가시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서원은 지방 문화와 교화의 중심 시설로서 이와 관계되는 많은 문집과 문헌을 남겼으며, 서적과 판본을 생산·유통·확산시키는 출판 및 도서관의 기능도 수행했다. 서원에 남아있는 고서(古書), 고문서(古文書), 목판(木板) 등은 당시의 서원 관리자와 지적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며, 서원에 보관된 제향 물품과 수량을 기록한 문서는 옛 생활 문화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서원은 유교에서 가장 중시하는 예(禮)가 구체적으로 실천된 곳이다. 한국의 서원은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인물 ‘제향(祭享)’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서원의 제향은 돌아가신 스승이나 위대한 인물을 추모하는 의식이다. 숭유(崇儒)정책을 표방하던 조선시대의 서원은 사우에 모셔진 선현의 학덕으로 그 지방의 풍속(風俗)과 예속(禮俗)의 교화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제향 의식을 통해 제자나 후손들은 그들의 정신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할 뿐 아니라, 그들 서로 간에 결속을 다지는 기회로 삼았다. 이는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문화이자 복합적인 가치로서, 서원에는 이러한 유교문화가 지닌 본질이 남아있다.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하는 9개 서원들은 이러한 한국 서원의 특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표IV-1>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준

구분	기준	사례
I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할 것	호주 오페라 하우스
II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	러시아 콜로멘스코이성당
III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태국 아유타야 유적
IV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	한국 종묘
V	특히 번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와 바다의 사용을 예증하는 대표 사례	리비아 가다메스 옛도시
VI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 (다른 기준과 함께 적용 권장)	일본 히로시마 원폭돔
공통	문화유산은 진정성(재질, 기법 등에서 원래 가치 보유) 필요 문화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완전성을 보유 법적 또는 행정적으로 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완충지역(buffer zone)설정 등을 통한 보호 및 관리체계 수립	

1) 서원의 건축물과 경관의 원형 유지

- 서원의 수리공사는 반드시 그 원형을 유지하면서 시행되어야 한다.
- 원형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였을 때 시행하며, 원형을 알 수 없을 때는 현 상태를 지속한다
- 추정하여 문화재를 수리하는 것은 원형훼손을 초래한다.
- 원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나중에 원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하고 변형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복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2) 서원의 기록유지

- 서원의 건축물을 수리함에 있어서 원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확인 가능한 모든 사항을 조사, 기록 해두어야 한다.
- 기록이나 자료가 잘못되거나 오류를 목인할 경우 원형은 영원히 회복될 수 없으며 오히려 왜곡 가능성이 높다.
- 특히 재난과 같은 불의의 사태로 인하여 소멸되거나 훼손된 서원을 복원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서원의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3) 건축양식 유지

- 서원의 건축물 수리 시 반드시 전통적인 건축양식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기존 건축양식을 바꾸거나 변형해서는 안 된다.
- 양식이 불확실하다고 추정하여 수리할 경우 원형이 변형될 뿐만 아니라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양식에 맞게 철저한 고증을 통해 수리해야 한다.

4) 건축기법과 기술 유지

- 서원건축물 수리는 양식과 함께 당대의 기술과 기법도 수호해야 한다.
- 기술자 집단의 기술과 기법, 가공수단, 건축도구를 충분히 재현하여 당대의 기법과 기술이 유지되도록 수리하여야 한다.

5) 건축재료 유지

- 서원건축물을 수리할 경우 가능한 원래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건축재료의 변화는 곧 물적 특성의 변화를 초래하고, 서원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 따라서 수리는 가능한 한 원래의 재료를 유지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외보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6) 서원의 장소성 유지

- 문화재는 원칙적으로 처음 만들어진 장소를 떠나서는 안 된다.
- 동산문화재는 특수 장소로 옮겨 수장할 수 있으나, 부동산문화재는 원 위치에 존재할 때 그 가치가 발휘된다.
- 건물의 경우 건물을 에워싼 자연환경을 비롯하여, 풍수지리의 좌향같은 철학적 배경이 있음으로 해서 그 가치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되도록 원래 장소를 떠나지 않도록 장소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서원 경관 유지

- 서원 및 주변 경관이 도시개발, 특히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산업화에 따라 도시가 확대되면서 개발행위가 서원의 주변 경관을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 문화가치가 산업가치와는 비교하기 어려운 의미를 가졌다는 것을 재인식하고 문화재는 물론 서원 주변경관까지도 보호, 유지되어야 한다.
- 서원 주변경관을 보존하기 위하여 사전에 서원 주변에 대한 현상변경기준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

8) 건축물 수리범위 유지

- 건축물 수리범위는 가능한 확대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교체해야 할 경우 그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 수리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장점검 단계부터 철저하고 치밀하게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 서원 내 건축물

- 서원 건축물의 전통구조, 양식을 변형시키지 않는다.
- 기존 부재는 최대한 재활용 한다.
- 전통기법을 기본으로 하여 수리 한다.
- 수리는 고증에 의하며,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한다.
 - 보수는 원래의 형태가 남아있거나, 원형에 대한 고증이 가능 한 경우, 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시행할 수 있다.
 - 복원은 멸실된 부분의 원형고증이 가능한 경우 시행할 수 있다.
- 수리 완료와 동시 수리 전 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도면, 사진을 첨부하여 수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문화재 주변의 환경까지 보호 유지하여야 한다.
- 원래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 담장은 원래 형태와 규모로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의 형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원의 건축양식과 규모를 감안하여 크기와 형태를 결정한다.
- 마당의 표면은 흙바닥이나 마사토 깔기하며, 전통적인 옛 모습을 유지하여야 한다.
- 공중화장실은 가능한 한 서원 외부에 건립하되 불가피하게 서원 내에 건립할 경우에는 전통한옥 형태로 한다.

나) 서원 주변 건축물

- 주변 경관은 현재의 경관구조를 유지하고 인위적으로 변형된 자연경관은 가능한 한 원형으로 회복한다.
- 서원주변에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반드시 지하 매장유구조사를 실시한다.
- 서원 주변에 신축되는 건축물의 외형은 전통한옥 형태로 한다.
- 건축물 외부에 현대식 재료 사용은 가능한 최소화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통재료나 문양으로 서원 경관과 어울리도록 한다.

- 난방기의 실외기 등 난방시설 등 외부에 설치되는 기기나 도구는 가능한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진토재료를 이용하여 차단시켜야 한다.
- 계량기, 점검구 등은 가능한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실내에 설치한다.
- 외부 조명등은 전통건축과 어울리는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 건물 외부에는 현대식 간판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나. 기본방향

1) 유적 정비

- 구조, 양식, 기법 등 핵심적인 사항은 변형되지 않게 하여 진정성을 부각시키도록 한다.
- 건축물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재평가 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2) 경관 정비

- 자연과 풍경을 배려하고 역사·문화·자연 경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 조경계획은 과거 기본적인 원형은 유지하되, 주변 경관이 보존되는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3) 시설물 정비

- 도입시설은 기존 시설 보호를 전제로 하여 기존 건축물의 시각적 차단을 최소화 시켜 조화로운 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 도입시설의 기능은 기존 건축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2. 정비 기본구상

가. 유적 정비에 관한 구상

- 기존 서원 건축물의 전통 구조, 양식을 변형시키지 않는다.
-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기존 부재를 최대한 재활용하여 전통기법을 기본으로 하여 정비하도록 한다.
- 변형된 부분은 고증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마당의 표면은 흙바닥이나 마사토 등으로 정비하여 전통적인 옛 모습을 유지하도록 한다.
- 배수로는 자연재해 우려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위적으로 직선화하거나 폭을 넓히지 않고 자연 그대로 정비한다.

나. 경관 정비에 관한 구상

1) 조경 및 식재에 관한 구상

- 서원의 경관과 주변경관은 서원의 입지와 의미를 보여줄 수 있도록 진정성이 보존되어야 한다.
- 서원 내외의 경관은 전통적인 경관으로 조성되어야 하며, 외래수종 식재를 배제하고 경관 상 어울리지 않거나 전통조경과 맞지 않는 수종들은 제거하거나 이식하도록 한다.

2) 주변경관 보전에 관한 구상

- 주변 경관은 현재 경관구조를 유지하고 인위적으로 변형된 자연경관은 가능한 한 원형으로 회복되도록 계획한다.
- 학연루에서 바라보는 확트인 조망 확보 및 자연과 역사문화가 공존하는 경관을 조성하여야 한다.

IV. 기본구상

<표IV-2> 사적지 조경 정비의 대상

분류 구분	경관	식물	시설물							
			휴게시설	편의시설	장식시설	포장시설	안내시설	홍보 전시시설	방재 방법시설	토목시설
전통 조경 유구	지형 지물 수림	교목 관목 초화류 과실수	누정대 평상 석탑	계단담장 · 우물 · 석등 · 샘 · 정료대	괴석 · 석 함 · 대석 · 석지 · 석조 · 석 수 · 造山 · 壇 · 연 못	박석포장 전돌포장 디딤돌	하마비 신도비 공적비	-	울타리	화계 배수로 다리[橋]
현대 시공 조경	-	교목 관목 초화류 과실수	정자 의자 평상 퍼걸러	주차장 화장실 경계휀스 음수대 가로등 휴지통	화단 · 하 계 · 괴석 · 석함 · 대석 · 석 지 · 석조 · 석수 · 造山	보도블럭 포장 아스콘 포장 콘크리트 포장 황토포장	설명판 안내도 방향지 시판	전시시 설 교육시 설	소화전 방수총 CCTV 방법센 서	배수로 집수정

다. 시설물 정비에 관한 구상

1) 관람편의시설에 관한 구상

- 음수대, 간이의자, 휴지통, 이정표, 안내표지판 등의 관람편의시설은 서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간결하고 친환경적으로 정비한다.
- 안내판의 설치 수량은 최소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조합안내판과 권역안내판, 기능성 안내판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 안내판의 서원의 특색을 반영하되 전체적인 디자인 시스템에 있어 일관된 분위기는 유지하도록 계획한다.

2) 소방방재시설에 관한 구상

- 소화전은 장내 매립 또는 지중화 등으로 외부에 돌출되지 않도록 하며, 소화전 함은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재료와 형태로 정비한다.

3) 기타 시설에 관한 구상

- 서원주변에 건축물울 신축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하 매장유구 조사를 실시하고, 가능한 한 현대식 재료 사용은 최소화하고 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건축물의 외형은 전통한옥 형태로 한다.

- 계량기, 난방시설, 전기 통신시설 등 외부에 설치되는 기기나 도구는 가능한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전통재료를 이용하여 차단시키도록 한다.
- 조명등의 수는 최소한으로 설치하고, 가능한 한 담장 내에 매립하거나 담장 높이 이하로 노출을 최소화하여 서원의 특성에 어울리는 형태 및 재질로 정비한다.
- 전시시설·체험 학습 시설·화장실·주차장 등의 어느 정도 규모가 요구되는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사적 지정지 밖에 건설해야 한다. 이러한 시설은 사적지 내부에서 조망되는 경관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고, 시설의 규모 및 의장이 과대해지지 않아야 한다.

라. 활용계획

1) 다양한 콘텐츠의 확보와 개발

- 서원의 주변경관과 건축물은 인류의 삶의 흔적이 잘 표현되어 있다. 장소성, 역사성, 경관성에 진정성과 완전성이 잘 표현되어 있으며, 이러한 문화유산적 가치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대사회에 지속가능한 서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서원의 특징과 개성을 살린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지역의 지성사적 전통, 학문, 강학 유서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2) 역동적, 체험적 프로그램의 접목

- 서원이 현대사회와 괴리되지 않고 주류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서원 활용 프로그램이 시대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직접 옛 조선시대 서원의 구성원이 되어 보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연령, 성별, 수요자의 성격 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차별성과 경쟁력 있는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 지성들의 집회소, 사회교육의 장소, 도서관 및 출판기능
- 조선사회를 이끌었던 지성인들의 삶과 생활문화를 자원으로 재생 활용한다.
- 즐거움을 추구하는 현대문화 추세에 주목하여 인간과 자연의 일체감을 느끼기 위한 ‘자연경관감상’ 체험한다.

3) 경쟁력 있는 문화 체험공간 활용

■ 서원이 지역문화 브랜드로서 가치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서원 활용은 서원만의 가치와 의미를 살려내야 한다. 사찰, 민가와 다른 건축적 공간을 지니고 있다는 특징과 문화를 표현해 낼 수 있는 또 다른 문화체험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한다.

- 도심 속 학원가의 한문학원, 역사공간으로서 고급선비문화의 공간으로 입장한다.
- 강학전통의 복구와 계승, 덕성·인성교육의 대안, 지속가능한 교육방침을 제공한다.
- 과거공간으로의 완벽한 이동(철저한 과거식 교육방식)을 체험한다.
- 서원 품위에 맞는 활용법(문학·사상·역사 특강, 이벤트)을 모색한다.

V. 종합정비계획

1. 서원정비계획

가. 서원건축물

- 필암서원은 1590년(선조 23) 처음 기산 아래 건립되었다가 1597년(선조 30) 병화로 소실되어 얼마동안 방치되다가 1624년(인조 2) 지금의 필암리 증산동(甌山洞), 즉 증산(甌山) 아래에 복설(復設)되었다. 그러나 증산에서 수해로 인해 현재의 필암리로 1672년(현종 13)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필암서원은 크게 진입공간, 유식공간, 강학공간, 제향공간, 부속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진입공간은 학자수, 홍살문, 하마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식공간은 학연루, 강학공간은 청절당, 동·서재, 경장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향공간은 내삼문과 전사청, 우동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속공간은 고직사 한장사로 구성되어 있다.
- 건축물 정비는 구조, 양식 기법 등은 변형하지 않고 수리가 필요한 부분만 문화재 수리원칙에 의거하여 전통기법을 기본으로 정비하도록 한다.



<표 V-1> 건축물 규모 및 양식

건물명	규모 및 양식						비고
	기단	기둥	가구	공포	평면	처마	
확연루	장대석외벌대	원주	5량가	주심포, 이익공	3x3칸 2층우물마루	팔작, 겹처마	문루
청절당	장대석외벌대	원주	5량가	초익공	5x3칸 어3칸 마루	맞배, 홑처마	강당
우동사	장대석두벌대	원주	5량가	1출목이익공	3x1.5칸	맞배, 겹처마	사당
진덕재	장대석두벌대	각주	5량가	민도리	4x1(퇴2칸) 전면퇴칸	맞배, 홑처마	동재
송의재	장대석두벌대	각주	5량가	민도리	상동	상동	서재
내삼문	장대석두벌대	원주	3량가	1출목이익공	3x1칸	맞배, 홑처마	
경장각	장대석외벌대	원주	3량가	1출목이익공	3x1칸	팔작, 겹처마	
한장사	자연석두벌대	각주	5량가	민도리	3x2칸	맞배, 홑처마	기숙소
장판각	자연석세벌대	각주	3량가	민도리	3x1칸	맞배, 홑처마	
전사청	장대석외벌대	각주	3량가	민도리	1x2칸	맞배, 홑처마	
고직사	자연석외벌대	각주	5량가	민도리	4x1.5칸	맞배, 홑처마	
행랑채	자연석외벌대	각주	5량가	민도리	4x1칸	맞배, 홑처마	
창고	자연석외벌대	각주	5량가	민도리	3x1.5칸	맞배, 홑처마	

1) 확연루

- 확연루는 현종13년 사우의 이건과 함께 복설되었으며 영조 20년 보수하였으나 화재로 소실되고 영조28년 임신년 3월에 중건하였다. 확연이라함은 ‘유학자는 일을 함에 있어 확연해야 한다’고 강조한 공자의 말을 우암 송시열이 인용한 것으로 편액은 송시열의 글씨이다.
- 확연루는 정면 3칸, 측면 3칸의 2층 누각 건물로 1층에는 바깥쪽으로 열리는 세 개의 문이 설치되어 있다. 2층 문루에는 사당쪽으로는 문·창문이 없고, 바깥쪽으로는 각 칸에 두짝의 널문이 설치되어 있다. 측면의 경우 양쪽 모두 두 짝의 널문이 있고, 나머지 한 칸에는 창문이 없다. 2층으로 오르는 계단은 동측면에 설치되어 있다.
- 장대석 외벌대로 된 기단 위에 강회로 1층 바닥부분을 마무리하고 그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기둥을 세웠는데 배흘림되어 있다.
- 가구는 배흘림 기둥위에 주두, 첨자, 소로, 쇠서가 결구된 주심포, 이익공 양식으로 창방 위에 화반을 두고 소로를 놓았으며 그 위에 장여가 도리를 받치고 있는 5량가 구조로 겹처마이고 팔작지붕이다. 내부가구를 살펴보면 좌우측에 각각 층량을 걸었으며 그 위에 동자주를 세웠다.

V. 종합정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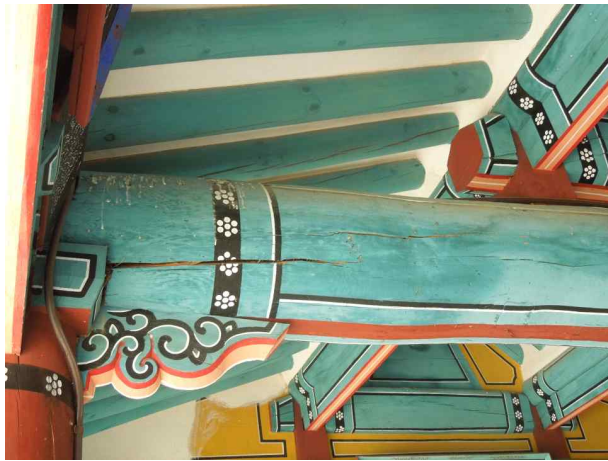
- 동자주 위로 중보를 걸고 침자와 소로를 설치하여 장여를 받치고 중도리를 받았다. 중보 위에 판대공을 두고 역시 장여와 중도리를 받았으며 천장은 연등천장이다. 2층의 기둥은 원주이고 우물마루를 깔았다. 난간은 후면 3칸과 좌우측 각 1칸에 설치되어 있다. 내부는 용문양을 중심으로 상당히 화려한 단청이 되어 있다.
- 확연루의 상태는 전체적으로 양호하나, 하부공간의 시멘트 조각 파손 및 낙서 등으로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림 V-1> 확연루 하부 전경

2) 청절당

- 청절이란 명칭의 유래를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절의의 뜻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 건물은 1672년 진원현의 객사건물을 옮겨왔다고 전해진다.
- 강당은 정면5칸, 측면3칸의 규모로 중앙3칸에 대청과 양측칸이 온돌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81.20m^2$ 이다.
- 장대석 외별대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그 위에 민흘림 기둥을 세웠다. 중앙대청에는 들어 올수 있는 분합문이 3칸에 모두 설치되어 있으며 양측칸은 세 살을 들인 창으로 되어 있다.
- 가구는 기둥 위에 주두를 놓고 쇠서 하나를 놓은 초익공형식이며 판대공으로 중도리를 받치고 있는 일반적인 5량가 구조이며 굴도리를 사용하고 있다.
- 현재 청절당의 상태는 건축물 안전 진단이 시급한 실정이다. 기둥이 갈라지고 지붕의 기와의 형태가 고르지 못하고 건물의 내외부 벽면도 보수해야 한다.



<그림 V-2> 청절당 상부 전경



<그림 V-3> 청절당 지붕 전경



<그림 V-4> 청절당 외부 벽면 전경

3) 경장각

- 경장각의 명칭과 편액은 정조께서 어필로 하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면적은 $10.70m^2$ 이다. 경장각 기단은 장대석 외벌대 기단 위에 강회로 기단 바닥이 마무리되어 있다. 주초는 2단 원통형으로 하단석은 자연석을 그대로 두고 상단의 주초를 다듬어 사용하고 있다.
- 정면 중앙칸은 두 짝 여닫이문으로 꽃살로 되어 있고 좌우칸은 외짝여닫이문으로 되어 있다. 가구는 3량가로 판대공으로 종도리를 받치고 있으며 판대공과 조도리 사이에 도리받침을 두고, 사면의 도리 밑에 장여를 받친 뒤 다시 소로를 두고 장여를 두는 2중 장여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 내부에는 보개형단집을 두었고 좌우 측면 화반에는 꽃, 태극등 상징적인 무늬를 배필었다. 기둥 위에만 공포를 두었고, 출목익공식으로 전면 양측 귀공포와 후면 귀공포가 용의형상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행공침차를 외부로 내어 1출목을 둔 2익공으로 되어 있다.
- 경장각 외부 벽면의 갈라짐 및 파손부분을 보수해야 한다.



<그림 V-5> 경장각 외부 벽면 전경

4) 진덕재

- 진덕재는 장대석 두벌대 기단 위에 자연석 주초를 사용하고 있다. 정면 4칸, 측면 2칸(전면 퇴칸)으로 중앙 2칸은 우물마루가 깔리고 양측칸은 온돌방으로 되어있으며 그 면적은 $36.50m^2$ 이다.
- 가구는 1고주 4량의 특이한 구조를 하고 있으며 납도리임에도 장여를 설치하였고, 맞배지붕에도 불구하고 양 측면에는 박공판 이외에 풍판을 달지 않았다. 지붕은 맞배지붕에 아귀토로 마감되어있으며 홑처마이다.
- 진덕재는 대청마루 일부에서 훼손이 보이며, 좌측마루 일부가 내려앉은 상태이므로, 건축물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그림 V-6> 진덕재 기둥 및 마루 전경

5) 우동사 협문

- 우동사 협문의 하부가 훼손되어 보수하여야 한다.



<그림 V-7> 우동사 협문 전경

나. 방재시설

1) 현황

- 한국의 대부분의 문화재는 화재에 취약한 목구조이기 때문에 목조문화재는 화재의 위험에 상대적으로 크게 노출되어 있어 화재 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수의 서원이 산 속에 입지하고 있어 산불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
-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자연재해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강풍, 집중호우, 강수량과 강설량의 증가를 들 수 있으며 이 외에 지진, 해일 등으로 인해 문화재가 훼손되는 국내외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다. 특히 근래에 들어와 예년에 볼 수 없었던 강력한 태풍과 국지성 호우가 발생하면서 기타 목조건축물들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문화재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비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 필암서원은 북쪽에 연화산(144m)이 동서로 이어지면서 배산을 형성하고, 서원좌우로 평지가 이어지고 있다. 남쪽 앞으로는 문필천이 흐르는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다.
- 필암서원 경내에는 분말소화기 15대, 청정소화기 5대, 옥외소화전 3개소, 방수총 2대, CCTV 5대를 설치하였으며 총 10대의 화재감지기가 각 건물마다 설치되어 작동중이다. 소방시설은 각 건물마다 1개 이상 배치되어 있으며 건물 10m 내로 옥외소화전이 배치되어 있다.



[옥외소화전]



[방수총]



[분말소화기]

- 가로등 같은 조명시설이 조도가 낮은 날과 야간을 대비하여 경내와 경외 14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서원 입구에는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해 블라드가 20개소 설치되어 있다. 서원 주변 환경을 탐색하여 추락 및 미끄럼 위험이 있는 곳을 확인하여 안전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표 V-2> 필암서원 안전시설 현황

시설물	위치		개수
	경내	경외	
가로등	청절당 현문 정면, 철정문 동쪽, 행랑채 북쪽, 진덕재 남쪽, 내삼문 서쪽 장판각 정면, 한장사 북쪽 고진각 북쪽, 진덕재 북쪽 정원	확연루 서쪽, 확연루 동쪽, 홍살문 서쪽	14
블라드	-	서원 입구	20
CCTV	-	-	5

2) 주변 시설물 정비시 고려사항

- 필암서원의 소방 방재 현황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목조건물인 점을 감안할 때 화재 시 초동진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우동사 후면의 배수로는 풀이 무성하여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청절당 ~ 확연루 사이의 배수로도 공간이 막혀 있다. 주변 시설물 정비시 배수공간을 철저히 확보해야 할 것이다.



[배수로 현황]

2. 시설물정비계획

가. 문화해설센터 조성

1) 현황

- 필암서원이나 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해설은 지역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역사, 문화, 먹을거리 등을 해설하는 전문가로서 관광객을 인솔해 해외 여행을 하는 해외여행인솔자(Travel Conductor)와는 활동 지역이 다르며, 전문 지식을 갖추고 해설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 방문 목적이나 관심분야, 연령층 등에 따른 이곳을 찾는 다양한 관광객들에게 문화유산을 안내한다. 관광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벼운 이야기 위주의 해설로부터 역사, 문화, 자연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하며 관광객들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및 국가지정문화재를 비롯한 유학과 관련한 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을 겸하고 있다.
- 그리하여 교육·복지·학습 공간이 부족한 이들의 근무 인원 수·기존시설의 동선 등을 고려한 문화해설센터를 조성함으로써 고향과 문화지킴이자 문화해설사로서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해 공간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다.

2) 정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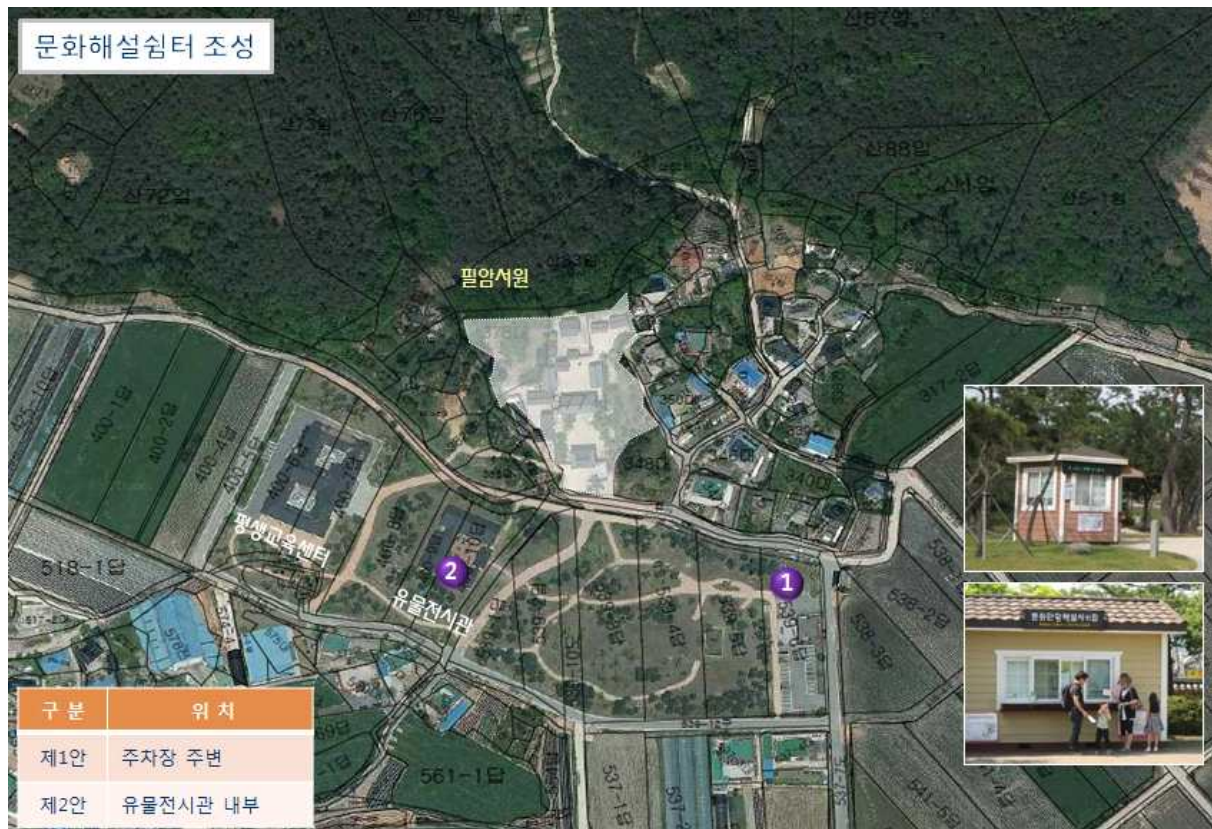
- 이를 위해 가급적 종합안내관 부근은 서원전도 등에도 보여주듯 조망권 확보나 기존 건물과의 부조화 등 진입공간의 경건성을 저감할 우려가 있어 피하는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문화해설센터 대상지 입지관련 검토]

대상지	장점	단점
주차장 인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탐방객에 대한 접근성 용이, 편의제공 주차장 주변공간을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축의 경우 한옥타입으로 배치, 탐방객들은 기 공간영역에 입지한 각 건물과 동시대 건축물로 인지 우려
유물전시관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물 전시관은 수장고, 관리동, 휴게실 및 연결회랑, 외상문으로 이루어진 전통 한옥 목조 건물이 있어 안내 및 활용에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찾아가는 서비스가 아닌 기다리는 서비스로 역동적인 면 저하 우려

[참고] 현장 답사 및 인터뷰 등을 통해 조사한 월봉서원 사례

- 2013년까지는 상주하시는 관리인이 있었으나, 현재 관리인은 없고 문중회장님이 사무실에는 매일 나오심
- 기간제 근무 채용계획이 있음
- 월봉서원 입구 오른쪽에 교육관이 있고, 교육관 내에 사무실이 있음
- 월봉서원 입구 왼쪽에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집과 화장실이 있음
- ▶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안내
- 운영기간/운영시간 : 연중(3월~11월)/10:00~17:00
- 운영방법 : 상시근무(주말) 월봉서원은 월, 수, 금~주말/ 수시근무(단체예약)
- 예약문의 : 광산구청 문화체육과 062-960-8254



[문화해설센터 조성 대상지 검토]

나. 조망공간 조성(옛길 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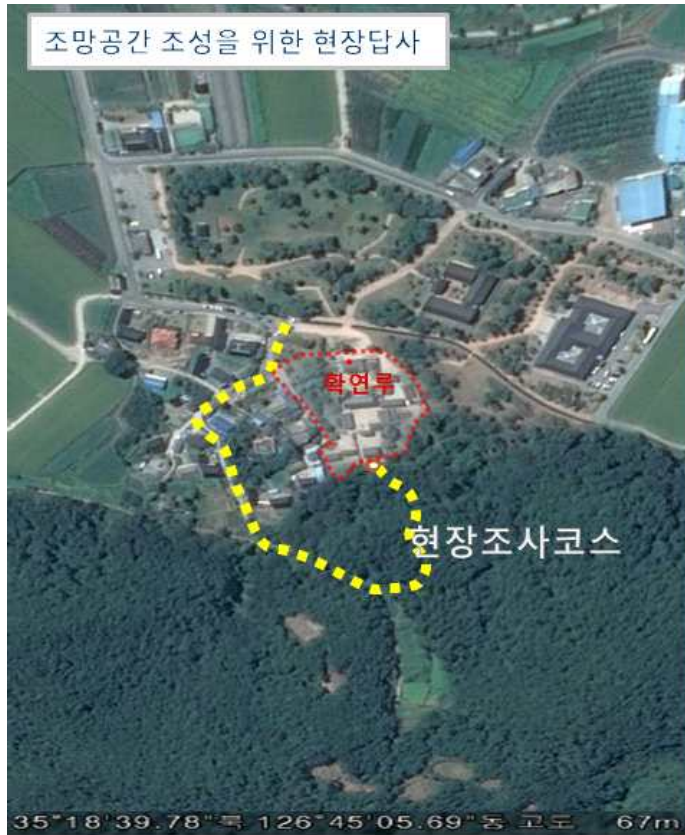
1) 현황

필암서원은 인종이 승하하자 하서선생이 더 이상 벼슬을 하지 않고 낙향, 성경(誠敬)을 행하며 후학을 가르치면서 시문을 지었던 곳이며, 서원 앞을 흐르는 실개천은 서출동류(西出東流), 마을입구의 문필천은 황룡강에 합류하고, 필암서원 뒤의 성경산(誠敬山 /유민산)의 남쪽 자락이 내리 뻗어 동으로 약간 구부러진 산등에 솟은 바위들이 마치 꽃봉오리 같은 모양의 정남으로 잡은 터전이다.

이렇게 장성 지역의 선비 문화를 대표하는 서원인 필암서원은 유민산을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선현에 대한 제사 공간과 교육 및 학문 수련의 공간, 휴식공간, 기타시설 등 조선 시대 서원의 기본구조를 잘 갖추고 있는데, 마을을 뒤로 돌아 유민산 옛길을 따라 우동사 뒤편 능선부에 오르면 하서 선생의 성경(誠敬)에 대한 호연지기가 멀리 확연루 앞으로 탁 트였던 전망을 보았으면 한다.

2) 정비계획

하서 선생의 상서로운 기운이 감도는 낮지만 웅장한 유민산에는 옛사람들이 걸었던 옛길이 숨어 있는데, 이 길은 유민산이 간직한 오랜 서원의 역사를 이야기로 녹여내는 길이다. 서원 후면 마을 옛길 복원은 인공적인 조성을 피하고 최소한의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정도로 계획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007년 우동사 배면에서의 전경



2015년 11월 우동사 배면에서의 전경(현장조사 사진)

[조망공간 조성을 위한 현장답사]



[조망공간 조성(옛길 복원)]



[조망공간 구성을 위한 현장답사]

다. 관람 편의시설 정비

1) 현황

- 현재 필암서원에는 종합안내판과 개별안내판, 이정표, 표석 등이 설치되어 있다.
- 종합안내판은 주차장 북쪽과 서원 입구에 설치되어 있고, 설명판은 우동사 전면, 장판각 정면, 청절당 전면, 확연루 전면에 설치되어 있다. 이정표는 문화재 진입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주변 편의시설 위치 및 출입방향을 알려주고 있다.
- 관람객들의 탐방동선을 고려하였을 때 적당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으나, 색바램과 일부 파손부분이 확인된다.

<표 V-3> 필암서원 안내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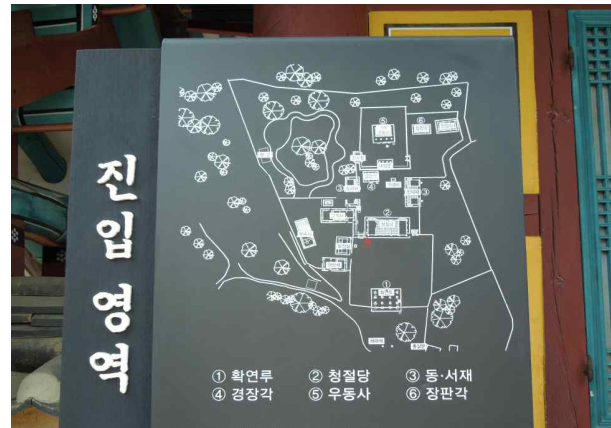
시설물		위치		개수
		경내	경외	
관광안내소		-	-	0
매표소		-	-	0
종합안내판		-	주차장 북쪽, 서원 입구	2
장성군 안내판		-	주차장 북쪽	1
관람료 안내판		-	-	0
방향 안내판		-	유물전시관 전면	1
설명판		우동사 전면, 장판각 정면, 청절당 전면, 확연루 전면	-	4
표석	보호수 표석	-	서원 입구	1
	식목일기념식수표석	-	서원입구	1
	보수공사 준공기념식수표석	강수청 터	-	1
	주변정비 기념표석	-	주차장 북쪽	1
	기타	충효교육관 전면	-	1



[종합안내판 - 주차장 북쪽]



[종합안내판 - 서원 입구]



[안내판 전경]

■ 필암서원 인근 시설 포함 화장실은 총 3곳에 위치하고 있다. 필암서원 주차장에 1개소, 진입부에 1개소, 필암서원 경내에 1개소가 위치하고 있다.

■ 그 외 편의시설로 음수대, 자판기, 정자, 의자 등이 경내와 경외에 구비되어 있다. 음수대를 제외한 편의시설은 미관상의 이유로 경외 주차장 인근과 원진각 주변에 설치되어 장소의 진정성과 편의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 있다.

<표 V -4> 필암서원 편의시설 현황

시설물		위치		개수
		경내	경외	
화장실		고직사 남쪽	주차장 남쪽, 서원 진입부	3
음수대		청절당 서쪽	주차장 북쪽	2
자판기			고직사 남쪽	1
정자		-	주차장 북쪽	1
연못		-	주차장 북쪽	1
의자	평의자	강수청터		6
	등의자	-	-	0



[주차장 남쪽 화장실 전경]



[주차장 전경]



[정자]



[연못]

2) 정비계획

- 문화재 안내판의 경우 문화재청에서 권장하고 있는 문화재 안내판 가이드라인에 부합되고 안내판의 종류와 수량도 적정하여 현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그러나 개별 안내판의 경우 색바래짐과 일부 훼손, 현대적 단위 표기법의 정비가 필요하다.

- 이정표는 서원에 설치된 안내판과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같은 재질로 정비하도록 하며, 이정표가 관람자의 보행 동선상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정표와 가로등을 결합하여 설치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서원 내에 다수의 안내판이 설치될 경우 종류와 위계에 따라 크기를 달리 적용하도록 한다.



[종합안내판 예시]



[권역안내판 예시]



[설명안내판 예시]



[유도안내판 예시]

3. 경관정비계획

가. 경관정비의 방향 및 체계

1) 서원의 경관가치

가) 고유성

- 서원의 기원은 중국 당나라 때부터 시작되어 송·원·명을 거쳐 우리나라에 전수되었는데, 조선조에 이르러 그 성립과정에서 중국의 영향을 받기는 하였으나 기능과 성격 등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즉, 중국의 서원이 관인양성을 위한 준비기구로서의 학교의 성격을 고수하였으나 조선의 서원은 사림의 장수처(藏修處)이면서 동시에 향촌사림의 취회소(聚會所)로 정치적·사회적 기구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 조선시대의 서원은 인재를 키우고 선현·향현을 제사지내며 유교적 향촌 질서를 유지, 시정(時政)을 비판하는 사림(士林)의 공론(公論)을 형성하는 등 정치·사회적으로 조선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이는 중국의 서원과는 다른 고유성을 확보하였다 할 수 있다.



[중국 백록동 서원(당나라)]



[중국 송양서원(후주)]



[중국 악록서원(송나라)]



[중국 응천서원(송나라)]

나) 조화성

- 서원의 역사경관에서 인지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연환경과 인문사회경관의 조화이다. 초기의 서원은 강학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서원의 제향기능(祭享機能)과 책의 출판과 보급, 열람 등의 출판·장서(藏書)기능으로의 발전에 따라 서원의 건축적 변화도 껴해졌다. 이러한 건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자연경관에 최대한 조화·순응하면서 자연경관과 인문·사회적 경관들이 상호 조화되어 표출하는 서원경관을 이어오고 있다.



[중국 아호서원 입지]



[도산서원 입지(겸재 정선)]

2) 서원 경관의 보전관리 방향

가) 전제조건

- 서원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경관 자체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 이러한 활력은 조망자가 현재의 서원 경관을 통해 과거 조선시대 사람의 성리학적 근거지였던 서원의 인문·사회학적 특성 ‘천인합일’의 사상에 근거한 자연과의 조화 등 서원경관의 가치와 의미를 함께 공유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즉 서원의 경관보존은 ‘현재 서원경관의 시각적 체험’을 통해 과거 서원의 경관을 심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과거의 현재의 경관을 통해 동일시 할 수 있도록 조망자에게 최대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것은 미래 한국 서원의 경관보존 방향과 직결되며, 미래까지 한국 서원경관의 고유한 가치와 중요한 의미들을 온전하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와 같이 서원경관의 보존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서원에 대한 기록과 자료들을 유추하여 정립하기 위한 고찰이 필요하다.

나) 보존 방향

- 사라지거나 과거에 비해 약해진 경관을 보완하는 것

- 한국의 서원은 500여년의 세월동안 정치·사회·문화사적 변화에 따라 변화되어 왔으나, 1871년 서원 철폐령 이후 급격한 변화가 초래되었으며, 근·현대기를 거치면서 경제성장 및 산업화에 따른 개발

과정속에서 서원 및 주변 자연경관들이 사라지거나 약해진 경관들을 재현, 보완하여 서원경관의 원형적 가치를 회복한다.

■ 현재에도 강하게 인지되는 경관들을 지키는 것

- 서원 철폐령에도 불구하고 일부 서원들은 살아남았으며, 이후 홍선대원군의 섭정이 끝나자 비록 사회적 변화에 따라 그 위상은 다소 하락하였으나, 성리학적 질서를 토대로 일정기간동안 향촌사회의 정신적 기반을 제공하였으며, 현재에까지 그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변화된 주변 자연경관과 더불어 선조들이 과거에 인지하던 경관들을 지켜 서원의 경관 가치를 지속시킨다.

■ 서원경관과 연계하여 새로운 힘을 보완할 수 있는 경관을 발굴하는 것

- 조선의 서원은 서원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주자(朱子)의 무이구곡(武夷九曲)을 본받아 자연이 빼어난 구곡원림(九曲園林)을 설정하고 구곡시가(九曲時歌)를 창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곡도(九曲圖)를 그려 완성하면서 성리의 이념을 꽃피우고 구곡비평(九曲批評)을 전개하는 등 이른바 구곡문화(九曲文化)를 형성한다.

- 이러한 구곡문화를 조사·발굴하여 현재 지속되고 있는 서원과 주변 자연경관과의 연계성을 모색하여 서원경관의 활력을 제공하고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경관을 발굴·도입한다. 단 도입하는 경관은 기존의 서원 경관을 저해하거나 파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보존영역의 설정

가) 서원경관의 보존 범위

■ 서원의 경우 대부분 비도시지역에 입지하며, 주변 자연경관에 순응·조화하여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 서원경관의 완전성과 진정성의 보전을 위해서는 주변 자연경관의 보전 또한 필수적인 사항으로 현재까지 유지되어 온 서원경관과 더불어 주변 자연경관의 보호와 관리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위계별 경관보존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 서원의 역사경관의 핵심인 서원 영역과 서원의 역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을 맺고 있는 사물 혹은 자연환경은 경관보존의 '코어존(core zone)'으로 설정하고, 서원경관의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변(자연, 생산, 주거 등) 환경을 '버퍼존(buffer zone)'으로 설정한다.

나) 서원경관의 보존 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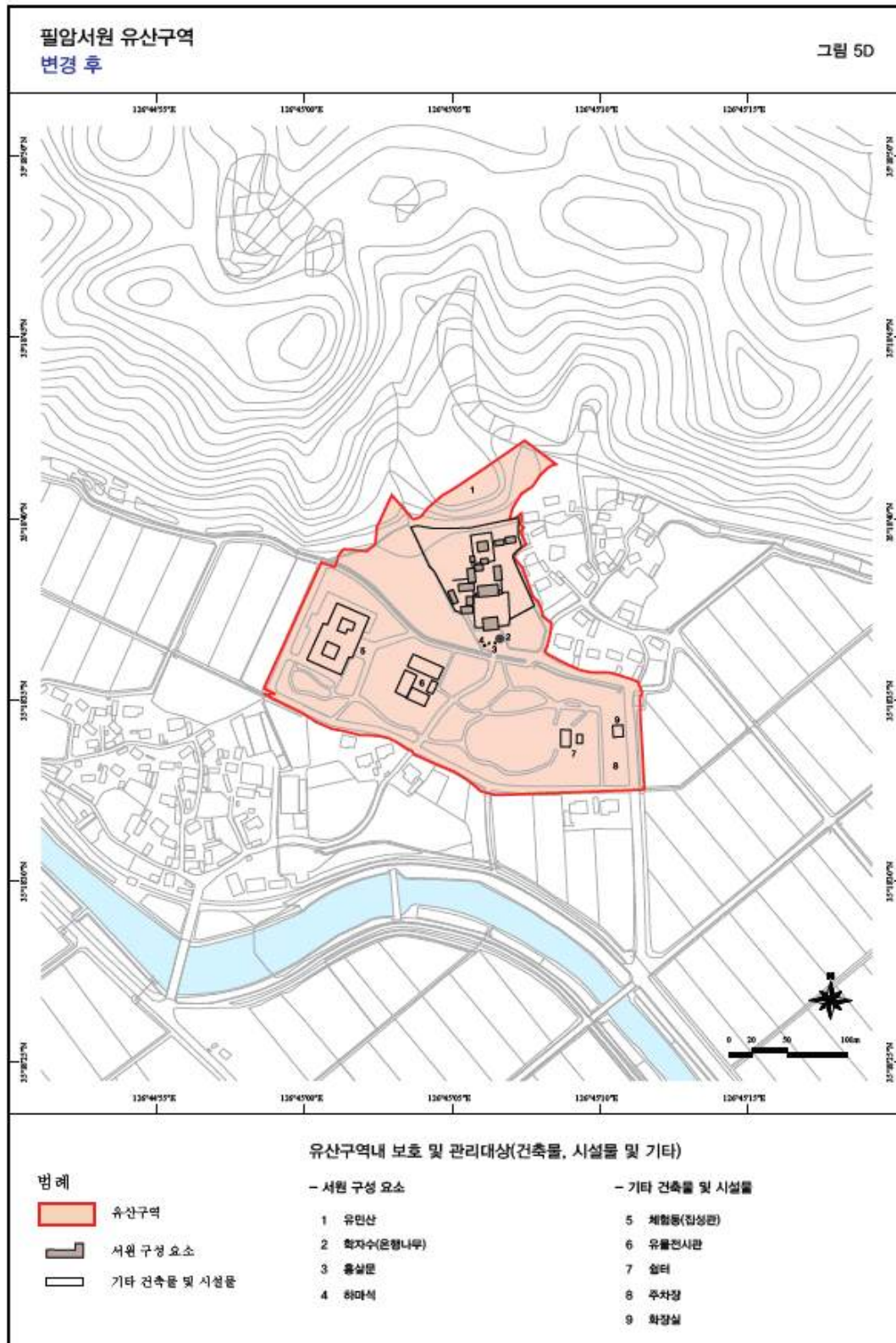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원의 경관은 역사경관의 핵심인 서원 영역과 서원의 역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을 맺고 있는 자연환경까지 결합하여 형성되어 있다.
- 그러므로 문화재구역 이외에 서원과의 역사·경관적 관계를 고려하여 보존 위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보존위계는 ‘절대보존지’, ‘강보존지’, ‘약보존지’, ‘조정지’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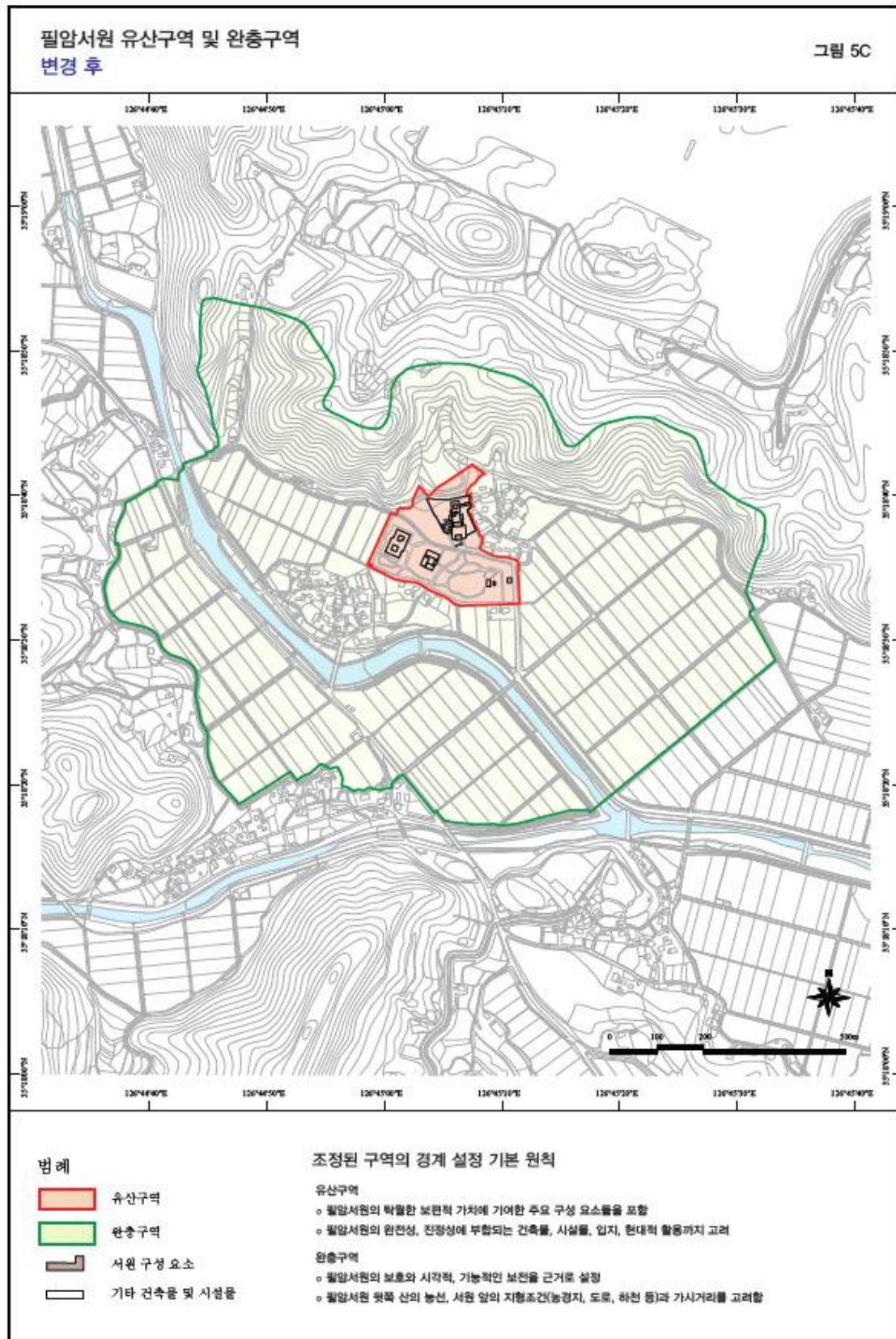
[보존 위계 설정]

- 서원에 적용되는 다양한 국내법을 고려하고,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설정되는 500m 범위의 역사문화환경보호구역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 서원에서 보이는 경관을 고려하였고, 필암서원은 서원에서 보이는 경관이 평지이므로 완충구역의 경계는 문화재보호법상 설정되는 500m 범위의 역사문화환경보호구역을 따른다. 또한 서원에서 보이는 경관이 산지로 형성된 경우의 완충구역의 경계는 산 능선의 가장 높은 지점을 따라 설정하였다.

나. 경관보존구역 설정



[유산구역 도면]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도면]



[필암서원 주변 전경]

1)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의 설정

가) 유산구역

- 유산구역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으로 보호구역인 장성군 필암리 산83 (4,364㎡) 1필지가 추가되어 조정 후 지정면적은 지정구역 5,832㎡, 보호구역 46,834.8㎡이다.



[유산구역 전경]

나) 완충구역

- 완충구역의 경계는 문화재보호법상 설정되는 500m 범위의 역사문화환경보호구역을 따르며 서원에서 보이는 경관이 산지로 형성된 경우의 완충구역의 경계는 산 능선의 가장 높은 지점을 따라 설정한다.



< 사진 > 완충구역 전경



[완충구역 조망점①]



[완충구역 조망점②]



[완충구역 조망점③]



[완충구역 조망점④]



[완충구역 조망점⑤]



[완충구역 조망점⑥]



[문필천 전경]

다. 경관정비

1) 서원 전면 공원공간의 전통경관 회복

- 김인후의 고향에 자리 잡은 필암서원은 연화산을 등에 두고 문필천과 들뜬 너머 멀리 보이는 월선봉을 바라보는 배치이다. 필암서원의 풍수형국을 단봉합서형(丹鳳含書形)이라고도 하는데, 붉은 봉황이 주둥이에 책을 물고 있는 형상으로 책에 해당하는 자리가 명당이다.
- 연화산은 낮은 산이지만 평탄한 서원 자리와 만나는 데서 급경사를 이룬다. 따라서 경사지형을 활용하는 ‘전저후고’형 건물 배치가 불가능하나 ‘전당후묘’의 배치는 유지한다.
- 서원 밖에서 바라보는 필암서원 확연루(廓然樓)는 당당한 대장부의 기상이다. 평야에 입지한 필암서원 앞에 서면 확연루와 담장만이 눈에 들어온다. 서원의 문루는 직접 위에 올라가서 전망되는 경관을 바라보며 천인합일의 기상을 얻는 유식(遊息) 경관이다.
- 필암서원은 2010년 서원 종합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서원 주변에 유물전시관(원진각)과 수련원(집성관)을 건립하였다. 이와 더불어 서원 정면의 농경지 일부를 조경사업의 일환으로 수목 식재를 하고 정자와 연못을 만들었다. 방문객 편의를 위하여 화장실을 건립하고 주차장 등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시설이 들어선 지역은 세계유산등재신청의 유산구역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완충구역에 해당한다.
- 서원 전면의 조경구역은 서원 건립 당시의 경관구조로 회복하는 중장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서원을 더 잘 보존하고자 하는 현대 시설들의 추가로 인해 필암서원의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 서 문화재 보수·복원에 대한 기본원칙에 근거한 체계적인 중장기 관리계획이 필요하다.



[홍살문에서 바라 본 필암서원 전면 공간]



[필암서원 원경(항공사진)]



[확연루에서 본 수목의 남측 차폐 전경(현재 : 위)
확연루에서 본 수목의 남측 조망경관 확보 전경(안 : 아래)]



[필암서원 외부 남측에서 바라 본 확연루 방향 수목의 차폐 전경(현재 : 위)
필암서원 외부 남측에서 바라 본 확연루 방향 조망경관 확보 전경(안 : 아래)]

주) 확연루 전면 입목 39~41주[표시부분]를 원진각 동북측에 수목특성 고려 및 이식 검토하여 조망경관 확보 방안

[현황] 장성 필암서원은 평야산록형의 전당후재형으로, 식재된 수목은 주로 문중에서 식재한 것과 1980년대 조경정비 때 식재된 것으로 교목 23분류군, 관목 6분류군, 초화류 5분류군 등으로 평지의 한정된 공간에 밀식

[고려요소] 문화재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경내의 식재수목에 대한 수형관리, 과도한 수목식재로 인한 밀도의 조정과 백송, 칸나 등 외래 수종 제거, 외부시설의 과도한 식재로 인한 주공간의 왜소화 방지

[방안] 전통공간의 장소성 회복, 식재 권역별 공간간의 단절성 회복 등



[필암서원 전경(현재 : 위) 와 필암서원 경관정비 이후 예측(방안 : 아래)]

2) 경관관리영역의 구분

- 필암서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범위를 문화지정 범위와 문화재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주요 관리대상을 추출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 서원의 관람 및 기능을 고려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서원 내부공간, 서원주변의 주차장, 화장실 등 서원 관람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 대상인 서원 외부공간, 서원으로의 접근로 및 서원 주변의 민가 등 서원 주변공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완충영역으로 구분한다.

가) 제 1영역 - 서원내부영역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 서원의 내부영역은 서원자체의 경관을 최대한 보전하고 이질적인 경관을 방지하여 그 고유의 전통성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관리대상
 - 서원의 담장 내 설치되어 있는 각종 안내를 위한 정보시설, 벤치, 휴지통 등 편의시설, CCTV, 보안등, 소화시설, 분전함 등의 관리시설 일체를 관리대상으로 설정한다.
- 관리방향
 - 서원의 관람기능 및 편의기능을 고려하여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는데 있으며 공공시설물이 문화유산 고유의 공간적인 특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소거형 디자인에 원칙을 두고 관리한다.
 - 필암서원 마당 진입부는 문화재 건축물 사이로 지나가는 구조로서 진입로 통로 내에는 가급적 시설물 배치를 지양
 - 마당 진입부 옆으로 관리영역이 위치하고 있어 사설시설물이 그대로 노출되므로 사설시설물을 보이지 않는 곳에 배치하는 것을 권장



나) 제 2영역 - 서원외부영역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 서원의 외부영역은 방문객의 편의 및 이용성의 향상을 위하여 시설물을 관리하고 서원자체의 경관과 조화롭게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관리대상
 - 서원의 담장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관광안내소, 관리사무소, 문화재해설사의 집 등 공공건축물, 각종 안내를 위한 종합안내판, 유도안내판 등 정보시설, 벤치, 휴지통 등 편의시설, 볼라드, 보행등, 플랜터 등의 관리시설 일체를 관리대상으로 설정한다.
- 관리방향
 - 서원의 관람을 위하여 보행이 시작되는 주차장으로부터 서원 건축물 입구에 이르기까지 편의성을 고려하여 부족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서원내부의 시설물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관리방향을 설정한다.
 - 서원 주변부에 설치된 황토포장은 주차장 진입부까지 확대하여 서원과 연계
 - 반사되는 금속소재로 서원과 어울리지 않는 시설물은 표준안으로 교체 권장



다) 제 3영역 - 서원주변영역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 서원의 주변영역에서는 서원에서 주변으로 또는 주변에서 서원으로 조망시 돌출되지 않으며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문화유산과 통일감 있는 경관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관리대상
 - 서원의 주변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지붕, 담장, 광고물, 현수막, 위성안테나, 부속시설 가림막 등의 민간건축물 요소, 유도안내판, 교통시설안내판, 시설입구 안내판 등 각종 안내를 위한 정보시설, 포장, 교량, 교차로 등 기반시설 등을 관리대상으로 설정한다.
- 관리방향
 - 서원 및 향교로의 접근 동선을 고려하여 문화유산과 이질적인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민간 건축물 및 시설물, 공공기반시설 등을 돌출되지 않도록 문화재와 유사한 코드의 색을 지정하고 가림막을 도입하여 차폐하는 등의 관리방향을 설정한다.
 - 현재 관광안내소 역할을 집성관과 유물전시관에서 하고 있으나 이용에 불편을 주므로 주차장 주변 또는 필암서원 입구쪽으로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는 것을 권장
 - 공중화장실 주변에 설치된 음수대는 화장실과 기능적으로 중복되므로 공원 혹은 서원 주변의 적합한 장소로 옮기는 것을 권장
 - 서원과 인접하는 민가 건축물은 전통적 디자인으로 개선 및 정비할 것을 권장
 - 공원 내 공공시설물은 필암서원 공공시설물과 통합적으로 디자인할것을 권장

라) 제 4영역 - 서원완충영역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 서원의 완충영역은 일정거리 내 다양한 인공물을 대상으로 현상변경 등의 행위 시 문화자원의 경관을 고려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관리대상
 - 서원 및 향교로부터 500m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이내 분포하고 있는 다양한 건축물과 시설물을 관리대상으로 설정한다.
- 관리방향
 - 서원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질적인 개발행위, 현상변경 등을 관리하고 통일감 있는 경관을 유지시키도록 경관을 관리한다.

4.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테마 개발

- 필암서원의 방문객 통계는 지난 2008년부터 6년간 이루어졌으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연간 약 1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고, 2011년 이후 급격히 방문객 수가 증가하였다. 세계유산등재가 이루어질 경우 방문객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최근 6년간의 방문객 통계는 아래와 같다.

<표 V-4> 필암서원 방문객 통계수치

구 분	방문객(명)
2008	98,550
2009	102,200
2010	109,500
2011	110,550
2012	131,200
2013	178,800

가. 하서 김인후 선생 역사이야기

1) 맥동마을

- 역사지명 '필암(筆巖)'은 김인후의 태생지인 황룡면 맥호리 맥동마을 입구의 '붓바위[筆巖]'에서 비롯되었다. 풍수지리학에서는 터를 잡은 곳에 붓 모양의 산[文筆山]이나 바위가 있으면 대학자가 난다고 한다. 바로 이 '필암'과 인연을 맺은 대학자가 김인후인 셈이다.
- 서원 건립 이전 간행한 『신증동국여지승람 新增東國輿地勝覽』 장성현 산천조에 “문필천(文筆川)은 장성 현 서쪽 7리에 있는데, 송현에서 나온다”는 기록도 있다. 일찍부터 '문(文)'과 '필(筆)'의 기운이 스며있었던 것이다.
- 김인후는 자신의 고향인 장성에서 호남지역 주자성리학의 흐름을 계승하고 크게 발전시킨 인물이다. 특히 어린 시절 스승 김안국(金安國, 1478-1543)으로부터 통해 배운 『소학(小學)』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는 기묘사림(己卯士林)들의 특징적인 학풍이다.
- 김인후의 강학활동은 순창 점암촌의 훈몽재와 장성의 맥동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36세 때 인종의 갑작스런 승하로 벼슬을 버리고 장성으로 왔다가, 1548년(명종 3) 39세의 나이로 순창으로 옮겨 훈몽재를 세웠는데, 이곳이 바로 김인후의 「천명도」가 저술되는 기반이 된 곳이다.
- 순창에서 2년여 머물던 김인후는 장성 맥동으로 돌아와 저술과 강학에 매진하였지만, 매년 7월 1일이면 난산의 통곡대에 올라 인종이 일찍 돌아간 사실을 애달파했다. 이후에는 맥동에서 강론하여 자

신의 철학적 견해를 적극적으로 펼쳐 성리학의 체계를 정립하였다. 당시 그를 찾아 물려드는 문인들의 교육과 인도에도 심혈을 기울였으며, 가까이 소쇄원과 면앙정도 교류공간이었다.

2) 장성김인후난산비 (長城金麟厚卵山碑)

- 김인후 난산비는 김인후(1510~1560)가 매년 인종의 기일(忌日)인 7월 1일 맥동마을 난산(卵山)에 올라 북망통곡(北望慟哭)한 것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비이다.
- 호패형의 일반형 석비로 전면 상단에 전서로 횡서로 '난산지비(卵山之碑)', 첫줄에 종서로 '난산비(卵山碑)'라 제하고, 이어 찬자(윤행임)와 서자(이익회)를 쓰고 비문을 적고 있다. 비문은 비의 제목을 포함하여 모두 31행(전 10행, 좌 5행, 후 10행, 우 6행), 1행 26자이다. 비문은 석재 윤행임(1762~1801)이 짓고, 이익회(1767~1843)가 글씨를 썼다.
- 끝 부분에 추가가 있는데 '영력 사계묘 윤정현 근지(永曆 四癸卯 尹定鉉 謹識)'라는 기록이 있어 조선 헌종 9년(1843)에 윤정현(1793~1874)이 추가하고 세웠음을 알 수 있다. 윤정현은 난산비의 원비문을 지은 윤행임의 아들이다.
- 장성 김인후 난산비는 김인후가 인종 승하시 망곡한 것[망곡단]을 기념 추모하기 위하여 세운 것으로 김인후의 행적과 정신을 알 수 있으며 국상(國喪)에 따른 당시 제도사를 알 수 있는 등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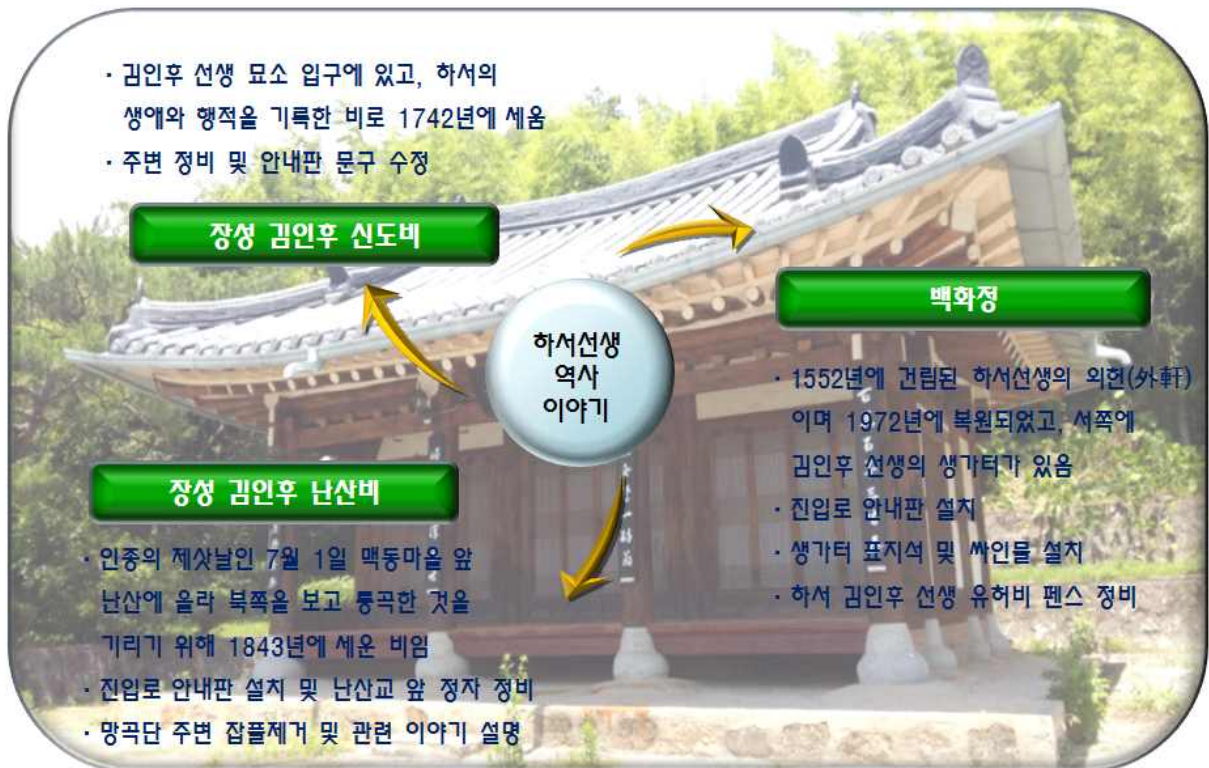
3) 장성김인후신도비 (長城金麟厚神道碑)

-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학자이며, 동국(東國) 18현 가운데 1인인 김인후(1510~1560)의 생애와 행적을 기록한 신도비이다.
- 김인후의 본관은 울산, 자는 후지(厚之), 호는 하서(河西) 또는 담재(湛齋)이다. 모재 김안국(金安國), 미암 윤희춘(柳希春), 신재 최산두(崔山斗)에게 배웠고 1540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권지 승문원 부정자에 등용된 이래 홍문관(弘文館) 정자(正字), 옥과현감(玉果縣監)을 지냈고, 도학(道學)과 절의(節義)와 문장(文章)을 두루 갖춘 인물로 널리 기림을 받았다.
- 시호는 문정(文正, 처음 시호는 文靖)이다. 1796년에 문묘에 배향되었으며, 아울러 대광보국숭록대부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주역관상편(周易觀象篇)』과 『서명사천도(西銘事天圖)』를 저술했고 문집으로 『하서전집』이 있다. 장성 필암서원(사적 제242호) 등에 배향되었다.
- 김인후 신도비는 묘역 입구에 있는데, 거북이 모양으로 만든 받침돌 위에 비몸을 세우고 머릿돌을 올린 모습이다.
- 조선 영조 18년(1742, 승정기원후 재임술)에 세운 것으로, 송시열(宋時烈)이 비문을 짓고 비문 글씨는 이재(李穡), 전서는 김진상(金鎭商)이 썼다. 전후면에 각 19행씩, 양 측면에 각 8행씩 모두 54행, 1행 54자의 내용이다.

- 장성 김인후 신도비는 동국 18현에 드는 학자로서 도학과 절의, 문장을 갖춘 그의 생애와 행적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립 당시의 명유(名儒)인 우암 송시열이 비문을 지었고 이재가 글씨를 쓰는 등 기록사료로서의 가치도 커 역사적·학술적·향토사적 가치가 크다.



[맥동마을 김인후 선생 발자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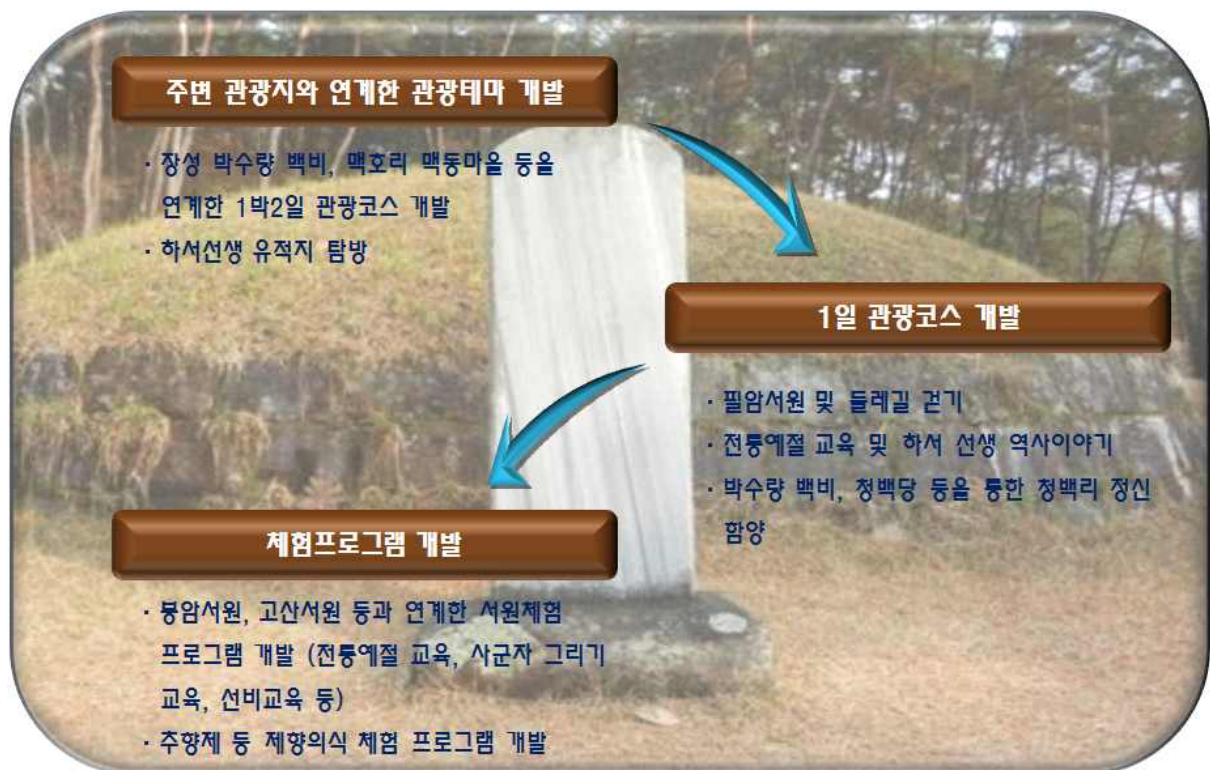


[맥동마을 정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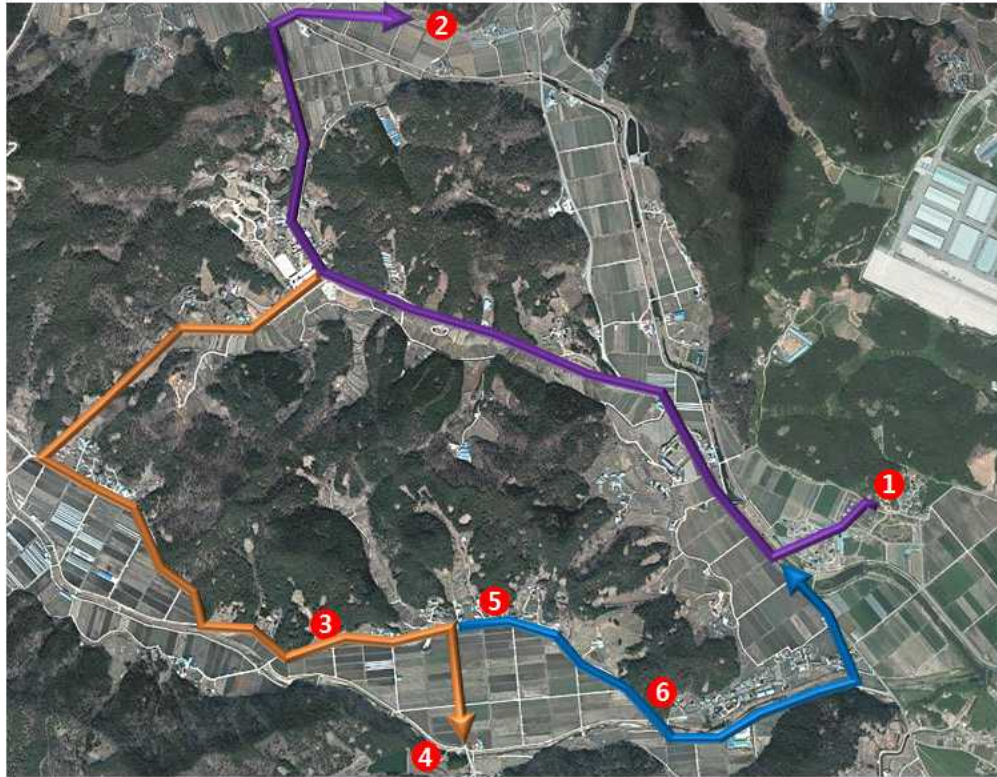
나. 관광테마 개발

1) 체류형 관광지 조성

- 필암서원, 장성 박수량 백비, 맥호리 맥동마을 등을 연계한 1박2일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서원스테이, 서원체험프로그램, 제향의식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한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한다.



[체류형 관광지 조성]



[필암서원 주변 관광코스]



[일정표 예시]

	시간	프로그램	내용
첫째날	14:00	도착	필암서원 도착
	14:00~14:30	등록부 작성	접수 및 방배정
	14:30~17:30	필암서원 탐방	해설사 동행
	17:30~19:00	저녁식사 및 휴식	
	19:00~21:00	전통예절 교육	
	21:00~22:00	하서선생 역사이야기	평생교육센터
	22:00~	취침	
둘째날	07:00	기상	
	07:00~08:00	필암서원 주변 산책	
	08:00~09:00	아침식사 및 휴식	
	09:00~10:30	전통유교 선비교육	유교정신 함양
	10:30~12:00	박수량 백비	청백리 정신 함양
	12:00~14:00	점심식사 및 자유시간	
	14:00~17:00	하서선생 유적지 탐방	맥호리 맥동마을
	17:30~19:00	저녁식사 및 휴식	
	19:00~21:00	탐방하고 체험 글쓰기	
	21:30~	취침	

※ 셋째날은 차를 마시면서 체험후기를 작성하고 집으로 출발

2) 서원 활용방안 제시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문화유산의 활용은 ‘역사문화관광’이라는 새로운 트렌드의 문화향유의 활용정책 중심이 되어 발전하고 있다. 문화재의 존재를 직접 확인하고 그 가치를 오감을 통하여 느끼는 문화의 향유를 즐기는 관광활성화는 문화재의 가치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장소, 경관, 역사를 활용하고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문화관광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추세에 맞추어 문중과 유림, 주변마을 지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관 및 유물전시관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도출하고 타 서원의 성공적 활용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 장성필암서원 활용의 기본 방향 】 - 탈(脫) 폐쇄성을 통한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공간화 ▪ 장성필암서원에서 발간·수집된 원천자료의 스토리적요소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활용방안 구상 ▪ 서원안팎에서 활용 가능한 활용방안 구상 ▪ 장성필암서원이나 문중에서 보유하고 있는 필암서원 관련 역사문화적 가치요소를 활용한 활용방안구상			
활용 비전	서원(書院)에서 용서하며 바라는 서원통(恕願通)으로 창의적 정신문화 재정립		
활용 목표	조선유학의 예의엄치 ¹⁾ 를 통한 선비정신의 문화를 나누고 적용하는 건강힐링 공간		
추진 과제	<p>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시공초월 융복합 시대정신의 체험 및 체득문화 분위기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자원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공모전 개최-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 추진▪ 유림회 회원의 현 노령화에 대한 신세대 유입으로 전통문화 계승 및 창달<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프로그램 운영인력의 전문화▪ 선비들의 유교문화 체험 등 교육체험 콘텐츠 가본 수행 + 연계프로그램 접목<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활용(뮤지컬, 음악 공연장으로 활용)- 배향인물 중심의 콘텐츠화 추진- 디지털 박물관 시스템 도입 및 평생교육 공간화		
추진 방향	<div>Hard ware</div> <div><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유산 보존, 관리· 주변 경관 정비· 교육시설· 숙박시설· 편의시설</div>	<div>Soft ware</div> <div><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절, 인성 교육형· 리더쉽형· 마음치유형· 문화체험형· 지역문화관광연계형</div>	<div>Human ware</div> <div><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 인력 양성· 전문 인력 관리· 전문 인력 지원</div>

1) 예의엄치[禮義廉恥]:예절과 의리와 청렴과 부끄러움을 아는 태도

< 표 V-5 > 서원의 운영 프로그램 및 활용 현황

방법	내용	시간	대상	장소	비고
제향	제향 인물에대한향사	제향 시간	유림 문중	대성전 사당 재실 전사청	모든서원
한자교실	학생을대상으로한 집단학습	주말, 방학	초·중·고 학생	명륜당 강당 재실 유림회관	도시인근 학교 서원 유림회관
예절교실 (충효교실)	학생·일반인을 대상으로 집단학습 문체부지원	주말, 방학	초·중·고 학생	명륜당 강당 재실 유림회관	
동아리 학습	취미·학습 등 공동목적 으로 결성된 동아리 활동	주로 하절기	대학생 일반인	명륜당 강당 ,재실	역사성이있는 서원
한옥체험	전통 한옥 체험 및 휴식 인근 전통가옥과 연계	주말 방학	가족 일반인	재실	전통마을과 인접 서원으로소수
현장답사	서원역사건축 등 답사 인근 전통가옥과 연계	불특정 시간	학생 일반	유교유적및 주변경관	국가지정9개 사적서원 중심
전시관 박물관 기념관	서원의 역사인물 유적중심으로 전시		학생 일반	전시장및 서원영역	소수 도산 자운 필암 덕천서원

자료 : 서원 관리 운영의 현황과 과제, 한국의 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전국학술대회 : 한국서원의 계승과 활용, 2014.04.

가) 지역문화 관광연계형

○ 서원(書院)에서 용서하며 소원을(恕願) 통하다 ! - 서원통(恕願通)

- 일 정 : 1박 2일
- 대 상 : 일반, 학생 및 기업단체, 내외국인
- 인 원 : 40~100명
- 투어코스 : 지역 단위 행사 진행
 - 유교 교육의 명승지 탐방
 - 전통 문화 관련 강좌
 - 한옥 고택스테이
 - 의례, 서예, 목판 탁본 등 전통문화 체험 등
 -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행사 대상자의 유교문화의 이해를 높인다.
 - 형식적 체험이 아닌 고급전통문화를 이해하고 감동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 재현배우의 진행을 통하여 사실성과 현장감을 높인다.

V. 종합정비계획

[교육형 일정표(예시)]

일 정	장 소	내 용	비 고
10:00	서울	• 집결	
10:00 ~ 12:00		• 월봉서원을 향해	• 유인물 배포 및 설명
12:00 ~ 13:00		• 점심식사	• 맛 집을 찾아서(사전예약)
13:00 ~ 14:00	월봉서원	• 월봉서원 도착	• 서원 관계자와 연락, 접견
14:00 ~ 16:00		• 서원 관람 및 설명	• 철학자의 길 걷기 등 프로그램
16:00 ~ 17:00	필암서원	• 필암서원으로 이동	
17:00 ~ 18:00		• 필암서원 설명	• 하서 김인후 선생의 삶과 학문
18:00 ~ 19:00		• 저녁식사	• 사전 예약 준비
19:00 ~ 20:00		• 방배정 및 세면	
20:00 ~ 21:00	필암서원	• 원로와의 대화	• 서원장 또는 지역 원로 참석
21:00 ~		• 자유 시간 및 취침	• 서원의 밤하늘 별자리 보기
07:00 ~ 08:00		• 기상 및 세면	
08:00 ~ 09:00	2일차	• 아침식사	
09:00 ~ 11:00	홍길동 유적	• 홍길동 유적 관광	
11:00 ~ 12:00	남고서원	• 남고서원 도착	• 관계자 사전연락
13:00 ~ 14:00		• 점심식사	
14:00 ~ 14:30	무성서원	• 무성서원으로 이동	• 관계자 사전 연락
14:30 ~ 15:30		• 체험일정- 탁본, 붓글씨 등	• 체험 담당자 섭외
15:30 ~ 16:30	피향정	• 피향정 관람, 전통주 제조 관람	• 전통주 사전 연락(11월부터)
16:30 ~ 18:00		• 집결지로 이동 및 해산	• 마무리

자료 : 「유교문화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참조

나) 권역별 프로그램

- 전국 각지에 산재되어 있는 유교관련 문화유산의 효과적인 탐방코스 및 프로그램을 제시
- 주말 단위의 기간을 활용한 문화탐방에 가장 적합한 1박2일의 일정으로 구성
- 유교문화 활성화의 다양한 방안 즉, 온라인 활용, 워크북 제작, 탐방지도 제작, 투어버스 운영 등의 방법적 정용을 다양하게 함으로서 구체적 활용사례로 제시 가능.
- 성균관, 각 지역 단위 향교, 일반 교육기관 등 유교문화의 향유를 위한 단체의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탐방행사로 활용 가능.
- 시민문화단체의 문화탐방, 각 급 학교의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으로 프로그램의 활용 가능
 - 프로그램 구성안 (사례제시)
 - 프로그램 : ‘세계문화유산 왕릉 궁궐 연계 문화체험’
 - 단체 : (사)한국의재발견
 - 대상 : 일반 시민 누구나
 - 내용 : 조선왕조 문화탐방 (궁궐-종묘-왕릉)
 - 특징 : 문화유산 연계 프로그램으로 역사적 의미 공감, 참여율 향상

문불여장성(文不如長城)의 고장

- 호남문화권 -

○ 목적

- 장성-담양을 연결하는 호남의 유향(儒鄕)을 찾아간다.
- 호남 최고의 서원으로 손꼽히는 필암서원을 중심으로 선비의 절의를 상징하며 문묘에 배향된 대학자 하서 김인후의 생애와 사상을 돌아본다.
- 홍선대원군이 ‘학문으로 장성만한 곳이 없다’고 하며 칭송하였던 장성 지역은 학문과 선비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다. 필암서원 이외로도 봉암서원, 고산서원, 장성향교, 남문창의비 등 선비사상과 학문, 호구정신의 발현 등 선비문화의 참 모습을 살펴본다.
- 하서 김인후의 친구이자 사돈이 되는 양산보의 정원 소쇄원은 한국 정자문화를 상징하는 멋과 의미를 지닌다. 담양지역 가득한 정자문화, 가사문학의 참 모습을 살펴본다.

○ 진행방안

- ‘충청권 유교문화탐방’의 경우와 동일한 진행인력구성 및 운영프로그램 방안 연구.
- 하서 김인후의 수제자이자 한국 가사문학의 거두로 잘 알려진 송강 정철선생을 재현하는 전문배우와 전문해설강사, 운영인력이 구성하는 1박2일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해당지자체(장성군)과의 업무협약 및 행사지원 모색

[세부일정 및 내용]

일 정	장 소	내 용	비 고
08:00~	서울출발	행사진행 일정 및 진행 내용 사전 교육	30인 이상
12:00~13:00	장성 도착 중식	장성지역 탐방 시작 백양사 입구 산채정식으로 식단 구성	남도 최고의 백양사 안내 백양사 가로수길 산책
13:30~15:00	필암서원	송강 정철 재현배우가 진행하는 서원안내 사당 배향, 장판각 소개, 유물관 탐방	필암서원 선비학당 프로그램 등 지자체와 협의
15:00~15:20	요월정원림	황룡각과 장성읍내를 조망하는 정자	한국 정자문화의 안내
15:30~16:10	봉암서원	임란시 망암선생의 화차제작으로 알려진 조선시대 무기류 전시	※ 고산서원과 비교하여 장소확정
16:20~16:50	남문창의비	임란시 장성지역 의병활동 기념비	해설 강의(20분)
17:00~18:00	장성향교	향교의 의미 강의, 명륜당 배향	장성의 브랜드 홍길동 기념관 활용방안 모색
18:00~19:00	석식	장성 읍내 식사	
19:20~21:30	필암서원(숙박)	필암서원 생활관 활용, 저녁 프로그램 진행	홍길동기념관, 축령산휴양림 등 대안 활용 가능
08:30~09:10	담양 삼지천마을	아시아 최초의 슬로우시티로 지정된 삼지천마을 탐방	마을길 따라 걷기
09:40~11:00	가사문학관	가사문학의 본고장, 담양의 특별한 체험	전시관 탐방과 가사문학 관련강의
11:10~12:00	소쇄원	한국 정자문화의 정수 한국의 정원 강의(20분)	양산보의 별서정원 김인후의 <소쇄원48영>
12:30~13:30	중식	담양 시내, 관방제림(담양향교) 인근	대나무 통밥
13:40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	서울 방면 이동 중 가로수길 걷기	기념촬영

자료 : 「유교문화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참조

다) 향교·서원의 현대적 활용방안 사례

(1)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38개 사업

과거 선현의 덕을 기리고 인재를 양성하던 향교·서원문화재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인문정신을 계승하여 이를 현대적으로 재창조하고자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38개 사업을 확정하여 실시한 바가 있다.

‘향교·서원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은 **체험형, 교육형, 답사형, 공간활용형** 등 네 가지 유형으로 체험형은 유교의례의 전통과 현대의 만남, 선비의 생활문화 체험, 교육형은 인성·예절교육 시행, 답사형은 관련 역사인물과 연계유적의 이야기를 따라 가는 문화재 누림길·즐김길, 공간활용형은 학교교육과 연계한 교육문화 행사와 지역주민을 위한 공연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엄숙하고 폐쇄적인 공간으로 인식되어온 향교·서원이 지역공동체 문화의 구심체로 역할하게 되며 동시에 사람과 이야기가 가득하고 생기가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또 과거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공존하여 인문정신 회복과 청소년 인성 함양의 공간으로 활용, 문화재청에서는 이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평가하여,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문화재 만들기 사업 현황

지자체		유형	대상문화재	사업명	주관단체
광역시	기초				
서울 (1)	강서	향교	양천향교 터 (시 기념물 8호)	서울 문화유산 학교	(주)프블릭그라운드
대구 (1)	달성	서원	도동서원 (사적 488호)	2014 도동서원제 ‘道, 東에서 꽃피다’	달성문화재단
인천 (2)	남구	향교	인천향교 (시 유형 11호)	전통문화 삼색감동(三色感動)체험	인천시 남구
"	강화	향교	강화향교 (시 유형 34호)	살아 숨 쉬는 전통문화 예절교육 체험학습장 운영	강화향교
광주 (1)	광산	서원	월봉서원 (시 기념물 9호)	월봉서원이 건네는 ‘선비의 하루’	광주 광산구
세종 (1)	세종	향교	연기향교 (시 기념물 6호)	연기 향교와 함께하는 세종 선비아카데미	연기향교
경기 (4)	김포	서원	우저서원 (도 유형 10호)	우저서원 전통문화 체험사업	우저서원
"	수원	향교	수원향교 (도 자료 1호)	‘향교골’에서 만난 정조 임금님 -수원향교를 중심으로-	경기관광공사
"	용인	서원	심곡서원 (도 유형 7호)	‘심곡서원에서 문화유산의 향기를 느끼다’	A&A문화유산연구소
"	포천	서원	용연서원 (도 유형 70호) 화산서원 (도 기념물 46호)	“오성과 한음이 들려주는 다양한 이야기”	(주)한국문화유산연구센터
강원 (2)	원주	향교	원주향교 (도 자료 98호)	전통생활예절 및 서당운영	원주 향교
"	홍천	향교	홍천향교 (도 자료 99호)	홍천향교 활용 기반조성 사업	홍천향교
충북 (2)	청주	향교	청주향교 (도 유형 39호)	‘새로운 유교문화의 꽃을 피우다, 청주향교’	청주향교

"	괴산	서원	화양서원 (사적 417호)	화양서원에서 2014년형 선비 되기	화양동을 사랑하는 사람들
충남 (3)	논산	서원	돈암서원 (사적 383호)	禮힐링캠프 운영사업	돈암서원
"	공주	서원	충현서원 (도 자료 60호)	삶과 지혜의 공간, 충현서원을 만나다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홍성	향교	결성향교 (도 기념물 134호)	친구야, 향교가자?	문화 in 장곤
전북 (3)	남원	향교	남원향교 (도 유형 8호)	남원향교 전통문화 진흥사업	남원향교
"	정읍	서원	무성서원 (사적 166호)	태산아! 무성하게!	(재)문화재아웃리치연구소
"	진안	향교	진안향교 (도 자료 14호)	고전 연수교실 운영 및 고전요체를 통한 실용학습	진안향교
전남 (7)	장성	서원	필암서원 (사적 242호) 봉암서원 (도 기념물 54호)	문불여(文不如), 무불여(武不如) 장성에서의 1박2일	장성군
"	구례	향교	구례향교 (도 유형 110호)	향교야 놀자	구례향교
"	나주	향교	나주향교 (사적 483호)	나주향교 굽은 소나무학교 -굽은 소나무 나주를 살리다	동신대 평생교육원
"	무안	향교	무안향교 (도 유형 114호)	황토골 문화 인터페이스 향교	무안향교, 무안문화원
"	화순 1	향교	능주향교 (도 유형 124호)	즐겁게 배우고 체험하는 전통예절 제례법	능주향교
"	화순 2	향교	화순향교 (도 유형 63호)	청소년 인성교육 활성화	화순향교
"	담양	향교	창평향교 (도 유형 104호)	예학 창평학교 27성현의 초대를 받다	창평향교
경북 (3)	구미	서원	동락서원 (도 자료 21호)	서원나들이 -선비들의 웰빙문화 따라잡기	경북과학대 거례문화사업단
"	경주	서원	옥산서원 (사적 154호) 서악서원 (도 기념물 19호)	‘서원’ 그곳에 가면 뭔가 특별한 일이 있다. 음풍농월, 유유자적 선비체험	(사)신라문화원 문화재보존활용센터
"	영주	서원	소수서원 (사적 55호)	소수서원 Stay프로그램 운영	소수서원
경남 (5)	거창	향교	거창향교 (도 유형 230호)	함께하는 태고문화, 향교아카데미	거창향교
"	고성	향교	고성향교 (도 유형 219호)	향교 전통문화 체험교실 운영	고성향교
"	진주	향교	진주향교 (도 유형 50호)	유교대학 설립 운영	성균관유도회 진주지부
"	하동	향교	하동향교 (도 유형 223호)	진사(進士)·생원(生員) 양성사업	하동향교
"	함양	서원	남계서원 (사적 499호)	남계(濫溪)에서 일두(一蠹)를 만나다	남계서원
제주 (3)	제주	향교	제주향교 (도 유형 2호)	제주향교에서 놀멍, 쉬멍, 배우멍 !	제주향교
"	서귀 포 1	향교	대정향교 (도 유형 4호)	서예교실 운영	대정향교
"	서귀 포 2	향교	정의향교 (도 유형 5호)	살아 숨 쉬는 향교	정의향교

자료 : 문화재청 보도자료, 향교·서원, 인문정신 회복 및 청소년 인성교육의 장으로 만든다, 2014.1.15.

(2)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

문체부는 인문정신 및 독서문화 확산을 통한 ‘책 읽는 사회 만들기’를 위하여, 독서·시민단체, 도서관 등과 함께, 소외 지역예의 문학작가 파견,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지역 대표 독서프로그램 지원,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지원, 대한민국 독서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독서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2014년 인문독서아카데미 선정 결과기관명 가나다순

순번	프로그램명	기관명	비고
1	역사, 문학, 예술을 통해 본 내 고향 강릉이야기 등	강릉교육문화관	
2	동서양 고전을 통해 만나는 행복론 등	개포도서관	
3	인문학 독서여행1,2	거창 한마음도서관	
4	문학의 유효성과 지역 문학 등	경산문화원	문화원
5	책 읽기의 입문학 등	계양도서관	
6	청소년 인문학 열정	고성교육도서관	
7	미술로 읽는 건축사, 건축으로 읽는 미술사 등	공주시립도서관	
8	감정의 근원을 찾아서 등	과천시정보과학도서관	
9	도서관에서 만나는 인문학	광양시립중앙도서관	
10	도서관에서 만나는 인문학 이야기 등	광주광역시립도서관	
11	같이사는 가치다(철학으로 인문학하기)등	광진정보도서관	
12	인문고전에서 오늘을 보다	구미시립중앙도서관	
13	김시천의 색깔 있는 독서 시즌 등	군포시 산본도서관	
14	동양 고전의 바다에 빠지다	근암서원	서원
15	문화, 예술, 문학이 어우러진 세계 테마기행 등	금정도서관	
16	인문학으로 키우는 소통의 지혜 등	김천시립도서관	
17	김해도서관에서 인문학을 발견하다	김해도서관	
18	철학 과르텟	남산도서관	
19	삶을 위한 공부! 인문학 등	남평도서관	
20	인문독서학! 달서구 삶의 마중물이 되다 등	달서구립 성서도서관	
21	세상을 놀라게 한 창조적 상상력 이야기 등	담양문화원	문화원
22	또 다른 인간 세상의 이야기, 신화	대전한밭도서관	
23	나이 듦의 철학 등	도봉도서관	
24	장 자크 루소 깊이 읽기 등	마포평생학습관	
25	그림책을 통한 유쾌한 소통 등	마하어린이도서관	
26	인문학을 통한 책 읽기·세상 읽기	목포시립도서관	
27	5인 5색 인문학의 그림을 그리다	문막교육도서관	
28	한국사 속의 인천 등	미추홀도서관	
29	사유의 깊이, 깊이의 사유 등	밀양하남도서관	
30	조선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철학 등	병산서원	서원

순번	프로그램명	기관명	비고
31	보성의 소리 「서편제」의 향기를 찾아서	보성 공공도서관	
32	인문학 in 부여 <역사편> 등	부여도서관	
33	사람의 이동과 교류, 항구 도시의 역사와 문화 등	부전도서관	
34	열네 살에 읽는 사기열전	상계문화정보도서관	
35	19~20세기 러시아문학의 깊이를 읽다 등	서대문구립도서관	
36	오페라 속 서양문화사 엿보기 등	서산시 평생교육원	
37	인문학 토대가 되는 그림책 읽기 등	서울도서관	
38	과학철학과 인문학 등	서울독서교육지원센터	
39	꿈꾸는 서천의 인문학 이야기	서천군 평생학습원	
40	여행하면서 공부하는 유럽 역사 등	서초구립도서관	
41	인문고전 읽기 및 문화활동 등	성남시 종원도서관	
42	마음으로 보는 음악	세종평생교육연구원	
43	대립의 인문학 ‘키워드로 보는 우리 이야기’ 등	수성구립 범어도서관	
44	세계사 속에서 발견한 인문학 코드 읽기 등	시민도서관	
45	영화와 책이 만나면 세상을 만난다 등	아힘나운동본부	
46	세계명작을 찾아 떠나는 여행	안성시 공도도서관	
47	세종에게 자녀 독서교육에 대해 묻다 등	안양 석수도서관	
48	설화 오딧세이 등	완주군립 중앙도서관	
49	청소년, 고전문학에서 지혜를 찾다 등	울산남부도서관	
50	천년 원주, 책에서 길을 묻다	원주교육문화관	
51	밥맛이 좋아지는 인문학 여덟 주제 등	의정부 지식정보센터	
52	대학생, 인문학으로 날다 등	인천남구 구립도서관	
53	지혜의 샘 인문학 강좌	전남도립도서관	
54	지역문화로 풀어나가는 유쾌한 인문학	전북도교육문화회관	
55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 감상 등	전북도청도서관	
56	또 다른 시선, 미술로 보는 세상 등	종로도서관	
57	가족 간의 소통, 인문학으로 통하다 등	중앙도서관	
58	내 삶이 달라지는 인문 독서 여행	청주시립도서관	
59	문학작품을 통해 본 통일시대 고찰 등	파주 교하도서관	
60	돌, 바람, 여자, 제주 인문학 아카데미	한라도서관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인문정신문화과, 2014년 인문독서아카데미’ 선정 결과 (2014.4).

(3) 서원르네상스 프로젝트(2014년~)

문화융성시대 인문정신의 부흥과 전통문화 가치 정립의 일환으로 조선시대 학문과 예술의 산실(産室)인 서원(書院)의 이 시대에 걸맞는 기능 및 역할이 필요, 조선시대 고전적인 서원(書院) 기능의 21세기 현실에 부합하는 현대적인 변용(變容) 프로젝트로 전국에 산재한 750여개 서원을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거점기지화 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분	사업 세부내용
사업추진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문화 거점으로서의 서원 기능과 역할 정립 및 강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인문과 인성교육 중심 역할 수행 첨단 문화기술(CT) 적용을 통한 전통문화자산의 재탄생 및 활용 서원 고유 브랜드 활용을 통한 자립운영 기반 마련

자료 : 한국기술문화연구소

문화재청 전국 서원 성적표에 광산구 월봉서원 활용사업 1위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지난 19일 내년도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전국 지자체의 경쟁은 치열했다. 어려운 재정 형편에서도 품격 높은 문화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불러든 105건의 후보 중 국비 지원 자격을 획득한 사업은 60건. 그 중 1위를 광산구의 월봉서원 활용 사업 '고봉 기대승, 방월(氷月)로 기억되다'가 차지했다.

■문화재청, 월봉서원 476점 취 전국 1위

문화재청은 공모에 응한 105건 사업을 콘텐츠 참신성, 운영 완성도, 파급성과 지속성 등 3대 지표 13개 세부항목으로 평가해 계량화했다. 최종 선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평가 결과 월봉서원 활용프로그램은 476점(500점 만점)을 받아 1위에 올랐다.

문화재청은 또 60개 사업을 선정하면서 S, A, B, C 4등급으로 분류했는데, 월봉서원 활용 프로그램에는 최고 단계인 S등급을 부여했다.

이번 선정으로 월봉서원 활용프로그램은 7년간 문화재청 우수 프로그램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2008년 첫 발걸음을 내딛었으니 이듬해부터 전국적인 두각을 보인 셈이다.

■“유치원부터 성인까지 쉽고 재밌게 참여하는 프로그램”

월봉서원 활용프로그램이 인정받는 원인은 무엇일까. 나선화 문화재청장의 말에서 알 수 있다. 지난해 월봉서원을 방문한 나 청장은 “다른 지역 사업과 달리 월봉서원 프로그램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맞춤형 콘텐츠가



월봉서원 활용 프로그램의 효시인 2008년 문화재 생생사업에 함께 한 어린이와 시민들.



독특하다”며 “주변의 자연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고, 교육체험관을 지어 다양한 사업을 연계해 활용도를 높이는 것 역시 모범사례이다”고 평가했다.

문화재청 박동석 서기관도 “월봉서원은 향교·서원 살리기 사업의 목적에 맞게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접근하고 있

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연극, 서원 스테이, 선비 체험, 강좌 등 여러 방식으로 고봉 기대승 선생의 이기 일원론을 현대인들이 알기 쉽게 접하도록 돕고 있다. 또 ▲꼬마 철학자 상상학교 ▲선비의 하루 ▲살롱 드 월봉처럼 유치원 아동부터 노년층 그리고 평범한

시민부터 관련 학자에 이르기까지 세대와 계층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도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다.

■민형배 광산구청장 “관광 프로그램 연계로 지역 대표 문화사업 육성”

현재 월봉서원 활용 프로그램은 ‘서원마을 너브실밥상’처럼 주변 마을에 경제적 효과를 제공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월봉서원 프로그램의 궁극적 목표는 전통을 깨닫는 동시에 우리의 미래를 조망하는 것”이라며 “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과 재미의 균형을 보다 정밀하게 맞추어 가겠다”고 말했다. 민 구청장은 또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해 광산의 대표 문화 사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사광열 기자**

자료 : 대한일보(2015년 11월9일 월요일)

(4) 월봉서원 사례

‘선비의 하루’로 대표되는 월봉서원 사업은 ‘교육문화공동체 결’‘문화기획 라우’‘상상창작소 봄’등과 광산구가 함께 문화네트워크를 구성한 결과물이다. 이 문화네트워크가 지난해 53회 운영한 7개 프로그램에는 주민 2850명이 참가했다.

어린이부터 청년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프로그램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8개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었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월봉서원 홈페이지 www.wolbong.org 에서 사전예약이 필수이다. 참가비는 1인당 5,000원으로 모든 프로그램은 유료이고, 사회적 약자·소외계층 등은 무료이며 참가비는 향교·서원 프로그램 운영과 관리 비용으로 사용된다.

① 살롱 드 월봉

고품격 인문 문화 교류 마당 ‘살롱 드 월봉’

살롱(salon)은 17-18세기 프랑스 상류사회에서 성행하던 정기적인 사교모임을 일컫는 말이다. 이러한 모임이 조선시대에도 있었으니 조선의 기라성 같은 문사들이 모여 아름다운자연을 벗삼아 풍류를 즐겼던 계산풍류가 그것이다. ‘살롱 드 월봉’은 호남 정신문화의 산실 월봉서원에서 이러한 계산풍류 문화를 시민들의 자유로운 참여 속에서 오늘날 되살린 고품격 인문 문화 교류 마당이다.

살롱 드 월봉의 메인 프로그램은 ‘문화 공연’과 ‘주제가 있는 이야기 마당’ 이지만, 메인 프로그램 앞 뒤로 차와 함께 오시는 분들과 인사 나눌 수 있는 다담(茶談)자리와, 살롱의 아쉬움을 떨치지 못한 분들이 이후 시간에 모여 즐기는 요월(邀月)마당 또한 마련되어 있다.

기간 : 2015년 2월 ~ 11월 (총 10회)

대상 : 누구나(회당 50명 내외)

장소 : 월봉서원 강수당(교육체험관)

② 철학자의 부엌

철학자의 사상을 음식에 담다

사상과 문학, 그 안에서 발견하는 철학자들의 레시피는 무엇일까?

생각과 마음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재료가 즐비 하는 세상에서 재료를 어떻게 섞고 어떻게 조리하느냐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자 숙제이다. 철학자의 부엌에는 세상의 모든 배고픈 이들을 위해 고봉 기대승의 레시피를 준비했다. 자신만의 조리법으로 세상을 냉철하게 때론 따뜻하게 만들었던 조선시대 철학자 고봉의 부엌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레시피 하나, 고봉의 매화시와 함께 하는 화전/매실복쌈/매실에이드

레시피 둘, 고봉의 용기가 깃든 오월주먹밥

레시피 셋, 고봉의 배품과 나눔 정신이 담긴 만두/송편

기간 : 2015년 2월 ~ 11월 (총 10회)

대상 : 누구나(회당 20명 내외)

장소 : 월봉서원 일대

③ 꼬마철학자 상상학교

놀이와 예술로 말랑말랑한 철학을 배우다.

“엄마,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호기심 가득한 물음을 던지는 우리 아이들은 이미 꼬마철학자이다. 나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궁금해 하며 깊이 사유하는 사람들이 바로 철학자이기 때문이다. 500년 전, 광산구에 살았던 철학자, 고봉 기대승 선생은 영남의 퇴계 이황 선생과 사단칠정(四端七情)을 두고 불꽃 논쟁을 펼치며 품은 생각을 숨기지 않고 용감하게 세상에 내던졌다. 그리고 500년 후, 고봉의 정신이 깃든 월봉서원에서 몸과 마음을 깨우는 꼬마철학자 상상학교가 이 시대의 꼬마철학자들을 초대하고자 한다.

철학자의 네모/ 단체

감사의 꽃이 피었습니다, 비속어 팽팡 등의 응용놀이를 통해 ‘사단(네 가지 선한 본성)’을 배우고 바르게 사는 방법을 경험한다.

철학자의 보물/ 개인

‘칠정(일곱 가지 감정)’ 관련 미션이 있는 율놀이로 몸과 마음을 깨우며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경험한다.

기간 : 2015년 3월 ~ 10월 (총 10회)

대상 : 유치, 초등생 관련기관 단체 또는 유치초등생 자녀 포함 가족단위(회당 30명)

장소 : 월봉서원 일대

④ 청소년 이기(理氣) 진로교실

‘어떻게 살 것인가!’

조선을 대표하는 성리학자이자, 당대 호남의 대학자였던 고봉 기대승 선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자신과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진로를 탐색해 볼 수 있다.

청소년 이기理氣 진로 교실은 토론 및 체험형 진로탐색 프로그램으로 월봉서원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일부는 직접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교실도 실시한다.

느리게 걷기를 통해 두발로 사유한 철학자의 길 (월봉서원 일대)을 산책하고, DISK, MBTI 등 성격유형검사를 통해 자신의 강점을 찾고 깊이 있게 알아간다.

스스로를 옅게 바라보고자 했던 고봉 선생의 자경설을 읽고 난 후 나의 자경설을 만들어보면서 나

를 찾아가는 여행을 떠나보고자 한다.

이외에도 나만의 부채 만들기, 선비수첩 만들기 등의 다양한 체험이 준비되어 있다.

기간 : 2015년 3월 ~ 10월 (총 10회)

대상 : 중·고등학생(회당 30명 내외)

장소 : 월봉서원 및 해당학교

⑤ 2030 청년선비문화원정대

‘겸약과 절제의 선비문화를 만나다’

문(文)·사(史)·철(哲) 및 시·서·화·에 두루 능했던 조선의 만능 엔터테이너 선비!

500년 조선의 찬란한 역사를 이끈 선비들의 삶과 그 속에 담긴 자기수양과 세상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했던 지식인으로서 선비들의 철학을 배우고, 물질적 풍요를 넘어 정신적 품격을 갖춘 선비정신을 답사를 통해 체험 할 수 있다.

고봉 기대승 선생과 월봉서원으로 대표되는 광주와 호남의 선비문화를 중심으로 하여 영호남 지역의 다양한 선비문화를 둘러볼 수 있는 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답사에서는 옛책 만들기, 탁본체험, 부채 만들기, 나에게 편지 쓰기, 호패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함께 진행된다.

기간 : 2015년 4월 ~ 10월(총 5회)

대상 : 20대 ~ 30대 대학생 (회당 40명 내외)

장소 : 영·호남 일대 선비문화자원

⑥ 선비의 하루

조선시대 선비는 하루 종일 글만 읽는다?

조선 선비의 하루 일상은 어땠을까?

‘선비의 하루’는 서원을 출입한 선비들의 하루 생활을 연구하여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이야기와 활동이 있는 선비들의 일상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당일형, 숙박형이 모두 가능한 월봉서원 대표 체험프로그램이다. 유생복을 갖춘 승덕사 배례(禮)를 시작으로, 철학자의 길 산책(思), 투호놀이 마당(遊), 자경죽자 체험(), 다담(交) 등 자연과 인간, 정신과 몸, 사람과 사람간의 조화로움 속에서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선비의 다양한 일상생활을 통해 오늘날 나의 생활도 반추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기간 : 2015년 3월 ~ 10월 (총 10회)

대상 : 누구나(회당 20명 내외)

장소 : 월봉서원 일대

⑦ 드라마 판타지아

퇴계와 고봉의 아름다운 만남이 연극으로 펼쳐진다

월봉서원 드라마 판타지아(이하 ‘드라마 판타지아’)는 서원에서의 선비 생활을 연극(드라마)으로 재현하면서 배우와 관람객의 구분 없이 극 속에서 하나 되어 서원을 체험하는 공연마당이자 체험마당이다. 퇴계 선생과 고봉 선생의 아름다운 만남을 주제로 한 메인 공연을 중심으로 극 중 관람객들의 원활한 참여를 돕기 위해 사전에 다양한 서원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해 두었다.

드라마 판타지아는 사전 서원 문화 체험과 본 공연마당으로 진행된다. 사전 서원 문화 체험은 본 공연 마당에서의 참여를 사전에 돕는 프로그램으로, 본 공연과 연관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선 경험하는 자리이며, 본 공연마당은 퇴계 이황과 고봉 기대승 선생의 사단칠정논쟁을 중심으로 한 아름다운 만남을 주제로 한 공연이 추가 된다.

관람객들은 배우 일부가 되어 공연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로 참여할 수 있다.

기간 : 2015년 2월 ~ 11월 (총 10회)

대상 : 누구나(회당 50명 내외)

장소 : 월봉서원 강수당(교육체험관)

⑧ 고봉문화제, 고봉학술대회

제4회 고봉문화제 ‘빙심설월(氷心雪月)’ (가제)

고봉문화제는 조선중기 통유로 불렸던 대학자 고봉 기대승 선생의 학덕을 기리고 오늘날 유학을 통한 시대 가치 공유와 문화적 소통을 확장하고자 호남정신문화 산실 월봉서원에서 매년 개최되는 유교축제마당이다.

고봉학술대회

2015년 고봉학술대회는 ‘정치인 고봉 기대승’이라는 주제로 고봉 기대승과 퇴계 율곡과의 정치적 관계를 살펴보는 내용을 다룬다.

기간 : 2015년 10월 30일(금) ~ 10월 31일(토)

대상 : 누구나

장소 : 월봉서원 일대

⑨ 서원마을 관광상품개발

너브실 마을 사람들의 손으로 빚어내다

너브실 마을은 넓다는 뜻을 지닌 광곡(廣谷)마을의 우리말 이름이다. 이름처럼 너브실 마을 앞에는

나주평야의 일부인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고, 골짜기 같은 돌담길을 따라 마을 깊숙이 들어가면 고봉 기대승 선생의 정신이 깃든 월봉서원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너브실 마을에는 여전히 고봉의 후손들이 터를 잡고 살고 있다.

월봉서원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서 이곳을 찾는 발걸음도 많아졌다. 올해는 너브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서원마을 관광상품개발단을 구성하여 방문객들이 월봉서원을 보다 오래 기억할 수 있는 상품을 기획하고 만들고자 한다.

기간 : 2015년 3월 ~ 9월 (총 6회)

대상 : 너브실 마을 주민

장소 : 월봉서원 강수당/ 마을회관

VI. 서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1. 서원관리계획

가. 서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의 목적

- 관리 및 활용의 구체적 목표는 문화재청에서 발간된 『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서원을 품격 높은 문화재로 보존하면서 살아 있는 문화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서원을 문화유산으로서 진정성, 완전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생태적·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보존해 나가기 위함이다.
- 이와 같은 목표는 서원의 건축물 보존관리, 고문서(서적)과 자료의 보존관리, 경관 보전관리, 안전관리 등으로 구분해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서원의 활용과 연계하여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표VI-1> 서원의 관리 및 활용의 목표

대상		구체적 목표
서원의 관리 및 활용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원의 보수 및 정비활용 등에 대한 기본 방향 설정 · 서원의 기초조사방법과 기록에 대한 사항 · 서원의 보존정비의 계획수립 등에 대한 사항 · 서원의 수리와 보존,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에 대한 사항 · 서원의 활용방안에 대한 일반적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사항
	고문서(서적)	
	자료	
	경관	
	안전	

나. 계획의 범위

- 서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의 계획의 범위는 기존의 관계 법령 및 기준을 근거로 하여 다음의 기본 원칙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서원의 역사성, 사회적 역할, 기능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존·관리·활용 방안을 수립한다.
 -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복원은 지양한다.
 - 관계법 분석 등 제도적, 재정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성 있는 재원투자계획을 수립한다.
 - 계획수립 과정에서 관계전문가, 관계기관의 자문, 검토 및 협조를 받아야 한다.

2. 보존관리의 실행체계

- 서원은 건축, 제향, 인물, 고문서, 의례 등 고유한 역사와 전통이 유지되고 있어 종합적 문화가 축적되어 나타나는 인류의 귀중한 문화유산 중 하나이다. 이러한 서원 건축의 보존·관리는 정주형 문화유산(living heritage)인 사찰이나 살림집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 정주형 문화유산(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세계유산 등재 신청서)에서 발췌한 용어로 하회·양동 마을과 같이 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 정주형 문화유산(living heritage)라고 지칭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사찰이나 살림집과 같이 사람이 계속해서 살아오면서 유지 관리되고 있는 문화유산을 정주형 문화유산이라고 지칭하도록 한다)에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활용빈도가 높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편이나, 서원은 제향과 강학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 이러한 서원의 보존이란 단순히 원형 그대로 문화적 상징성을 보전한다는 것이 아니라, 서원이 갖고 있던 사회·문화적인 기능을 재생하고 활용할 수 있을 때에야 완전성과 지속성을 갖출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보존과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이라는 조화로운 보존관리 실행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 현재 서원의 보전관리체계는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서원보전의 목적을 제시하고 보전시행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서원의 보존관리주체는 법이 제시한 기본 목적과 시행의 틀을 적용하여 보전관리를 실행하는 주체로 서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며, 크게 법에 의해 임명된 주체와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주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3. 관리현황 종합

가. 관리주체

- 필암서원은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거쳐 서원관계자에 이르는 다양한 주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 문화재청은 국가차원의 관리주체로 서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적의 보존·관리에 관한 상위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한다.
- 전라남도는 문화유산 보전과 관광사업, 주민복지증진 등의 도정업무를 통해 서원관리와 활용정책 및 지원에 관여하며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에 비해 포괄적이고 간접적인 형태를 취한다.
- 장성군은 문화재청으로부터 필암서원의 보전관리를 위임받은 대표적 관리주체로 마을의 유지보수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준공공적 성격의 보전협의체가 구성될 경우 주민들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여 관리업무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원에는 필암서원 운영위원회가 있다.

나. 서원관리체계의 보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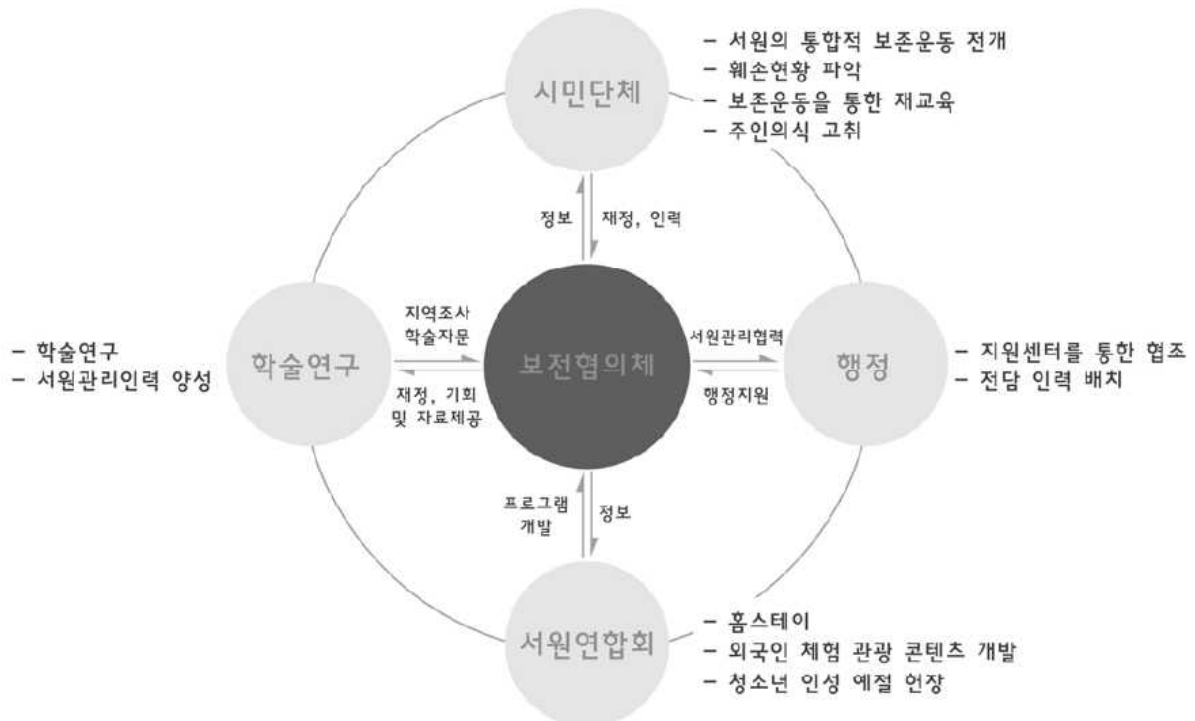
-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된 필암서원의 보전관리는 사적으로서 개념적으로는 광역보존을 추구하지만 실제적인 보존 및 복원행위는 단위건물과 같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하는 점적 보수에 집중되고 있다.
- 사적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국가가 지원하고 주도하는 하향식 보존관리 및 점적·물리적 문화재 중심의 유지관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에 위치한 서원을 보존하고 활용하는데 참여의 폭이 제한된다.
- 국가에서 서원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문화재를 위주로 복원 및 보수를 위한 부분설계에 한정되어 서원 전체의 계획과 설계가 실행되기 어렵다.
- 원형보존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어 서원 관리의 불편이 있고 전통경관의 부분적 변형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다. 준공공단체 수립의 제안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화재청, 장성군, 필암서원 운영위원회, 전문가 및 단체와 행정적

으로 유기적인 연계 통로를 구상하여, 필암서원이 갖고 있는 고유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관리와 활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국가-지자체-서원 운영위원회>의 순환적 체계에서 필암서원의 지속가능한 관리가 되도록 재구성한다. 이를 위하여 준공공단체인 필암서원 보존협의체를 수립하여 관련 집단의 협업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서원보존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보존협의체를 활용한 협업네트워크 구상]

- 시민단체 :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서원의 보존과 관리, 홍보에 대한 전국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고, 자원 보존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한다. 자원봉사자와의 협력을 통해 서원관리능력을 향상시킨다.

- 학술연구 : 필암서원의 학술연구 조직으로는 부설양사기구, 하서선생 기념사업회 등이 있으며 이러한 학술연구 조직을 활용하여 필암서원 관리의 학문적 기반을 마련한다. 역사보존, 관광, 홍보 등 서원관리에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해 보존협의체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 행정 : 해당 지자체인 장성군청 내에 보존협의체 지원센터를 두고 서원 관리와 관련된 전문직 공무원들을 배치한다. 공무원과 보존협의체의 긴밀한 행정협조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서원관리 주체의 역량을 향상시킨다.

- 서원연합회 : 방문객의 수와 관광유형을 조절하기 위해 단체관광객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여행사 등 관광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서원 관광에 대한 사전정보를 제공하고 방문객을 교육하여 관광으로 인한 혼잡을 방지한다.

라. 준공공단체 수립의 전제 조건

- 서원의 보존·활용계획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협의체 수립을 위한 전제조건을 주체, 대상, 주체와 대상이 구성하는 체계로 정의하고 그 기본 목표와 내용을 분석한다.

<표 VI-2> 서원의 지속가능한 보존·활용계획 요소

요소	기본 목표	내용
주체	활동의 모체가 되는 조직의 확보	역사유산의 이해 / 활동의욕
	행정의 협동체계	교육 / 주체 활동의 지원 / 계획의 수립
대상	정주환경의 지속성	생활환경 보전 및 향상 / 경제적 기여
	문화유산의 지속성	자원의 발굴 / 재인식 / 보존
	방문객 만족도의 지속성	환대의식 / 정보제공 / 쾌적한 환경
체계	정보공유와 협동체계 정비	정보 및 정책결정의 공유
	수익환원 체계 형성	관광 수익에 의한 자원 확보
	모니터링의 결과 반영	관광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1) 주체

- 필암서원의 보존 및 활용을 계획하고 실현시킬 주체는 주민이다. 주민이 조직한 운영위원회를 포함하는 보전협의체가 중심역할을 하며, 향후 필요한 실무인력과 공무원, 전문가의 참여 및 지원을 확보한다.
- 보존·활용에 관련된 마을의 조직과 주민들은 마을의 역사유산의 의미를 충분하게 이해하여 마을관광의 계획과 실무에 의욕적인 활동을 보일 것이며, 마을 외부와의 협력적 관계를 통하여 제도적 지원과 행정적 협조를 얻는다.

2) 대상

- 필암서원의 지속가능한 보존·활용의 기본적인 목표는 주민의 정주환경을 보호하고, 고유의 문화적 지속성을 확보하면서, 그것을 서원 방문객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 또한 마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현재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새로운 유산을 발굴하여 쾌적한 환경과 환대 속에서 방문객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한다.

3) 체계

- 필암서원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서원의 보전협의체에 주민 참여를 더욱 확장하고, 관람자원을 관리할 운영조직을 갖춘다.
- 보전협의체 내에서는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서원에서 진행할 관광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한다. 이러한 조직적인 활동을 통하여 서원의 보존·관리프로그램과 운영조직을 유지하고 관리할 예산을 뒷받침할 관람수익을 확보하는 경제 구조를 갖춘다.
- 정부는 보전협의체와 관광운영조직이 조직되어 운영되기 위한 제도적 환경을 만들고 보전협의체 구성과 운영의 초기 재원을 지원한다.

마. 준공공단체 수립의 전제 조건

1) 보전협의체

- 보전협의체는 필암서원 운영위원회가 보전·활용에 대한 초기 기획과 내용을 제안하고 향후 보전협의체에서 실무를 담당한다. 보전협의체는 참여하는 주민과 전문가, 공무원 등의 의결을 통하여 보존관리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행한다.

<표 VI-3> 보전협의체의 주요 활동 내용

구 분	주요 활동 내용
보전협의체	연간 관광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관광운영을 담당하는 조직의 구성과 주요 보직의 임명
	관광운영조직의 관리규칙의 제정 및 개정
	관광 프로그램의 모니터 인력의 채용, 모니터링 결과의 승인
	관광객의 방문에 응대하는 방법과 태도, 권리 등에 대한 주임 교육
	관광 수익의 관리 및 마을발전기금의 조성 및 사용

2) 관광운영조직

- 관광운영조직은 관광 실무의 실행을 담당하도록 한다. 필암서원은 운영위원회가 관광운영조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보다 적극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단법인 자격을 갖추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 보전협의체가 운영위원장, 학예사 2~3인, 사무국장, 감사를 임명하며, 운영에 필요한 다른 인력은 학예사와 사무국장과의 협의를 거쳐 운영위원장이 고용하도록 한다.

VI. 서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표 VI-4> 관광운영조직의 주요 역할

구 분	주요 역할
관광운영조직	연간관광 계획의 작성
	문화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문화자원의 발굴과 개발
	관광 운영인력의 고용과 교육
	관광으로 인한 주민불편의 해소
	방문객 서비스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
	이용 요금 등의 징수
	폐기물, 하수, 쓰레기 등의 처리
	방문객의 안전확보, 문화유산의 보안, 훼손 예방 및 관리
	관광 홍보

3)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 보전협의체와 관광운영조직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제도적 환경을 만들며,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한다.

<표 VI-5>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주요역할

구 분	주요내용	상세내용
문화재청	재원 지원	마을환경의 개선, 문화재의 복원 및 보수, 전시시설 설치
	교육 지원	마을 주민에 대한 문화재 관련 교육 실시
	제도 마련	관광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활동에 대한 제도 마련
전라남도 장성군	인력 지원	문화재 담당공무원, 관광 담당공무원, 보전협의체와 연계
	행정 지원	관광운영조직 구성, 법적 자격 취득에 관한 행정적 지원
	교육 지원	마을보존·활용프로그램 운영, 주민의 능력개발에 대한 기회 및 교육 지원
	재원 지원	초기 운영 재원 지원

4. 활용계획

가. 기본원칙

■ 관리단체는 서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해야한다.

- 서원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고려하여 지역 주민 등을 위한 적절한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서원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 전시, 체험, 출판, 도록 등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서원 내 건물을 직접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관리단체는 구체적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의 승인 등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지속가능한 활용프로그램의 개바과 관리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한다.

<표 VI-6> 서원 문화의 활용 및 프로그램의 개발유형

프로그램 유형		주요 내용
체험	교육의례	· 서원제향의례 등 유교의례 이벤트 프로그램 · 유림과 대화, 의미와 해설 체험 · 교육의례 : 강학, 시회 등
	전통교육	· 향약, 향음례, 향사례, 향회, 새로운 의례의 발굴 개발 · 고강(시험), 동서재 기숙 등 서원생활 문화체험 · 유림과의 토론 · 교육 및 학문 체험프로그램 : 교육과정, 교과서, 규약 체험 등
답사	문화유적	· 유교문화 성격별, 권역별 코스 개발 · 건물, 전적, 목판, 고문서, 금석문, 생활사 유적 유물 답사 · 관련 역사 사건이나 인물 일화의 저술, 업적, 유적 답사 · 관련유적 : 서당, 종가, 누정, 재실, 정려 등
	인물사상	· 인물연구, 교육 프로그램으로 특화 · 시대, 인물, 주제(위병 도학, 사람정치)교육 · 주요 인물 관련, 마을 탐방 및 종가체험 · 서운의 고문서 조사와 번역
관광 및 홍보	공간활용	· 학교 교육과 연계, 문화 교육행사장으로 적극 활용 · 기존 문화유적 최대 활용, 주제별 답사와 체험 · 고전강독, 한문, 족보특강, 정신학술 교육 등 · 대학연구소, 학술행사 유치, 교육청과 연계
	전시홍보	· 유물 및 소장자료 전시 · 인물유품, 유교문화재, 고문서 전적, 금석문 · 정려 특별전시회 개최, 기증 및 위탁 전시가능 · 자료 조합정리 (교양서 안내서 발간), 학술세미나

나. 서원 활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사용

■ 서원은 제향과 교육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갖고 지어진 건물로서 각각의 공간에는 거기에 맞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서원 건물을 사용하여 활용할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공간이 갖고 있는 내포적 의미를 고려하여 알맞은 활용법을 강구해야 한다.

- 사당, 재실, 전사청의 활용 : 제향 인물에 대한 향사
- 강당, 재실의 활용 : 서원과 집단학습을 목적으로 함
- 동재, 서재의 활용 : 서원 숙박체험

<표 VI-7> 서원의 프로그램 및 활용

프로그램 유형		활용공간	활용내용
교육의례	제향	사당, 재실, 전사청	제향 인물에 대한 향사
전통교육	한자교실	강당, 재실	학생을 대상으로 집단 학습
	예절교실	강당, 재실	학생을 대상으로 집단 학습
답사	동아리 학습	강당, 재실	취미나 학습 동아리 활동
	한옥체험	재실	전통 한옥 휴게 체험
	현장답사	서원 전체 및 주변 경관	서원의 역사·건축·경관 답사
관광 및 홍보	전시공간	전시장 및 서원영역	서원의 역사·인물·유물 전시

다. 시설물 관리와 활용의 주의사항

■ 서원의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한번 상실한 원형은 형태를 재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갖고 있던 고유한 역사성은 상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활용보다 더 중요한 건 보존관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존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다음 몇 가지 주의사항은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 서원 내 별도로 지정된 단위문화재는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 건축물의 높이와 규모는 과도하게 초과해서는 안 된다.
- 건축물의 전체적인 형태는 서원의 경관에 어울리도록 하여야 한다.
- 외부로 노출되는 기단부와 초석은 반드시 석재를 사용하되 건축물의 기능과 용도, 규모에 맞게 하여야 한다.

- 건물 외부로 현대재료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 이미 원형을 훼손한 건물은 원형으로 복원한다.
-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인위적으로 변형된 자연 경관은 가능한 원형을 회복한다.

라. 활용방안

1) 유교문화 활용 소재

■ 문화브랜드 가치 활용

- 수백년간 지속되어져온 서원의 전통문화유산은 긴 세월동안 서원에 전해지는 역사, 건축, 경관, 기록유산 등의 유·무형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회적인 도서출판, 의례, 정치 등 복합적 문화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교육공간까지 잘 남아있다. 서원 자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교육기능을 되살리고, 성리학의 총본산인 서원을 현대적인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지성사의 거점 기능

- 서원은 학맥과 지성문화를 대표하는 유교문화 유산이며, 저명한 성리학자의 제향, 한국 서원 교육, 역사 변천의 증거물, 거점공간으로서 서원의 활용가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제향 인물에 대한 이해는 한국의 역사, 철학, 문화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따라서 이들 공간은 학문의 전당으로서 한국, 더 나아가 동양의 역사와 사상 및 철학을 배우는 교육과 학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제향의례의 전통

- 서원은 유교의 예(禮)가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의례화 된 곳이다. 이들 의례는 예를 중요시 하는 유교의 정신과 문화를 밝히고 후대에 널리 전승하는 차원에서 계승,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지역정체성 확립

- 서원은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공동체를 확립하는데도 활용할만한 가치가 있으며 서원에는 해당지역에 유서를 둔 명현들이 제향되어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이해는 곧 지역문화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상기시키는데 유용하다. 또한 서원의 강학례는 원래 목적 지역 사람들의 결집을 강화하는 의례였던 만큼, 그러한 점을 현대적으로 재창조하여 시행한다면 서원이 지역공동체 정신을 강화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VI. 서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 전통 교육 공간의 유산적 가치

- 서원의 대표적 기능인 전통교육(강학)문화의 체험공간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며 현재 서원이 전통문화의 체험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은 극히 드물다. 그러나 서원 자체적인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있어 활용가능성 또한 높다고 판단된다.

■ 활용가능 콘텐츠

- 긴 세월을 이어온 교육, 의례, 운영기록문서
- 학칙규약의례 : 원규, 절목, 계(약)헌, 홀기, 의례
- 교육, 성적기록 : 강안, 강화록, 고강록, 장서, 출판
- 재정, 운영 전답안, 노비안, 명문
- 창건, 연혁기록 : 상량문, 창건통문, 중수기, 중기, 수리기, 공적비
- 학맥, 정치 : 통문, 소청, 시도기, 고왕록, 사회 등

■ 서원의 문화적 재활용은 이러한 본연의 제 기능과 역할, 그리고 역사적 의미와 변천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서 시작할 수 있으며, 서원의 다양한 역사문화원형콘텐츠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재도입하여 박제화 된 문화재가 아닌 살아있는 문화재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2) 기존 프로그램의 확대

■ 오늘날의 서원이 서원자체의 교육기능은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형태로 교육이 부활되고 있다. 서원은 물자가 끊어져 더 이상 교육을 할 수가 없어 지방자치 단체의 시설지원이나 비용 보조를 받아 운영에 충당하고 있다. 선도적인 서원의 경우 시설 부족을 확충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시설을 별도로 설립하여 서원의 교육 내용을 담아가고 있다.

■ 장성군에서는 학문을 숭상하고 호국충절 정신이 투철한 선비의 고장으로서 자랑스러운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바람직한 정신문화 함양과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필암서원에서 선비학당을 운영해 오고 있다.

■ 1999년 4월 29일 필암서원내 청절당에서 강사(훈장, 박래호동양학연구원 원장)를 초빙하여 주 3회 2시간씩 매회 20여명이 참여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사자소학, 명심보감, 대학, 효경, 하서 김인후 등 장성출신 학자의 사상과 정신에 대한 것이다.

■ 집성관은 필암서원의 선비문화 교육 체험장을 말한다. ‘문불여 부불여 장성에서의 1박2일 캠프’는 초중생을 대상으로 하서 김인후 선생의 일대기, 조선 왕세자 교육 체험, 박수량 백비를 참배하며, 인

중을 향한 충절, 조선시대의 왕세자 교육, 청렴정신 등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개관초기인 2011.8월부터 2011.10월까지 매회 30명씩 7회를 실시하여 모두 183명이 참여 하였다. 관외에서는 광주, 보성, 무안, 경기도, 대전 등지에 참여 하였다. 외국인과 함께하는“두번째 나라 한국 체험”: 2011 문화재청 문화재 생생 사업으로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필암서원 선비체험]

3) 서원 교육 프로그램 활용

■ 필암서원은 전학후묘의 구성 원리에 따라 정문에서 시작하여 앞쪽에는 학문을 배우고 익히는 강학 공간으로 구성하고, 중앙의 강당을 지나 서원 뒤쪽 가장 높은 곳에 배향 공간인 사당을 배치하였다. 이러한 서원의 공간을 영역별로 구분하여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서원향사체험
- 주변 초·중·고등학교와 연계한 한글백일장 개최
- 시조 및 음악 공연(확연루를 활용한 소공연 활성화)
- 김인후과 필암서원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 기업체 및 연구기관의 연수 유치

[필암서원 영역별 주요 건축물]

공간구분	영역별 주요 건축물
강학공간	확연루, 진덕재, 송의재, 경장각
제향공간	우동사, 전사청, 내삼문
부속공간	장판각, 고직사, 한장사 등

4) 서원 체험 프로그램 활용

-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서원인 필암서원을 보고 듣기만 하는 간접적인 체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원과 주변 경관을 경험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답사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필암서원으로 찾아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한다.
- 향후에는 서원이 기존부터 갖고 있던 교육적·체험적·전통적인 문화를 발굴하고 현대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서원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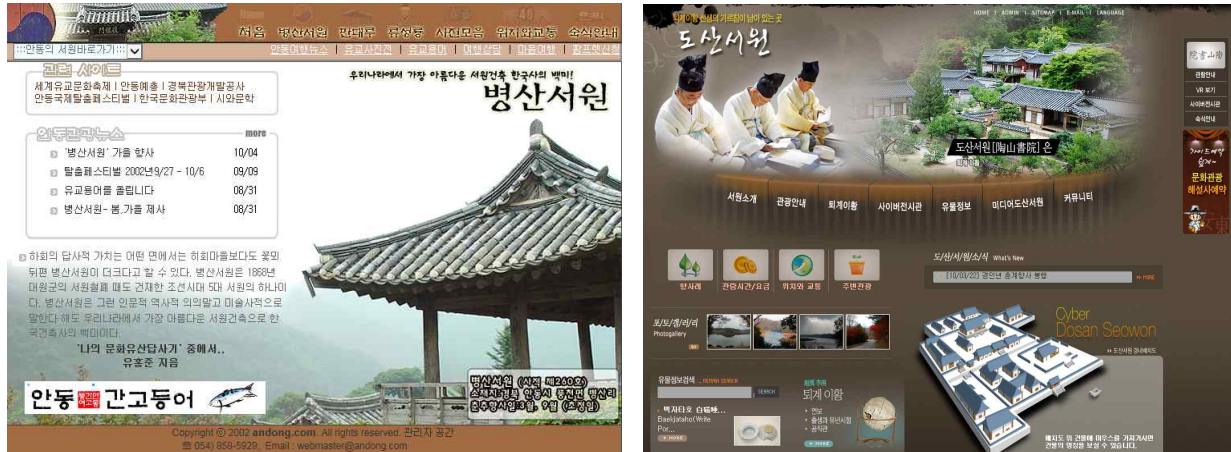
[도산서원 스테이의 종류]

체험형 서원스테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학체험, 제향체험, 서원의 건축 이야기 · 동재·서재에서 숙박 · 활인심방, 예절교육 및 선비 체험을 통해 힘든 일정이지만 일정을 거치며 자신을 돌이켜 보는 시간과 효과 제공
휴식형 서원스테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산 9곡을 따라 풍광체험 · 아름다운 도산서원의 풍경과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휴식을 취하며, 정해진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으며, 기초적인 규칙과 함께 자신을 찾아가는 여행의 의미를 부여

- **서원스테이** : 서원이 갖고 있는 강학과 제향만을 경험해 보는 것이 아니라, 서원의 건축, 음식, 예절 등의 복합적인 전통 문화를 경험하고, 자연스럽게 체험으로 느낄 수 있는 서원스테이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 **필암서원 둘레길 활성화** : 필암서원에서 필암마을을 지나 조망공간으로 이루어지는 둘레길을 활성화하도록 한다. 필암서원에서 선비의 정신을 체험하고, 둘레길에서는 경관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필암마을에서 마을의 정취를 느낌으로 전통 민속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하서 김인후 관련 유적 탐방프로그램 개발** : 필암서원과 맥동마을을 연계한 탐방코스를 마련하여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한다. 봉암서원, 고산서원을 비롯한 장성지역 대표적 서원탐방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필암서원 사액재현**
 - 필암서원은 조선시대 국왕의 추천을 받는 사액서원으로 홍선대원군의 서원철폐정책에도 제외되어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해온 전통적인 서원이다.
 - 필암서원이 사액받은 당시의 모습을 재현하여 관람객들과 서원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하서 김인후선생의 본산인 필암서원에서 사액을 재현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될 것이다.

5. 홍보방안

- 필암서원은 아직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리플렛(leaflet) 및 행사정보 등을 홍보하기 위한 방안이 더 마련되어야 하며, 또한 이를 보다 더 효율적이고 현대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타 서원 홈페이지 예시]

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제작

- 필암서원을 소개하는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필암서원의 기본 정보를 안내하고 자체 행사 안내 및 체험프로그램도 연계하여 활용 가능하도록 한다.
- 그 뿐 아니라, 안내 사진 및 추가 관광 정보를 담고, GPS를 통한 지도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변 상권과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안내를 돕기 위해 영어·중국어·일어 등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각종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 QR코드를 활용하여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각종 인쇄 매체 등을 통해서 인터넷 정보를 통해서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적용하고 QR코드를 이벤트 등과 접목하여 관련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개발한다.
- QR코드로 접속하여 필암서원 어플리케이션으로 직접 링크할 수 있게 하여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나. 필암서원 E-BOOK 제작

- 관람객들에게 서원에 대한 친숙함을 전달하기 위하여 우선 서원을 관람하기 전에 사전정보를 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서원의 역사, 사건, 인물 등을 기록하여 E-BOOK으로 제작한다. 또한 현재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재되어 있는 필암서원의 책판, 목판 등을 국역화하여 E-BOOK으로 제작하고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
- 그리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마찬가지로 필암서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암서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연, 전시, 교육, 체험 등에 대한 사항을 월간지로 발행하여 관람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개인 소셜 미디어나 블로그 등에 탐방 수기를 올린 사람에게 상품이나 상금을 지급하여 관람객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E-BOOK 예시]

VII. 사업추진계획

1. 사업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필암서원은 조선시대 미 훼손 서원 중 하나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온 한국의 대표적인 서원으로 건립 당시의 정신, 역사적 가치, 문화재적 가치, 그리고 현재의 역할까지 복합적인 고민을 반영한 사적지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문화재 보존을 우선하되 특히 정비사업과 실생활을 하면서 변화된 부분을 원형으로 최대한 환원하도록 하며, 사적지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필암서원 일대의 자연경관의 가치를 높이고, 필암서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주변경관을 정비해야 한다.
- 사업시행시기의 조정을 통하여 특정기간에 개발사업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 장성군의 재정부담 완화를 도모함은 물론 장래 관광여건의 변화에도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 본 계획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예산지원이 필수적이므로, 해당 세부사업추진에 있어서 문화재청 및 관련기관의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한다.
- 종합정비계획의 실행을 위해 현재 토지이용 현황과 장래 관광수요, 군의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정규모로 수립한다. 공사비는 단계별, 공정별로 효율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의 집약적 조성과 공간별 사업시행으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필암서원 주변에서 이루어질 일부 개별사업은 그 내용과 규모에 따라 정도는 다르지만 필연적으로 현상변경을 초래하게 되며, 현상변경이 초래하더라도 무분별하지 않고 기본계획안에서 유적과 조화로 우며, 최대한 자연경관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표VII-1> 필암서원의 보전상태에 따른 개선방향

구 분		필암서원
경관	단기	- 서원 전면 공원공간의 전통경관 회복
	중기	- 신규 시설물 주변 조경 필요(경관차폐)
	장기	- 공원이역 식재 종 관리
건물	단기	- 고직사 보수
	중기	- 건물 단청 보수
	장기	- 노후 건물 개보수
무형/활용	단기	- 방문객 서비스 향상
	중기	- 신규 방문객 프로그램 개발
	장기	- 체계적인 주변 시설물의 활용 계획 필요

나. 단계별 추진방향

- 전체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사업의 추진은 정비의 우선 순위 및 투자여건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한다.

<표Ⅶ-2> 단계별 추진계획

단계	사업 내용	
1단계 (서원영역정비)	서원정비	필암서원의 진정성과 완전성 회복을 위한 정비 (건축물 안전진단, 경미한 보수)
	주변정비	관람의 편의를 위한 필암서원 전면의 조망경관 확보 (경관계획 수립 및 수목이식)
	관광테마개발	필암서원특화프로그램, 하서 김인후선생 역사이야기, 서원체험 프로그램 개발, 해설사 역량강화
2단계 (서원시설정비)	해당 문화재의 이해도모를 위한 시설 및 관람편의시설 정비 (문화해설센터 조성, 조망공간 조성)	
3단계 (서원주변정비)	당해 문화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문화재주변 관람편의시설 정비 (문화재 안내판 및 이정표)	

1) 1단계 : 서원영역정비(2016년~2017년)

- 서원영역정비 선정의 기준 : 최우선 시행사업
 - 필암서원 내 유적보존과 직접 관련된 부분 및 보수정화사업으로 인한 변형부분
 - 재원마련이 용이하거나 이미 확보되어 있는 분야
 - 사업에 따라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초기 추진단계 부터 시작
- 서원영역정비의 대상사업과 추진방안
 - 건축물정비 : 청절당 및 진덕재 건축물 안전진단, 건축물 외부벽면 보수, 확연루 하부공간 정비 등
 - 주변정비 : 서원 전면 공원공간의 전통경관 회복을 위한 경관계획 수립 및 수목 이식
 - 필암서원 특화프로그램/서원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맥동마을 스토리텔링 등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

2) 2단계 : 서원시설정비(2017년~2018년)

- 서원시설정비 선정의 기준
 - 1단계 연장선의 사업
 - 유적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이루어진 후 선행되어야 할 사업
 - 재정조달에 있어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사업

■ 서원시설정비의 대상사업과 추진방안

- 문화해설센터 조성 및 필암서원 배면 조망공간 조성
- 관람편의시설 : 문화재 안내판 및 이정표 정비 등

3) 3단계 : 서원주변정비(2019년 ~ 2020년)

■ 서원주변정비 선정의 기준

- 서원 정비 및 보수가 이루어진 이후 필요한 사업
- 재정조달 및 실시절계에 있어서 사전 준비가 많이 필요한 사업

■ 서원주변정비의 대상사업과 추진방안

- 하서 김인후 선생 역사이야기 : 맥동마을 내에 위치한 난산비, 신도비, 백화정 주변 정비 및 안내판 설치, 역사 싸인물 설치 등

<표Ⅶ-3> 단계별 정비계획

단계	항목	사업내용	비고
1단계 서원영역정비	서원정비	건축물 안전진단	청절당과 진덕재
		경미한 보수	건축물 외부벽면 및 훼손 부분 보수
	주변정비	경관계획 수립 및 수목이식	필암서원 전면의 조망경관 확보
	관광테마 개발	필암서원 특화프로그램	연령대별 프로그램, 고문서 및 자료활용
		하서 김인후선생 역사이야기	맥동마을 스토리텔링
		서원체험 프로그램 개발	
		해설사 역량강화	
2단계 서원시설정비	시설물 정비	문화해설센터 조성	
		조망공간 조성	필암서원 배면 조망공간 확보
	관람편의시설	문화재 안내판 및 이정표	종합안내판, 개별 안내판, 이정표 등
3단계 서원주변정비	주변정비	문화재 주변 정비	신도비, 난산비, 백화정

2. 사업투자계획

가. 사업내용별 투자계획

- 전체사업의 일괄 실행은 불가하므로 시기별·단계별 추진을 통해 재정 부담을 분산하도록 한다.

<표Ⅶ-4> 단계별 추정사업비

(단위:천원)

단계	항목	사업내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1단계	서원정비	건축물 안전진단	2	식	10,000	20,000
		경미한 보수	1	식	80,000	80,000
	주변정비	경관계획 수립 및 수목이식	1	식	140,000	140,000
	활용계획	필암서원 특화프로그램	1	식	60,000	60,000
		하서 김인후선생 역사이야기	1	식	30,000	30,000
		서원체험 프로그램 개발	1	식	30,000	30,000
		해설사 역량강화	1	식	30,000	30,000
	소계					390,000
2단계	시설물 정비	문화해설센터 조성	1	식	100,000	100,000
		조망공간 조성	200	m	200	40,000
	관람편의 시설	문화재 안내판 및 이정표	1	식	80,000	80,000
	소계					220,000
3단계	주변정비	문화재 주변 정비	1	식	150,000	150,000
	소계					150,000
합계						760,000

- 1단계에서는 서원정비 및 주변정비를 추진하며, 서원정비부분인 건축물 안전진단, 건축물 외부벽면 및 훼손부분 보수 등에 100,000천원, 주변정비부분인 서원 전면의 공원공간의 전통경관 회복을 위한 경관계획 수립 및 수목이식에 140,000천원, 활용계획(필암서원 특화프로그램 등)에 150,000천원의 사업비가 발생하여 1단계 사업비의 총 금액은 390,000천원이다.
- 2단계에서는 문화해설센터 조성, 조망공간 조성, 문화재 안내판 및 이정표 등 관람편의시설 정비로 총 220,000천원이 소요된다.
- 3단계에서는 하서 김인후 선생의 고향인 맥동마을의 난산비, 신도비, 백화정 주변 정비 및 안내판 설치 등 문화재 주변 정비 비용으로 150,000천원이 소요된다.
- 따라서 총 공사소요금액은 760,000천원이 발생하게 된다.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정 2009. 9. 24. 문화재청 예규 제77호

개정 2011. 4. 1. 문화재청 예규 제95호

개정 2014. 3. 11. 문화재청 예규 제13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단체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사적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사적의 종합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정비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①문화재의 원형 보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②학술연구와 고증을 통하여 문화재의 진정성 및 가치가 유지되도록 보수·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무분별한 과잉복원은 지양한다.

③문화재의 특성과 관계법령, 주변상황 및 재정여건 등 제반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이 합리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며, 중장기적으로 정비사업의 실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정비계획 수립의 주체 및 방법 등

제4조(정비계획 수립의 주체) 정비계획은 법 제34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해당 문화재의 관리단체가 수립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등이 관리단체로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추진계획의 작성 등) ①관리단체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먼저 이에 관한 추진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목적 및 방침
2. 정비계획의 수립 방법(연구용역 또는 자체검토 등)
3. 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한 세부계획
4. 추진일정
5. 향후 시행방안
6. 기타 추진계획 작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정비계획의 연구용역) ①관리단체는 충실한 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으며, 문화재에 관하여 이해가 깊고 해당 분야 전문인력의 참여가 가능한 관련 연구기관 등이 연구용역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용역발주기관(관리단체)은 정비계획에 담아야 할 과업내용을 충실하게 제시하고 용역수행기관으로 하여금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등을 포함한 관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과업진행 초기단계부터 중요 사안에 대하여 자문하고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관리단체는 연구용역을 착수하면 착수일부터 15일 안에 그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문화재청장은 관리단체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조언·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제3장 정비계획의 수립

제7조(정비계획의 수립 시기 및 주기) ①관리단체는 사적의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안에 해당 문화재의 성격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5년 또는 10년 단위의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사적에 대하여는 세계유산 정기보고 주기에 맞추어 6년 단위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장한다.

②관리단체는 정비계획 수립 이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 및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이를 조정·변경할 수 있으며, 정비계획의 시행 종료 이전까지 새로운 정비계획의 수립이 필요한지 등에 대하여 재검토 하여야 한다.

제8조(정비계획의 체계 및 내용 등) ①정비계획의 수립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작성하되,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 보고서 작성예시에 따른다.

②왕릉, 고분군 등이 동일한 역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거나 근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정비계획의 수립은 사전에 해당 유적과 관련되는 인물, 문학, 회화, 건축, 구비전승, 음악 등 인문학적 고증자료를 지역 향토사학자 및 관계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문헌적 형태로 구비하여야 한다.

제9조(정비계획의 수립 시 유의사항) 관리단체는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1. 사적의 유형별·시대별·지역별 특징 및 성격 등에 맞게 문화재별로 그 가치를 살려서 특성화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2. 역사적 사실과 연구고증을 바탕으로 보수·정비를 추진한다.
3. 문화재의 진정성과 활용 가능성 그리고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타당성·적절성과 함께 실효성을 확보한다.
4.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현황조사, 사유지 매입, 발굴조사 및 고증, 정비사업 및 활용 등의 추진과정으로 진행되도록 한다.
5. 관계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이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합리성을 강구한다.
6. 사적 주변의 역사문화경관 외에도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활용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와 문화재의 가치 및 효용성을 높인다.
7. 정비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담당공무원, 연구용역 수행자 및 자문위원은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객관적 사고를 견지하여야 한다.
8. 사적과 그 세부유형별·종류별 문화재의 수리·복원·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검토한다.

제10조(정비대상별 고려사항) 관리단체는 정비대상별로 다음 각 호의 고려사항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1. 유적 및 유구(궁궐지, 사지, 주거지, 성지, 분묘, 요지 등)의 정비
가. 기존 유구가 더 이상 변형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존·관리한다.

나. 성벽, 고분·능·묘 및 지식묘 기타 유구 등이 유실되어 일부 남아 있거나 붕괴될 위험이 있는 경우

에는 그 부분만 원형에 충실하게 보수 정비하고 학술적 고증 없이 추측에 의한 복원은 지양하며, 사적과 관련 없는 시설물(콘크리트 구조물 및 인위적인 시설물)은 철거·정비한다.

- 다. 기존의 유구가 노출되도록 수목을 제거하거나 기타 필요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라. 유구의 보양이 필요한 부분은 잔디심기 등의 방법으로 보호 조치한다.
- 마. 유구는 노출시키는 방법과 복토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정비한다.
- 바. 노출 유구 중 붕괴 및 이탈 우려가 있는 유구는 제자리에 정비한다.
- 사. 석재는 보양하여 손상되지 아니 하도록 한다.
- 아. 유구 위에 성토하여 보존·정비할 경우 유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나무와 잡초는 제거한다.
- 자. 유구에 나무나 기타 지장물이 있는 경우에는 제거하며, 매장문화재의 분포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뿌리 제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차. 복토한 지반에는 토사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잔디 또는 지피식물 등을 식재할 수 있다.
- 카. 유구의 붕괴 우려가 있는 구간은 보강방법을 강구하여 기존의 양식이나 수법 등과 같이 보수 정비하여야 한다.
- 타. 도굴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현 지형이 훼손된 경우에는 복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기존의 유구가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 파. 사적 안의 지형이 복토 또는 절토로 인하여 원래의 지반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할 수 있다.
- 하. 매장문화재의 분포가 예상되는 구역은 현 지반을 절토하거나 고르기 하면 아니 되며, 복토하여 표면 고르기 등의 정비를 할 수 있다.

2. 건물지의 정비

- 가. 건물지 유구는 그 성격 및 보존여건 등을 고려하여 노출 정비 또는 복토하여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 나. 건물지의 초석, 기단석 기타 유구가 균열·파손·풍화가 심한 경우에는 과학적 보존처리를 하여야 한다.
- 다. 건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수복할 수 있다.
- 라. 기단 및 계단의 경우에는 전체를 해체하지 아니 하고 변형·훼손된 부분만을 정비한다.
- 마. 기존에 남아 있는 건물은 그 형태대로 보존 정비한다.

3. 석축 및 배수로의 정비

- 가. 석축의 설치는 필요한 경우 현 지형을 고려하여 최소 높이로 하되, 높은 곳과 낮은 곳의 경사면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한다.
- 나. 붕괴 위험이 있는 기존 석축은 수리하되, 쌓기 기법 및 재료는 기존방법과 동일한 수법으로 한다.
- 다. 배수체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지반의 높이가 변형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계획하여 정비한다.
- 라. 배수로는 되도록이면 인위적이지 않도록 자연측구(토사측구)로 계획하고 지형상 불가피하게 배수 구조물이 필요할 경우에는 석축 배수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4. 보호구조물(보호각, 보호책)의 설치

- 가. 사적 안의 유구 등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보호구조물의 구조, 형태 및 기능은 유구와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2) 보호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입방지시설이 갖추어진 보호책을 설치할 수 있다.
- 나. 보호책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보호책의 높이와 형태는 보호대상 유구의 훼손정도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유구 훼손의 정도가 심하고 보호가 시급한 경우에는 유구지역을 주변 환경과 격리되도록 설치한다.
 - 2) 설치위치는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지장이 없고 관람 및 사진촬영 등에 지장이 없도록 정한다.
 - 3) 보호책의 높이는 해당 문화재를 위압하지 아니하고 관람시야가 차폐되지 아니 하도록 낮게 설치한다.

- 4) 같은 지역 안에 여러 점의 문화재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설치하지 아니하고 종합적으로 넓게 설치할 수 있다.
 - 5) 보호구조물과 보호책을 설치할 때에는 유구로부터 일정간격 이격하여 유구를 훼손시키지 아니 하여야 하며, 재질·색깔 및 형태 등이 유구와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주변 환경정비
 - 가. 수목의 제거
 - 1) 유적 및 유구의 보존관리상 지장이 되는 수목은 제거한다.
 - 2) 전통수종 및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은 보존 조치한다.
 - 나. 표지 설치

유구의 중요한 지점에는 유구의 위치와 유구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표지를 설치한다.
 - 다. 조경 정비
 - 1) 해당 유적 및 유구 안은 수목 식재 및 정원석 배치 등의 조경을 하지 아니 하고 기존 상태로 보존한다.
 - 2) 외래수종은 가급적 제거하고 전통수종으로 정비한다.
 - 3) 조경식재는 사적 주변에 자생하고 있는 수목이나 식생 조사를 실시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 라. 관람통로의 정비
 - 1) 유구를 훼손하지 아니 하고 경관을 저해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관람통로를 설치할 수 있다.
 - 2) 사적 안의 통로 및 마당 등의 기존 지반은 임의로 변형하지 아니 한다.
 - 마. 경계울타리 설치

사적의 경계를 나타낼 수 있도록 담장이나 기타 방법으로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
 6. 화장실 등 편의시설의 설치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사적 안의 문화재의 품위 및 주변경관을 저해하지 아니 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7. 관리사무소 설치
 - 가. 사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 등의 관리시설에 문화재의 경관이 차단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관리사무소의 위치는 해당 문화재(지정구역)나 문화재가 근접한 곳을 피하여 정한다.
 8. 전시시설(전시관, 야외전시물)의 설치
 - 가. 전시관은 유물조사를 선행하여 전시계획이나 규모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나. 문화재의 특성 및 경관 등을 고려하여 위치, 규모 및 형태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다. 전시할 대상물 및 유물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에는無理하게 전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하도록 한다.
 - 라. 사적안의 공간 활용을 위하여 야외전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9. 문화재 소방방재시설의 설치
 - 가. 사적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소화전, 소화기, 방화사 및 방화수 등의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나.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감시시스템 및 도난방지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
 10. 문화재안내판 등의 설치
 - 가. 문화재안내판은 해당문화재를 위압하지 아니 하도록 적정 규모로 하며, 문화재의 경관 및 관람동선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사적의 구역이 광범위하거나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는 관람편의 및 문화재 홍보를 위하여 문화재 안내판을 여러 장소에 각각 설치할 수 있다.
 - 다. 기타 문화재안내판의 디자인 및 안내문안 등에 관한 사항은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지침에 따른다.
- 제11조(정비계획의 협의) ①관리단체는 자체검토 또는 연구용역을 통하여 마련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영

제20조에 따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단체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할 때에는 정비계획 보고서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요약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재 일반현황

- 가. 사적과 그 주변의 주요 현황
- 나. 그 동안의 보수정비, 관리 및 활용 현황
- 다. 현안사항

2. 학술조사 및 고증연구 결과(실적이 있는 경우)

3. 정비계획 개요

- 가. 정비계획의 목적, 수립체계 및 진행경과
- 나. 정비계획의 기본 원칙 및 방향
- 다. 주요 정비계획 내용(대상별, 사업별)

4. 관리 및 활용계획

5. 연차별 사업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③문화재청장은 관리단체가 정비계획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안에 검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관광 등 관련분야 전문가의 심층검토를 위하여 정비계획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관리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화재청장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최종적으로 보완·확정하여야 한다.

⑤영 제20조에 따른 정비계획이 아니더라도 관리단체가 사적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직접적으로 관련 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 시행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정비계획의 공표) 관리단체는 제11조에 따라 확정된 정비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공표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장 정비계획의 시행

제13조(시행계획의 수립) 관리단체는 정비계획에 대하여 연차별로 추진할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4조(정비사업의 추진) ①관리단체는 제13조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근거로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토한 후 법 제51조에 따라 보조금의 일부를 연차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추진상황의 점검) ①관리단체는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정비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매년 2월까지 전년도 사업을 자체 점검·평가하고 부진사항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는 등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관리단체의 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 추진을 지도하고 독려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28일까지로 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4.1>

이 예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11>

이 예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 보고서 작성예시

I. 계획의 개요

- ① 계획의 배경 및 목적과 필요성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② 계획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③ 계획의 수립체계, 진행방법 및 과정에 대하여 작성한다.

II. 현황 조사

- ① 문화재와 그 주변의 일반현황(입지 및 자연환경, 인문사회환경, 역사문화환경 등), 주변의 토지이용 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을 작성한다.
- ② 문화재의 지정 현황(개요, 주요연혁, 가치 및 특성 등), 학술조사 및 고증연구 실적을 작성한다.
- ③ 문화재의 보수정비 및 관리실태, 문화재구역·보호구역·보호물 및 시설물 현황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④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대하여 작성한다.(기준이 제정·고시된 경우)
- ⑤ 국내외 사례조사 및 비교·분석과 현안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⑥ 문화재의 활용 현황에 대하여 작성한다.

III. 계획의 기본구상

- ① 정비계획의 기본개념 및 방향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② 주요 대상별 정비(유적·유구 정비, 주변정비, 부대시설정비 등), 관리 및 활용(프로그램개발, 주민참여 등), 인적·물적 자원 확보, 소방방재시설 등의 기본구상을 작성한다.
- ③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내용을 작성한다.

IV. 종합정비 방안

- ① 정비의 원칙, 보존·정비의 대상 및 범위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② 관련법규(현상변경 허용기준, 정비사업 등과 관계되는 타 법령)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③ 학술조사(발굴조사 등 학술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불필요)의 목적, 대상범위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④ 사유지 매입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원칙 및 방향, 대상범위 및 사유 등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⑤ 유적 및 유구 정비의 목적과 범위, 수행방법, 대상별 정비방안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⑥ 주변정비(담방로, 안내표지판, 식생·조경, 석축·배수로, 경계울타리 등)와 편의·부대시설(안내소·매표소, 전시관·야외전시물, 관리사무소, 화장실, 휴게공간, 주차장 등)의 설치 방안 등에 대한 사항을 작성한다.
- ⑦ 소방방재시설(소방시설, 감시시스템 및 도난방지시설)의 설치 방안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⑧ 문화재의 활용방안(관광·교육프로그램 및 스토리텔링 개발, 콘텐츠 구축, 전시공간 이용 활성화 등) 및 홍보방안에 대하여 작성한다.

V. 사업추진 및 관리운영계획

- ① 정비사업의 추진방향, 추진전략 및 체계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② 정비사업 개요, 사업내용, 사업비 산출 및 사업성 검토 등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③ 관리운영계획에 대한 기본방향, 관리운영 주체 및 체계, 세부계획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④ 관리운영인력 확보와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작성한다.

VI. 미래상 및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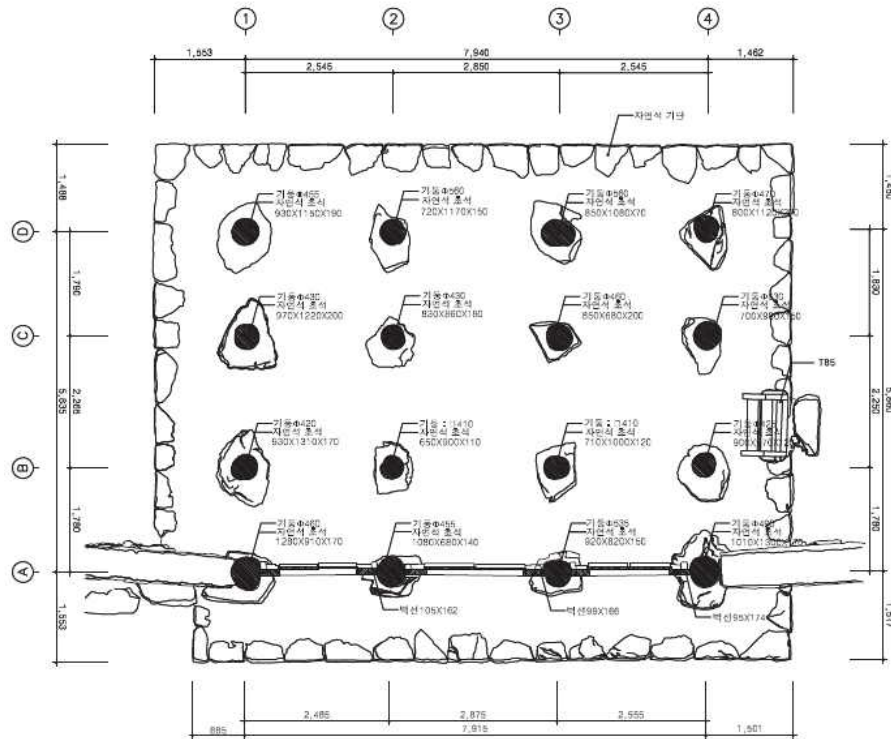
- ① 학술적·사회문화적·경제적 측면 등에서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을 작성한다.
- ② 문화재의 생애주기비용·편익을 분석하여 작성한다.
- ③ 종합의견을 작성한다.

VII.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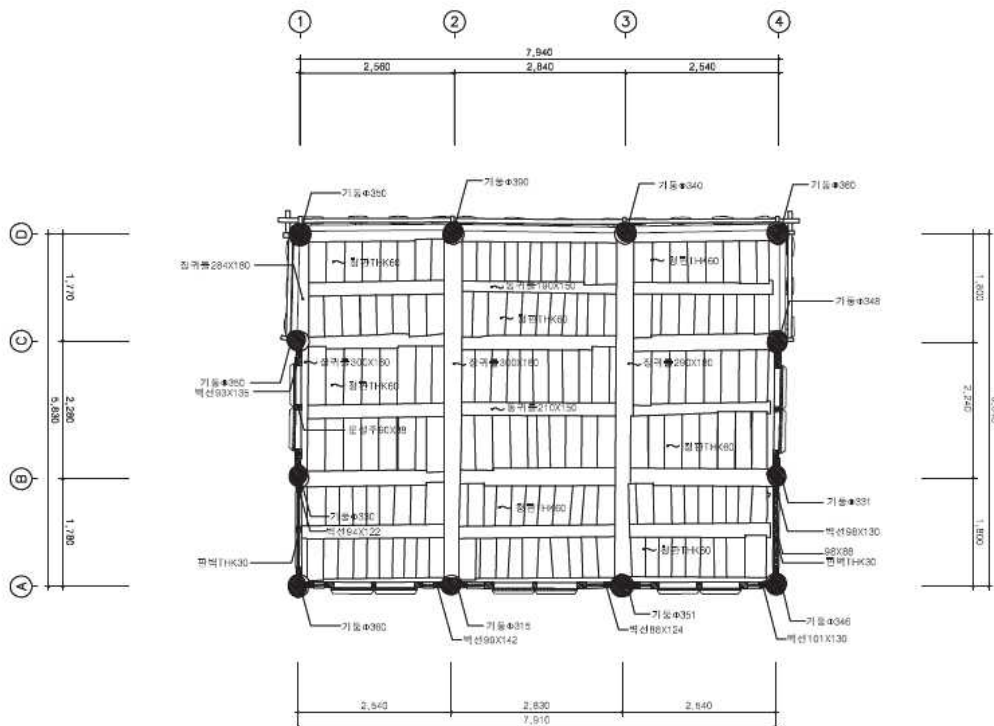
- ① 학술조사보고서, 고증자료 및 자문결과 등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확보·참고한 자료 목록을 작성한다.
- ② 문화재구역·보호구역의 토지조서(필지별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등)를 첨부한다.

▶ 건축물 도면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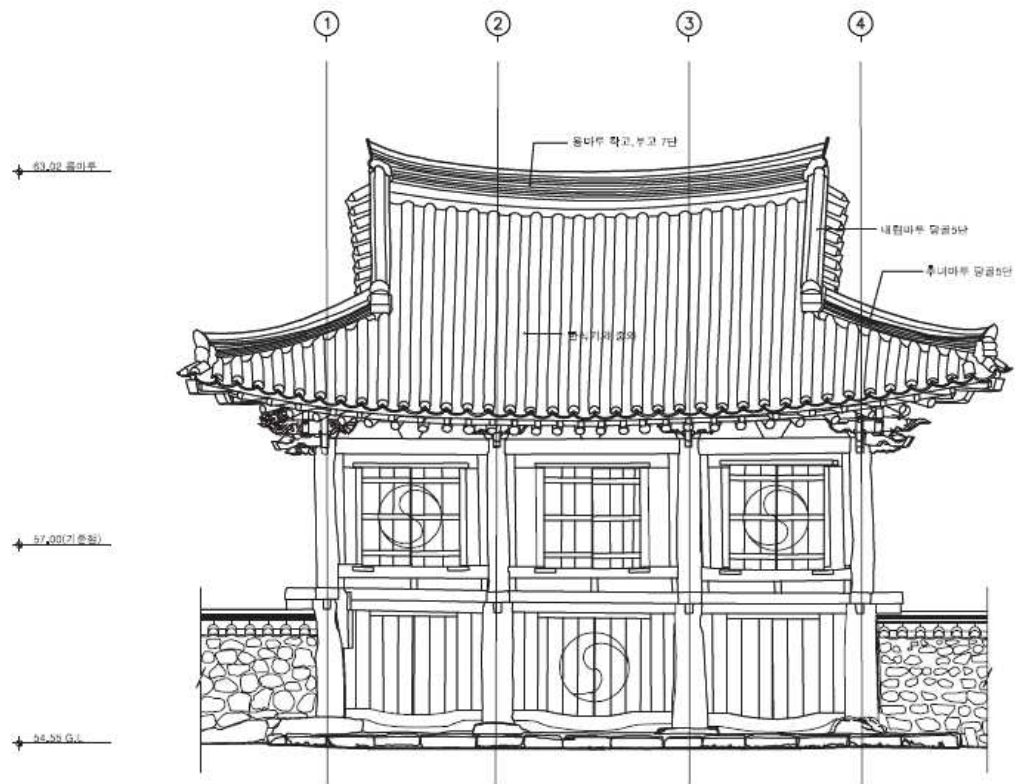
1. 화연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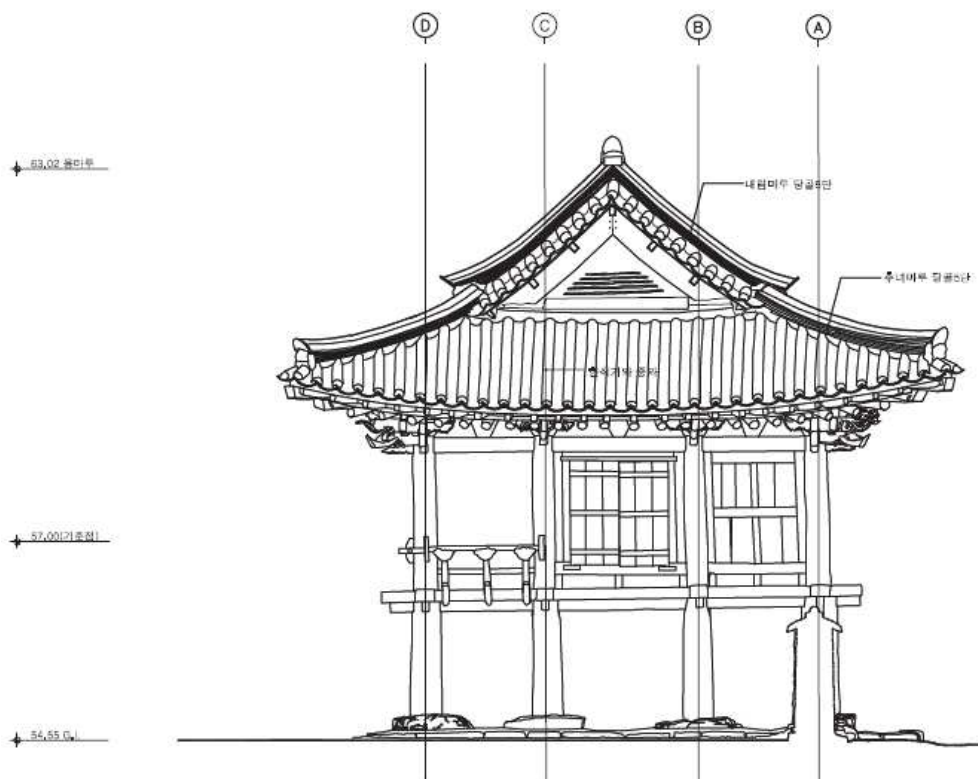
화연루 하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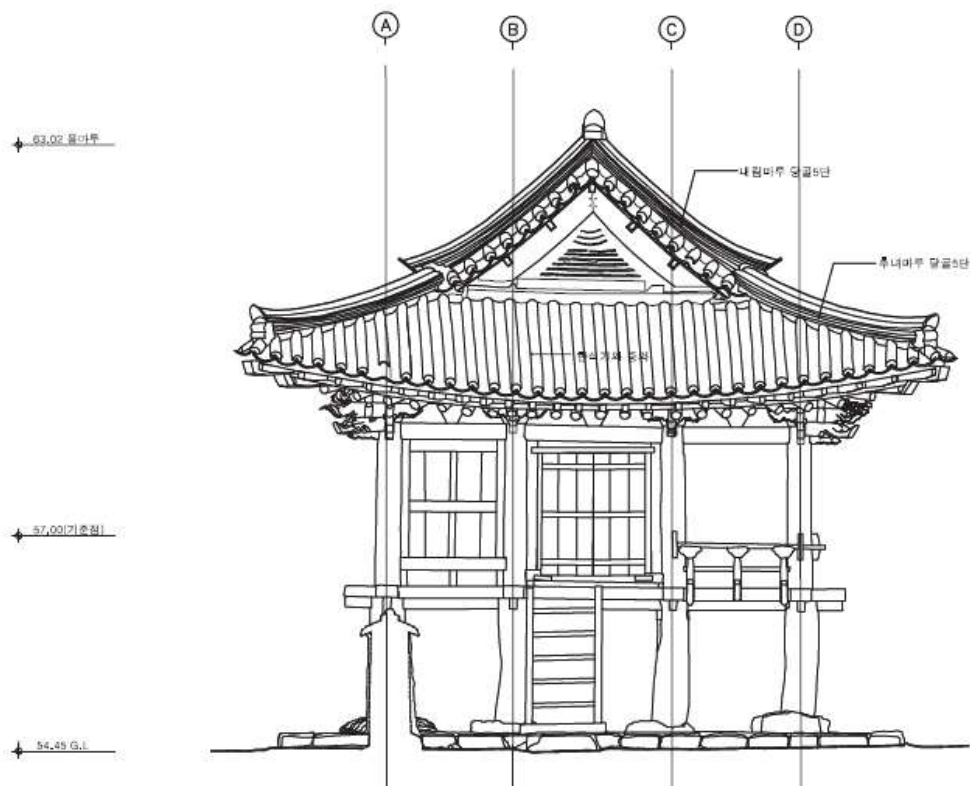
화연루 상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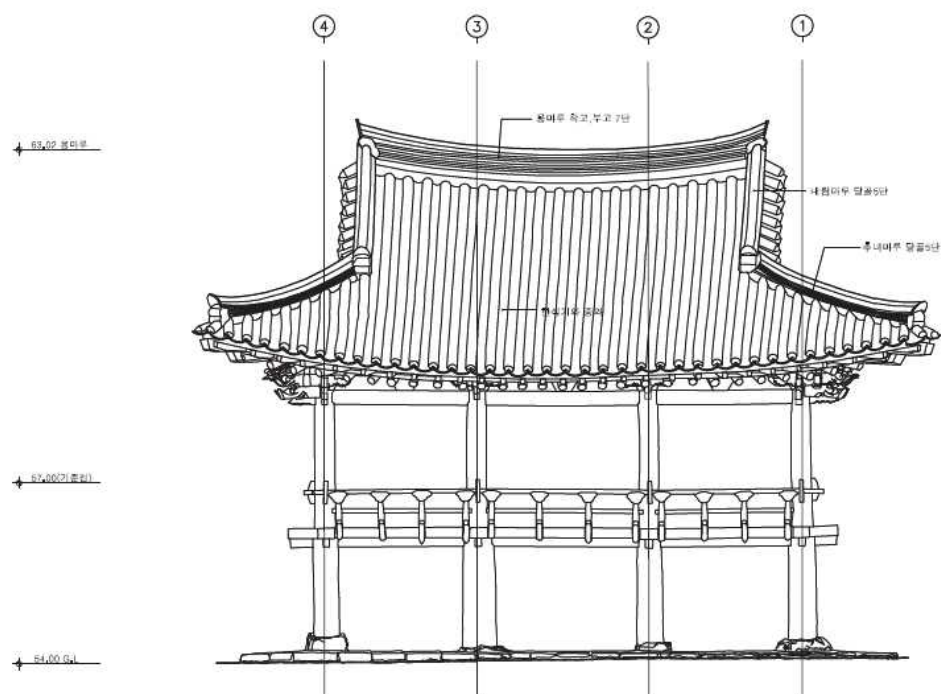
학연루 정면도



학연루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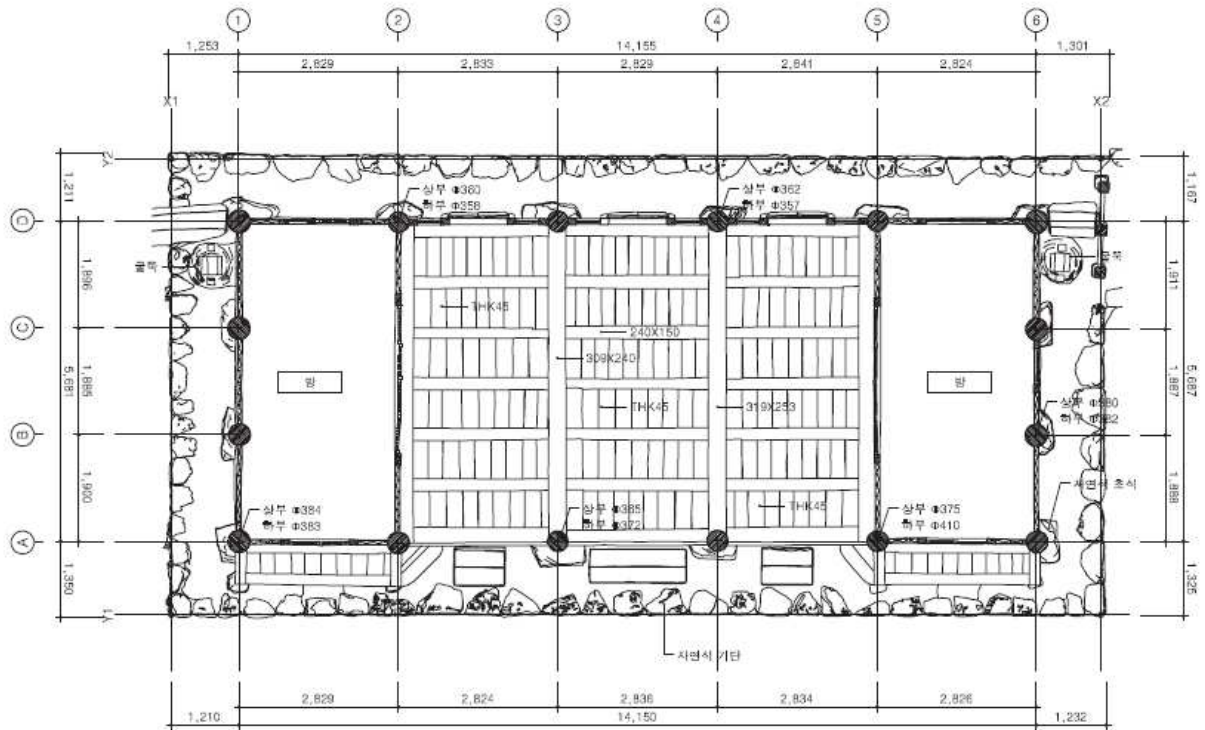


화연루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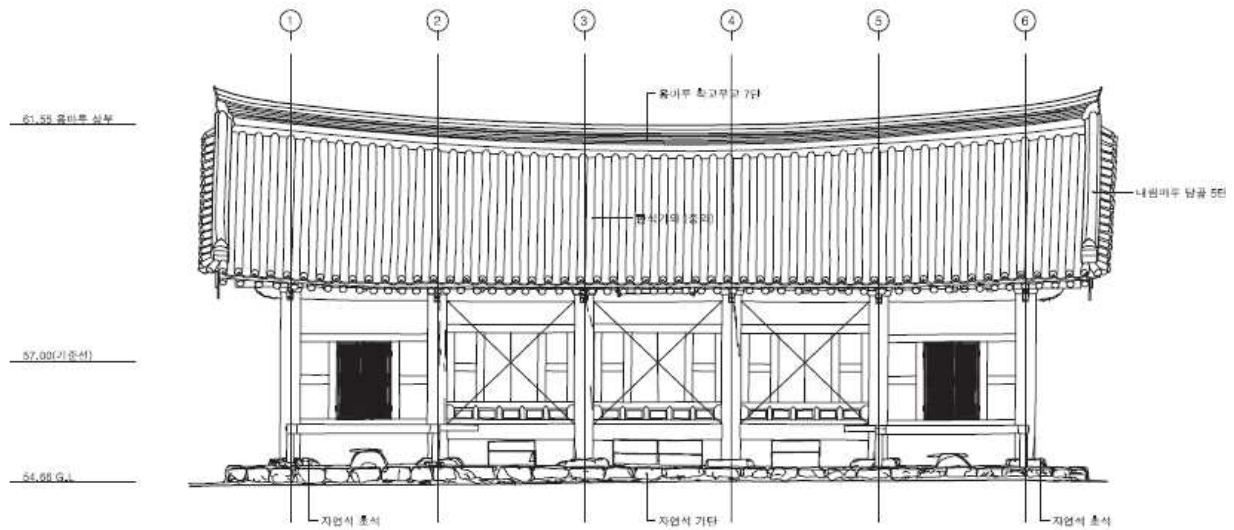


화연루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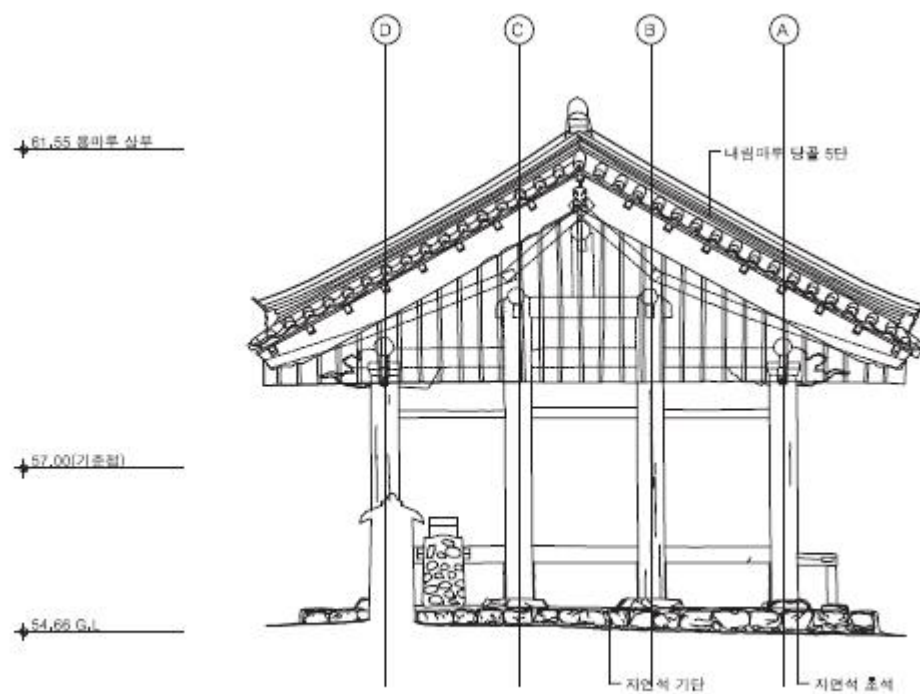
2. 청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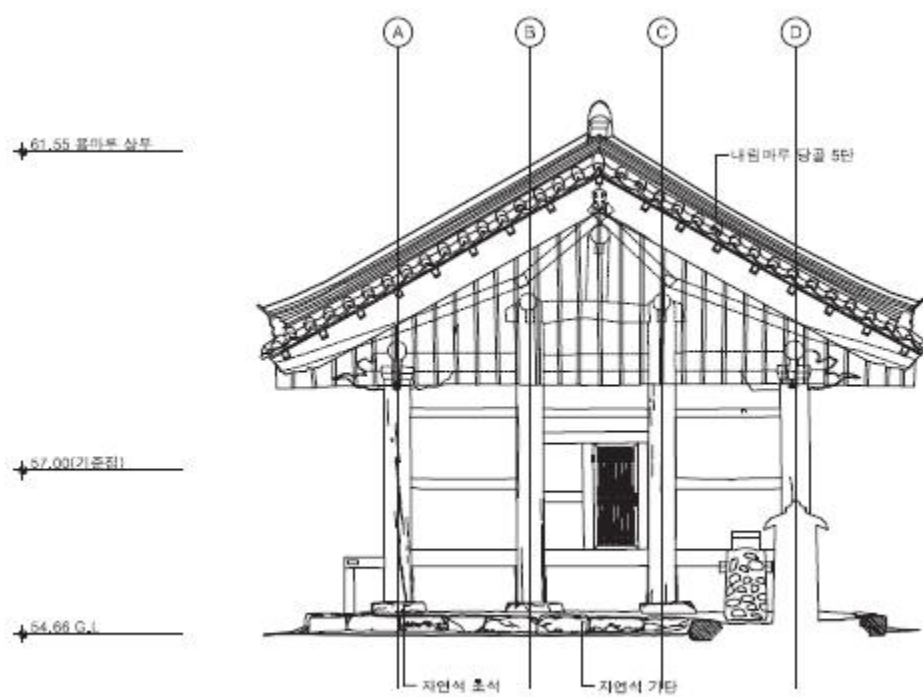
청절당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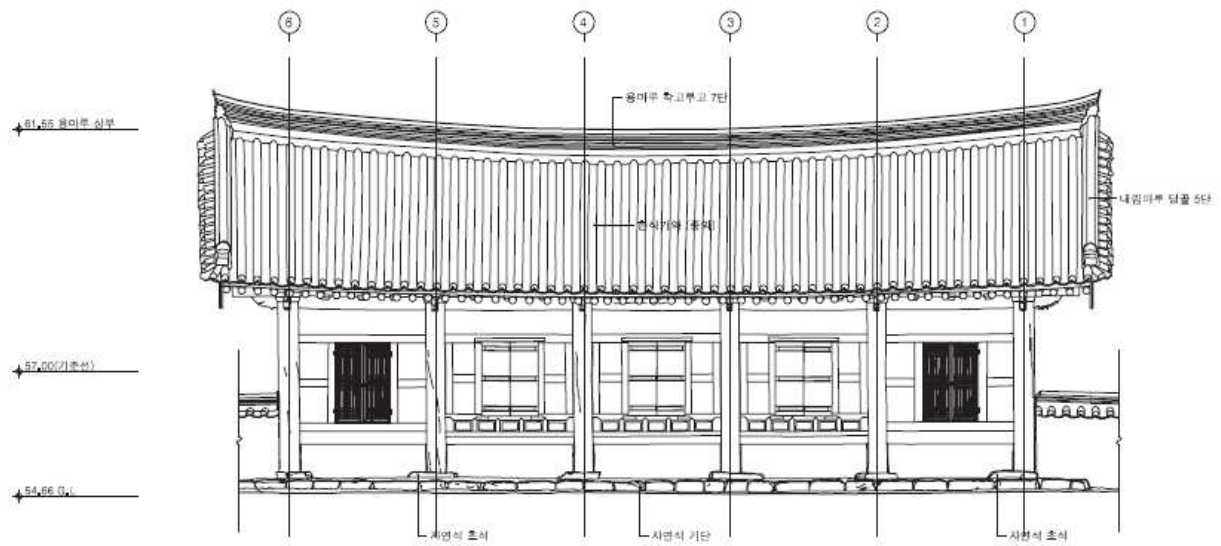
청절당 정면도



청절당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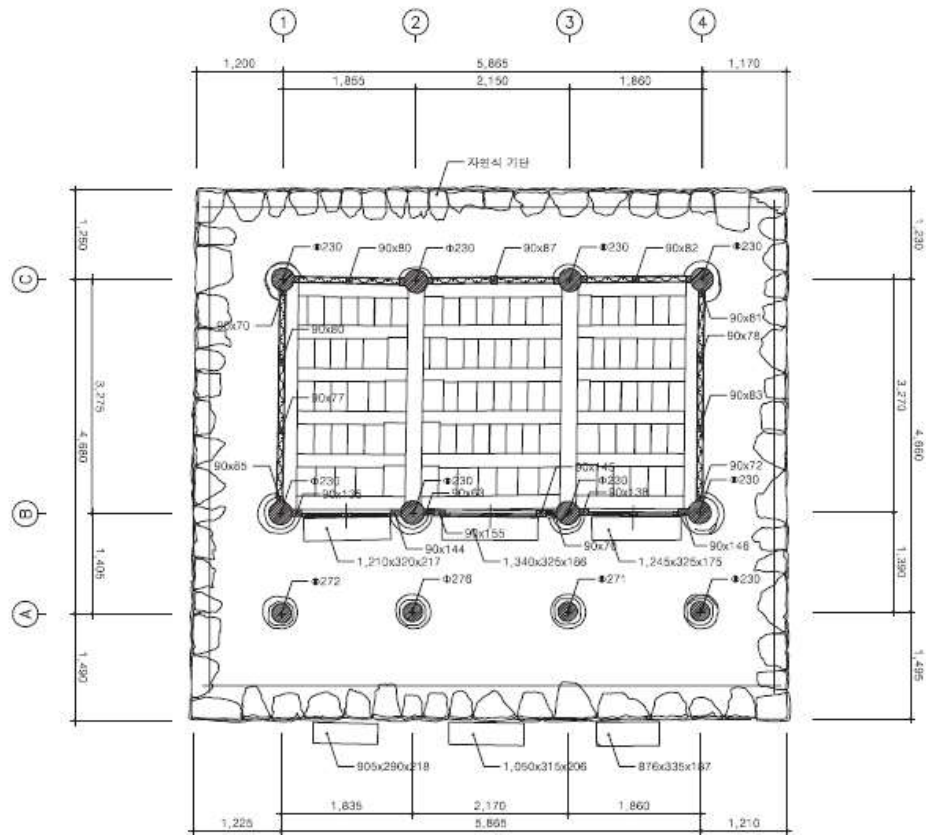


청절당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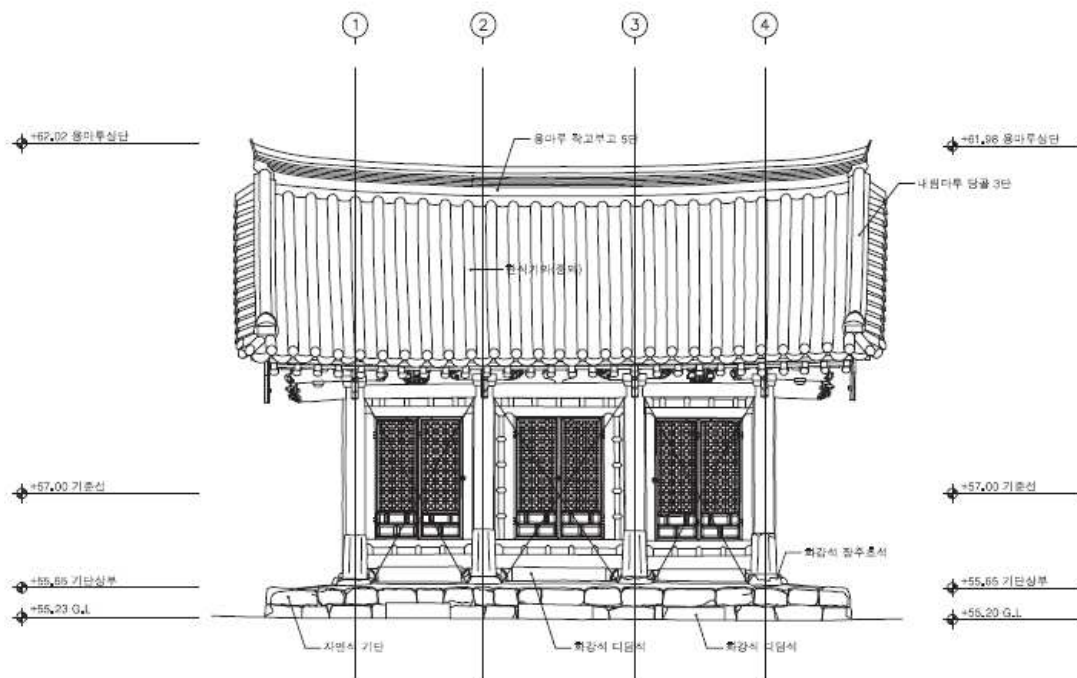


청절당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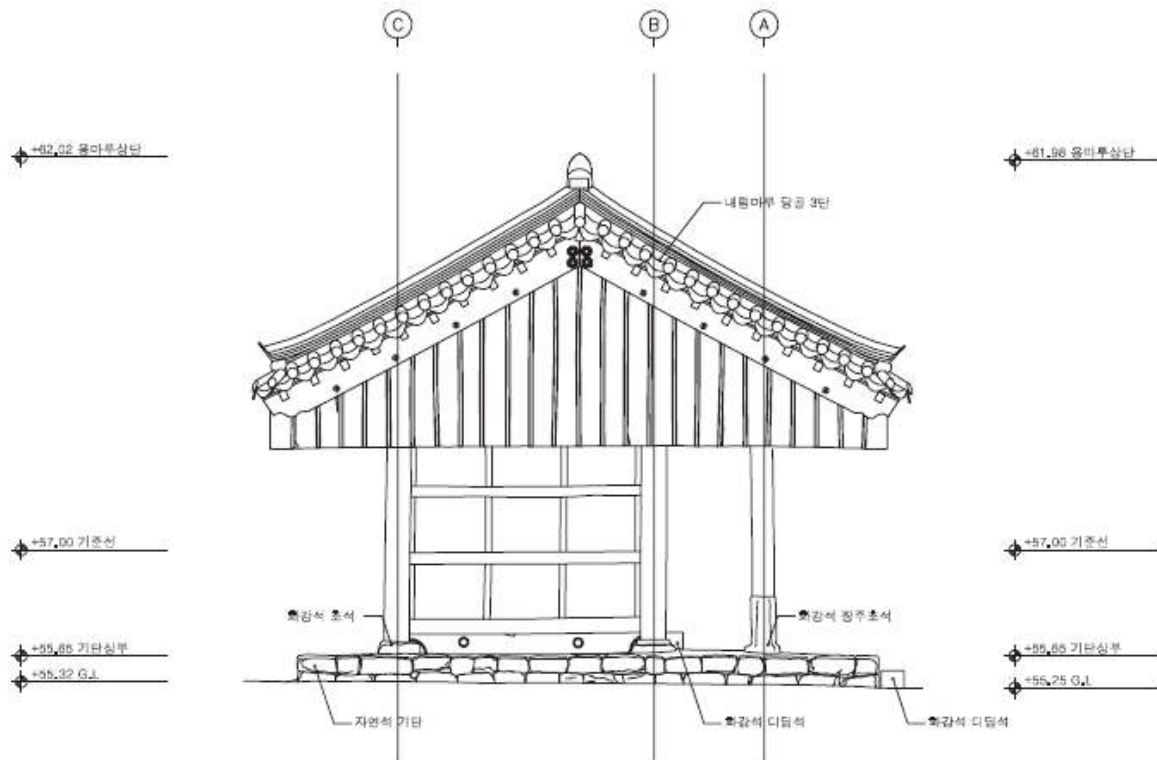
3. 우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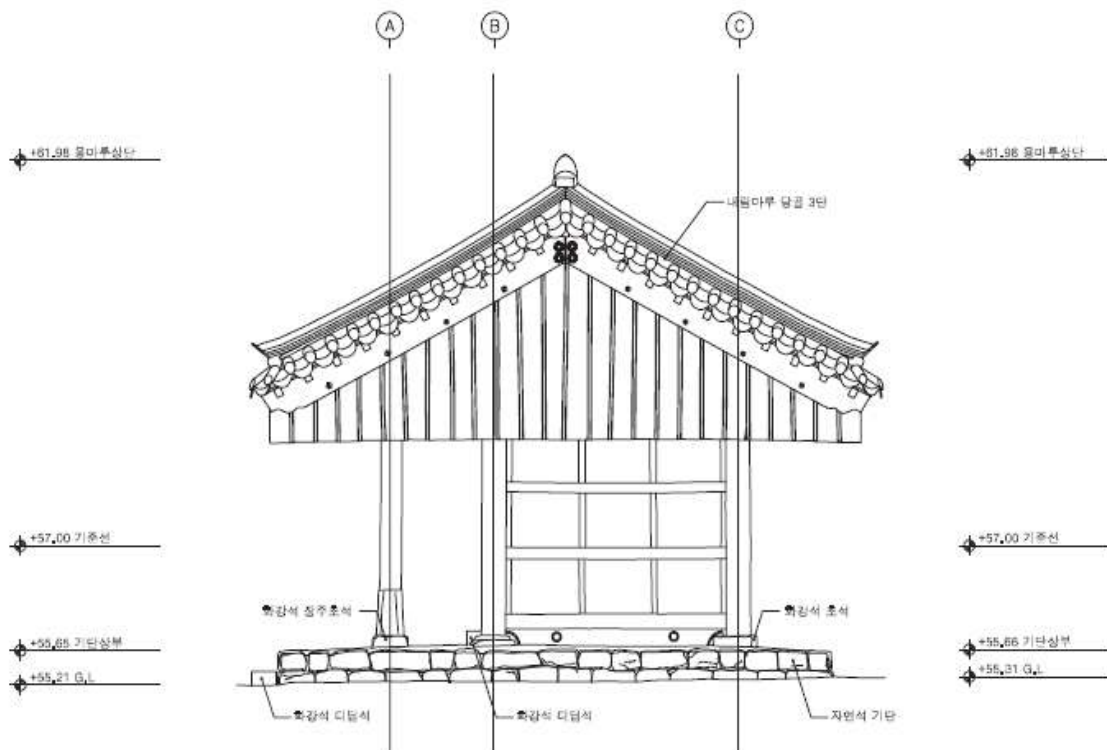
우동사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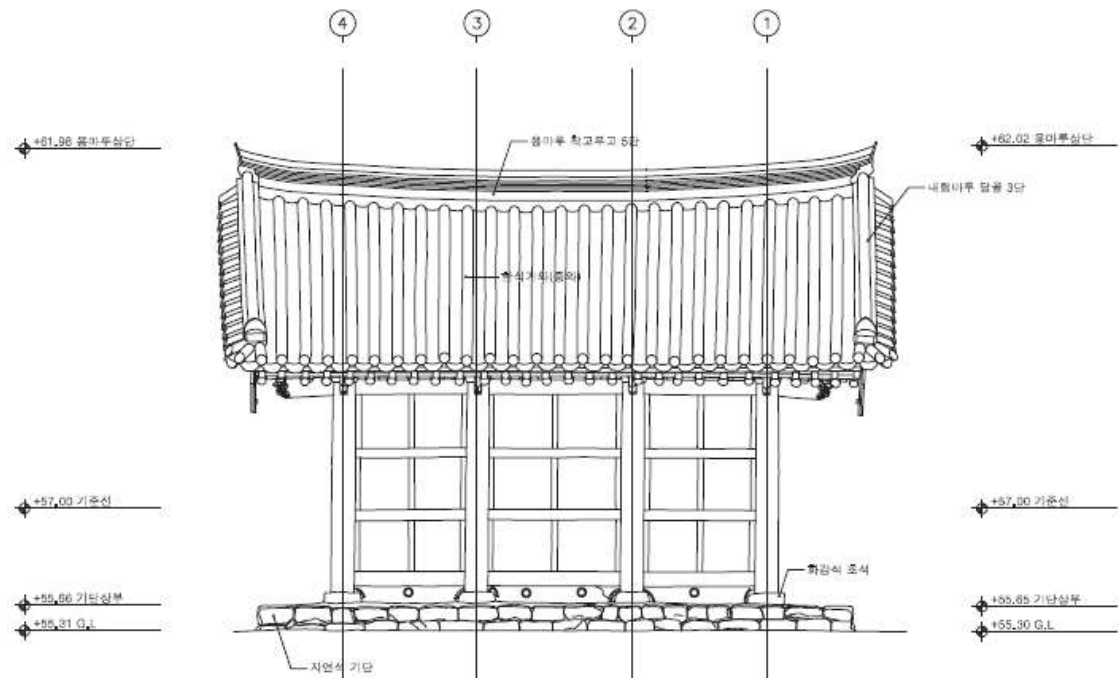
우동사 정면도



우동사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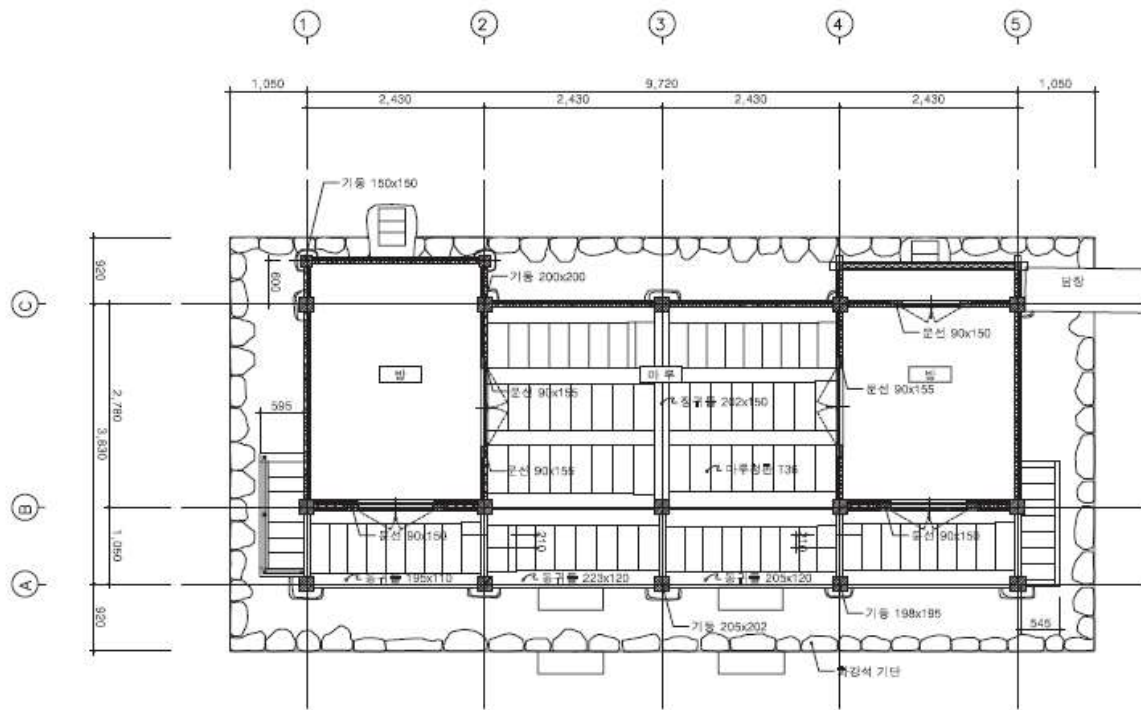


우동사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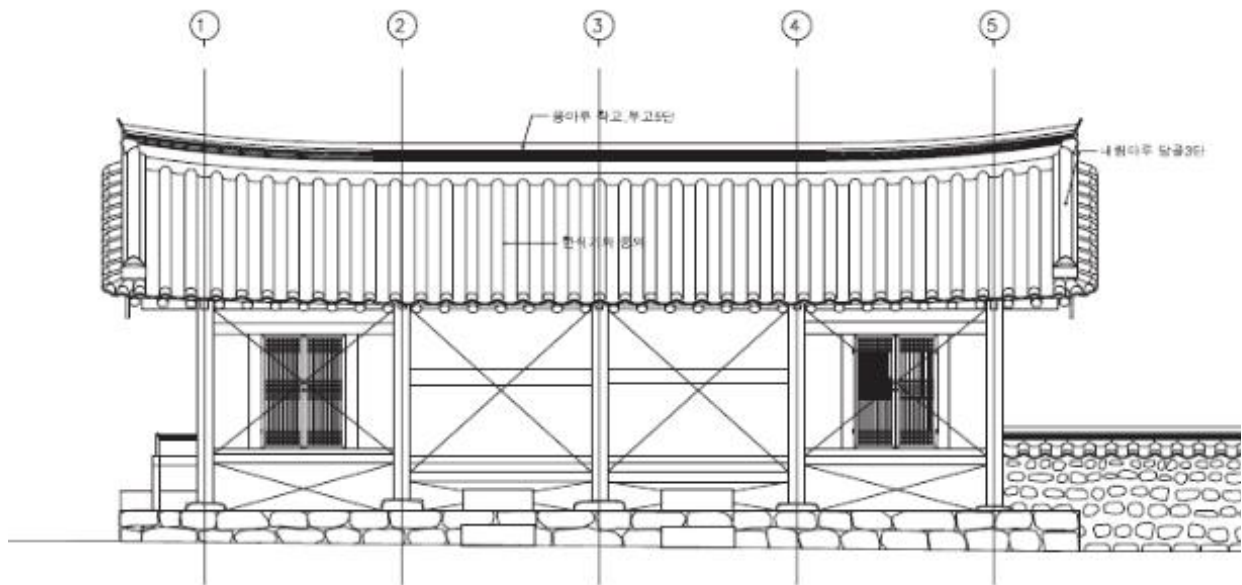


우동사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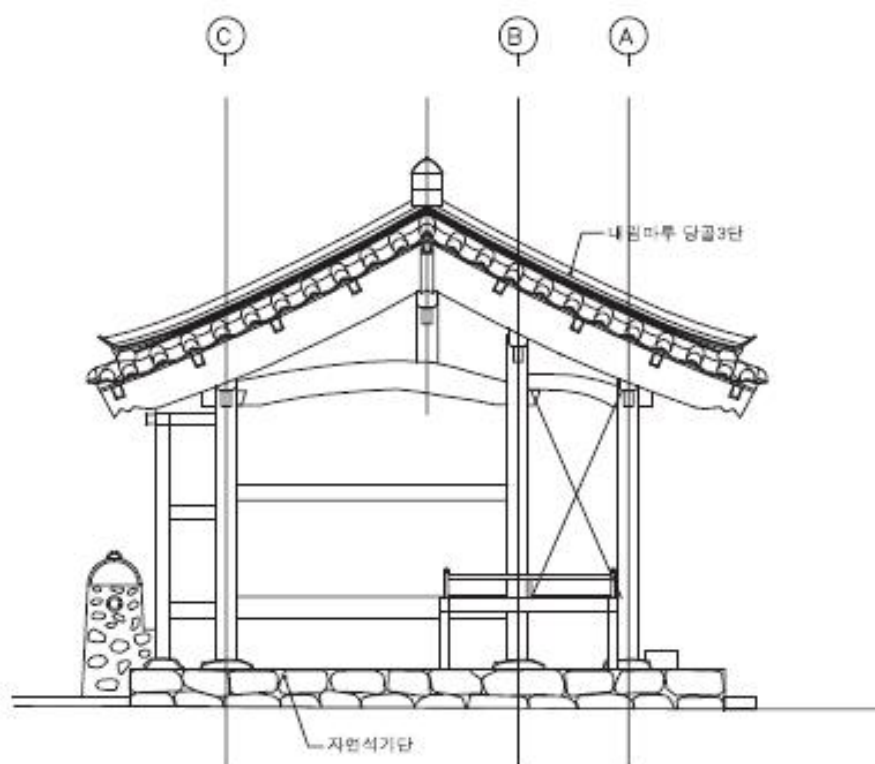
4. 진덕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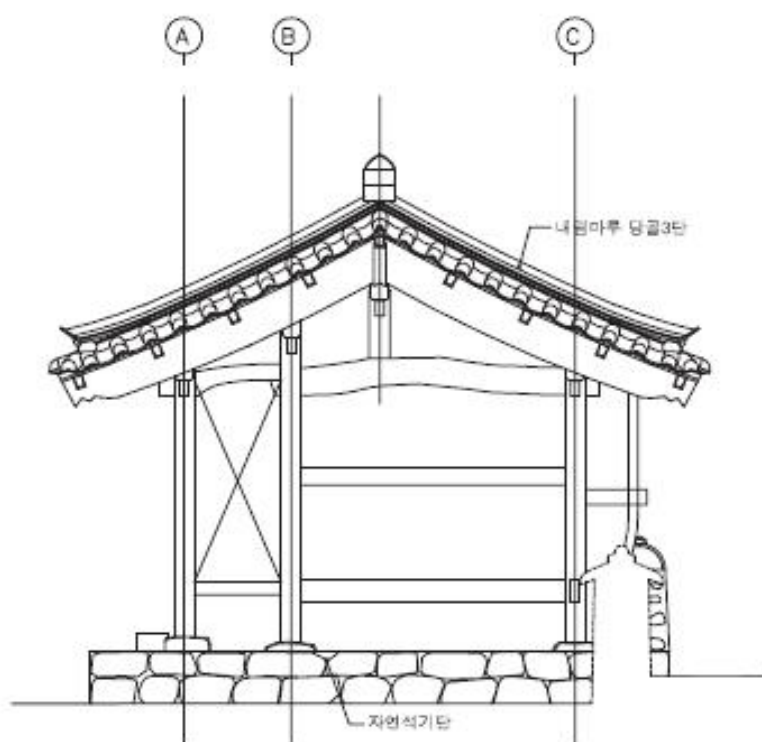
진덕재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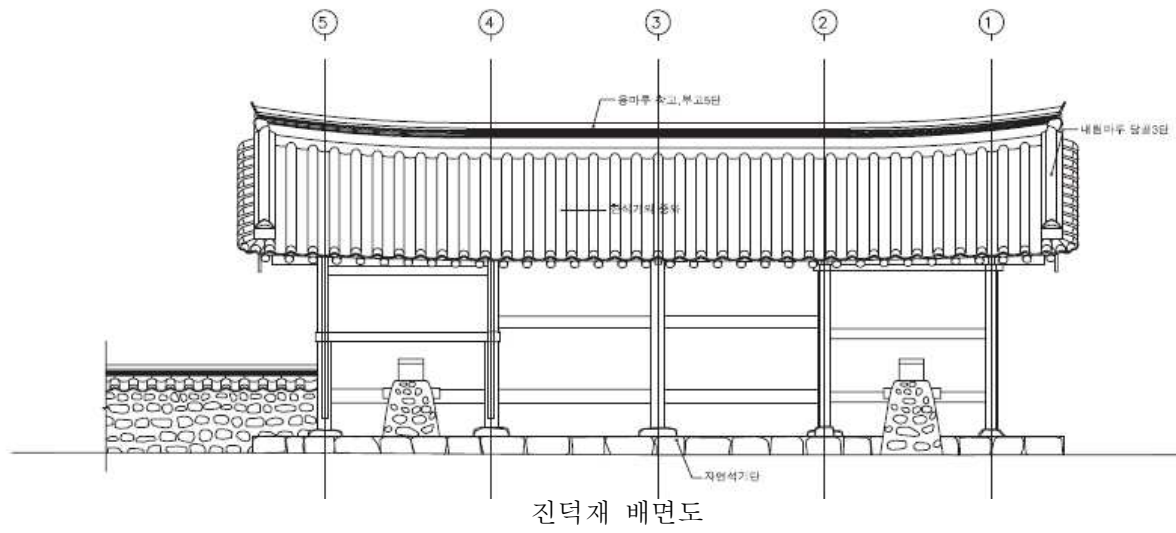
진덕재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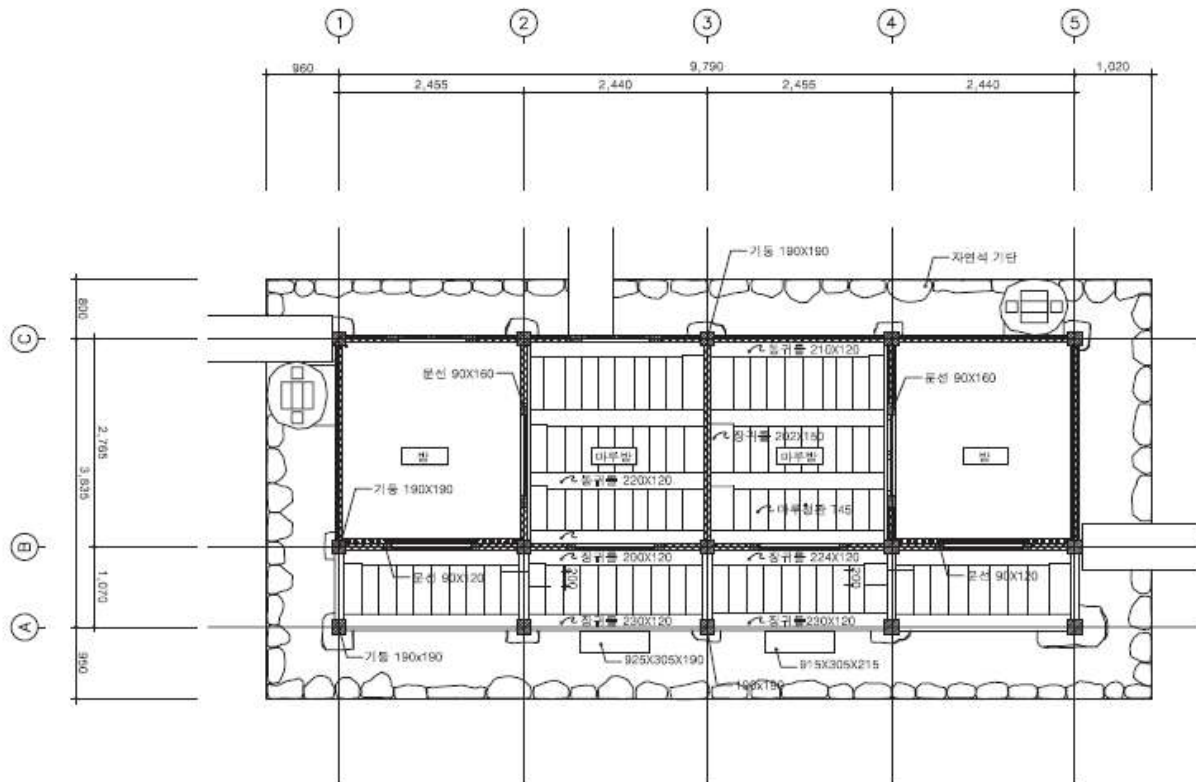
진덕재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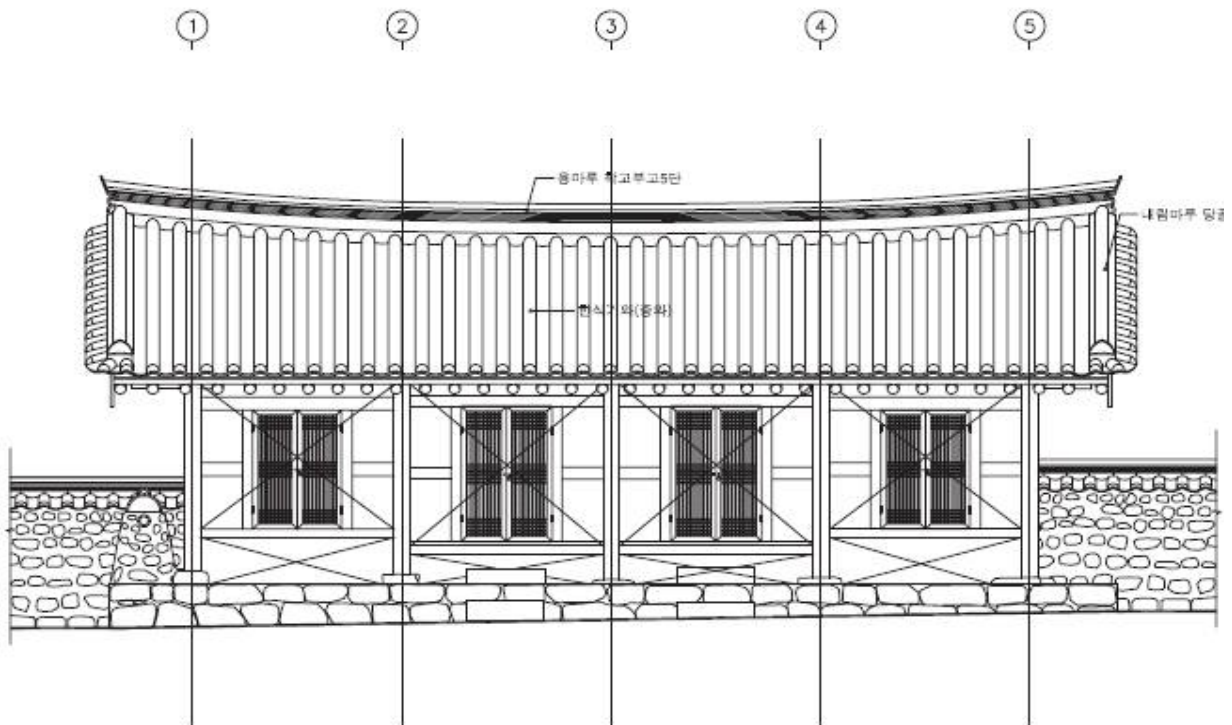
진덕재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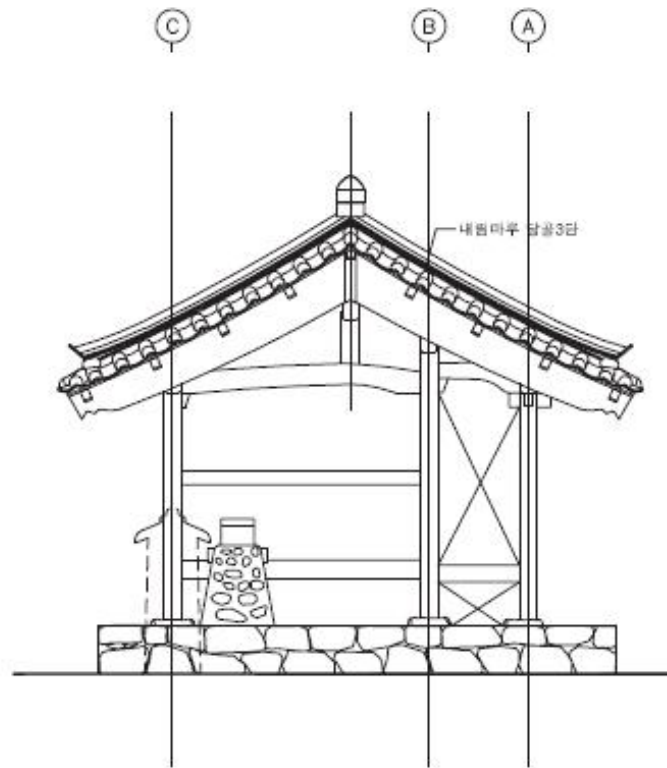
5. 승의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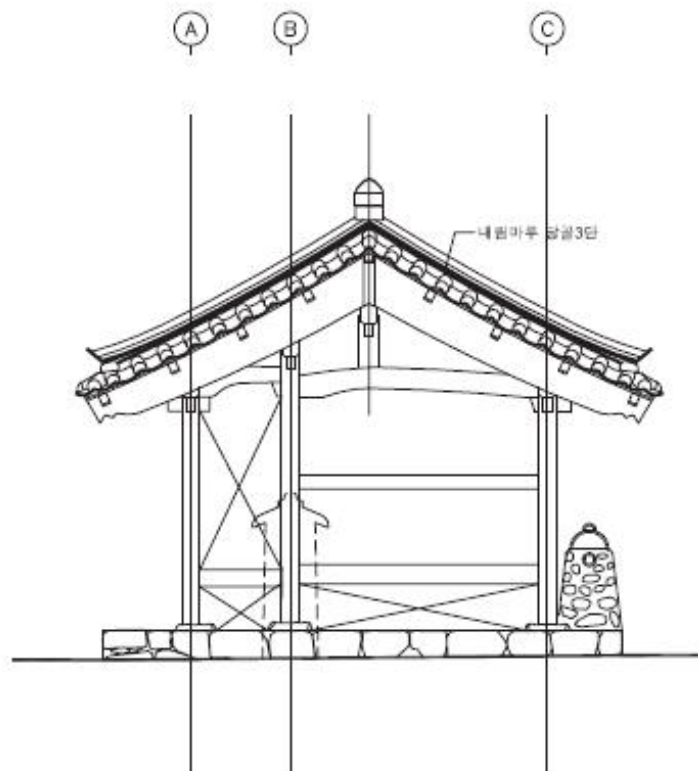
승의재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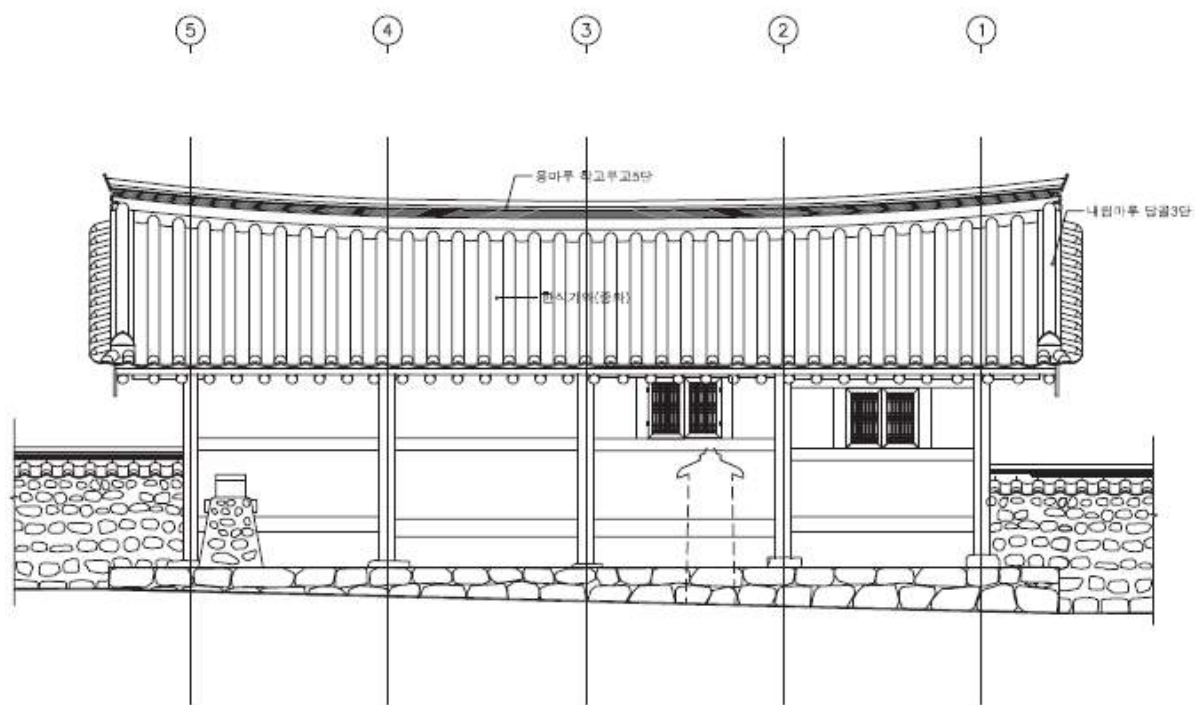
승의재 정면도



송의재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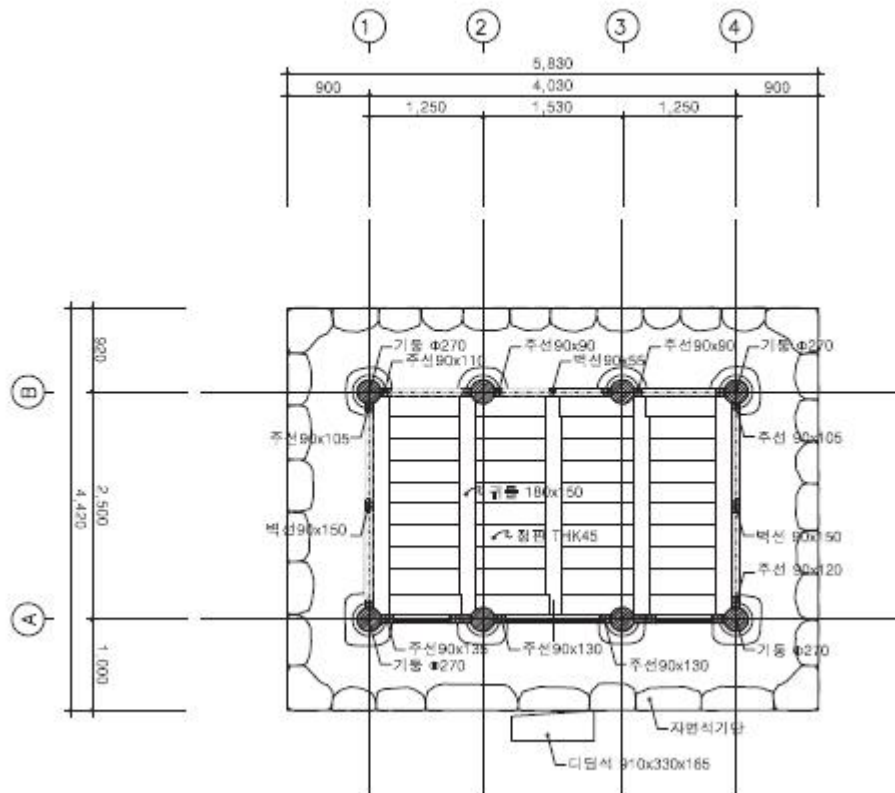


송의재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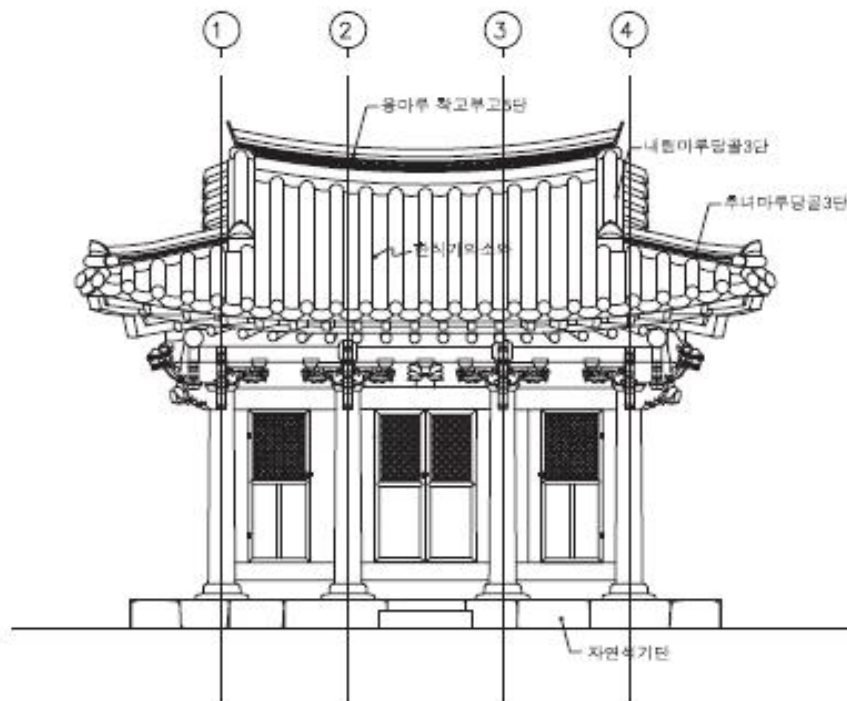


승의재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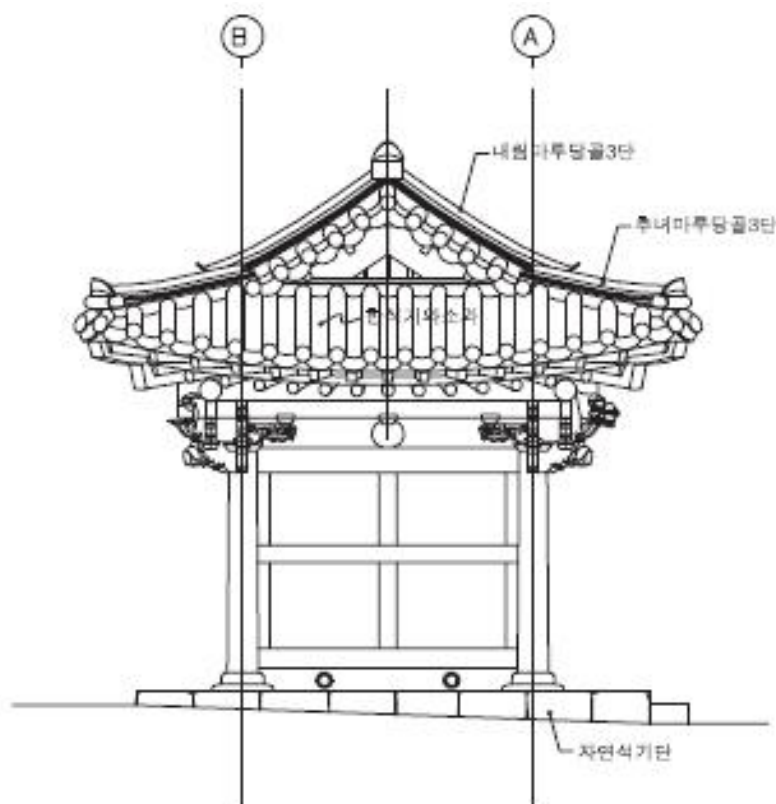
6. 경장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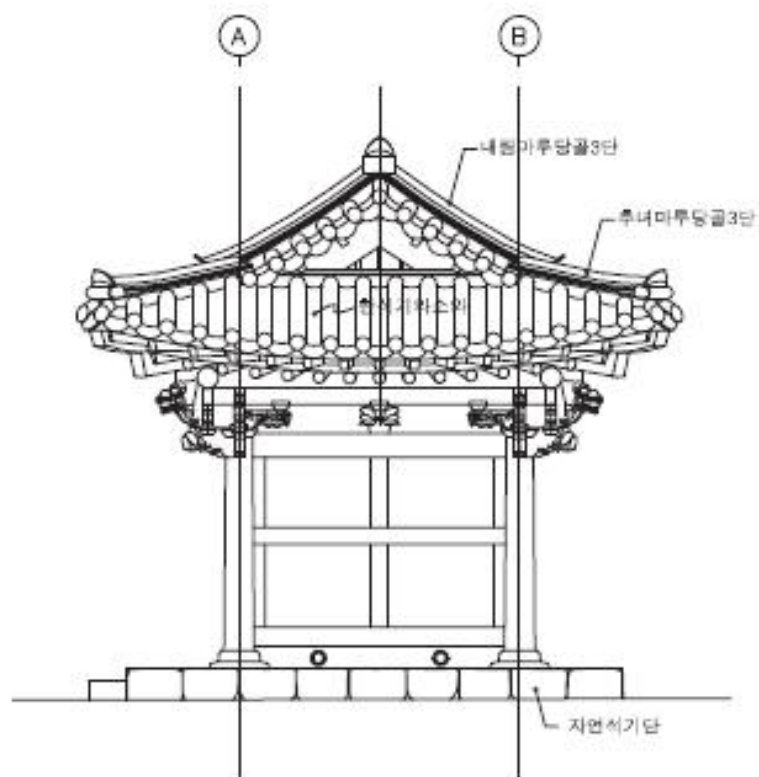
경장각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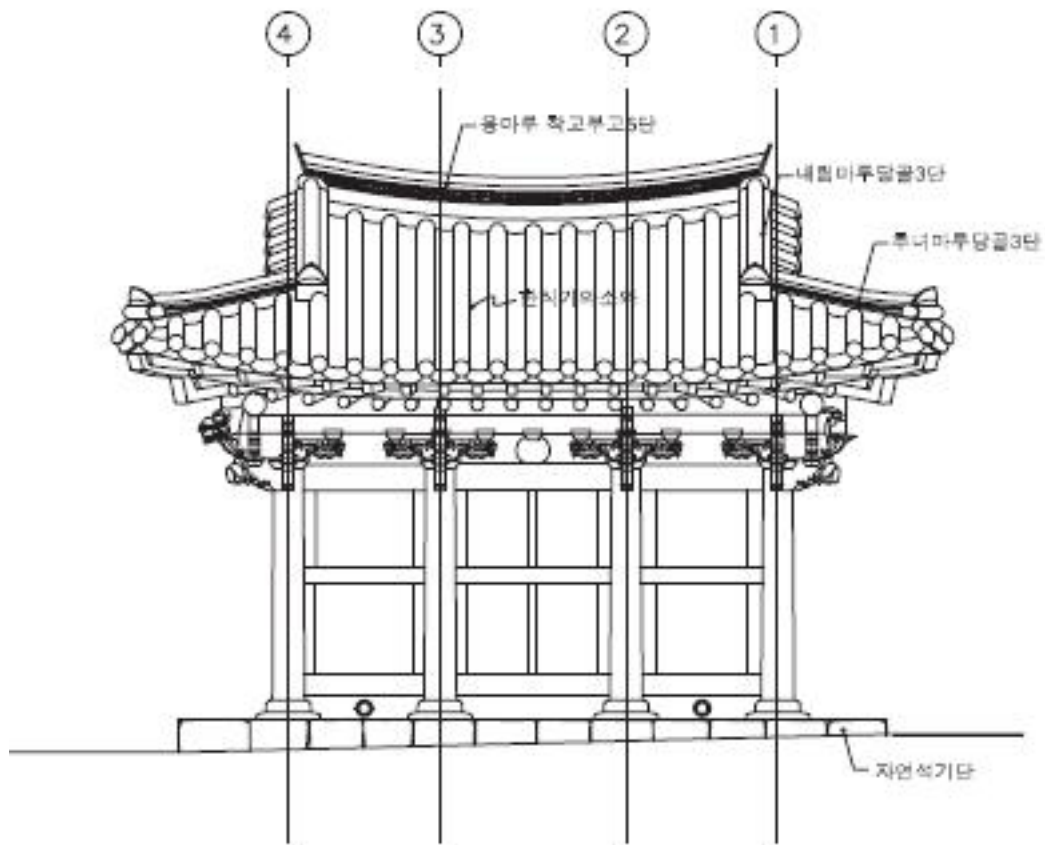
경장각 정면도



경장각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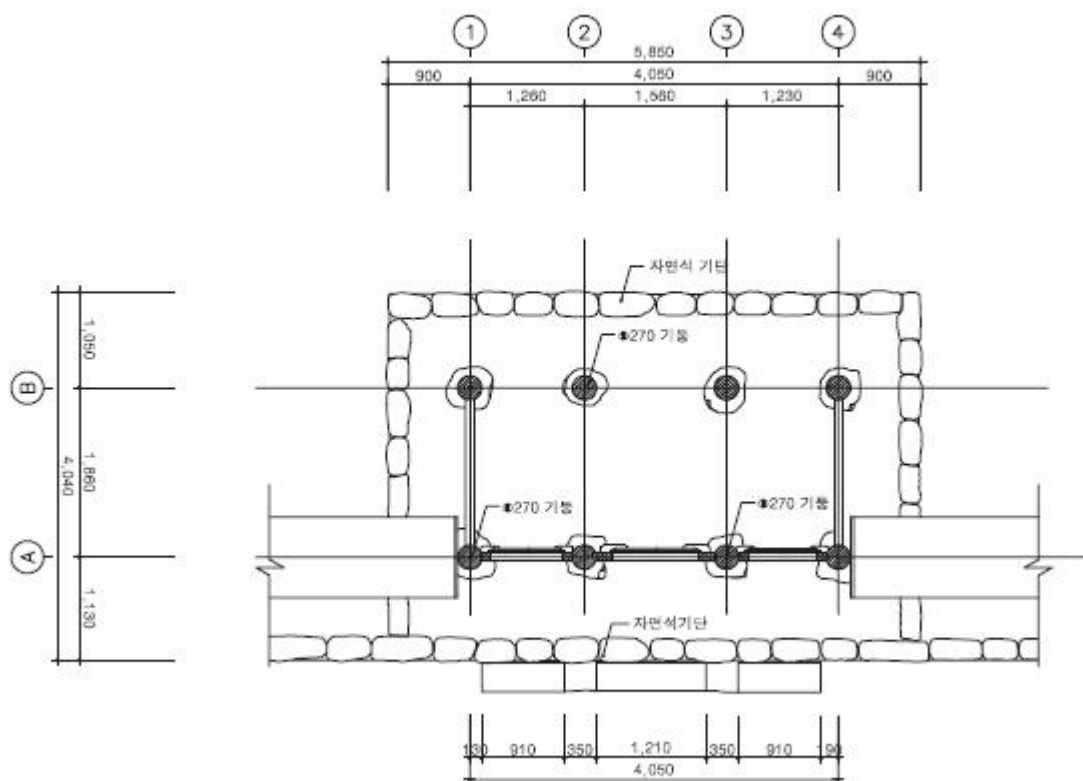


평장각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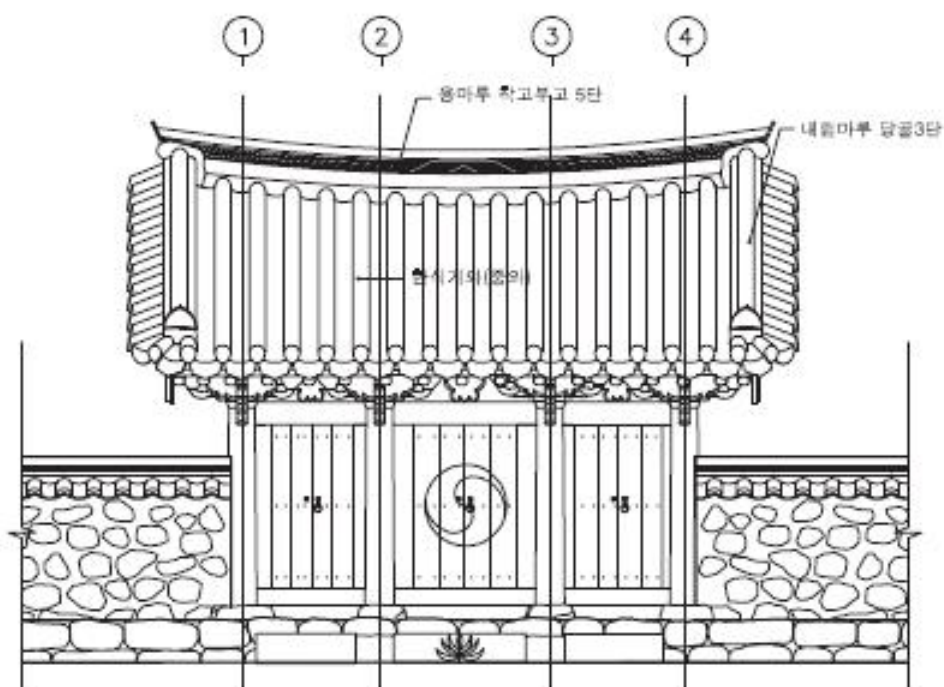


경장각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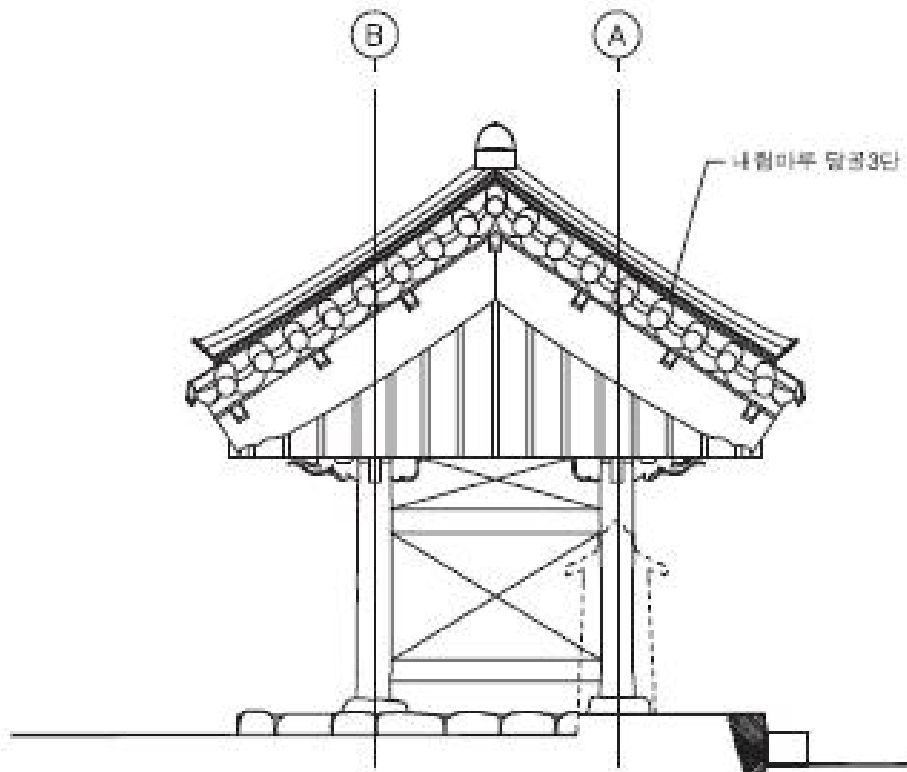
7. 내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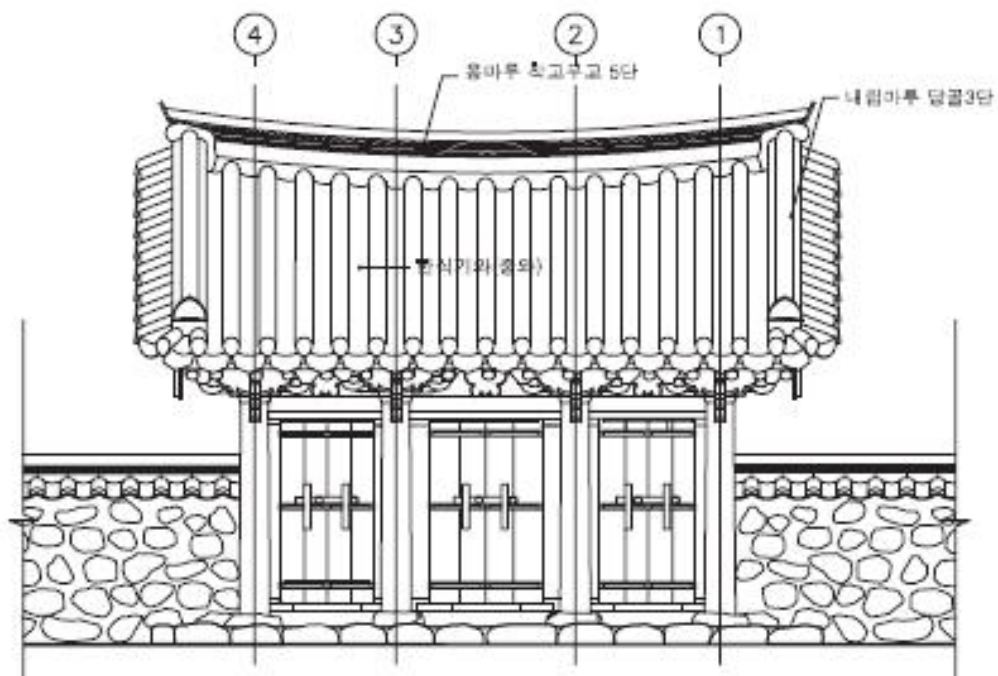
내삼문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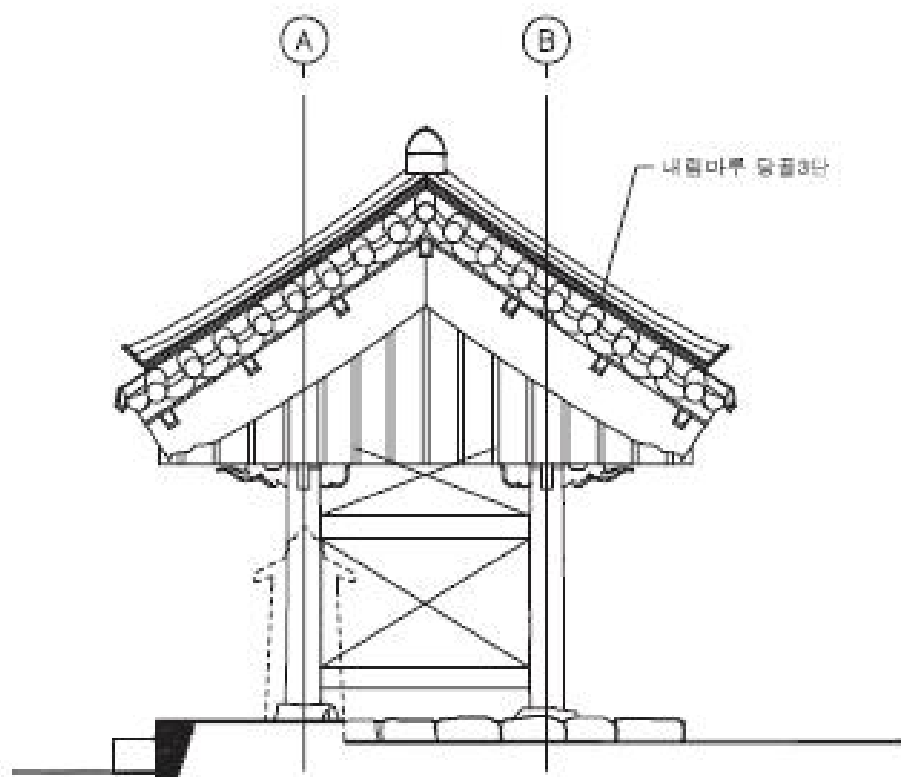
내삼문 정면도



내삼문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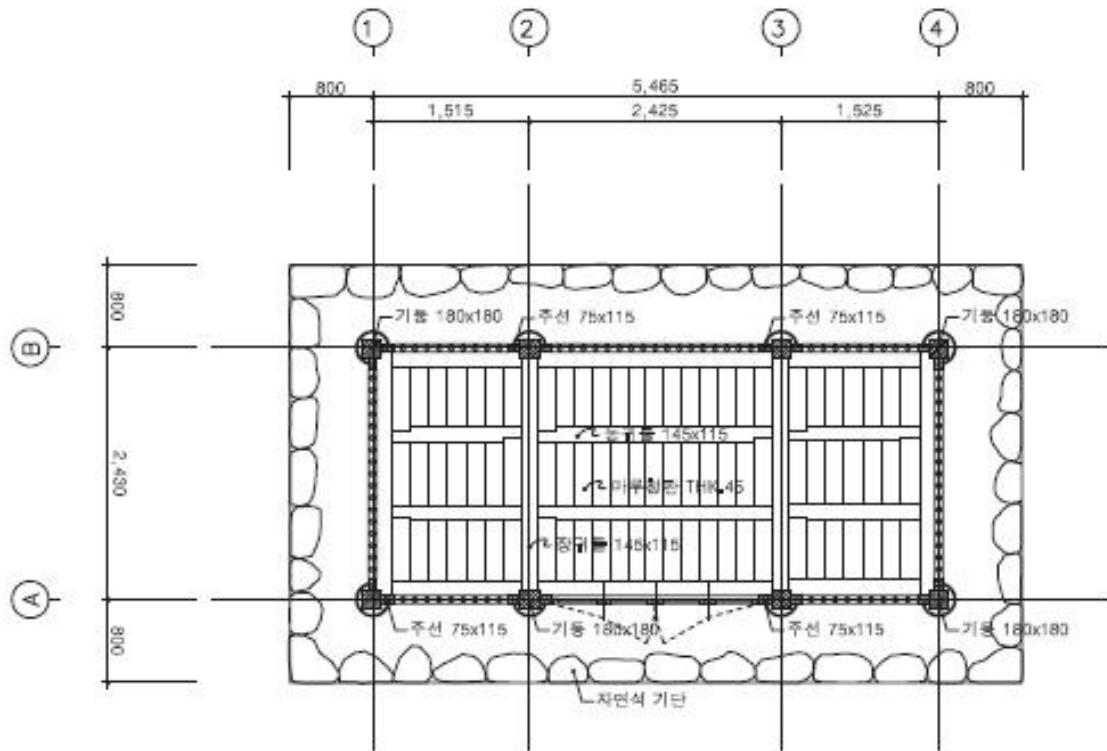


내삼문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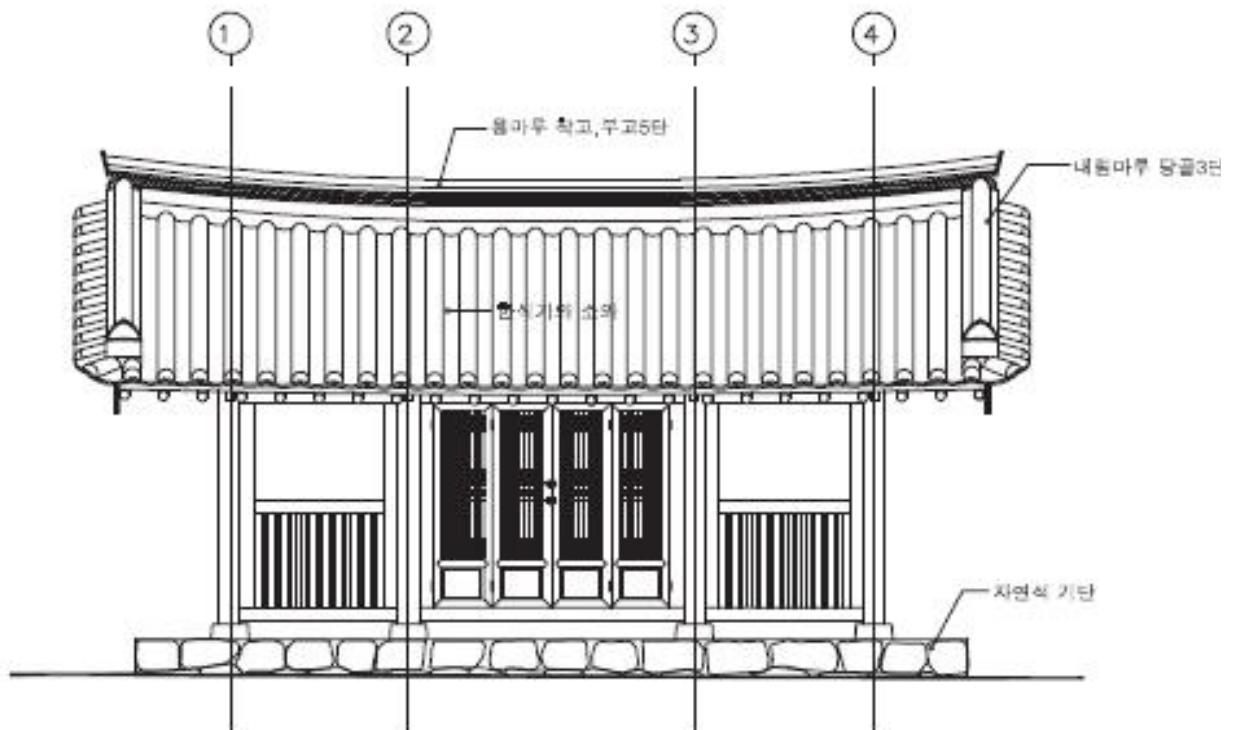


내삼문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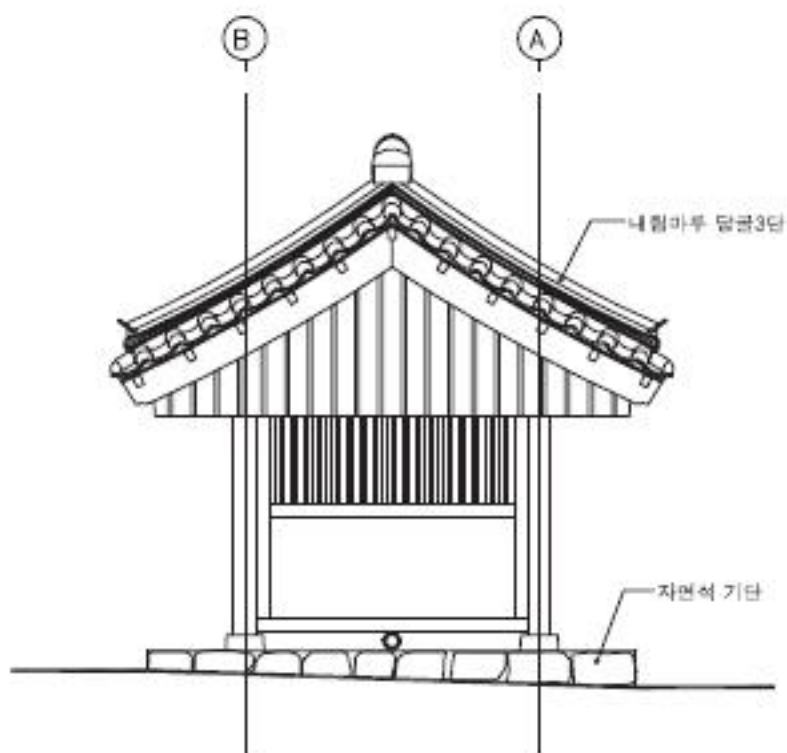
8. 장판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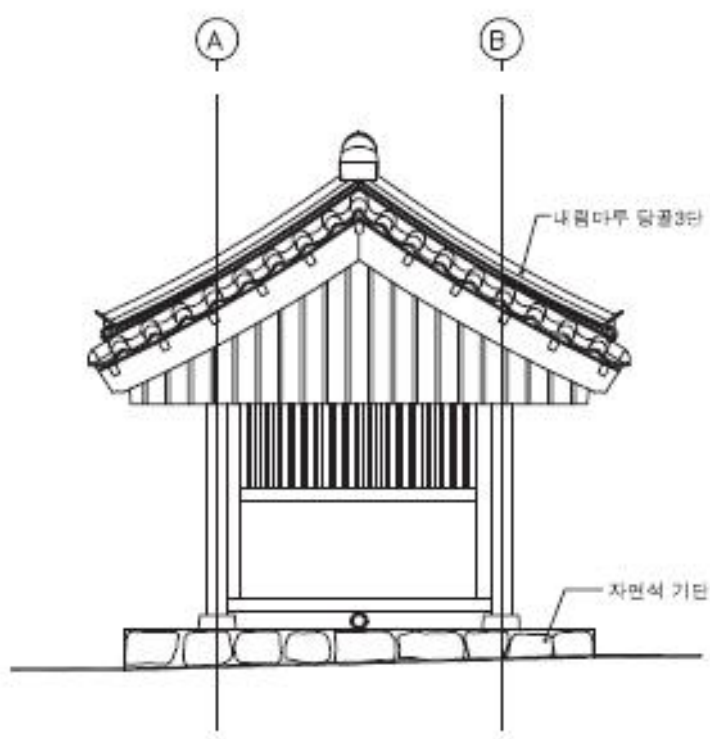
장판각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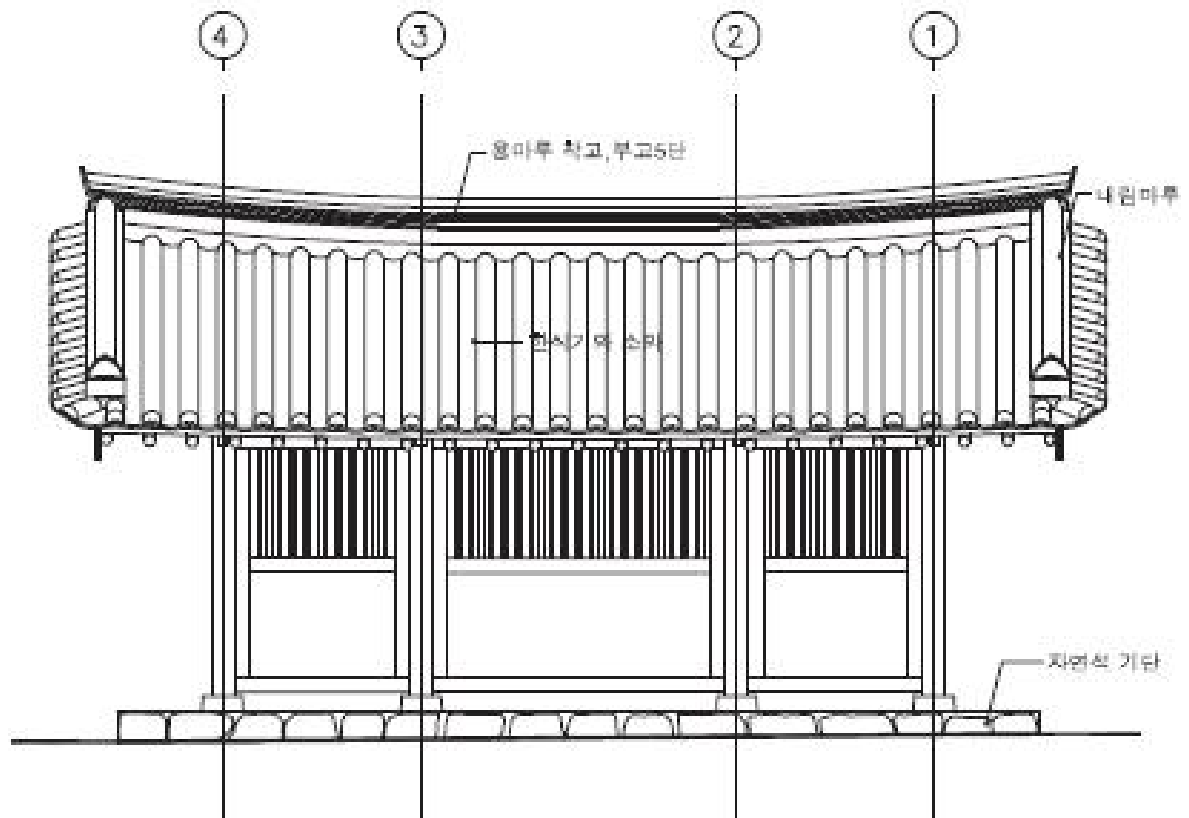
장판각 정면도



장판각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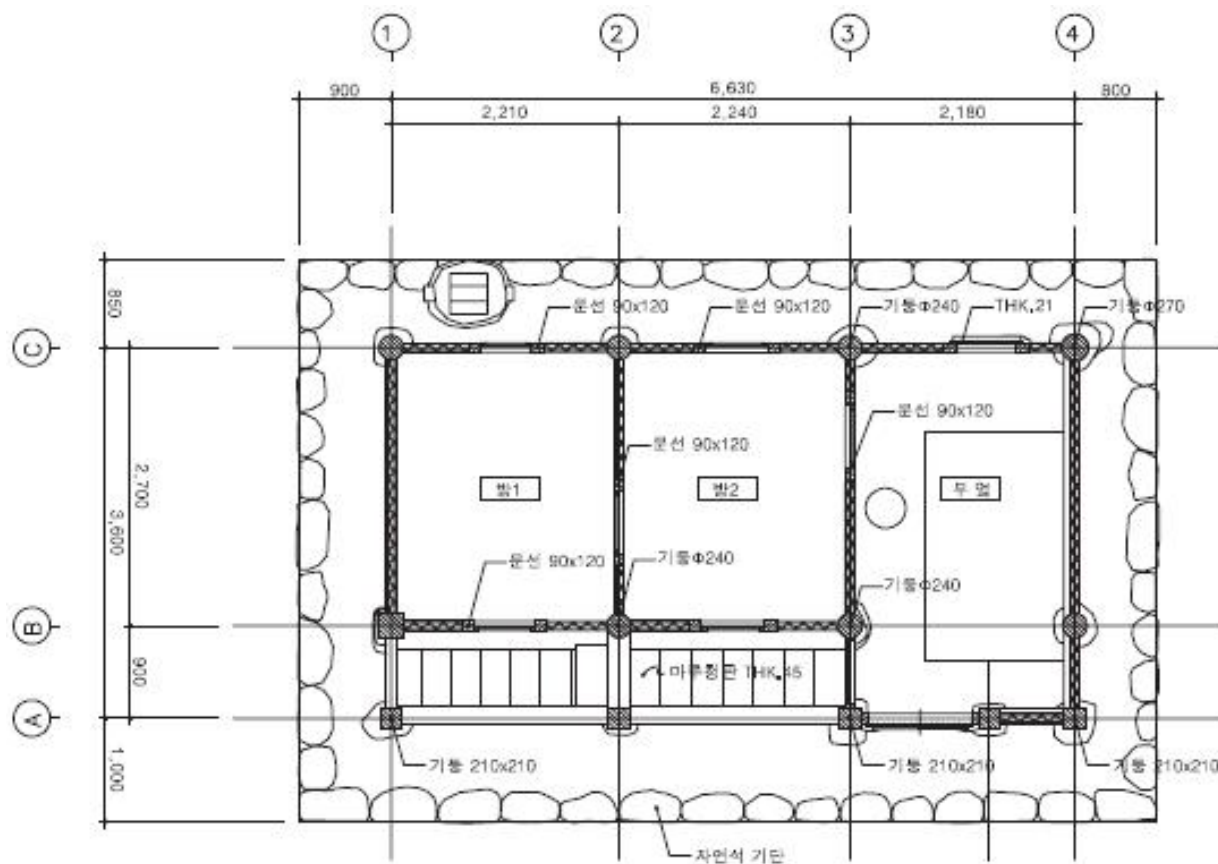


장판각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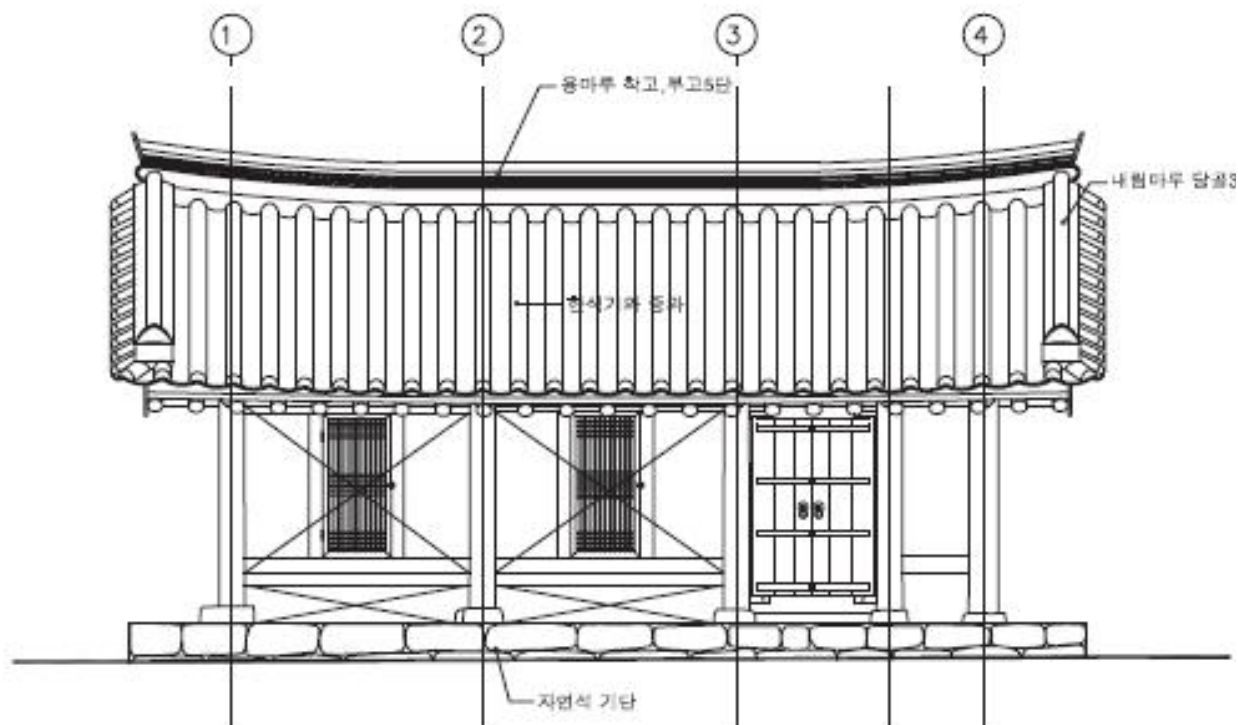


장판각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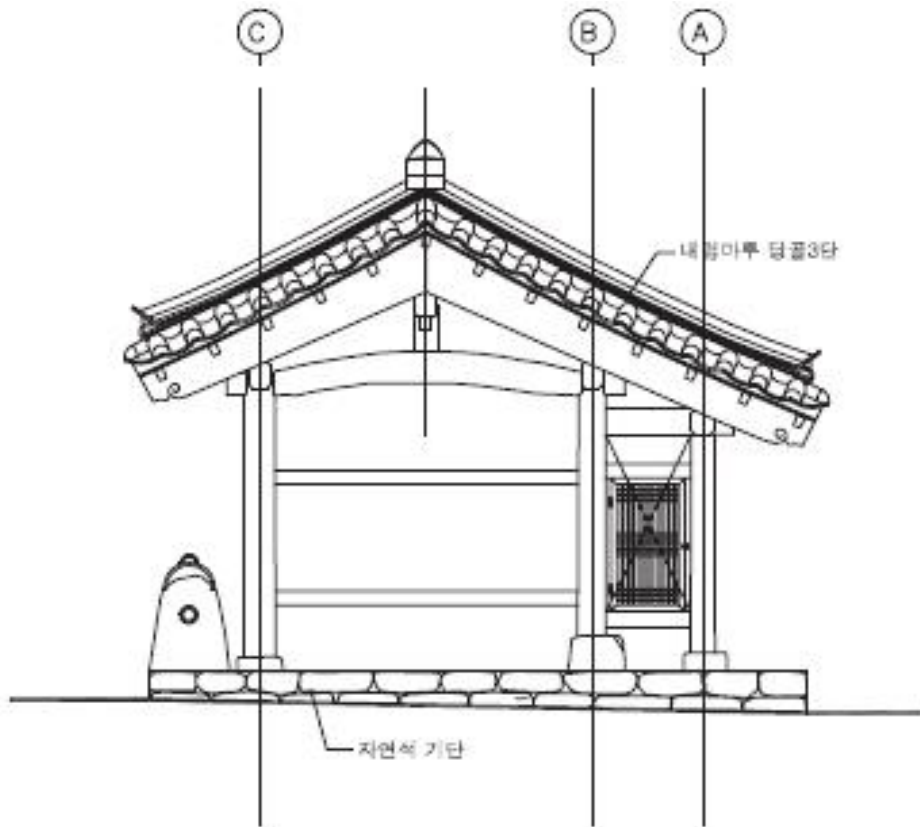
9. 한장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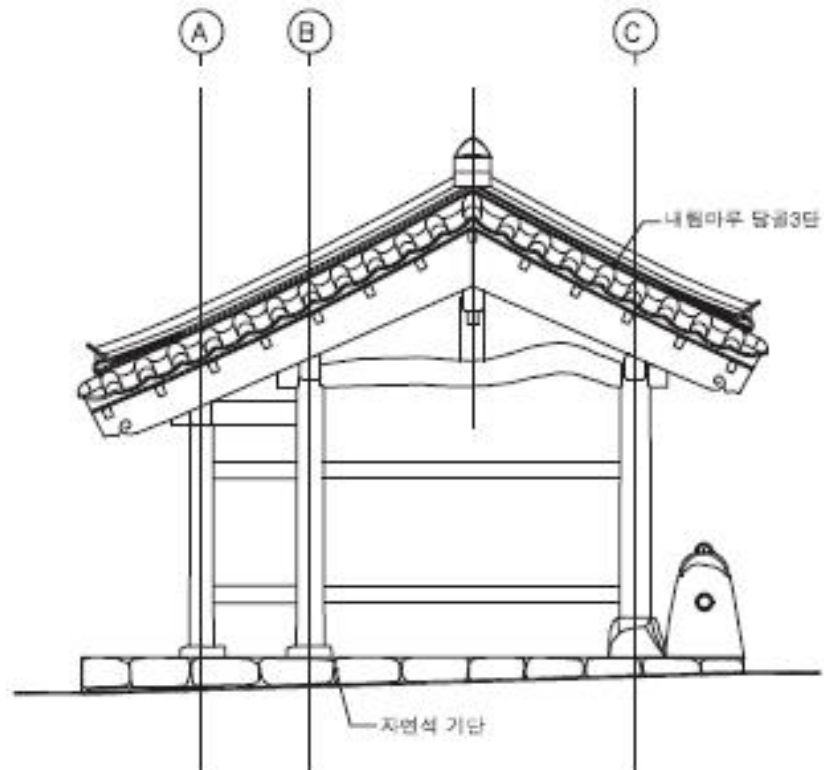
한장사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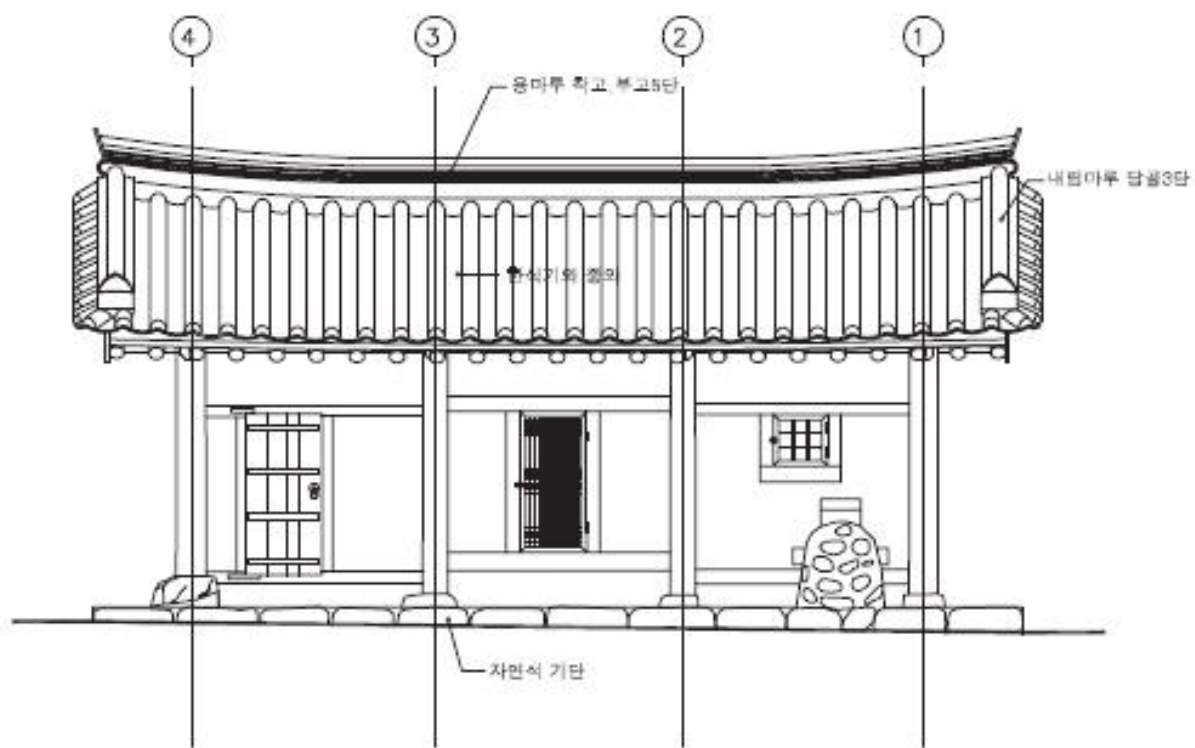
한장사 정면도



한장사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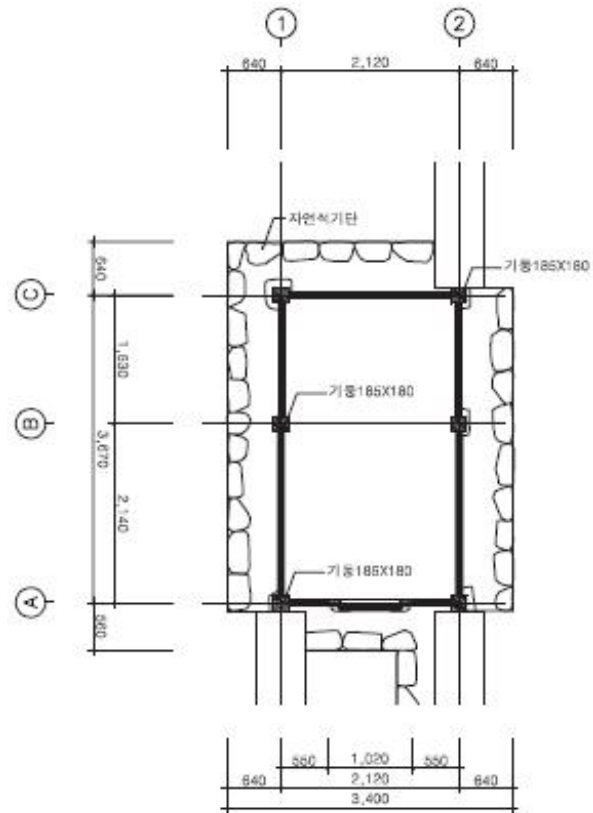


한장사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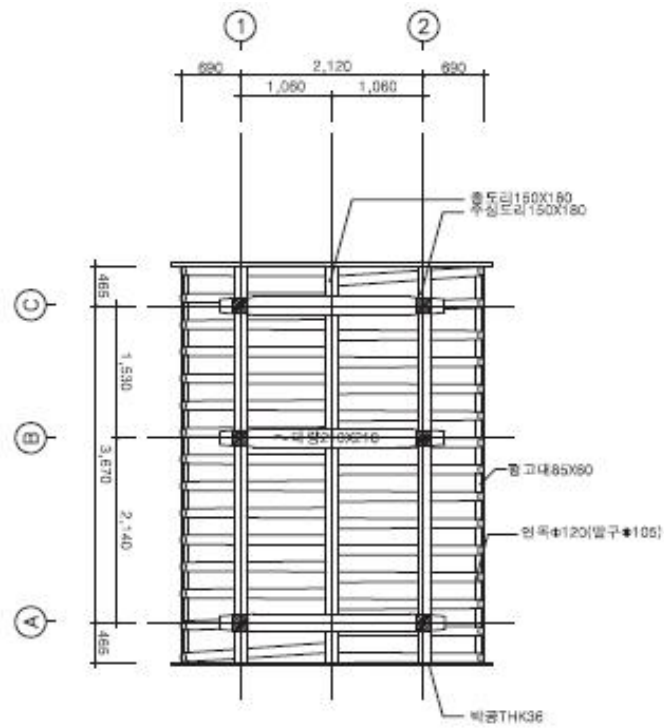


한장사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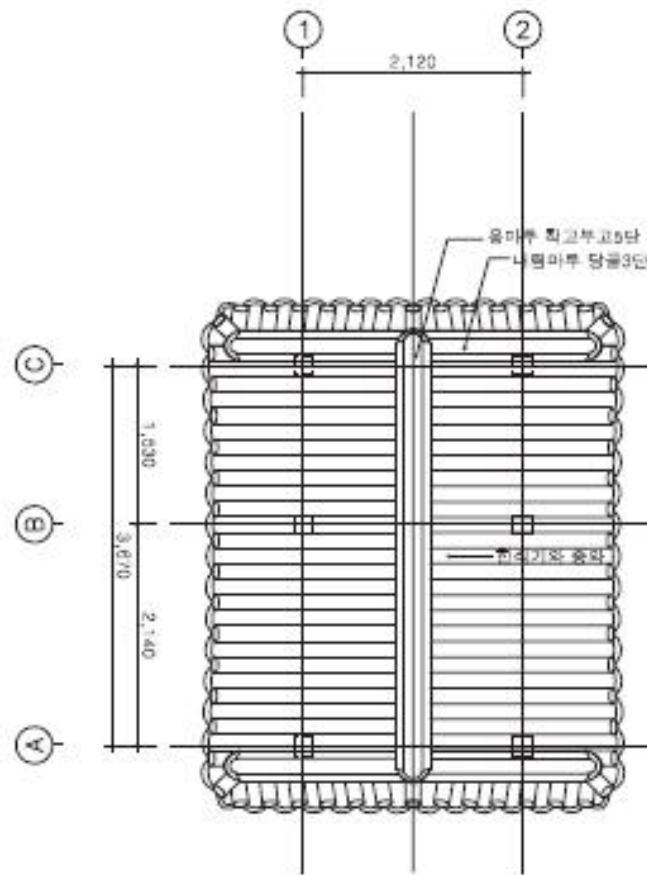
10. 전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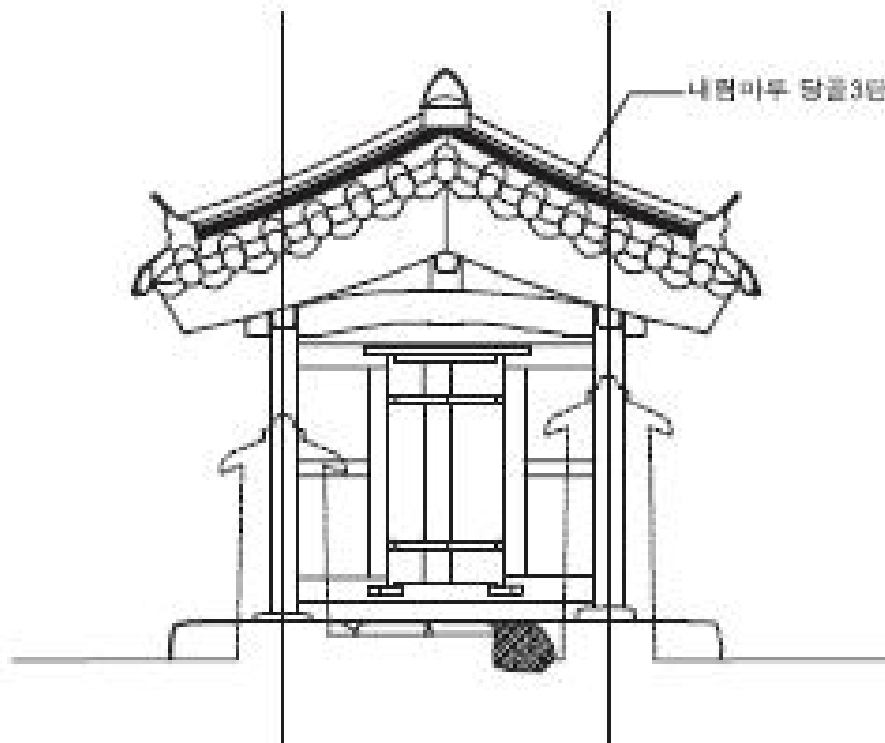
전사청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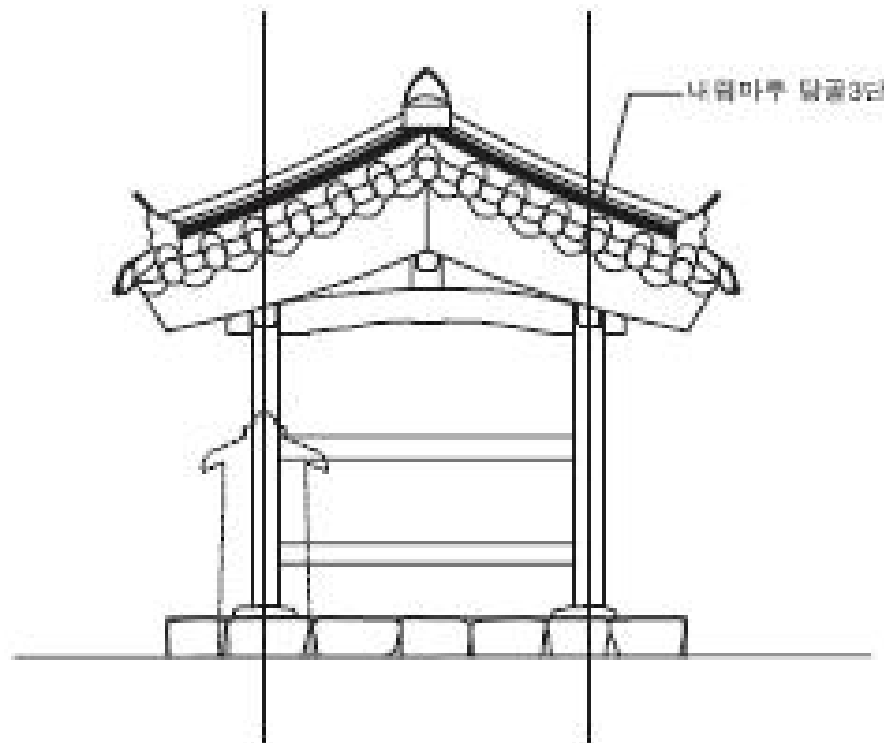
전사청 양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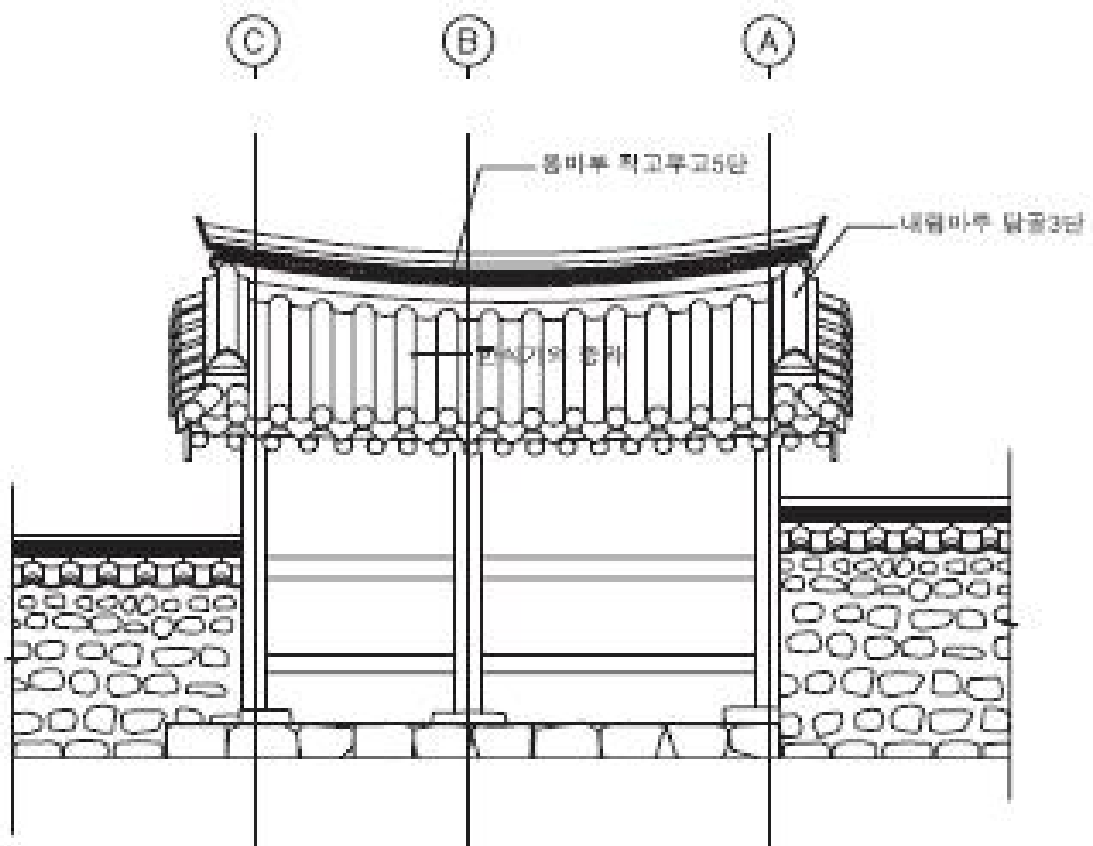
전사청 지붕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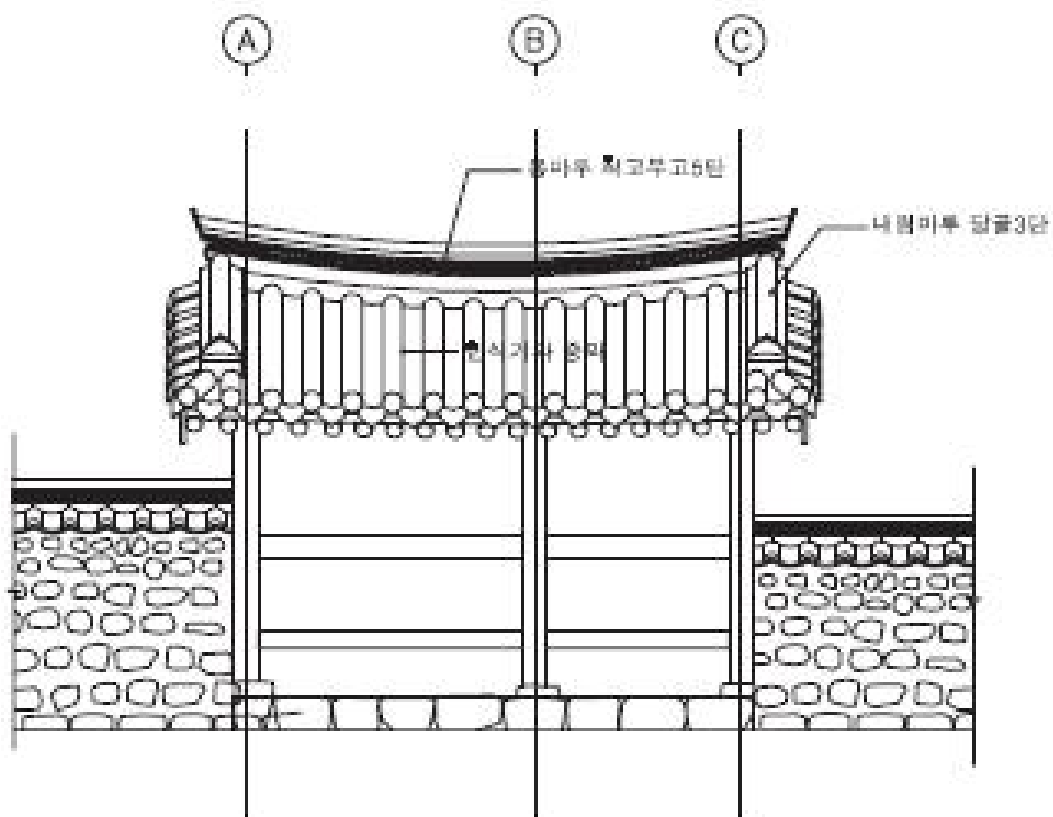
전사청 정면도



전시청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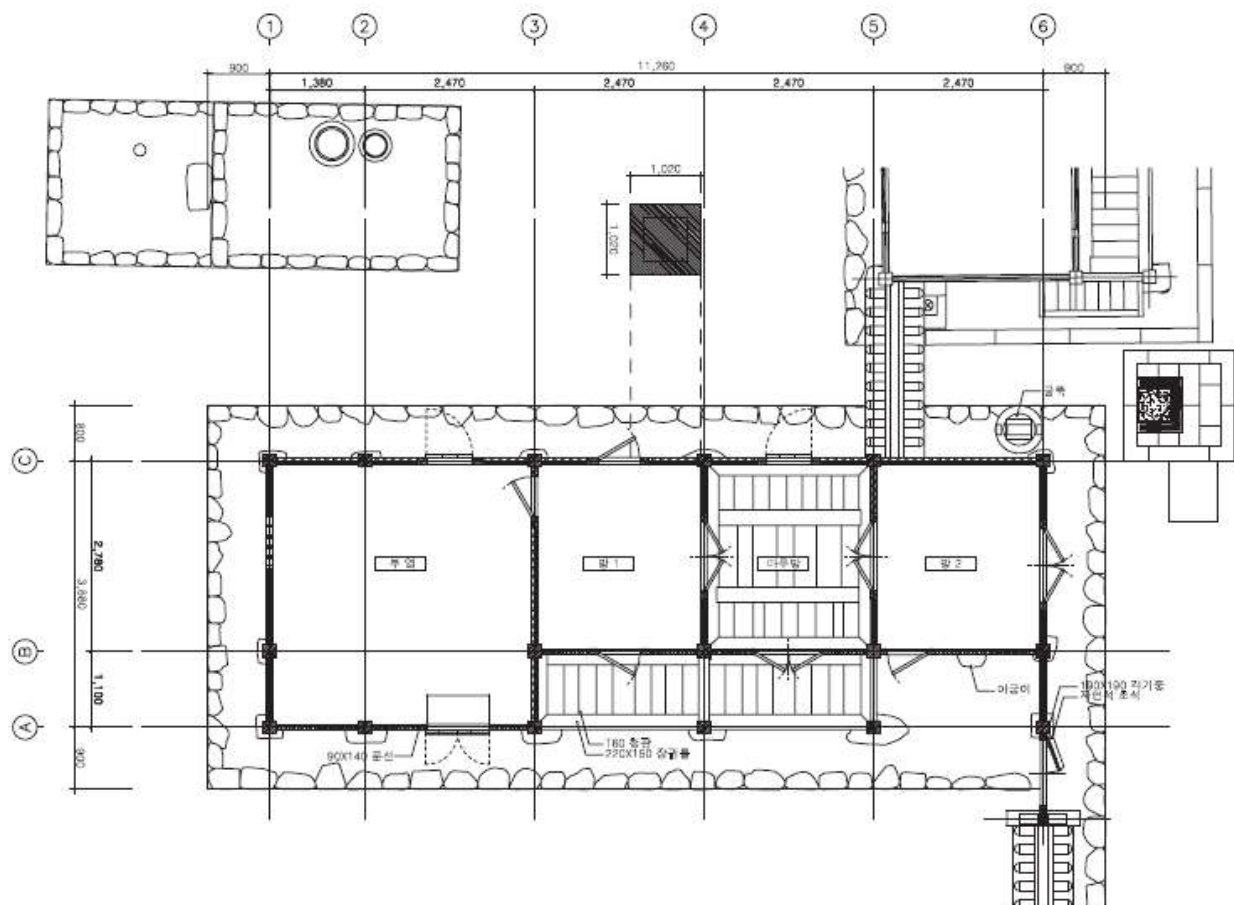


전시청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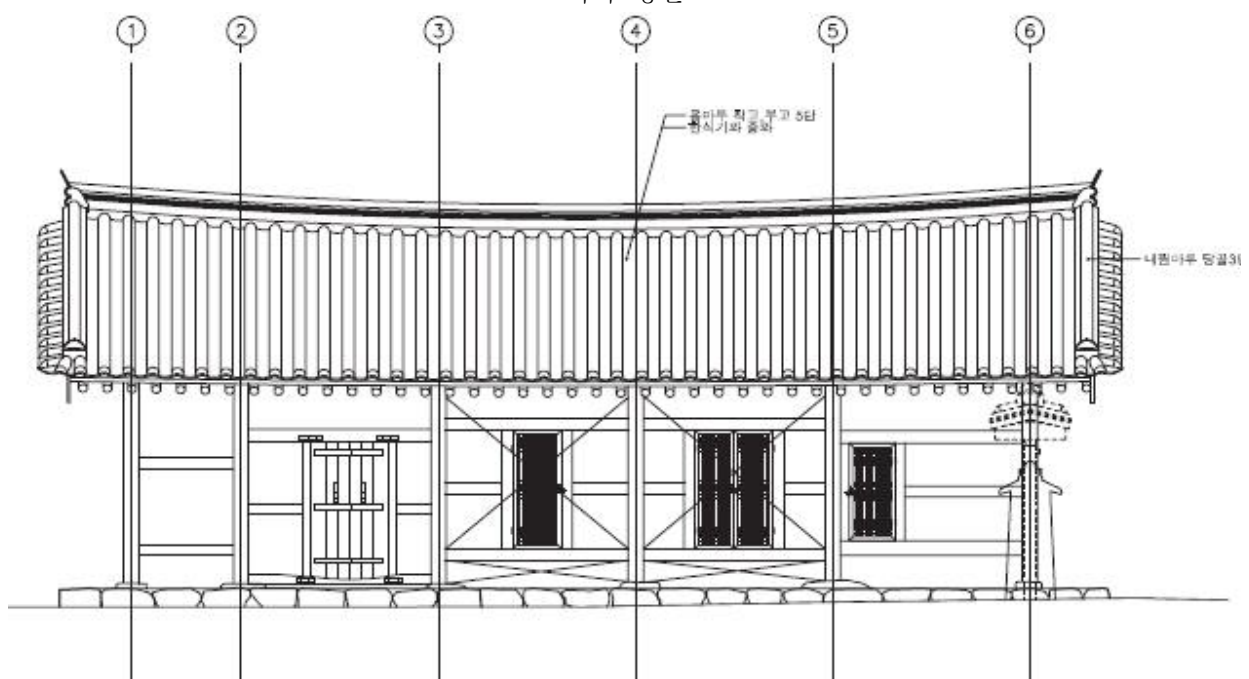


전사청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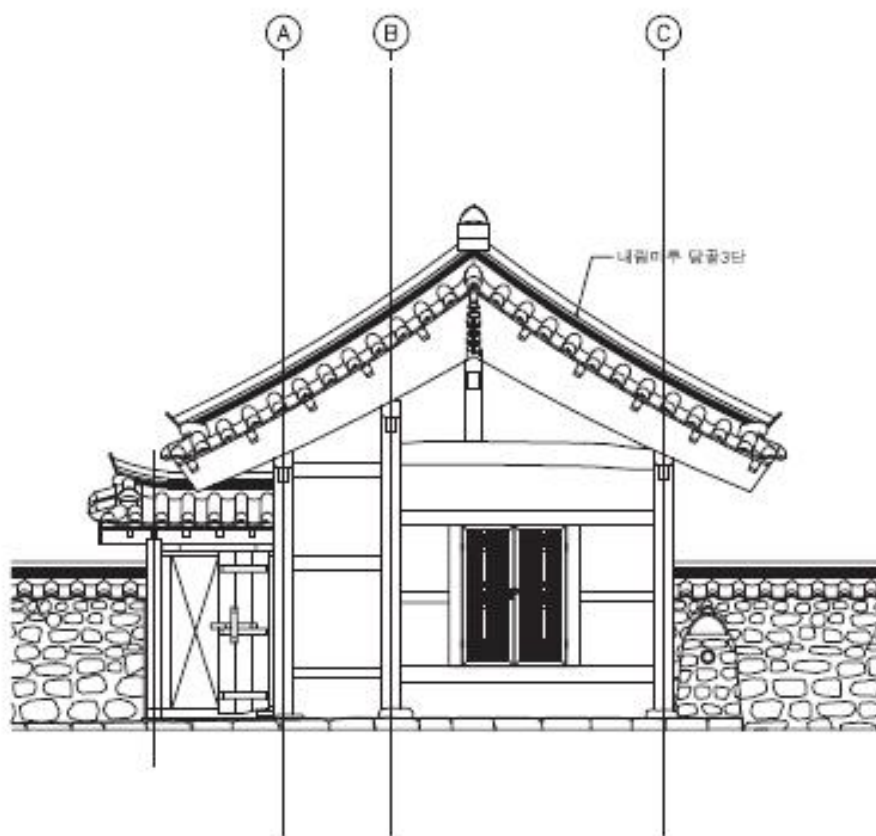
11. 고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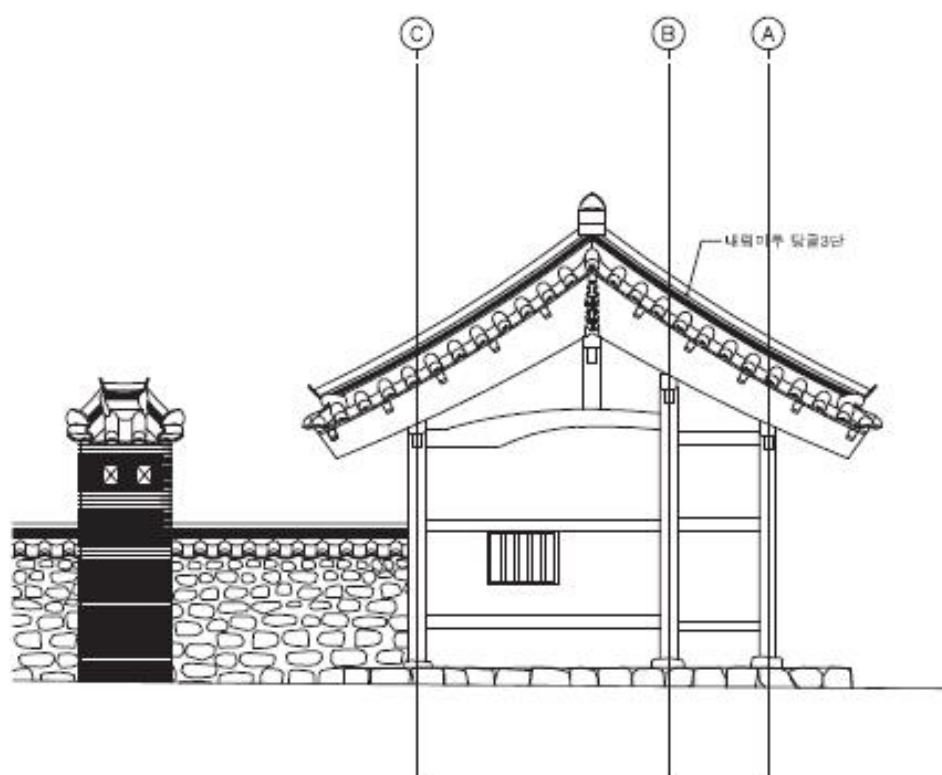
고직사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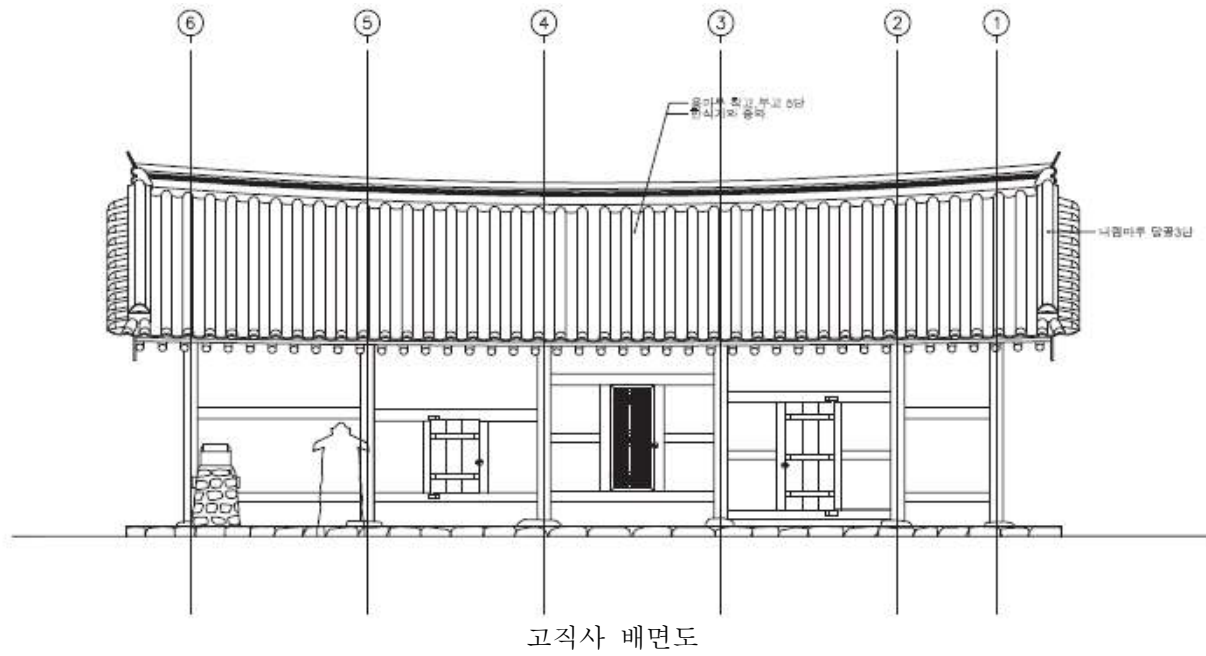
고직사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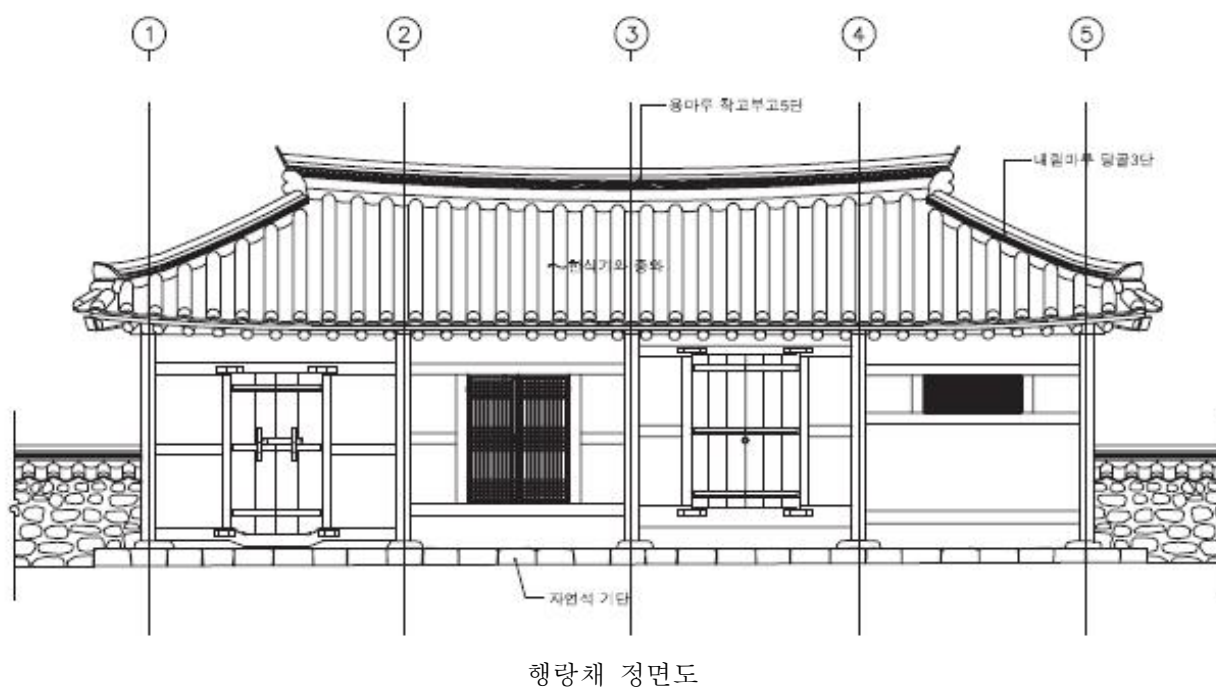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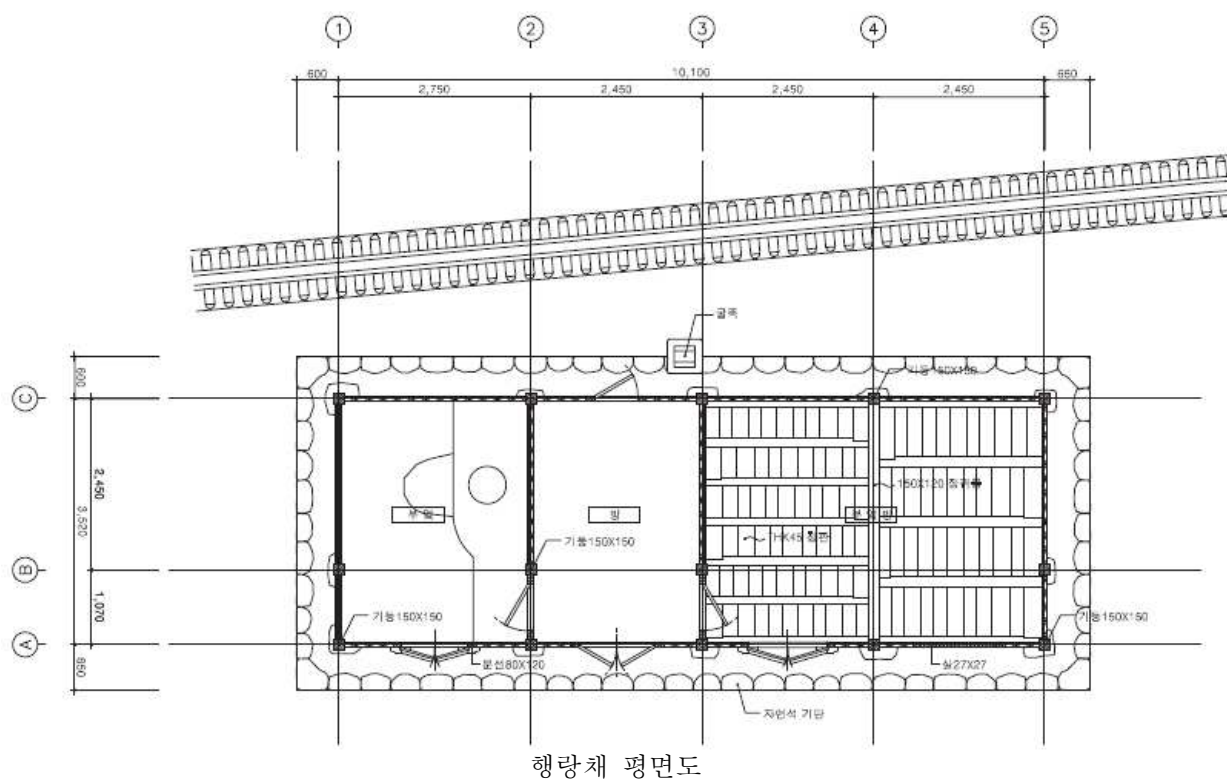
고직사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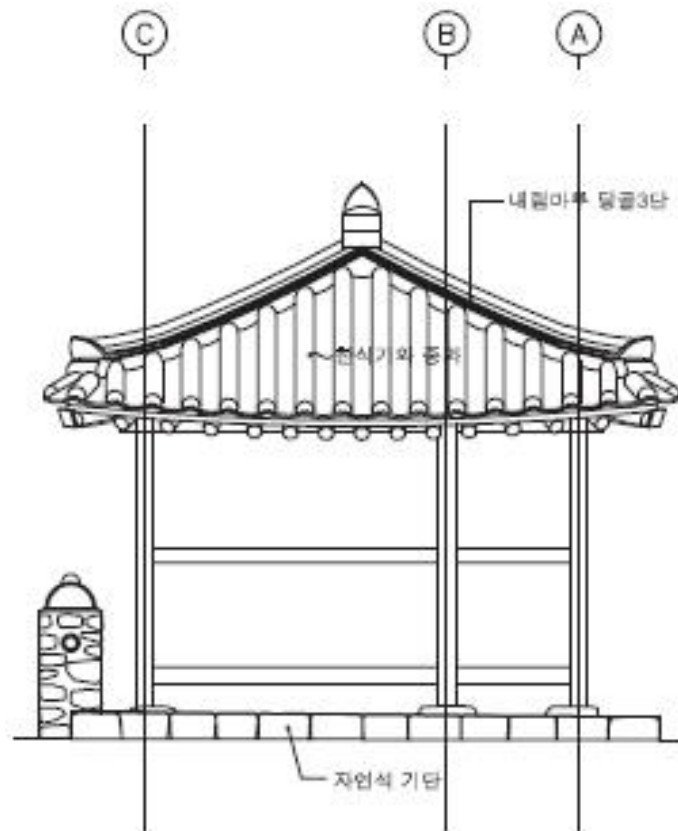


고직사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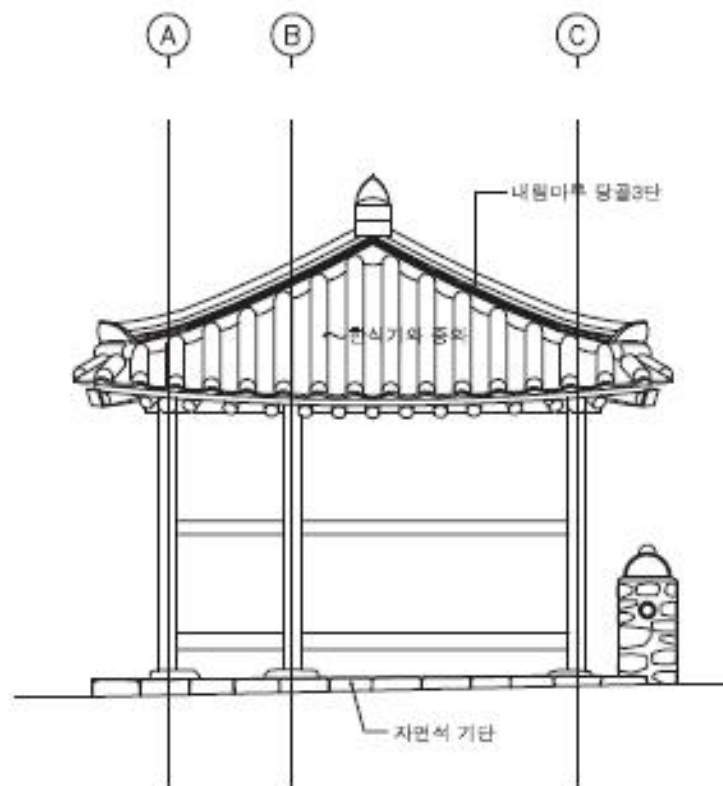


12.행랑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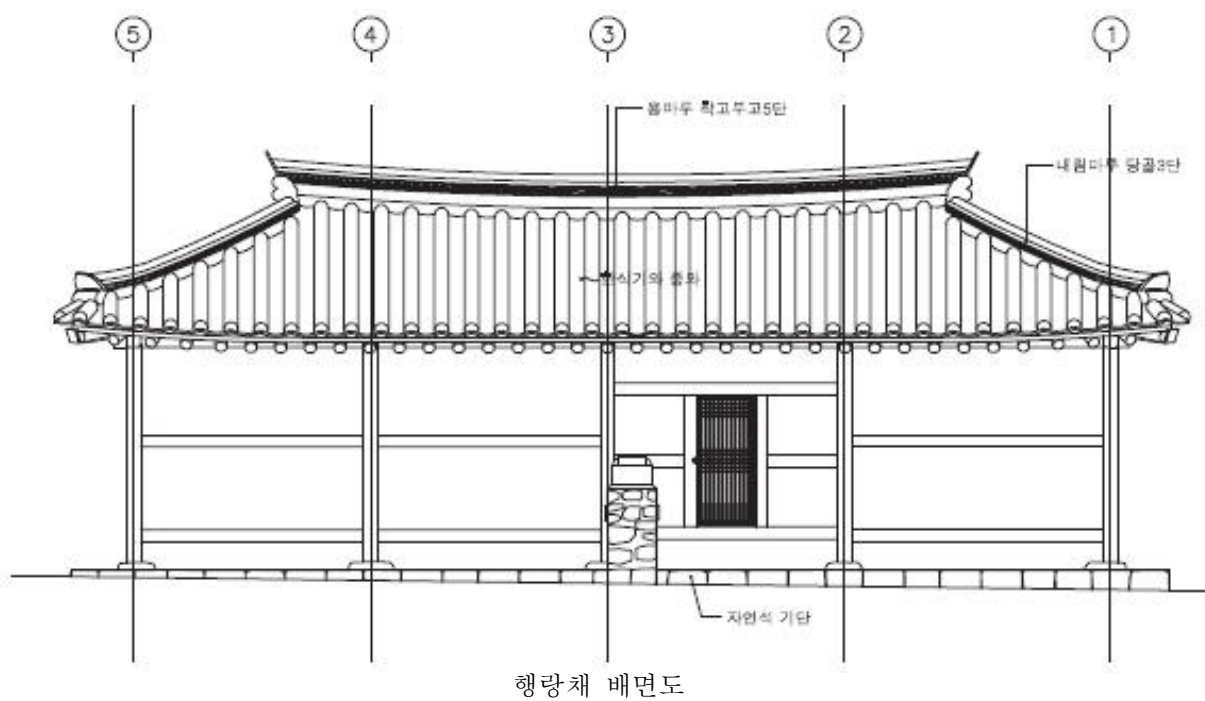




행랑채 좌측면도




행랑채 우측면도




▶ 문화재청 보고 및 자문 의견서

자 문 의 건 서

용역명	장성 필암서원 종합정비계획
일시	2015년 7월 17일
장소	문화재청 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적종합정비계획과 세계유산 등재를 고려한 정비계획 수립 - 문헌 및 고증자료를 통한 진정성과 완전성이 부합하는 정비계획 수립 - 세계 문화유산 등제신청서 확인 - 서원 연합회 자료 확인 - 서원 추진단 및 장성군청과 정보 공유 - 과거의 사진 및 도면 확보 - 필암서원 배치 및 시설물 파악 - 필암서원 전면 농경공간 고려 - 수장고 건립 관련해서는 먼저 유물전시관을 활용하여야 할 것임 - 필암서원 후면의 조망대 설치는 정자형식이 아닌 평평하게 부지를 조성하여 너무 드러나지 않도록 할 것 - 필암서원 후면의 조망공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사가 너무 가파르므로 서원 뒤쪽으로 곧바로 올라가기 보다는 서원둘레길 조성이 타당함 	
<p>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이상해 (인)</p> 	

자 문 의 견 서


용역명	장성 필암서원 종합정비계획
일시	2015년 7월 17일
장소	문화재청 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적종합정비계획과 세계유산 등재를 고려한 정비계획 수립 - 문헌 및 고증자료를 통한 진정성과 완전성이 부합하는 정비계획 수립 - 세계 문화유산 등재신청서 확인 - 서원 연합회 자료 확인 - 서원 추진단 및 장성군청과 정보 공유 - 필암서원지에 나오는 竹田(대나무밭)은 관리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조성계획에서 지양 -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테마 개발 부분에서 홍길동테마파크의 동선은 삭제 - 서원추진단에서 추진하는 활용계획 참고 <p style="text-align: right;">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이해준 (인) </p>	

○ 문화재청 중간보고회

1. 일시 : 2015. 11. 2. 14:00
2. 장소 : 문화재청 2동 207호 소회의실
3. 참석자 : 이상해 (문화재위원), 이해준 (문화재위원), 장성군 손현주,
문화재청 김한옥, 심유신, 연구소 이태형, 김대영
4. 보완사항
 - 다른 서원과 비교해서 필암서원 만의 특별한 점 및 차별성 도출
 - 관리사무소 건립의 필요성 검토
 - 서원둘레길 조성 시 실현가능성 여부 검토
 - 단계별 정비계획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1단계로 배치
 - 다른 곳과 중복, 반복을 피하고 실패를 답습하지 말라
 - 필암서원을 찾는 관광객의 유형을 분석하여 그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 환경친화적, 생태적, 인간의 심성 부분을 고려하여 힐링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여야 함
 - 확연루 전면경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 요망
 - 보존정비 이후의 활용 및 관리방안 제시 (필요인력 등)
 - 서원사무국, 전남도청 문화재위원회와 연계하여 자료 공유



자 문 의 건 서


용역명	장성 필암서원 종합정비계획
일시	2015년 11월 2일
장소	문화재청 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산루 전면경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 요망 (수목 이식 후의 시뮬레이션) - 필암서원 후면 조망공간 확보를 위한 현지답사 요망 - 보존정비 이후의 활용 및 관리방안 제시 -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확인 - 서원사무국, 전남도청 문화재위원회와 연계하여 자료 공유 - 다른 서원과 비교해서 필암서원 만의 특별한 점 및 차별성 도출 - 환경친화적, 생태적, 인간의 심성 부분을 고려하여 힐링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여야 함 	
<p style="text-align: center;">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이상해 </p>	

자 문 의 견 서

용역명	장성 필암서원 종합정비계획
일시	2015년 11월 2일
장소	문화재청 회의실

- 다른 서원과 비교해서 필암서원만의 특별한 점 및 차별성 도출
- 관리사무소 건립의 필요성 검토
- 서원둘레길 조성 시 실현가능성 여부 검토
- 단계별 정비계획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1단계로 배치
- 다른 곳과 중복, 반복을 피하고 실패를 답습하지 말라
- 필암서원을 찾는 관광객의 유형을 분석하여 그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 환경친화적, 생태적, 인간의 심성 부분을 고려하여 힐링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여야 함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이해준 (인)



○ 문화재청 최종보고회

1. 일시 : 2015. 12. 14. 11:00
2. 장소 : 문화재청 9층 소회의실
3. 참석자 : 이상해 (문화재위원), 이해준 (문화재위원), 장성군 오순교, 손현주,
문화재청 심유신, 연구소 이태형, 강재영
4. 보완사항
 - 문화해설센터 위치 중 제1안인 종합안내관 옆쪽은 지양하고, 제2안 주차장 인근과 제3안 유물 전시관 내부는 장단점 분석 요망
 - 서원 후면 마을 옛길복원은 인공적으로 조성하지 말고, 최소한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정도로 계획 (항공사진에 나타나지 않아야 함)
 - 학연루 전면 조망경관 확보를 위한 수목이식 부분은 시뮬레이션 및 도면에도 표기
 -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의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은 서원 추진단과 정보 공유 후 반영
 - 관련법규는 세계유산 운영지침 포함해서 검토
 - 필암서원을 알리는 활용방안 제시 : 문중, 유림, 주변마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평생교육관 및 유물전시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제시 및 타 서원의 성공적 활용사례 검토




자 문 의 견 서


용역명	장성 필암서원 종합정비계획
일시	2015년 12월 14일
장소	문화재청 회의실

- 서원 후면 마을 옛길복원은 인공적으로 조성하지 말고, 최소한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정도로 계획 (항공사진에 나타나지 않아야 함)
- 관련법규는 세계유산 운영지침 포함해서 검토
- 확연루 전면 조망경관 확보를 위한 수목이식 부분은 시뮬레이션 및 도면 예도 표기
-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의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은 서원 추진단과 정보 공유 후 반영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이상해 (인)



자 문 의 견 서

용역명	장성 필암서원 종합정비계획
일시	2015년 12월 14일
장소	문화재청 회의실
<p>- 문화해설센터 위치 중 제1안인 종합안내관 옆쪽은 지양하고, 제2안 주차장 인근과 제3안 유물전시관 내부는 장단점 분석 요망</p> <p>- 필암서원을 알리는 활용방안 제시 : 문중, 유림, 주변마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평생교육관 및 유물전시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제시 및 타 서원의 성공적 활용사례 검토</p> <p>- 향후 필암서원의 활용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 제시</p> <p style="text-align: right;">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이해준 (인) </p>	

- 남기숙, 「이조시대 祭器에 관한 연구 -서울 문묘와 전남 필암서원의 사례중심-」,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1972
- 이종일, 「필암서원과 하서선생의 사상」, 장성향토문화 제3집, 향토문화개발협의회 장성문화원, 1976.
- 송정현, 「필암서원 연구」, 歷史學研究 10, 全南大學校 史學會, pp133-154, 1981.
- 김상오, 「하서 김인후의 생애와 문묘종향의 경위」, 전북사학 제5집, 전북대학교사학회, 1981.
- 변시연, 「하서선생과 필암서원」, <상서> 4, 1982.
- 정제도 『산절로수절로(하서 김인후 약전)』, 하서출판사, 1982.
- 류정동, 「하서 김인후의 天命圖에 관하여」, 동방사상론고, 유승국박사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1983.
- 이상보, 「하서 김인후의 국문학 연구」, 어문학 제3집,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1984.
- 김상일, 「하서선생약사」, 전남대학교출판부, 1984.
- 國寶 12-書藝·典籍-(千惠鳳 編, 藝耕産業社, 1985.
- 정익섭, 「호남가단에서의 하서 김인후의 위치」, 동양학 제17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87.
- 목포대학박물관·전라남도, 「전남의 서원·사우·사액서원·사우편-」, 1988.
- 오병무, 「하서 김인후의 성리철학과 異端·異說에 대한 그의 비판」, 전라문화연구 3, 전북향토문화연, 1988.
- 박준규, 「하서 김인후와 그의 시문학」, 어문논총 9, 전남대어학연구소, 1989
- 안승준, 「1745·6년의 필암서원」 노비보(奴婢譜)」, <고문서연구> 4-1, 1993.
- 장성군, 「(國譯)河西全集. 上, 中, 下 / 金麟厚 [著]; 筆巖書院 [編]」, 1993.
- 한국문화유산답사회 저, 『답사여행의 길잡이 5』, 돌베개, 1995.
- 전형택, 「조선후기 필암서원의 경제기반과 재정」, <역사학연구> 11. 1997.
- 박래호, 「河西 金麟厚先生의 官職生活과 文廟從享의 經緯」, 향토문화 제16집, 향토문화개발협의회, 1997.
- 송일기, 『全南 書院의 木板』, 전남대학교 문헌정보연구소, 1998.
- 趙想淳, 「필암서원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1998.2.
- 趙相淳 ; 李相海, 「筆巖書院의 建築 變遷過程에 關한 研究」, 건축역사연구. 제7권 제2호 통권15호, pp.63-76, 韓國建築歷史學會, 1998.6.s
- 조상순, 「筆巖書院 研究 : 필암서원지 해석을 중심으로」, 文化財. 31, pp.155-181, 文化財管理局, 1998.12.
- 김상협, 「조선시대 서원건축에 나타난 유식공간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2000.
- 문화콘텐츠닷컴 (문화원형백과 전통건축과 장소), 한국콘텐츠진흥원, 2002.
- 백승중 『대숲에 앉아 천명도를 그리네』, 돌베개, 2003.
- 허이중, 「하서 김인후의 시문학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2004.2.
- 이호일 저, 『조선의 서원』, 가람기획, 2006.
- 김덕진, 「양자정의 학구당 건립과 필암서원 배향」, 남도문화연구 12,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 2006.12.
- 권정우, 「河西 金麟厚와 筆巖書院」 국립광주박물관, 2007.
- 고영진, 「호남사림의 학맥과 사상」 해안, 2007.
- 『2007 특별전 VI 하서 김인후와 필암서원』, 국립광주박물관, 2007.

- 김인후 『(하서 세상으로 나오다)하서 김인후와 필암서원』, 그래픽네트, 2007.
- 김덕진, 「소쇄원 사람들 : 소쇄원을 통해 본 16-17세기 호남의 역사」, 서울 다[할]미디어, 2007.
- 정화현, 「문화재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관광활용방안 : 장성 필암서원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관광대학원, 2008.8.
- 문숙자, 「조선후기 노비 家系와 婢 : 筆巖書院 <奴婢譜>의 분석을 통하여」, 여성과 역사. 제11집, pp.133-166, 한국여성사학회, 2009.12.30.
- 최정규 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국내여행 1001』, 마로니에북스, 2010.
- 이원호, 「장성 筆巖書院의 식재현황과 정비방안」, 한국전통조경학회지 제29권 제1호 통권 제75호, pp.131-141, 2011.3.31.
- 金永弼, 宋蕙英, 「하서 김인후 종합 학술조사 보고서」, 全南文化財研究院 ; 장성군, 2012.
- 고경수, 「서원건축의 터잡기 및 배치에 관한 풍수지리적 고찰 : 道東書院과 筆巖書院을 중심으로」, 白岳論叢. 第6輯 (2012年), pp.349-375, 동방대학원대학교 출판부, 2012.02.28.
- 김덕현, 「서원 기문 및 금석·석각자료 정리현황과 과제」, 제2차 서원 전문가 워크숍, 2012. 4. 18.
- 김정수, 「풍수이론을 적용한 필암서원의 건립에 관한 연구」, 연구논문집. 제47집, pp.163-178, 2012.12.
- 이수환, 「서원 기록자료 정리의 현황과 과제」, 民族文化論叢 제52집 (2012. 12), pp.423-447,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2012.12.30.
-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원향사 : 무성서원·필암서원 / 글: 김경선, 김희태, 이해준, 최순권, 이명진, 안경희 ; 사진: 양현모, 최호식」, 2013.
- 고경수, 「조선후기 서원의 입지 분석 및 배치에 관한 풍수지리적 고찰 : 국가 문화재 지정 9개 서원을 중심으로」, 동방대학원대학교, 2013.2.
- 한국전통조경학회, 「경관적 재구성을 통한 '장성 필암서원' 경관짜임의 讀解 / 노재현, 허준, 최종희」, 제32권 제2호 통권 제88호, pp.42-54, 2014.3.
- 한국의 서원 - 세계유산등재신청서, 대한민국 2015
- 이기동, 「河西 김인후의 삶과 철학」, 韓國思想과 文化 77집, pp.257-280, 수덕문화사, 2015.03.31.

I .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2. 계획의 범위 및 방법
3. 계획의 수행과정



Ⅱ. 일반현황

1. 전라남도 및 장성군 일반현황
2. 관련계획 및 법규



Ⅲ. 필암서원의 현황

1. 조선시대 서원과 서원건축
2. 한국 서원의 공간 및 건축적 특징
3. 서원현황
4. 관리현황
5. 활용현황



IV. 기본구상

1. 정비 기본방향
2. 정비 기본구상



V. 종합정비계획

1. 서원정비계획
2. 시설물정비계획
3. 경관정비계획
4.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테마 개발



VI. 서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1. 서원관리계획
2. 보존관리의 실행체제
3. 관리현황 종합
4. 활용계획
5. 홍보방안



VII. 사업 추진 계획

1. 사업 추진 방향
2. 사업 투자 계획



부 록

1. 사적 종합정비계획 수립 지침
2. 건축물 도면자료
3. 문화재청 보고 및 자문 의견서

